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化에 作 号似





광자·전남 학생산악연맹

化明 治 学

Student Alpine Federation

Gwangju Jeonnam

50th Anniversary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化에서特号被



이 책을 50여 년 간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발전을 위해 온 젊음과 열정을 바쳐 헌신하신 모든 학산 산우께 바칩니다.





푸른 산 하얀 산

김 현 곤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고문, 시인

입석대를, 서석대를 향해 지왕봉을, 천왕봉을 향해 토끼가 잰걸음 치듯 그렇게 무등산을 오르곤 했었다. 어느새는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대학을 졸업하고
OB가 되면서부터는
이 푸른 산들을 뒤에 남기고
저 하얀 산들을
꿈꾸었다.
마침내 도전하였다.

오직 머나 멀리 눈 덮인 채 아스라한 첨봉들… 그리고 푸른 하늘 아래 아찔 아찔한 크레바스들 또 야수 같은 바람…

광수·선남학생산악연맹5 0 년 사

とうける

내리는 길에 때로는 그 어여쁜 허나 안쓰러운 꽃들과 눈도 맞췄다.

어언 쉰셋. 우리 학생 산악 연맹의 이 지천명(知天命)을 자축한다. 더욱 자라라. 만세토록 자라라.

푸른 산 하얀 산
그 드넓은 품안을 향해
목청을 돋우어라.
어머니를 외쳐라.

산들아 잘 있느냐. 우리가 간다. 그대들이 거기 있어 품안으로 달려간다. 정수리로 뛰어간다.

발간사



김 경 자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장

학산, 학산인 그리고 50년

호남 알피니즘의 산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 창립된 지 어언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1962년 등산문화 보급과 순수 알피니즘의 명제를 제시한 이래 우리 학산은 8천 미터 14좌를 완등하고 국내 최고의 산악인들을 배출하면서 명실 공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악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숱한 영광과 좌절, 희생이 점철됐으며 오세근 선배부터 최근 박행수 후배까지 일곱 분이 히말라야 고산을 등반하다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선 50년사 발간의 영광을 선배님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故 정순택 선배님을 비롯해 이미 고인이 되신 선배님들, 칠순의 나이에도 현역처럼 활동하고 계신 김훈봉, 김상문 선배님 등 일일이 거명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선배님들이 학산 태동의 주역이면서 학산의 오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 학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등산학교를 열어 이 지역 20여개 대학산 악부가 창립,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기라성 같은 산악인을 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산과 학산인이라는 영원한 고향이자 구심점이 마련됐으며, 특히 89/90 동계에베레스트 원정을 출범시켜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지역에 알피니즘의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희생과 봉사, 공동체문화, 무상의 도전 등 우리 학산인만의 순수 알피니즘 은 등산이 상업화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의 자존심이자 소중한 존재가치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산은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산과 학산인이라는 자랑스러운 명함은 구시대의 유산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안자일렌 정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극지법 정신, 선배에게는 복 종하고 후배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아름다운 기수문화 등 학산의 정신은 스포츠화 되고 상품화 되어가는 등산세태에 설자리를 잃은 듯 보입니다.

20여 개에 달했던 대학산악부는 현재 재학생 감소와 신입생 확보문제로 6-7개 학교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등산학교 입교생도 줄어들어 등산학교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다 어렵고 보다 다양한 길을 택하려는 알피니즘 정신이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한 길을 택하려는 자본주의 속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 대학산악부는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0년대 학산의 태동기, 70-80년대 학산의 전성기, 90년대 학산의 황금기를 거쳐 2천 년대 이후 학산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등산학교 강사들은 고령화 됐으며 90년대 이후 학번들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89/90의 전설들도 과거의 열정을 간직한 채 자리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80~90년대 초반 학산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주역 몇 명이 간신히 자리를 지키고 희생하며 명 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학산은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등산은 시작되듯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학산의 부활 과 부흥을 통해 새로운 50년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 초 우리의 역사이자 자랑인 광주·전남 등산학교를 사단법인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전문알피니스트 양성은 물론 일반 시민과 청소년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학산의 활로를 모색하고 극 기와 도전이라는 알피니즘 정신을 사회철학으로 승화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출범 후 올해 처음 치러진 등산학교에는 초·중·고생이 15명이나 참가해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청소년산악인 육성은 학산의 정체성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대학산악부 부활의 청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학산인의 한마당뿐이었던 선·후배 만남의 장을 분기별 학산OB친목산행 등으로 확대하고 각 단위산악회별로 진행했던 신입생 모집도 학산 주최로 합동모집 하는 등 YB·OB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산의 지난 50년을 빛내주신 선·후배님!

학산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학산의 정신을 간직하고 계신 선·후배님!

50년을 넘어 100년으로 가는 광주·전남 학산을 위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앞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50년은 분명 학산인이라는 이름자체가 명예의 사표로 우뚝 설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50년사가 발간되기까지 2년 여에 걸쳐 혼신의 열정을 다하신 김용욱 위원장과 편집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윤 장 현 광주광역시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악 선·후배님 여러분!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62년 우리 광주·전남지역 대학 산악회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설립된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은 반세기 동안 고등부, 대학YB, 대학OB산악회를 중심으로 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집념으로 우리 산악인들의 드높은 기상을 온 국민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1979년 지리산에서 시작하여 올해로 36년째를 맞이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광주·전남등산학교는 세계적인 우수한 산악인과 지도자를 배출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가는 전문등산교육 명문학교로 발전하였으며, 그동안 후배산악인 양성을 위해 봉사 희생하신 임원과 선·후배님들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선·후배님들이 1980년대 후반 '무 등산을 살리자'는 슬로건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역경을 딛고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산에서의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아무데서나 취사 야영 금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등은 자연보호운동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히말라야 8,000m봉 이상 14좌를 1988년 임형칠 대장의 로체봉 (8,516M) 한국초등을 시작으로 2013년 김홍빈 대장이 캉첸중가봉(8,586M)을 등정함으로써 완등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김미곤 대장은 금번 7월



23일 브로드피크봉 등정으로 12봉을 등정하였고, 9월25일 마나슬루봉을 등정한 김홍빈 대장은 장애우로 나관주대장과 함께 세계 최초 9봉째를 등정하여 세계적인 훌륭한 산악인으로 대한민국의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산악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산악인들의 저력과 힘을 온 국민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그동안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영광이 있기까지는 우리 산악 동지들에게 많은 시련과 가슴 속에 묻어둔 아픔이 있었습니다. 1972년 마나슬루봉 故 오세근님, 1990년 낭가파르밧봉 서벽 故 정성백님, 1995년 브로드피크봉 故 박현재님, 1999년 캉첸중가봉 故 한도규님, 2007년 에베레스트봉 남서벽 故 이현조님, 2013년 캉첸중가봉 故 박남수님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났습니다.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던 불멸의 산악정신과 의지로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먼저 가신 선배 산악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 발전해왔다고 확신하며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일깨워 준 그분들의 높은 산악정신과 기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산악인들은 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이 대자연을 우리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의 권리를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를 사랑 하면서 자연을 가꾸고 난개발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악 선 · 후배님 여러분!

위대한 광주시민은 지난 6 · 14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시민시장 윤장현'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산악인 출신으로서 21세기 시민의 시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광주 시민의 뜻에 따라 '사람중심 생명도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당당하고 풍요로운 광주를 이루겠습니다.' 위대한 광주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산악선 · 후배제현께서도 산을 사랑하는 열정과 희생정신 그리고 높은 혜안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생 발전과 시 · 도민의 행복을 위해 나누어 주시길 앙망합니다.

다시 한 번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광주·전남 학생산 악연맹과 산악인 가족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휘 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희생과 봉사의 50년, 시민사회운동의 모범

1962년 창립해 우리지역 산악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이끌어온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50년사 발간을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고등부와 대학부를 주축으로 창립된 초창기의 '학생산악연맹'은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호연지기를 연마하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연마하는 도량으로서 의 구실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특히 1979년에 개교한 '광주·전남등산학교'는 36년 여 동안 3,300여 명에 이르는 교육생을 배출해 세계적인 알피니스트들을 길러냈습니다. 극기를 요구하는 등산학교 과정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심을 키워주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도전정신을 기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등산학교'가 지향하는 희생과 봉사의 공동체정신은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희망·상생의 광주 교육 목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 산이 주는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등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건강한 등산문화를 통한 심신연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대해 큰 성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순수 알피니스트들이 세계적으로 유



별난 무등산사랑운동, 환경운동, 녹색운동 등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온 시민사회단체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산악인들이 건전한 산악활동을 통해 얻은 건강한 정신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산악인들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이번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임원님들과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2014. 10. 1



이 낙 연 전라남도지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산을 오른다는 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겨내기 위한 극기의 산행도 있을 것이고, 그냥 보고 즐기기 위한 산행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이든 산악을 위한 모임이 50년 동안 꾸준히 활동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지역 산악문화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애써 오신 산악연맹의 원로 산악인과 임원진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전남이 마치 높고 험한 산을 오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동 안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만큼이나 어려운 산행이 될 것입니다. 정상이 언제 나올지 모를 정도로 머나먼 길이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급하다고 해서 산을 뛰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렇게 하다가는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쉽게 지칠뿐더러 크게 다칠 수도 있 습니다.

저는 각 분야에서 도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들과 함께 천천히 한 발짝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보이지 않던 정상이 눈앞에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원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동료 산악인들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인격과 지혜와 우정을 차곡차곡 쌓아 마침내 삶의 정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거듭 '광주·전남 학생 산악연맹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장 만 채 전라남도 교육감

교육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지역과 국가의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힘써주시길…

장마가 끝나고 또 비가 지루하게 오는 이상기후 속에서 오랜만에 푸르고 높은 가을하늘을 보게 되니 마음속 상쾌함이 더합니다. 이렇게 계절은 어느새 가을을 맞이하며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과 더불어 우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 지난 역사의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50년사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우리나라 산악의 역사를 빛낸 그 50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어 오신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전남의 산악운동은 해방이후 가슴 아픈 이념 대립의 장으로 입산이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과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하여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의 산악행사가 경북 학생산악연맹에 의해 대구에서 먼저 '60km극복 등행대회'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에서는 매년 선수단을 파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악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되었습니다.

우리 산악인들은 큰 행사를 빼앗겼다는 것이 아닌 먼저 시작해줘 고맙다는 마음 으로 지역주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60km의 험난한 구간을 역주하며 끈기와 투지



력,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역사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악인의 특성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에서는 이런 정신들을 매년 등산학교를 통해 나눠 주었습니다. 작게는 산악인 양성이지만 크게는 바로 우리 광주·전남의 인재를 양성하였고 대한민국의 인재를 길러 내 었습니다. 산은 과학기술이 아닌 인간 활동의 문화적 부분이기에 인문학의 영역입니다. 등산을 한 다는 것은 인문학적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없는 등산은 빈약하고 초라 합니다.

우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은 히말라야 등지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산악운동의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역사를 50년사 발간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학술적 책무까지 모두 해내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와 전통, 문화도 없다고 합니다. 금번 등산 50년사의 발간은 우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원들께서 등산을 통해 기른 풍부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전통과 문화를 이루어 회원 각자 전문분야에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며 지역과 산악문화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대기업 공채에서는 인재를 선발할 때 인문학적 소양과 역사의식을 시험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은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초기 우리지역 인재들을 인문학적 길로 인도하는 우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을 통해 우리는 모두 교육 가족입니다. 우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 교육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지역과 국가의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주년과 50년사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미래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더욱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인 정** (사)대한산악연맹 회장

끊임없는 도전으로 더욱 발전하는 학생산악연맹이 되기를…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창립 53주년과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학생 산악운동이 오랜 세월동안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학생 산악인들이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학문적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은 1962년 창립 이래 광주·전남 산악운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산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9년 설립하여 36년간 이어져 내려온 광주·전남등산학교는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큰 자랑이자 대한민국 차세대 산악인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은 제14회 대한민국 산악상 등산교육상을 수상하였으며,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출신 산악인들의 염원이었던 히말라야 8,000m이상 14개 봉우리를 회원 모두의힘을 모아 완등한 뜻 깊은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반세기의 역사를 집대성한 이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통해 선배 산악인들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기억하고, 더욱 발전하는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임 승 진 (사)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 회장직무대행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선후배 여러분!

1962년 창립한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이 올해로 52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를 발간하게 됨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사회경제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웠던 60년대 초.

열정과 패기만으로 산을 찾으며 오로지 산에서 삶의 가치를 찾았던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동한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이 그동안의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선배에 대한 존경심, 동료간의우정 그리고 후배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979년 "광주·전남등산학교"가 개교되어, 무등산, 월출산,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등지에서 매해 동, 하계에 걸쳐 이 지역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대상을 확대시키고 전문적인 산악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립시켜 겸손과 극기를 심어주는 등 35년여를 한해도 거르지 않고 산악정신과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아탑이 아니지만 젊은이들에게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과 봉사를 스스로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한 산악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함은 물론이요, 진정한 산의 문화와 예절을 전달하는 훌륭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1971년 최창돈 선배님과 1972년 故 오세근 선배님의 히말라야에 대한 도전을 시작으로 2014년 김홍빈,김미곤,나관주 악우로 이어지는 14좌 완등을 위한 계속되는 등정은 이 지역 산악인 들의 귀감이자 자긍심을 한껏 높여 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우인 김홍빈 회원의 7대륙 최고봉 및 진행 중인 히말라야9좌 등정은 자라나는 청소년 들에게 "꿈,희망,열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히말라야발 희망 전도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대단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정신을 키우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라성 같은 산악인을 배출하는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은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선망의 대상이라 생각하며, 이는 오직 선후배들 간의 끈끈한 산악정신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광주·전남은 무등, 월출, 지리산 등 5곳의 국립공원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21곳의 국립 공원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훌륭한 자연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천혜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이 지금까지 훌륭히 해 왔으며 앞으로 도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이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세계적인 자원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이처럼 산악문화를 전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세계적인 산악인을 배출시키는 산실로서, 그리고 이지역의 자연과환경을 보존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온 50년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광범위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하여 이 시대 산악의 역사와 문화를 함축시키는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 현** (사)대한산악연맹 전라남도연맹 회장

영원히 지속되는 학생산악활동을 이어나가길…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지난 50여 년의 산악활동을 정리하고 돌이켜 보는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962년 창립이래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은 등산학교 교육을 통해 후배 산악인을 양성하여 지역 산악계를 선도해왔으며 수많은 해외원정등반을 통해 지역 산악인들에게 알피니즘을 고양시키는 등 이 지역 산악문화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산악부를 주축으로 하는 학생산악연맹 출신 산악인들의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이러한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 학생산악연맹이 나아가야 할방향은 청소년들이 산악활동을 통하여 자신감 및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등산인구 증가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문화적·생태적인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전한 산행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학생산악활동을 이어나가 광주·전남 산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광주·전남 학생산악 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역대 회장 명단



제1대 **박인천** 1962~1963



제2대 **최정기** 1964~1966



제3대 **손상우** 1967~1970



제4대 **전병곤** 1971~?



제5대 **오영대** 1978~1979



제6대 **최환석** 1980~1981



제7대 **임승락** 1982~1983



제8대 <mark>김현곤</mark> 1984~1985



제9대 **정순택** 1986~1990



제10대 **박명선** 1991~1994



제11대 **김상문** 1995~1996



제12대 **김재률** 1997~1998

1998년 3월 광주학생산악연맹과 전남학생산악연맹으로 분리



제13대 **김하경** 1999~2000



제14대 **전의천** 2001~2002



제15대 **이정옥** 2003~2004



제1대 **위계룡** 1998~2001



제2대 **이병철** 2002~2003



제3대 **김인해** 2004~2005

광 주 연 맹



제16대 **임형칠** 2005~2006

전 남 연

맹



제4대 **김병대** 2006~2007

2008년 1월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으로 통합



제17대 **박상수** 2007~2008



제18대 **오성개** 2009~2010



제19대 **신욱철** 2011~2012



제20대 <mark>정찬득</mark> 2013~2013



제21대 **김경자** 2014~현재

とかれた 子谷



1993년 광주 · 전남 초모랑마 원정대

목차

	76-17-5hr
	1. N. J. Br. A.
	145 14 183
	NEW BUR
	MILES TO THE
	76
SALE OF THE SALE	The Paris
SE VICE	
P. F. C.	
11-1	
11/1	
N. F. P.	
N. P. S.	

축시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고문 김현곤	6
발 간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장 김경자	8
축사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10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12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14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16
대한산악연맹 회장 이인정	18
광주광역시산악연맹 회장직무대행 임승진	20
전라남도산악연맹 회장 이상현	22
역대 회장단	23

사진으로 보는 50년의 발자취

제1장 역동의 반세기

제1절 1960년대

- 1. 고교 산악운동과 일고산악회
- 2. 전남학생산악연맹의 창립
- 3. 산정(山情) 마당

제2절 1970년대

- 1. 전남학생산악연맹의 휴면과 재건
- 2. 60~70년대: 해외원정의 여명기로 꿈을 키우다
- 3. 산정(山情) 마당

제3절 1980년대

- 1. 학생산악운동의 도약과 히말라야 워정의 시작
- 2. 학생산악운동의 정점 89/90 한국 동계에베레스트 원정대
- 3. 1990년 광주 낭가파르밧 원정대
- 4.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제4절 1990년대

- 1. 프롤로그 학산의 황금기를 구가하다
- 2. 1992년 한국 영호남 천산 합동원정대
- 3. 1993년 광주 · 전남 초모랑마(Qomolangma, 8,848m) 원정대
- 4. 각 단위 산악회의 활성화
- 5. 매킨리(Mckinley, 6.194m) 등 재학생들의 해외원정 러시
- 6. 1996년 트랑고 네임리스 타워(Trango Nameless Tower, 6239m) 한국 초등
- 7. 세계최초 산악 실업팀 창단의 산파 1997년 한국 낭가파르밧 원정대
- 8. 백두대간 종주로 우리 땅 바로알기 태동
- 9. 전국대학산악연맹 창립 시도
- 10. 전남 학산 10년 광주 · 전남 학산의 분리와 통합
- 11. 1999년 한국 GI. GI. K2 원정대
- 12. 에필로그 학산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 13. 산정(山情) 마당



1981년 산간학교 동계반(지리산)

제5절 2000년대

- 1. 학산 알피니즘의 특징
- 2. 해외원정(Expedition)
- 3. 국내등반
- 4. 학술기록
- 5. 광주·전남등산학교
- 6. 가맹단체 활동
- 7. 산악문화 일반
- 8. 산정(山情) 마당

제6절 새로운 50년을 위한 제언

- 1. 알피니즘의 활성화
- 2. 등산학교의 활성화
- 3. 학산 조직의 활성화

추모 기억해야 할 사람들

사진으로 보는 50년의 학산 주요활동

제2장 학산 주요활동

제1절 광주·전남등산학교

- 1. 광주 · 전남등산학교의 역사
- 2.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
- 3. 광주·전남등산학교 개최 현황
- 4. 등산학교 수료자 현황

제2절 학산인의 한마당

제3절 학생산악연맹 합동등반

사진으로 보는 50년의 학산 회원단체 활동

제3장 학산 회원단체

제1절 회원단체 현황표(창립연도 순)

제2절 광주(가나다 순)

- 1. 광주교육대학교 산악회
- 2. 광주대학교 산악회
- 3. 광주보건대학교 산악회
- 4. 동강대학교 산악회
- 5. 서영대학교 산악회
- 6. 송원대학교 산악회
- 7. 전남대학교 산악회
- 8.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



- 9. 조선대학교 산악회
- 10.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
- 11.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산악회
- 12. 조선이공대학교 산악회
- 13. 호남대학교 산악회

제3절 전남(가나다 순)

- 1. 동신대학교 산악회
- 2. 목포과학대학교 산악회
- 3. 목포대학교 산악회
- 4. 목포해양대학교 산악회
- 5. 순천대학교 산악회
- 6. 순천제일대학교 산악회
- 7. 순천청암대학교 산악회
- 8.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산악회

제4장 부록

제1절 해외원정 연표

제2절 학산인의 8.000m 급 14좌 +1

- 1. 에베레스트(Everest) / 8,848m
- 2. 케이투(K2) / 8,611m
- 3. 칸첸중가(Kanchenjunga) / 8.586m
- 4. 로체(Lhotse) / 8.516m
- 5. 마칼루(Makalu) / 8,463m
- 6. 초오유(Cho Oyu) / 8.201m
- 7. 다울라기리(Dhaulagiri) / 8.167m
- 8. 마나슬루(Manaslu) / 8.163m
- 9. 낭가파르바트(NangaParbat) / 8.125m
- 10. 안나푸르나(Annapurna) / 8.091m
- 11. 가셔브룸 I (Gasherbrum I) / 8.068m
- 12. 브로드피크(Broad Peak) / 8.047m
- 13. 가셔브룸 I (Gasherbrum I) / 8.035m
- 14. 시샤팡마(shisha Pangma) / 8.012m
- 15. +1 로체샤르(Lhotse Shar) / 8.382m

제3절 국내산 개척등반

- 1. 월출산
- 2. 무등산





제4절 역대 임원 명단

- 1. 역대 회장
- 2. 역대 감사
- 3. 역대 부회장, 이사
- 4. 역대 전무이사
- 5. 역대 사무국장
- 6. 역대 학생상임위원장

제5절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정관

제6절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 정관

제7절 회원명부(가나다 순)

- 1. 광주교육대학교 산악회
- 2. 광주대학교 산악회
- 3. 광주보건대학교 산악회
- 4. 동강대학교 산악회
- 5. 동신대학교 산악회
- 6. 목포대학교 산악회
- 7. 목포과학대학교 산악회
- 8. 목포해양대학교 산악회
- 9. 서영대학교 산악회
- 10. 송원대학교 산악회
- 11. 순천대학교 산악회
- 12. 순천제일대학교 산악회
- 13. 순천청암대학교 산악회
- 14.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산악회
- 15. 전남대학교 산악회
- 16.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
- 17. 조선대학교 산악회
- 18.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
- 19.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산악회
- 20. 조선이공대학교 산악회
- 21. 호남대학교 산악회

(광고)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편집진



| 사진으로 보는 50년의 발자취 |



60년대…







1. 1964. 등반대회 충장로 시가행진-전남대 2. 1965. 지리산 종주등반 제석단-전남대 3. 1964. 산악 강습회-전남대 고재기 교수 4. 1965. 전남학생산악연맹 무등산 합동등반



4













- 3 4
- 3 4
- 5
- 1, 1965, 조선대산악회 창립기념등반-무등산
- 2. 1965. 지리산 등반-조선대
- 3. 1965. 지리산 등반-조선대
- 4. 1966. 60km극복등행대회 종합2등-전남대
- 5. 1968.통일의 의지 국토종주 3000리-전남대









- 1
- 3 4
 - 5
- 1.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사진
- 2.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사진
- 3.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사진
- 4. 1970. 지리산 종주 세석평전-전남대
- 5. 1970. 12회 60km극복등행대회 우승-전남대



70년대…











3 4

- 1. 1971. 지리산 적설기등반 화계장터-전남대
- 2. 1971. 지리산 종주등반-전남대
- 3. 1971. 지리산 적설기등반 천왕봉-전남대
- 4. 1972. 하계등반 제주도 관음사 인근-조선대
- 5. 1972. 하계등반 제주도-조선대









1

3 4

- 1, 1973, 지리산 적설기등반-조선대
- 2. 1973. 하계장기등반 설악산-조선대
- 3. 1972. 전남대
- 4. 1974. 동계등반 지리산-조선대
- 5. 1977. 조선이공대













- 3 4
- 3 | 4
- 5
- 1. 1977. 신입생환영등반 대둔산-조선이공대
- 2. 1978. 백운산 합동등반-조선이공대
- 3. 1979. 연맹동계-한신계곡 가내소폭포-송원대
- 4. 1979. 연맹동계-한신계곡 가내소폭포-송원대
- 5. 1979. 월출산 도갑사-송원대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









- 1 2
 - 5

- 1. 1984. 제15회 전국등산대회
- 2. 1979. 산악장비전시회-송원대
- 3. 1980. 제15회 전국등산대회 우승-송원대
- 4. 1988. 춘계 등산세미나-정순택
- 5. 1984. 장비전시회-목포해양대













- 3 4
- 1. 1990. 제12회 장비전시회-송원대
- 2. 1982.10. 장비전시회-호남대학교
- 3. 1995. 제15회 목포대 총장기 C-C대회
- 4. 1983. 장비전시회-조선이공대
- 5. 2001. 전남대 총장기 C-C대회-증심사

89/90 한국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











 $\begin{array}{c|c}
1 & 3 \\
\hline
4 \\
2 & 5
\end{array}$

1. 1988. 89/90 동계 에베레스트원정대 발족식-지리산

2. 1989. 89/90 원정대 훈련-설악산

3. 1988. 89/90 원정대 발족식-지리산

4. 1988. 89/90 원정대 훈련-지리산

5. 1989. 에베레스트 훈련대원(구례)

6. 1989.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 준비상황표













1. 1989. 89/90 원정대 훈련-월출산 2. 1989. 89/90 원정대 훈련-설악산 3. 1989. 89/90 원정대 훈련-한라산 4. 1989. 89/90 원정대 훈련-한라산 5. 1989. 89/90 원정대 훈련-백록담









1 2 3

- 1. 89/90 동계 에베레스트 본대 출국장
- 2.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카트만두
- 3.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카트만두
- 4.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 대원(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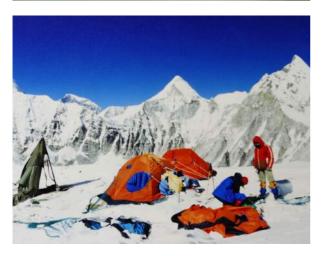












- 3 4
- 3 4
- 5
- 1.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 아이스폴 작업
- 2.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막내 대원
- 3.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 셀파 앙핀조 시신운구
- 4.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 셀파 앙핀조 시신운구
- 5. 89/90 동계 에베레스트원정대

90 백두대간 전 구간 종주 등반…











- 3 4
- 3 4

- 1, 1990, 학산연맹 하계 백두대간 종주등반 출정식
- 2. 1990. 학산연맹 하계 백두대간 종주등반 출정식
- 3. 1990. 학산연맹 하계 백두대간 종주등반
 - 7구간 백복령~두로봉(송원대학교)
- 4. 1990. 학산연맹 하계 백두대간 종주등반
 - 7구간 백복령~두로봉(송원대학교)
- 5. 1990. 학산연맹 하계 백두대간 종주등반
 - 7구간 백복령~두로봉(송원대학교)

1992. 한국 천산 영·호남 합동 원정대…





2

3

1, 1992, 92 한국 천산 영·호남 합동 원정대

2, 1992, 92 한국 천산 영·호남 합동 원정대

3. 1992. 92 한국 천산 영·호남 합동 원정대

4. 1992. 92 한국 천산 영·호남 합동 원정대

5. 1992. 92 한국 천산 영·호남 합동 원정대









1993. 광주·전남 초모랑마 원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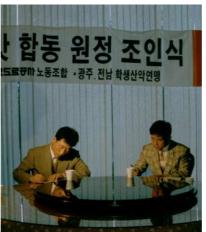






1997. 한국 낭가파르밧 합동 원정대…











- 1. 1996. 원정 조인식 한국도로공사 노조와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제11대 김상문 회장 및 임원진
- 2. 1996. 원정 조인식 도성환 위원장과 김상문 회장
- 3. 1997. 원정 발대식 한국도로공사 본부
- 4. 1997. 원정 발대식 제12대 김재률 회장(학산기 들고 있는 무대 위 오른쪽)
- 5. 1997. 장성의 폐교를 이용한 낭가파르밧 원정대 사무실 겸 합숙장소
- 6. 1997. 귀국 후 인천공항









- 1. 1997. 한국도로공사 본부에서 성공 기념식
- 2. 낭가파르밧 디아미르페이스 전경
- 3. 낭가B. C. 故 정성백 추모 메모리얼





2001. 광주·전남등산학교 유럽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









2001. 학생산악연맹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아이거 정상)



- 1 2 3 4
- 1. 아이거 북벽
- 2. 아이거 북벽 마지막 설릉
- 3. 그랑드조라스 북벽 정상부위
- 4. 아이거 정상

광주·전남 학산인에 의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보고회…









- 1, 2013, 역대회장(고문단) 간담회
- 2. 2013. 8,000m급 14좌 완등보고회
- 3, 2013, 8,000m급 14좌 완등보고회
- 4, 2013, 8,000m급 14좌 완등보고회
- 5, 2013, 8,000m급 14좌 완등보고회





제1장

역동의 반세기

제1절 1960년대

제2절 1970년대

제3절 1980년대

제4절 1990년대

제5절 2000년대

제6절 새로운 50년을 위한 제언



제1절 1960년대

1. 고교 산악운동과 일고산악회

1950년대 광주의 고교 산악활동은 광주일고, 광주고, 전남여고, 광주여고, 광주공고, 광주사범, 조대부고, 전남의대 간호고 등이 자연학습, 심신연마, 체력단련을 위하여 집체훈련으로 전교생을 무등산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학도호국단 조직에 등산반이 편성되어 등산과 야외활동을 지도했으나, 산악운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체계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학도호국단의 등산반은 독자적인 취미클럽이나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50년대 고교 등산 활동의 기틀을 잡고 그 맥을 이어 대학 산악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고교의 동아리활동은 교장 선생님의 의지와 유능한 지도교사에 의하여 진작되듯이 전남여고, 광주서중, 광주일고, 광주고, 광주공고는 전남대학의 산을 좋아하는 교수들과 산행을 같이하여 온 장준한 교장, 강요한 교장, 정근모 교감이 광주의 중고교를 순회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과외활동으로 등산을 추천해 그들 학교에선 일찍 등산반이 조직됐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과열과 동아리활동의 중단으로 그 연혁을 더듬기 어렵고, 당시의 교지나 기억을 수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광주농고 3학년인 최동식 일행은 1959년 하계 한라산 등반 후 사라호 태풍으로 배편이 막혀 일주일을 식당에서 국밥을 사먹으며 빈손으로 기숙한 후 겨우 경주호를 타고 돌아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무전여행을 받아주는 사회 분위기는 학생들의 자유분방한 과외활동을 북돋워 주었다.

특별한 취미활동이 없던 때 학생들에게 여행과 등산은 매우 인기 있었다. 광주일고의 경우 1959년 8월 안장환(당시 3년·농장 경영) 등산반장은 반원인 최병기(회사원), 남상만(사업), 노진영(대학 총장), 김종철(치과의사) 등과 전남대의 김주한, 박경석과 같이 한 2박3일의 지리산 반야봉 등반기록을 가지고 있다. 당시 고교생들에겐 무모한 산행이었으나 군용 워커에 륙색을 메고 군용 폴라텐트를 돼지평전에 치고 야영할 정도로 체제를 갖춘 등산으로, 고교 산악활동도 급속히 개선됐음을 시사한다.

지도도 없이 페인트통을 등에 지고 지리산의 바위에 구전을 수집하여 찾은 지명과 자기 이름을 낙서하며 야영지의 지명도 모른 채 쓰러져 자는 등산이었지만, 우리 강산을 알고 산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순수한 출발이었다. 1960년의 고교 등산반의 활동은 당시 3학년이던 김형곤

의 무등산의 마루에서('무등' 42, 1961) 기록으로 그 활동상을 읽을 수 있다. 1960년에는 박주근이 등산반에 참여한다.

1960년 4 · 19 학생의거 후 학도호국단이 학생회로 개편되고, 1961년 5 · 16 혁명으로 재건학생회로 재편성되면서, 1961년 당시 학생이었던 박주근 주도하에 김양진, 오병수, 김장영, 최창돈, 김용구, 이병림, 최임일, 권현채, 조광용, 박원영, 김인수, 마준용 등이 주축이 되어 광주제일고 산악회가 창립되고 초대회장에 박주근이 선출됐다. 2학년과 1학년인 오병수, 김장영, 최창돈, 송용남, 김용구, 이병림, 박희경, 김택곤, 최임일, 권현채, 조광룡, 박원영, 김인수, 마준용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광주일고 산악회의 활동은 두드러져 지리산, 한라산을 비롯하여 월출산, 추월산, 조계산을 등반하고, 1961년 전남일보 주최 제1회 등산대회와 1962년 제2회 대회에 계속 참가하고, 1962년 제1회 특수체육 도봉산 등산대회와 제4회 전국 60km 극복 등행대회에 당시 김양진 반장과 김장영이 각각 대장으로 처녀 출전했다.

광주일고 산악회와 일고 출신 대학 산악회원들은 1964년 일고산우회를 결성하여 산악 신풍운동을 기도했다. 광주고, 광주공고, 광주농고, 광주여고, 광주사범, 전남여고 등도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서클활동의 단절로 1950년대의 기록들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2. 전남학생산악연맹의 창립

모든 선도적 사회운동이 그러하듯 광주의 초기 산악운동을 대학산악부가 주도하였음은 당연한 시대적 상황이었다. 학생만이 사고와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때 학생들의 역할은 컸다. 특히 산악활동은 그의 무대가 산이라는 동질성과 이산 저산으로 타 지역을 왕래하여야 하는 특질상 산악회와 회원 간 강한 응집력과 연대감을 갖고 정보의 교환이 비교적 용이하여 그의 변화 속도가 빨랐다. 일찍이 대학산악부는 서구의 알피니즘을 이 땅에 도입하였고 국토구명사업, 국토애, 자연보호활동 등을 계몽적 입장에서 주도하였으며 우수한 지도인력을 양성하여 보급하여 왔음은 자명하다.

무등산악회 소장파의 핵심이었던 신귀현(전남대56), 김용석(전남대57), 기양도(전남대57) 회원이 1958년 6월 4일에 발족시킨 전남대산악회를 필두로 66년 일고산우회가 빛을 볼 때까지 광주산악계의 개화기를 주도해갈 대학산악부와 고교산악부가 광주의 모든 대학교와 대부분의 고등학교

에서 발족하게 된다.

1961년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주최의 '제1회 무등산등행대회'에 이 지역의 고교 및 대학 산악회 워들이 대거 참가하여 학생산악활동과 대학의 학생산악인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또한 1962년 '제1 회 특수체육 도봉산 등산대회'. 63년 대구에서 열린 '제5회 팔공산 전국60Km 극복 등행대회'를 다 녀온 전남의 산악인들은 위의 두 대회가 학생산악연맹에 의해 운영되고 학생산악운동의 활성화가 산악운동을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이들 학교 산악부를 묶는 연맹체로서 전 남학생산악연맹이 창립하게 된다. 당시 대학이라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리고 2년제의 광주 사범대학이 있을 뿐이었다.

전남대학교와 광주사범대학(광주교육대학 전신)에는 산악회가 결성되었고 조선대학교는 등산큼 럽은 있었으나 정규 산악회로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대학교의 임춘재(전남대57)는 조선대 학교와 광주사범대의 대표와 공동명의의 전남학생산악연맹의 발기취지문을 석판으로 인쇄하여 돌 리고, 1962년 10월 30일 금남로의 보이스카웃 콘세트 건물에서 3개 대학과 광주일고, 광주공고산 악부로 전남학생산악연맹 창립총회를 가져 6장 26조의 회칙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초대회장엔 박인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부회장엔 이남열 무등산악회 부회장이 추대되었고 대표상임위원엔 전남대학교의 임춘재, 고등학교 상임위원으로 광주일고 3학년인 김장영(전남대 64)이 지명되어 서구의 알피니즘을 이 땅에 도입하고, 국토구명사업, 국토애, 자연보호 활동 등을 계몽적 입장에서 주도하였으며 우수한 지도인력을 양성하여 보급하는데 앞장서왔다.

초기의 전남학생산악연맹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가 전남대 광주일고 광주공고 정도이어서

거의 모든 행사가 전남대학교 산악 부의 행사와 합동으로 추진될 수밖 에 없었다. 2대 회장으로 조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최정기 공화당 전남 도당위원장을 추대하고 오종태. 신 귀현, 김장영이 방문하여 취임승락 을 받으려 하였으나 확답을 얻지 못 하고. 1964년 3대회장으로 산악활동 을 계속하여 온 손상우사장(무등산악 회. 광주냉동, 광주직의공사, 백마메 1962. 전남학생산악연맹 결성 준비모임(사진제공 김장영)



리야스공업사)과 부회장으로 최명섭 합동통신 전남지사장을 추대하고, 사무실을 구 법원 통에 있는 최명섭 부회장의 합동통신 전남지사의 2층 사무실로 정하였다. 손상우회장은 1970년까지 회장을 맡았다. 힉생산악연맹을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인 대표상임위원으로는 초대 임춘재(전남대57)의 뒤를 이어 1963년 남상만(전남대), 1964년 정순택(전남대 62), 1965년-1966년 김장영(전남대64)이 선출되었다. 1967년의 대표상임위원은 조선대의 서용욱(조선대65)이 국제예식장에서 열린총회에서 경선하여, 투표로 선출되었다. 1965년 창립한 조선대학교 산악회는, 이제는 조선대가 대표상임위원을 맡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 뒤의 1968년엔 박향식(전남대66), 1970년 최창돈(전남대65), 1971년 김상문(조선대65)으로 이어져 70년대를 맞게 되지만 이후 10년간 전남학생산악연맹은 1969년 창립된 전남산악연맹의 활동에 합류하게 되어 긴 잠을 자게 된다.

등산 활동을 통하여 학생산악회 상호간의 단결과 산악인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산악일반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장려와 등반훈련을 통해 인내와 감투극복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산악운동을 통한 영원한 젊음의 구현을 목적으로 창립한 전남학생산악연맹이 꿈을 접은 체 긴 휴면기에 든 것이다.

3. 산정(山情) 마당

더디지만 히말라야 14좌를 해냈다

- 故 정순택 유고 2013. 9. 30. 작성

어려운 일을 추진하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가 빛을 보게 되었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학산)을 올곧게 30년간을 지켜온 정찬득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50년사 발간을 거론할때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 50년사(1956~2007)를 봐온 터에 어렵고 큰 일이 걱정스러웠다. 방대한 기록물과 구전 중에서 자료의 취사선택에서부터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서릿발처럼 엄격하게 기록하고, 춘추(春秋)와 같이 엄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대의명분을 밝혀 학산 50년을 정리하고 서술한다는 것은 사명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한국대학산악연맹(1948) 경북학산(1957)의 창립에 비하면 학산의 시작은 늦었다. 학도호국단체제의 산악반을 결속하기엔 난관이 많았고 5·16 후의 특수체육 바람과 시류에 편승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창립 초기부터 일반산악인과 산악단체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아 왔다. 고등학교산악회의 이탈과 포섭, 집행부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오랜 휴면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파란만장한 역사다. 같은 시기인 1962년 대한산악연맹이 창립되었으나 이 지방산악계는 한국산악

회와의 작은 인연으로 대산련 창립을 외면하여 60년대 학산이 외부지역과의 유일한 소통 경로가 되면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산악단체의 면모를 지켜왔다.

외부의 배척과 내부의 비판과 교란이 이어지고, 한국대학산악연맹과의 관계와 가입 건으로 이견이 비등하고, 고등학교산악회 창립과 지원, 학산 출신의 일반산악회와 클라이밍클럽 진출에 대한비난이 속출한 가운데 기량이 부족하고 갈 곳 없는 산악인만 학산에 잔류한다는 자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50년을 지켜왔다.

지난 5월 20일 병상에서 순천대학교OB 이정현군의 메시지를 받았다. 「칸첸중가 원정대 김홍빈형 박남수형 현지시간 16시 15분 정상등정하고 하산중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무사귀환하게 멀리서 기도해 주세요」. 느리고 더디지만 해낸 것이다. 송원대학교 산악회 OB인 학산 김홍빈 부회장이 하말라야 14좌 마지막을 장식하며 우리의 오랜 집념을 성사시킨 것이다. 광주·전남 산악인의하말라야 14좌 레이스는 임형칠 고문이 로체를 한국 초등정하면서 시작되어 89/90 동계에베레스트 베이스에서 펼친 광주·전남등산학교를 거쳐 25년 만이다. 14봉의 알파인스타일 등반과 속도전이 마무리 되었지만 우리에겐 오랜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학산은 광주·전남등산학교 정구반·암벽반·동계반을 통하여 수많은 훌륭한 산악인과 지도자를 배출하였지만 그들을 포용하지못하고 원정대다운 원정대를 꾸리지 못하여 학산의 산악인재들은 학산을 떠나 흩어져 갔다.

뿔뿔이 흩어진 2천여 학산인을 한데 모아 다음 50년을 시작할 때다.

산에서는 맹호·독사, 탁상에선 소진·장의를 무색케 하던 산 선배들은 지난 50년에 모두 먼 산 길을 가고, 제4회 광주학생운동기념 60Km극복 전국등산대회에서 돌아와 충장로5가 석판 인쇄소에서 전남학생산악연맹 발기취지문을 찾아 창립회의 장소인 옛 도청 앞 보이스카우트 콘셋트 건물로 찾아가 전달하고 말석이 앉아 창립행사를 지켜 본 것이 전부인 본인이 축사를 쓴다. 창립목적도 50년을 이어갈 사업인 줄도 몰랐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100년사는 2012학번이 쓰게 되기를 바란다.

60년대 '그때를 아십니까?'

- 김상문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고문

수 년 전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TV프로가 인기리에 방영이 되어 50~60년대 풍속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젠 후배 산악 동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반생을 산과 함께 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감히 펜을 잡았으나 먼저 면구스런 마음이 앞선다.

산행담이라야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의 출발을 앞두고 희망에 부푼 이 때, 그리고 국제화 시대인 요즘의 후배들의 빛나는 산악 활동에 비하면 박물 장수가 취급하는 보잘 것 없는 잡동사니 물건에나 비교 할 정도의 진부한 이야기꺼리가 아닌가 하고 망설여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돌이켜 보면 나의 60년대는 십대 중·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나이로 내가 산에 입문하게 되는 초보산행 시절과, 20대 대학에 들어가 산악 활동을 왕성히 전개했던 때로 양분할 수 있겠다.

이 무렵 이야기 시작은 등산장비로부터 시작해야할 것 같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때는 광주 시내에서 전문 등산 장비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시장 한 쪽 군수품 취급하는 곳에서(양동시장, 지금은 공구 거리) 군용 스푼, 포크, 수통에 배낭, 모포, 반합(항고), 그리고 텐트 정도의 기초적인 산행도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궁색한 용돈을 쪼개서 마련한 군용장비일망정 그 시절 등행구로는 요긴한 필수 장비였다. 비교적 고가 장비인 텐트는 고교 1학년 시절 중3 교과서를 현 책방에 처분해서 마련한 돈으로 구입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어지간히도 컸던 산에 대한 열정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준비한 장비로 일 년이면 2~3차례 도시락 들고 오르던 1일 무등산 산행을 벗어나 야영 등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텐트 구입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서동 집(나의 자취방)에서 출발하여 학동삼거리, 배고픈 다리, 증심사, 당산나무 거리, 대피소, 중머리재, 샘골을 지나 장불재, 입석, 서석대로 인지 천삼봉을 답사하고 하산은 서북 사면 코스로 정하면 늦재를 거쳐, 원효사 관광호텔 지구를 구경하고 새로운 관광 도로를 따라 표충사, 잣고개, 산수동을 거쳐서 귀가했다.

순전히 도보로 시작해서 도보로 끝나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던 시절이 나의 초보 산행 시절이고 그 시절 일반적인 무등산행의 풍속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텐트 덕택으로 그 해 가을 처음 천문사(대피소 부근)캠프를 계획하여 동료 학우와 참여한 산행은 어린 채구라지만 2인용 텐트에 4명이 텐트에 잤으니, 발이 텐트 밖으로 삐져나와 흥보네 집을 연상케 했고, 침구는 군 모포라서 오들오들 떨다가 선잠이 들고는 했다. 그러다가 새벽을 맞이하고 했던 고생담이 지금은 오히려 많은 산행의 추억 속에서도 달콤한 추억으로 또렷이 각인되어 있다. 난생 처음 야영을 하며, 밤이 깊도록 모닥불을 피우고 동료 학우와 이야기꽃을 피웠던 일, 광주 시내 야경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취사는 군 반합(항고)에 나무토막이나 갈대를 채취해서 현지

조달하고 유일한 부식인 김치 한가지로, 그러나 맛있게 식사를 했던 식사 시간 -이런 야영 등반의 맛은 등바의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산행의 꽃이라면 무엇보다도 설빙암의 적설기 등반이 아닌가 싶다.

군화에 새끼줄을 꽁꽁 묶어 아이젠을 대신하고 무등을 오르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한 장비(?)로도 무등산 정상까지 탈 없이 오를 수 있었고, 입석을 지나 서석에 이르는 코스에 피어나는 설화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다 보면 추위도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하산 길은 서북 설사면을 택하여 미끄럼을 타고(슬라이딩) 내려왔는데 그 신나는 산행이야말로 겨울 산행의 백미였다. 그러나 군 작전 도로 개설(68년 이후)로 인해 설사면이 지그재그로 끊겨진 것은 지금도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근래에 무등산 복원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런 나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으리라.

이것이 60년대 초반(고교 시절)에 내가 누리던 무등산행의 등산 풍속이었다면 60년대 중반(65년)은 대학에 입학하여 새내기 시절 산악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여 본격적인 산악 활동에 접어들게되다.(그 때 등반 계획서 안내장에 ALPINE CLUB이 아니고 알피니스트 그룹이라고 했던 점으로보아 알피니즘에 문외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초기 지방산악운동의 기수로 자부하면서 열심히, 참으로 대학 생활의 절반을 아니 전부를 산에 대한 열정으로 보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주말산행 등 정기산행은 물론 방학을 이용한 장기산행 그리고 그 때 활발했던 각종 등산대회와 산악 행사에 참여하여 고립 분산적인 초기 산악활동(교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산악 운동의 영역 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크게는 대학산악부원을 비롯해서 성인 동호회 산악인(선배), 고교 산악반(후배)들과 폭 넓은 인 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목을 돈독히 하며 자연스럽게 근대 알피니즘에 부응하는 산악관을 확립하 게 되었고, 작게는 차근차근 산악 기술을 습득하면서 향상된 등반 기술과 산악 문화보급에 앞장선 시절이 나의 60년대 중반의 산악 활동상의 일면이다.

66년에 창립한 전남학생산악연맹에 단위 산악회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하였고 그 시절 자일하나 없이 고작 군용 보조 자일을 여러 겹으로 해서 새인봉, 입석대 등지에서 압자일렌(하강)하는 정도로 암벽 등반을 뽐내던 때가 66년 하절기로 기억된다.

그러다가 연맹 공동장비로 우리 지방 최초로 자일(10m) 1동을 구입하여 고사를 지낼 목적으로, 자일 구입 기념 등반이 있었으니 숙원이던 자일 구입의 일화이다.

자연 보호에 대한 이야기 하나

야영지 근방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땅속에 파묻고 다른 등산객과 비교하면서 산 사랑에 대한 의식으로 우쭐해 하기도 했다. 그 시절 광주 시내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장비 전시회를 개최하여산악 문화 발전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킨 일화 등도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화려했던(?) 나의 60년대 산행도 군 입대(68년 2월)로 인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아름답고 소중한 나의 젊음이었다.

(무진악 1호 발표)

제2절 1970년대

1. 전남학생산악연맹의 휴면과 재건

1960년대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학생산악연맹의 실무 책임자인 대표상임위원으로는 초대 임춘 재(전남대57)의 뒤를 이어 63년 남상만(전남대), 64년 정순택(전남대62), 65~66년 김장영(전남대64), 67년 서용욱(조선대65), 68년 박향식(전남대66), 70년 최창돈(전남대65), 71년 김상문(조선대65)으로 이어져 70년대를 맞게 되지만 1969년 창립된 전남산악연맹의 활동에 합류하게 되어 잠시 휴면기에 접어들게 된다.

1975년 하반기 전남대산악회 회장인 최병호(전남대73)와 조선대산악회 회장인 송하중(조선대73)이 의기투합하여 대표상임위원으로 전남대의 김나연(전남대69)을 추대하고 전남학생산악연맹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1978년 제5대 오영대회장을 모시고 새롭게 부활하여 현재까지도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한번 조직의 와해를 경험한 학생산악연맹은 조직의 지속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배 산악인을 양성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1979년 지리산에서 제1회 전남산간학교를 개최하고 본격적인엘리트 산악인의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명칭이 전남산간학교에서 전남등산학교, 광주등산학교, 광주·전남등산학교로 여러 번 변경되어 왔지만 그 기반과 전통의 이면에는 항상 학생산악연맹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조대공전(77년/박상수), 목포대(79년/김거봉), 서강전문대(79년/류재강, 조상두, 고재복), 송원전문대(79년/윤호근, 임노욱, 류영범, 김양중, 민향석), 성인경상전문대(79년/이봉진), 목포실업전문대(81년/김인해, 박종호), 목포과학대학교(81년/김정수), 순천대(82년/임양호, 김동렬) 등 광주·전남의 각 대학에 산악회가 창립되었



제1회 하계산간학교 개교식

으며 이들 산악회원들은 전남학생산악연맹의 깃발아래 뭉쳐 80~90년대 이 지역 산악활동의 전성 기를 구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산악인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무너져가던 전남학생산악연맹을 부활시키는 데는 전남대와 조선대라는 광주·전남 산악계의 양대 산맥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이면서도 어려울 때는 서로힘을 합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본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학생산악연맹 출신의 산악인들이 광주 산악계의 중심에서 연맹의 실질적인 리더이자 협력자로 이 지방 산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60 ~ 70년대: 해외원정의 여명기로 꿈을 키우다

해외원정 특히 히말라야등반은 모든 산악인들에게 꿈의 대상지였다. 지금은 누구나 맘만 먹으면한 달음질 할 수 있고 발달한 장비와 수많은 정보 경험이 풍부한 히말라얀들이 많지만 가겠다는 20대가 없어 고민인 시대인 반면 당시에는 가고 싶어도 또 갈 수 있다고 마음대로 갈수 있는 곳이아닌 금단의 땅과 같은 존재였고 선택받은 산악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히말라야등반을 다녀온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과 추앙 부러움을 사는 것은 물론 최고 산악인으로서의 반열에 오르는, 훈장을 다는 것과도 같은 대상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다.

60년대는 그야말로 학산의 기반을 다지던 시대였으며 히말라야등반은 남의 나라 얘기였다. 1971년 전남대학교 산악회원인 최창돈(전남대65) 회원이 71년 서울신문사 주최 제1차 마나슬루 원정대에 참여하면서 학산 최초 히말라야 등반가가 되었다. 그는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히말라야에 눈을 돌렸으며 스위스 인스브룩 등산학교를 수료하고 로체샬을 원정하는 등 당시만 해도 지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등반을 했다. 같은 해 8월 전남대학교 OB산악회원인 신귀현(전남대56)이 대만옥산을 등반했으며, 다음해인 1972년 조선대학교 산악회의 오세근(조선대65)회원 또한 제2차 마나슬루원정대의 대원으로 참가하였으나 제3캠프에서 눈사태로 조난사 함으로서 학산 최초의 사고자로 기록되었다.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열혈청년' 김하경(전남대68)은 국내 최초로 꾸려진 77 한국 한국에베레스 트 원정대(대장 김영도)의 훈련대원으로서 전 훈련과정을 마쳤다. 77원정대는 당시 전국에서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내로라하는 산악인들로 꾸려져 김하경의 열정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김하경은 대원으로 선발되지 못했으며 에베레스트에 대한 한을 곱씹은 지 12년 만에 89/90 광주·전남

동계에베레스트를 원정대장으로 이끌며 한을 달래지만 등정에는 실패한다. 하지만 그는 전남대학교 OB산악회의 회장으로 재임 시 전남대학교 산악회 초모랑마 원정대를 꾸려 2명의 대원을 정상에서게 해 삼고초려 끝에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와의 질기고도 보람된 여정에 종지부를 찍는 집념을 과시했다. 2006년 초모랑마 원정발대식에서 그는 "등정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살아 돌아오는데는 그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며 눈시울을 붉혀 대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3. 산정(山情) 마당

산에서 찾아야 할 일

- 위계룡(전남의대 72학번)

학산연맹이 탄생한 지 벌써 50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구해 오는 알피니즘은 무엇일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우주에 존재하는 지고한 본성을 찾는 일이고, 둘째는 최고의 자아를 발견하는 일이다.

지고한 본성이 스스로 존재하는 산이라고 표현된다면, 최고의 자아는 산행 속에서 이뤄지는 이타적인 삶이라 하겠다.

사람은 3가지 기운으로 행위를 결정한다.

밝고 가벼운 기운, 격정적이고 활동적인 기운,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다.

행위는 위 3가지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밝고 가벼운 기운은 신성에 가깝고, 격정적이고 활동적인 기운은 인간적인 기운이고, 무겁고 어두운 기운은 동물적인 기운이다.

인간적인 기운은 행위에 대한 결과에 기대심을 갖게 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창출함으로써 분노를 일으킨다.

행위는 업을 만든다.

업의 본질은 행위의 여파로 생성된다.

행위가 결과에 대한 기대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을 때만이 업이 생기지 않는다.

참자아는 내면에 존재한다.

그러나 알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다.

참자아를 찾아가는 길은 3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둘째는 행위의 길이고, 셋째는 헌신의 길이다.

산을 다니는 목적 또한 마찬가지다.

산을 다니는 이유와 목적은 자아를 깨끗하게 만드는 지혜를 찾아가는 길이다. 산행을 통해서 이기적인 욕망과 행위에 대한 기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내 안의 분노를 만들지 않고 자유과 평안함을 누려야 한다.

산에서 얻은 이타적인 삶만이 가치가 있다. 내 안에 욕심과 화냄, 우둔함, 자만심,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산에 다니는 근본 이유와 상반된다고 할 것이다.

알피니즘은 우주의 지고한 본성과 내 안의 참자아를 찾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에서 터득한 이치를 생활 속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알피니스트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알피니즘은 행위의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 알피니즘은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업을 만들지 않는 행위를 하고, 이타적인 삶의 길을 감으로써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산에 다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과 경험 그리고 아픔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산을 다닌다는 것은 수행의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있다.

함께하는 수행은 참 즐거운 일이다.

나의 첫 산행 _ '봄날은 홀연하다'

- 조석필(전남의대 73학번)

나비에 홀렸던 것이리라. 아니면 하늘거리는 봄볕에 취했거나. 증심사 계곡에 단순히 봄 마중 간 것뿐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결에 산 중턱이었다. 중학생인 나하고 사촌, 그리고 이웃 형 해서 모두 세 사람. 1967년. 우연히 찾아온 나의 첫 산행.

나비가 길벗을 했다. 나비 따라 팔랑팔랑 걷다 길을 벗어났다. 무등산은 너그러운 몸을 갖고 있어, 길을 벗어나도 타박하지 않고 선선히 높이를 내어주었다. 책상만한 바윗돌들이 널려있는 비탈에 이르러 무협영화 흉내 내며 놀았다. 사촌이 두 팔을 활짝 펴고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면 나는 그 장면을 찍었다. 로 앵글로.

"바위 안 보이게~ 하늘만 나오게 찍어!" — 공중부양을 연출하고 싶었던 사촌이 내게 주문했다.

꾸역꾸역 올라갔다. 물도 식량도 없는데 올라갔다. 해가 배꼽자리를 지나자 배가 고팠다. 목마른 건 오래되었다.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될 텐데 왜 올라갔을까. 이유는 모른다. 그저 그래야 될 것 같았다

해가 뉘엿거렸다. 몸도 뉘엿거렸다. 벌렁 드러누웠다. 어쩌겠다는 게 없었다. 탈출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등반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대책이 없었으니, 냉정히 말하면 조난이었다. 그래도 어지간히 올라가기는 했다. 먼발치로 철조망 같은 게 보이는가 싶더니 어느 결에 총을 든 군인 두 명이우리 곁에 다가왔다. 우리가 '접근하면 발포'하는 지역을 침범한 것이었다.

✓체포, 압송되었다. 8부 능선에 위치한 미사일기지. 형식은 구금이었지만 내용은 조난 구조였다. 지치고 허기진 몸을 끌고 식당 올라가는 계단이 길고 힘들었다. 군인 아저씨들은 "해가 떨어져 위험하니 자고 가라"며 침대와 침낭을 내주었다.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덧붙였다. 어느 부대에선가 내무반에 불이 났는데 침낭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죽은 사병이 있었단다…… 나는 슬며시 침낭 지 퍼를 열어 놓았다.

군인 아저씨들은 우리 집에 전화를 넣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누나 있니?" 하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안했다. 그렇게 왕성한 발정기였던 당시 스무 두어 살짜리 '아저씨들'이 이제 육십 고개를 넘어갔다. 나도 물론 성실하게 뒤따르고 있다.

40년 전. 나의 첫 산행이 그렇게 홀연히 찾아왔다. 홀연했지만 확연했다. 첫 경험은, 지금도 그 줄거리와 이미지를 모두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 진득한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다. 돌아보면, 봄날이 짧다. 오는가 하더니 간다. 봄날은 그러나 홀연해서 황홀하다.

(무진악 10호 발표)

기쁨도 눈물 근처에 있다

- 박상수(조선이공 77학번). 에베레스트·로체 원정대장

광주·전남 등산학교가 벌써 30년이 지나고 지나간 날의 나의 직장생활 25년과 열정의 불꽃을 훨훨 태웠던 산악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감회가 새롭고 새삼 추억이 가슴을 적신다.

처음 영업소라는 곳에 출근했을 때 일제 강점기 순사를 연상케 하는 모자를 쓰고 영 업소에서 요금을 정산할 때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빙그레 웃음이 나옴은 어쩔 수 없다.



25년 동안 근무하는 과정에서 존경했던 선배님, 그리고 동료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떠나갈 때는 가슴 아픈 고통을 느끼기도 했고 새로운 직원이 배속될 때는 가르치는 재미 또한 쏠쏠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산을 알았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산에 대한 열정은 지속적이었다. 산악인이면 누구나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심정은 같을 것이다. 나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산악인의 단체인 대한산악연맹과 학생산악연맹에 관심이 있었으며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이 지역히말라야 등반 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산악운동은 나에게는 운명적이며 숙명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만 같다. 왜냐하면 1989년 낭가파르밧 원정대에 선발된 후배가 히말라야를 간다고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나는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양 기뻐 어쩔 줄 몰랐고 후배에게 산악장비를 구입할 경비를 지원하고 그들의 등반이 성공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으나, 성백이는 정상공격 중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히말라야 낭가파르밧(Nanga Parbat 8,125m)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후, 산에 대한 열정과 히말라야에 대한 고통의 추억들이 내 생활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으며 산에서 죽은 성백이 생각에 나는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었다.

2년 후, 조난당했던 성백이의 한을 달래고자 다시 낭가파르밧 원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 대 원들의 마음과는 달리 원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직장인으로서의 나의 위치 때문에 나는 원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며 한국도로공사에 전문 산악실업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1996년에 낭가파르밧 등반에 대한 재도전의 지휘봉을 잡아달라는 후배와 동료들의 요청으로 힘들고 어려운 히말라야 원정을 꾸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막상 꾸리려고 하니 엄청난 경비와 인력이 우선 문제였고 잘 훈련된 대원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그 무렵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에 근무했던 선배님께 부탁해서 호남본부와 학생산악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낭가파르 밧 등반을 꾸리고자 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서 등반을 열심히 준비했다. 그런 와중에 급작스레 호남본부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합동등반 추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당시 우리 대원과 나의 마음은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망을 맛보아야만 했으며 피나게 훈련시켰던 원정대장으로서 무책임과 생활 속에서 꿈꿔왔던 히말라야 등반의 포기라는 것은 당시의 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기에 나는 집을 팔아서라도 후배들과의 약속을 지켜주려고 맘을 먹었었다. 그때 호남본부 선배님께서 한국도로 공사의 노동조합과 함께 일을 해보면 어떠하겠냐고 제안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노동조합 간부들 앞에서 성심성의를 다해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97 한국 낭가파르밧 원정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산악인의 도전정신과 계기를 만들었고산악인의 새로운 길을 열어 희망을 주는 정신을 승화시켜 도공 혼을 심는 계기가 되었다.

하늘이 돕고 나의 열정이 주변을 감동시키고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의 열린 생각으로 우리는 한국 도로공사이름으로 첫 원정대를 꾸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막상 히말라야 등반을 시작했을 때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그 모든 것

은 산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극복해 갔으며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얼굴만 아는 선배님과 지인들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구걸을 조금도 부끄럼 없이 했었다.



막상 산에 도착해서 지휘를 시작하니 8천 미터가 넘는 봉우리의 웅장함과 등반의 어려움들은 내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겪는 대장으로서의 갈등과 고충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특히 한국도로공사 이름으로 꾸린원정대가 무난히 성공해야 공기업으로서 이상과전 국민에게 도로공사의 또 다른 이념을 보일 수있다는 강박관념이 나를 계속 짓눌렀으며, 오직성공해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내 스스로가거칠어져 가고 있음을 보면서 히말라야 원정의

지휘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인가를 다시 생각하곤 했었다.

대원들의 노력과 하늘이 도와 무사히 정상등정을 이루어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고, 한국도로공사 이름으로 간 첫 원정대의 등정 성공을 이뤄냈다는 안도감으로 나는 밤잠을 이루 몰했다.

세계 최초의 노동조합주관 원정의 성공은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원정이 끝나고 나서 정상 등정한 김주형 대원은 도로공사에 근무하게 됐음으로 우리는 실업팀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싹트기 시작했었다. 그 후 1999년 대한산악연맹과 KBS합동으로 추진한 새천년 희망을 위한 칸첸충가 원정에 김주형 대원이 참가하게 되었고, 한국도로공사간부들의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한국도로공사 내에서도 실업산악팀이 창단된다면 도로공사홍보와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한국산악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에 도로공사가 중추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회사 내 산악실업팀의 창단 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당시노조위원장의 참여의식과 산악인의 도전정신, 그리고 경영진의 의지가 맞아 떨어져 산악실업팀이 창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창단시점에서 나는 철저히 배제가 되고 말았다. 배제된 이유와 과정은 지금도 베일속에 싸여있지만 첫 출발한 원정대의 절차상으로나 전력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했었다고 본다.

그러나 배제된 나의 아픔은 마음속에 묻어두고 첫 실업팀 창단이라는 기쁨 속에서 대한산악연맹학생산악연맹모두에게 창단식의 참석을 독려했으며, 창단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국에 알리는데열심히 노력했다. 그 이유는 첫 출발한 산악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갈등으로 인해서 걸어보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야만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할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그후 들리는 산악팀 내에 정서들로 원정이 실제적으로 꾸려지는 것이 힘들었던지 시샤팡마 등반을 앞두고 회사 모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지휘봉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회사상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었기에 몇 가지 요구사항과 함께 나는 팀을 맡기로 했다.

시샤팡마 남벽에 한국 최초로 신 루트를 내는 책임을 맡게 되었고 그 등반준비로 나날이 바쁘게 살아야만 했다. 등반하는 도중에 베이스캠프에 격려를 왔던 격려 팀 중 한 노조간부는 우리가 등 반하는 과정을 보더니 "그동안 산악팀에 대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짐승이나 해야 하겠구먼" 하시면서 웃는 모습은 우리들 추억 속에 지금도 감동적으로 남아있다.

원정의 성공은 조직원들의 응집력과 실력 그리고 리더의 사심 없는 지휘만이 성공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원정대의 결과는 항상 실패와 조난으로만 점철되어왔다. 그래서 대장은 혹독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많고 조직의 응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 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의 오해와 미움을 씻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격려팀들의 하산과 포터들의 스트라이크로 지연되면서 운 좋게도 한국 최초 8,000m 신 루트 시 샤팡마 등정을 노사가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며 그날의 흥분된 분위기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과 원정대를 꾸리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의 서운함과 뒤섞여 함께 얼싸안고함성과 눈물을 흘리며 우리 모두는 진한 행복감에 도취되었고 그때 그 길을 '코리아하이웨이'라고 명하였다.

호사다마라고 생각하고 인천공항에 귀국해서 등정에 참여했던 모든 대원들에게 겸손하며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은 적어도 히말라야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생활에서도 다 른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모범적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는 나의 생각 때문이었다.

시샤팡마 등정 후 한국산악 활동사에서 도로공사의 입지는 급격히 상승되었고 한국도로공사가 추구하는 보다 나은 회사발전과 일치하여 산악운동도 좀 더 어렵고 힘든 루트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자 노력을 했다.

당시 국내 · 외적으로 로체남벽 등반은 대단히 어렵다고 평가되었으며 한국산악회가 풀어야 하

는 절대 절명의 숙제라고 여겼기에 우리는 2004년 로체 남벽원정대를 출발시킬 수 있었다. 이 등반을 통해 한국등반사를 새로 쓰고 싶었고 이 등반이 성공적으로만 이뤄진다면 한국도로공사 산악팀은 산악 역사상에 우뚝 서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정대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팀의 분열과 원정대원들의 등반에 대한 확신 부족, 생각보다도 어렵기만한 루트, 원정대 대원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결국에 가서는 등반 실패를 자초하고 말았다. 지나보면 잘 이끌어 내지 못한 나의 부덕함과 능력부족이 뼈저리고 포용하지 못한 나의 옹졸함이 크게만 다가온다. 당시 날씨 상황도 좋지 못해 계명대학교 원정대 3명이 조난을 당했어야만했고, 우리원정대의 철수 시점에서 발생한 캠프1 붕괴사건 등은 우리도 적절하지 못한 판단과 고집에 의한 등반을 계속 했었더라면 조난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 등반을 통해서 지혜, 포용력, 인내는 나의 생활 속에서 풍요롭게 싹터옴을 볼 때마다 오히려 로체남벽등반의 실패가 나에게는 커다란 가르침이 되었던 것 같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고 상처받은 매화가 빨리 핀다는 말이 있듯이 로체 원정실패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억측 그리고 편견, 오해들을 만들어 박정헌은 회사를 떠나게 되고, 실업팀은 존폐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다행히 당시 회사 임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시대상황에 맞는 도로공사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장애인과 함께하는 2007희망을 위한 에베레스트와 로체 원정대를 발족할 수가 있었다. 등반 중에 사장님과 임직원이 베이스캠프에 방문해 주어 많은 다른 원정대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으며 등반시작 후 5일 만에 알파인 스타일로 로체 등정자 3명을(강연룡, 김미곤, 윤중현) 시즌 처음으로 만들어냈을 때 한국도로공사 산악팀이 명실 공히 국내최고의 강팀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베이스캠프에 있는 박영석, 허영호 등 수많은 외국 원정대들이 함께 했으며 그곳에서 한국도로공사원정대가 보여주었던 행위들은 정말 전위적인 등반의 형태였다.

이어서 장애인 김홍빈과 김미곤, 윤중현 3명의 에베레스트 로체 연속 등정을 성공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뛸 듯이 기뻤으나 에베레스트 남서벽을 등반 중인 박영석 원정대에서는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뛰어난 등산가가 죽고 말았다. 조난당한 故이현조군과 故오희준군은 우리와함께 베이스캠프 생활도 했으며 로체남벽 훈련할 때 함께했던 대원들이라 상실의 고통은 우리 팀등정의 기쁨보다 훨씬 크고 힘들었다.

"기쁨도 눈물 근처에 있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우리의 원정성공과 실패는 몸을 아끼지 않고 헌 신적으로 등반에 임해 주는 여러 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다시 한 번 느낀다. 다행히 한국



도로공사팀은 한 명의 조난사고도 없이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맑은 영혼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전남 등산학교 30년이 된 만큼 내 나이도 중년이 넘었다. 회사와 산악활동을 하면서 부족하나마 회사와 이 지역의 긍지와 자부심을 전국에 알렸고, 한국산악계가 지켜야 할 등로주의 노선을 성실히 지켰으며 장애인 김홍빈과 함께하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따뜻한 마음이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된 것은 그동안 말없이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며 지원해 주었던 수많은산악 선,후배들과 말없이 후원해준 지인들과 직원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시대상황이 어렵고 국가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요즘 각 개인의 생활과 사회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공기업으로서 한국도로공사는 막힘없는 진취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힘들 때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불우한 사람을 돌보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산악인들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우리의 존재는 비춰주는 모습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글을 마치고 싶다.

(무진악 9호 발표)

제3절 1980년대

1. 학생산악운동의 도약과 히말라야 원정의 시작

80년대 광주·전남지역 산악계는 학생산악운동의 주류를 이뤘던 세대들이 연맹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조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84년에 무등산에서 제17회 대통령배 전국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그 역량과 기량을 전국적으로 발휘하였으며, 80년 유럽알프스 O.L 대회와 81년 스위스 세계 O.L 대회에 조선대학교산악회의 김두환(조선대79) 회원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참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남대와 조선대 양 대학에는 '전남대학교 총장기쟁탈 Cross-Country대회'와'조선대학교 총장기 전국 대학생 남녀 Cross-Country 대회'가 있었는데 이 두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산 악부들의 화합의 장이자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 대회를 통하여 대학산악부들은 산악회를 홍보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서 학생산악활동의 전성기를 이루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1966년 첫 대회를 시작한 전남대학교 총장기쟁탈 Cross-Country 대회도 참가자 부족이라는 시대변화의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2008년 43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그 화려한 역사를 마감하였다.

70년대 중후반 부활된 전남학생산악연맹이 개설한 '전남산간학교'는 대학산악부 출신의 엘리트 산악인을 꾸준히 양성하여 이 지방 산악계에 해외원정등반의 물꼬를 트이게 한다. 79년 8월 7일~12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지리산 피아골에서 첫 출범을 하여 올해로 3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합적인 등산교육기관으로서 그동안 약 3000여명의 엘리트 산악인을 배출하여 명실 공히 광주·전남지역의 산악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남산간학교(동계반)는 70년대 후반 AUSTRIA, INNSBRUCK 등산학교를 이수한 최창돈(전남대65) 등이 강사로 나서 겨울산행과히말라야 등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교육하게 되고 이를 수료한 대학산악회원들은 수년 후 강사가되어 후배에게 이를 전수하는 등 산간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산악부가 크게 활성화 되면서 이지방의 산악활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히말라야로 향하는 변화의 기류가 형성되었다.

1981년 故정순택(전남대62)고문이 제5회 고자이쇼다께 전일본암등경기회에 참가하고 북알프스를 등반해 해외의 등반사조와 등반기술을 접하고 돌아와 국내에 전해 많은 도움이 된다. 그 이듬

해 전남대학교 산악회 자체로 꾸려진 최초 해외원정등반이 시동을 건다. 82년 8월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대장 박명선/전남대65)가 해외등반에 첫발을 뗀 것이다. 전남대학교 산악회와 OB산악회원 들인 박명선(전남대65), 조선행(전남대78), 양일승(전남대80), 임우근(전남대81) 대원 등 4명으로 꾸려진 소규모 원정대는 일본 북알프스를 등반하면서 이 지역의 자체적인 해외원정등반의 서막을 연다. 해외여행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에 행한 해외원정등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심대하다. 1983년 조선대학교산악회는 고광수(조선대76)회원 등이 주도하여 안나푸르나Ⅲ봉을 정찰하고 84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Ⅲ봉(7,555m) 원정대(대장 고광수)를 파견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히말라야 원정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 이어 1987년 가을 전남의대산악회의 렌포강(7,038m) 서벽초등은 광주·전남 산악계의 첫 히말라야 등정이며 국내에서도 손꼽을 만한 등로주의 등반으로 평가된다. 87년 전남대학교 의대산악회가 렌포강(7,083m) 원정을 마치고 발간 한 원정보고서 '렌포강 하늘길'은 체계적인 배치와 편집으로 후일 '보고서의 典範(전범)'으로 평가되면서 많은 원정대가이 포맷을 기본 틀로 삼게 되었다. 또한 88년에는 대산련의 '88에베레스트-로체 원정대'에 조선대학교 산악회의 임형철(조선대77)회원이 참여하여 최초로 8000m 급 봉우리인 로체봉(8,516m)을 등정했다. 이는 한국인 초등이기도 하다. 이렇게 학생산악연맹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 학생산악운동의 정점 89/90 동계 에베레스트원정대

1) 원정추진 배경1

1961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학생산악운동이 태동하였다. 국토순례와 종단, 규명활동을 통해 나라사랑의 길을 펼치며 중앙의 산악활동에 접근해 간 시기다. 초창기 대외적으로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회원들은 나름대로 전국적인 산악활동에 참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전파하는데 정열을 쏟았다. 내부적으로 각 대학과 고등학교 회원들의 결속을 다져갔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창기를 맞으며 회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국가적으로 펼치는 해외 원정대열에 참가한 시기이며 학생연맹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단체로 성장한 때다. 독자적인 산행기술 개발과 중. 장기등반 및 하얀 산에 대한 등반연구의 열기가 차츰 고조되고 있었다.

1970년 초 한국 마나슬루 원정과 1977년 한국 에베레스트 원정에서 이 지역 학생연맹 회원들의

^{1 89/90} 동계에베레스트 원정등반보고서 「우리들의 에베레스트」 발췌

참가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해석 등을 통한 결론은 다방면으로 좀 더 확실하고 힘 있는 산악활동의 요구였다.

이때부터 많은 회원들은 국내의 모든 산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연맹의 조직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조직적인 등반활동이 필요하게 되었고 1979년 광주등산학교가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은 광주등산학교를 구심체로 하여 발전을 거듭했다. 선, 후배 간의 끈끈하고 질긴 정 하나만으로 매년 여름 가을 겨울 3회에 걸쳐 지리산 월출산 설악산 한라산에서 등반의 기초이론부터 선진등반기술 올바른 산악문화에 이르기까지 유능한 산악인과 지도자를 배출해왔다. 지금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등산학교의 체계와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모두가 이러한 맥락에서 연유한 것이다.

해가 바뀌어 갈수록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 광주등산학교를 발판으로 확실히 성장하고 있을 조음 1980년대 초부터 한국의 해외등반은 급속도로 늘어갔다. 바야흐로 해외원정 등반러시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곳만은 안타까울 만치 인연이 닿지 않았다. 어쩌다 인연이 닿으면 이런 저런 사정으로 무산되기 십상이었다.

해외의 고산등반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알피니즘의 종합시험장이며 구현할 수 있는 무대는 하얀 산 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은 만년설이 뒤덮인 히말라야의 하얀 산을 올라보고 싶어 한다. 히말라야의 하얀 산은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원들이 마음속에 새겨오기 이미 오래전 조심스레 오가던 마음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86년 여름, 지리산 피아골에서 제8회 광주등산학교 정규반이 개교했다. 그 동안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을 키우고 발전시킨 선배들과 광주등산학교를 이끌어온 임원들이 모였다. 피아골의 밤공기는 청량했다. 오가는 대화는 피아골의 물처럼 시원하고 정감 있었다. 모두가 자신에 차 있었고 서로를 깊게 신뢰하고 있었다. 히말라야의 하얀 산이 어렵지 않게 논의되고 산악문화를 차원높게 하는 준비단계를 이야기했다. 히말라야에서 광주등산학교를 설계하였다.

그날 이후 히말라야에서의 광주등산학교 개교를 조용한 가운데 하나 둘 준비해 나갔다. 대외적으로는 정순택 학생산악연맹회장을 중심으로 분주하였고 안으로는 부회장단과 각 대학 단위산악회장 학생연맹 임원들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광주등산학교 운영을 히말라야 원정에 대비하여 계획했다. 원정대 규약을 채택하고 준비위원 선임 훈련대원 신청 및 접수를 시작했다.

1988년 봄 대상 산에 대한 다소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입산허가 신청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

려하여 네팔 쿰부히말라야 지역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파키스탄의 카라코람 히말라야 지역과 쿰부히말의 여러 봉우리를 대상으로 광주등산학교 개교 활동 등에 관한 폭넓은 이야기들이 거론되었으나 겨울철 에베레스트 등반으로 최종 결정되었던 것이다.

1988년 8월 15일 구례 동중학교에서 정식 원정을 대비한 훈련대 발대식을 가졌다. 본격적인 훈련과 준비가 시작되었다. 임형칠 대원은 88한국에베레스트-로체 원정대원으로 참가해 로체를 등정하고 사전 정찰활동을 수행했다. 대한 산악연맹의 도움으로 최단 시일 내에 입산허가를 취득하였다. 당초 원정 예산확보는 체육부와 대원의 부담으로 계획했으나 세계최고봉 겨울철 등반과 참가대원의 증가 등이 겹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로케트전기 대표이사인 김종성 단장의 흔쾌한 지원으로 준비에 박차를 더해가고 1988년 가을부터는 광주일보 이창수 기자가 대원으로 참가해 훈련에 동참했다.

1989년 봄, 대원 확정에서 김하경 대장의 결단으로 최초 15명 내외로 계획한 대원을 30명으로 확충했다. 그동안 훈련에 열심히 참가한 대원은 모두 에베레스트로 함께 가기로 한 것이다.

한국 히말라야 원정사에서 가장 대규모이며 겨울철 히말라야 등반팀 중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다. 1989년 10월 24일 본대가 출국하기 얼마 전 최경석 대원과 장희 대원이 불행하게도 훈련도중 다리부상과 갑작스런 사정으로 함께 등반을 못하게 되어 28명이 출국하였으나 30명이 등반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여긴다. 대규모 원정준비를 마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는 대원들과 여기저기서 알게 모르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받았다. 실제 이러한 이해의 마음과 도움이 89/90 한국동계에베레스트 원정대를 이룬 한 부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2) 성과

89/90년 동계에베레스트등반은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 불모지였던 광주·전남지역에 히말라 야등반이라는 황무지를 개척했다고 평 할 수 있다. 70-80년대까지만 해도 자체원정대로서 히말라야등반은 이 지역에서는 꿈의 무대였다.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히말라야를 경험한, 하얀 산에 다녀온 인적자원이 희박했던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순택(전남대62)고문과 김하경(전남대68)원 정대장 이정옥(전남대69) 등반대장의 3인방이 주축이 된 89/90 광주·전남 동계에베레스트 원정은 지역산악계에 히말라야 등반의 신기원을 연 기념비적 등반이다. 히말라야등반역사상 최다인원인 무려 28명이라는 대원을 이끌고 2년 여의 준비기간과 1백 20여 일간의 사투 그리고 그들의 영광과 좌절을 담은 '우리들의 에베레스트'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최초의 에베레스트 보고서로 그당시만 해도 보기 드문 매우 훌륭한 보고서였다. 이 등반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은 히말라야등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당시 배출한 원정 대원들은 저마다의 소속 산악회에서 히말라야등반의 서막을 열고 활발한 활약을 펼쳤다. 지역 히말라야 등반의 물꼬를 터 이후 광주·전남산악운동은 히말라야등반 봇물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아득하고 험난하게만 느껴졌던 히말라야등반을 접한 수많은 대원들이 각 학교로 돌아가 도전이라는 꿈을 확산한 것이다. 확실히 다진 주춧돌들이 시금석이 돼 90년대 이 지역은 히말라야등반의 황금기를 구가했으며 2000년대 이를 기반으로 각계각층으로 진출해 한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을 배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3) 원정 대원

	11 62			
	직책	이름	소속(당시 기준)	비고
1	단장	김 종 성	㈜로케트전기 대표이사	
2	고문	정 순 택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학산 62
3	원정대장	김 하 경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학산 68
4	원정부대장	정 태 영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학산 67
5	등반대장	이 정 옥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학산 69
6	등반부대장	임 형 칠	조선대학교 산악회 OB	학산 77
7	선발대장 · 수송	김 인 주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학산 74
8	포장	김 종 철	광주교육대학교 산악회 OB	학산 76
9	수송	윤호근	송원전문대학 산악회 OB	학산 79
10	수송	이 연 근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학산 80
11	수송	김 영 학	서강전문대학 산악회 OB	학산 80
12	행정	임 우 근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학산 81
13	행정 · 기록	신 욱 철	조선대학교 산악회 OB	학산 81
14	의료	이 병 철	목포대학교 산악회 OB	학산 81
15	촬영	정 찬 득	송원전문대학 산악회 OB	학산 81
16	포장	고 재 연	서강전문대학 산악회 OB	학산 81
17	장비	김 병 규	조선대학교 산악회 OB	학산 82
18	장비	김홍 빈	송원전문대학 산악회 OB	학산 83
19	식량	윤 장 호	조선대학교 산악회	학산 83
20	식량	김 은 철	송원전문대학 산악회 OB	학산 83
21	포장	김 동 열	순천대학교 산악회	학산 83
22	포장	이 연 주	서강전문대학 산악회 OB	학산 83
23	수송	한 민 수	전남대학교 산악회	학산 83
24	수송	최 행 준	전남대학교 산악회	학산 85
25	장비	이 병 규	목포대학교 산악회	학산 85
26	기록	김 애 란	서강전문대학 산악회 OB	학산 86
27	식량	윤 호 준	송원전문대학 산악회	학산 88
28	보도	이 창 수	광주일보 기자	

3. '90 광주 낭가파르밧(Nanga Parbat, 8,125m) 원정대





(왼쪽)원정대의 심벌은 전체적으로 산을 상징하는 삼각형과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으로 구성하였으며 삼각 형을 구성하는 21개의 분할 횡선은 본 원정대의 훈련 참가대원 스물한 면의 집념과 협동을 의미합니다.

〈1989년 원정대 팜플렛의 심벌 설명 中 - 당시 원정대의 섬세한 준비를 알 수 있다〉

학산의 알피니즘 배움의 과정은 학사과정에 맞춘 단계적 산악활동과 1년 주기로 후배가 선배가 되고 선배가 지도자로 성장하는 학교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산악회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80년대는 일반산악회나 대학산악부나 모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 협력, 교류하며 발전해 나갔다.

80년대 후반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히말라야 등반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는 학생산악연맹을 중심으로 한 에베레스트 등반팀이었고 다른 하나는 낭가파르밧을 목포로 한 광주·전남 합동팀이었다

이 원정대는 취지문에서 광주·전남 산악계에 산악운동의 기폭제를 마련하고자 이 원정대를 준비했다고 한다. 함께한 대원들이 원정이 끝난 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그 위치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 이 땅의 이곳 저곳에 새롭고 당찬 산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해주길 기대하면서 광주·전남의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대상지였던 파키스탄 히말라야의 낭가파르밧을 목표로 훈련에 전념하였던 광주·전남 합동대에는 학생산악연맹 출신으로 최창돈(전남대 65), 윤장현(조대의대 69, 현 광주시장), 이은식(조대의대) 김웅기(전대의대 71), 위계룡(전대의대 72) 회원이 정신적물질적 후원자로 나서게 되었고, 오성개(전남대 76), 이성원(조선이공대 79), 정성백(조선이공대 81), 문태철(순천대 82), 서종갑(조선이공대 88)등의 많은 학산 출신 회원이 대원으로 참여하여 큰활약을 하였다.

90 낭가파르밧 합동 원정대는 광주·전남 초창기의 대규모 원정으로서 학산 발전에 끼친 영향은 그 크기에 있어 학산의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학산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산악인이기에 일반산악회와 학산인 간의 교류를 통한 산악 운동 발전의 밑거름은 결국 같은 줄기인 것이다.

이 원정에서 정성백은 단독 정상공격에 나섰으나 탈진 후 하산 중 눈사태로 7,700m 지점에서 추락하여 유명을 달리하였다. 훗날 이 원정대에 참여하였던 이성원 대원은 이후 고 정성백 대원의 정신을 기리고 못 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낭가파르밧만 4번의 도전을 하는 집념을 보였다. 절치부심 도전한 끝에 결국 2005년 한국 낭가파르밧 루팔벽 원정대의 이현조(전남대 92), 김창호(서울시립대 88)가 35년만에 루팔벽을 재등정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1) 원정 대원

	직책	이름	소속(당시 기준)	비고
1	고문	고 재 기	무등산악회	
2	고문	오 종 태	너덜클럽	
3	원정대장	최 창 돈	전남대학교 OB산악회	
4	부대장	윤 장 현	조선대의대산악회 OB	
5	등반대장	위 계 룡	전남대학교의대산악회 OB	
6	대원	이 지 헌	조선대의대산악회 OB	
7	대원	김 웅 기	전남대학교의대산악회 OB	
8	대원	이 은 식	조선대의대산악회 OB	
9	대원	송 영 호	바자울산악회	
10	대원	오 성 개	전남대학교 OB산악회	
11	대원	박 찬 기	우암산악회	
12	대원	김 경 선	주부	
13	대원	이 성 원	조선이공대산악회 OB	
14	대원	박 신 영	우암산악회	
15	대원	문 태 철	순천대산악회 OB	
16	대원	정 오 승	바자울산악회	
17	대원	정 성 백	조선이공대산악회 OB	
18	대원	서 종 갑	조선이공대산악회	
19		배 록 현	우암산악회	훈련대원
20		박 현 문	전남대학교 OB산악회, 바자울산악회	훈련대원
21		김 거 봉	목포대산악회 OB	훈련대원
22		문 영 길	바자울산악회	훈련대원
23		정 인 숙	은벽산악회	훈련대원
24		배 정 만	우암산악회	훈련대원
25		윤 섭 현	조선이공대산악회 OB	훈련대원

4.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 21세기 국민복지시대의 출발은 자연생태복지로부터!

※ 국립공원이 되기까지 무등산보호운동의 역사				
1987년 10월	"무등산을 살리자"성명서 발표로 무등산보호운동 시작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1989년 03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총회 발의			
1989년 04월	무등산사랑 범시민축제 개최(현재 매년 춘, 추계 MBC와 공동개최)			
1989년 05월	11개 가맹단체로 창립(현재 78개 회원단체)			
1990년 03월	무등산사랑 심포지엄 개최(매년 실시)			
1991년 10월	무등산사랑 장애인 · 비장애인 자매 등반대회			
1993년 09월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단법인 승인			
1994년 04월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개설(매년 2기씩 수료)			
1997년 04월	무등산연구소 개설(무등산 전문위원회를 상설기구화)			
1999년 10월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1년 03월	(재)무등산공유화재단 재단법인 환경부 승인			
2001년 07월	무등산사랑청소년 환경학교 개설			
2003년 03월	무등산사랑생명숲학교 개설(매월2회씩)			
2005년 10월	풀뿌리 시민운동 사례공모 발표회 최고상 수상			
2005년 12월	광주광역시 초중고 체험교과활동발표에서 무등산사랑청소년환경학교 최우수상			
2006년 03월	시민 숙원사업 무등산공원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정비 복원사업 추진			
2006년 11월	전국 산림생태 복원지 선정대회에서 무등산공원 생태복원사업 대상 수상			
2007년 05월	前 노무현 대통령 무등산(문빈정사 - 장불재 왕복)6시간 산행			
2008년 12월	산림청 "숲해설가초급교육과정인증기관" 선정			
2009년 11월	국제심포지엄 개최(400여 명 참석)			
2010년 10월	무등산자락 무돌길 동구구간 개방, 2011년 11월 북구 담양 화순구간 개방			
2011년 05월	무등산정상 개방(년 4회 합의)			
2011년 08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광주광역시)			
2012년 12월	무등산국립공원지정 무돌길 한 바퀴 행사 (현재 3회)			

2012년 12월 27일	무등산국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기념행사 - 상무지구 시티 컨벤션 (1972년 05월 22일 무등산 도립공원 지정)		
2013년 03월 04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기념행사 - 무등산 문빈정사 입구		
2013년 04월	녹색캠페인 및 식목행사 범시민대회		
2014년 03월 04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주년 기념행사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1) 무등산사랑 시민운동 배경

무등산사랑운동은 광주·전남의 상징인 무등산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을 중심으로 1987년 10월 '무등산을 살리자'라는 성명서(작성자: 임형칠 조선대 77)를 발표하고, 김인주(전남대 74)를 비롯한 우리 학생산악연맹 OB & YB회원들이 본격적으로 광주시민에게 배포를 시작하여 봉기 하면서 무등산의 상업적 개발계획을 막고 정상의 군부대 이전과 방송시설의 철거를 통한 자연그대로의 무등산을 지키고자 무등산보호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등산의 상업적 개발은 1957년 이후, 지난 57여 년간 꾸준히 추진되었으나 광주· 전남지역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무등산에 대한 애정은 범시민적 애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치달렸음에도무등산은 1957년 「무등산개발추진위원회」의 산수동과 원효사 계곡간의 관광도로화(1958년), 원효계곡의 무등산장 건축(1959년), 원효사지구에 대한 전남도의 국민관광지 지정(1969년), 국민관광지조성계획(1971년), 무등산의 도립공원지정(1972년), 학동 삼거리와 중심사간의 도로포장(1975년), 충장사와 광주호간의 도로 확장포장(1983년) 등의 개발로 인해 점차 옛 모습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로포장과 행정당국의 정책은 무등산 주변, 특히 원효사와 증심사 계곡 주변에 유원지·상가·숙박업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아울러 무등산의 관광지화가 가속화됨. 이러한 무등산의 개발은 근대화와 부의 상징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장밋빛 약속이었습니다.

광주의 역사적 정신적 토대인 「무등산」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증폭되었으며 시민의 힘으로 무등산을 지켜야한다는 일념으로 1987년 가을 "무등산을 살리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선후배 회원들이 무등산사랑범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무등산 운동성과

무등산보호단체 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환경대중운동을 통한 환경보호 운동으로 무등산의 공익적 가치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며 1989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환경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했던 국·공립 자연공원에서의 취사 야영 세제사용 제한 등 정책 제도화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국민 환경의식 변화 혁신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1991년 전국 최초로 무등산 시민 공유화 운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0만여 명이 참여하여 무등산의 사적인 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사랑 환경교육 운영은 전국 NGO중 가장 모범적인 운영모델 사례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을 통해서 약 3,0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연간 2회의 자연해설사, 숲해설사,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 2,000명의 인원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환경학교 생명숲 학교를 통해 총 3,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환경사랑 운동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3) 학술교육활동

가) 무등산사랑 학술심포지움 개최

무보협은 창립 다음해인 1990년부터 매년 봄에 광주광역시의 후원 아래 광주문화방송(주)과 공 동으로 「무등산 사랑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 6차례에 걸쳐 추진된 이 심포지엄에서는 무등산 보호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 함으로써, 무등산 보호를 위한 이론적 밑거름이 되었고 이러한 심포지엄이 추진된 배경에는 무등 산 보호운동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토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등산 사랑 심포지엄은 무등산의 이용, 생태, 산림, 행정 등 각계 전문가의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한층 심화된 시민과 지방정부의 행정 의식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협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1999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협의회 부설 무등산 연구소」라는 결실을 맺 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등산의 개발과 보존을 주제로 무등산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시민 홍보와 실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무등산 보호를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고 무보 협은 이러한 연구 논문을 토대로 무등산 보존운동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환경보전을 위한 내셔날 트러스트 국제 심포지엄 개최

무보협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999년 10월 7일과 8일, 『환경보전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국제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무보협 부설 무등산연구소 주최로 추진된 이날 행사에는 국내. 외 환경단체 전문가들을 비롯해 정. 관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 그리고 무등산권 사유지의 공유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토지 공유화가 환경보전을 위해 필수적 조건이라는 인식에서 추진되었으며, 즉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지역 등 자연보존지역의 공유화는 미래의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의 실천을 위한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무등산국립공원은 토지공유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환경보존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절실한 시점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내셔널트러스트 국제 심포지엄은 무등산권 사유지의 공유화 방안을 위해 국. 내외 사례와 전문가들의 대안제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공립공원 등 자연보호구역의 공유화를 위한장치, 즉 법제화 . 정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화에 대한 시민적,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환경보존정책과 토지의 공유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던 국내 상황에서 개최된 환경보전을 위한 내셔날 트러스트 국제 심포지엄은 국.공립공원의 공유화 추진을 위한 올바르고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가속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무등산공유화운동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라는 대중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무보협은 「무등산을 사랑하자」는 캠페인을 「무등산 생명작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1994년부터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을 개설하여 2014년 상반기 38기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4,000 여명의 수강신청에 3,000여명 수료생(2000년무등산운동최고지도자연수과정생 제외)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무등산 보호운동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무등산의 동. 식물과 그 역사적 복원 등을 통해 무등산의 옛 모습을 되새기고, 영원한 생명력을 갖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은 광주. 전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등산의 생태계 및 문화유적 탐방 그리고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해 무등산 보호의 파수꾼으로서, 주체적인 시민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광주시, 영산강환경관리청, 광주시교육청, 효성문화재단의 후원 아래 (주)광주문화방송과 공동으로 매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두 차례(상. 하반기)에 걸쳐 11주 동안 이론 강의와 4회에

걸친 현장실습으로 환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료생은 환경대학이 수여하는 환경교육지도자 과정 수료증과 함께 향후 환경활동을 주도하는 「무등산 환경구조대」, 「무등산 환경교원협의회」, 「무등산 푸른회원」 등 무보협 활동 단체 및 회원에 참가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3개월 동안 환경이론과 실기에서 경험한 내용을 소개하는 졸업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환경대학에서는 학계 및 정. 관계, 시민단체 실무진 등 160여명의 전문 강사진과 초청 인사를 초빙하여 자신들의 활동영역에서 익힌 지식과 체험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 무등산사랑 범시민운동

가) 무등산 해맞이 계도활동

본 협의회는 무등산 보호를 위한 학술활동과 함께 매년 무등산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등산 보호를 위한 범시민운동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무등산 해맞이 계도활동과 무등산 사랑 춘·추계 범시민대회, 무등산 환경훼손 신고센터 운영, 환경정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광주·전남지역 시민들이 매년 신년을 맞아 영산인 무등산에서 해맞이를 하고자 모여들어 무등산이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히 해맞이는 자정을 넘어 새벽에 진행된 까닭에 많은 시민들이 추위로 인해 모닥불을 여기저기 피워 무등산 산림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보협은 1991년부터 광주시와 공동으로 정월 초하루에 무등산 등반을 자제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모닥불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무등산 해맞이 계도활도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정월초 오후 6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증심사 입구와 산장 입구, 장불재, 중머리재 등 무등산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모닥불 방지. 취사도구 휴대금지. 쓰레기 버리지 않기. 대중 교통이용하기. 잡상인 금지. 흡연 금지. 지정 등산로 이용. 음주, 고성방가 행위 삼가. 나뭇가지 꺾지 않기 등의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의 결과 현재 무등산 해맞이인파는 대폭 줄었으며 모닥불을 피우는 등의 산림훼손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 춘 · 추계 무등산 범 시민대회

무등산사랑 범시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무등산의 단순보호 정화활동에서 한 차원 승화된 무 등산 운동을 모색하며 무등산을 알고 배우는 실천의 장을 통해 자연과 도시화경이 조화로 이루는 무등산생명운동을 정착시키고'자하는 목적으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등산사랑 범시민대회이다.

특히 범시민대회에서는 협의회 소속 78개 가맹단체를 포함하여 시민, 학생, 광주광역시, 광주문 화방송(주), 31향토사단 장병 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무등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등산 보호에는 시민적 협조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시민 참여 운동으로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무등산사랑과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결의를 다진 이후 등산로 보수. 칡넝쿨 제거. 자연탐방 탐방. 무등산 사찰 탐사. 무등산 가사 문화권 탐사.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실천활동과 환경사진, 무등산 사계 사진 전시를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어른 등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무등산 어울림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다) 장애인, 비장애인 자매 등산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무등산 사랑 자매 등반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무등산 자매등산을 통해 인간사랑. 자연사랑을 몸소 느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만들어 가는 보람된 시간 을 갖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매년 1회씩 총 11회에 걸쳐 많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참가하여 광주의 자랑 무등산의 우아한 모습과 자태를 체험하는 동시에 등반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5) 보존운동

무등산 보전운동은 기본적으로 무등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무등산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비판과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무등산 개발욕구가 대거 분출되었으며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만 현재까지 30건을 넘을 정도로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인 무등산을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는 무등산 보전운동의 어려움이 있다.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의 대안으로 무등산공유화운동이 새로운 시민환경운동의 방법으로 제안되었으며 무등산공유화운동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가) 무등산 절단하는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건설 반대 운동

광주시는 만성적인 교통난의 해소를 이유로 1991년 제1순환도로에 이어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동광주 IC에서 소태동 IC까지 8.4km에 이르는 제2순환도로 제1구간에 건설에 대해 무등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 그리고 환경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무등산관통구간은 교통난 해소라는 이유로 기능과 비용만 고려한 단기적이고 토목적인 도로구상이 아닌 좀 더 장기적인 안목과 도시시설의 종합성 그리고 융통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광범위하게 무등산을 절개함으로서 발생하는 무등산파괴와 시민들의 조망권 저해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및 교육환경 그리고 짧은 구간에 빈번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기적인 교통난 해소보다는 무등산이 지닌 사회적 · 문화적 ·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199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1구간 건설공사 「중지의결」이 결정됨으로서 타당성을 입증 받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공사를 강행하였고 결국 무등산을 관통하는 제2순환도로 제1구간은 완공되었다. 하지만 무등산의 대규모 훼손을 감수하고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예측 실패에 따라 매년 수백억의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등 교통난 해소의 효과가 미비와 광주시 재정의 과다비용지출로 문제가 되고 있다.

나)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 저지

'프라임월드(주)(당시 청전자연농원(주))는 1991년 운림동 일대 12만2천여 평의 온천지구와 집단 시설지구 지정지가 겹치는 면적의 47%에 해당하는 3만6천여 평에 연 건평 3만5백여 평의 국제규 모의 특급호텔. 유스호스텔. 산장. 여관. 사업소와 대형 주차장. 대규모 온천장 등을 건설하겠다는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0년 무등산 제1수원지 부근에서 25도의 단순온천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온천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10여년이 넘게 지금까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급기야 개발 업체 측에서 온천개발을 반대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등산 운림 온천 개발은 온천지구지정 당시부터 무등산 생태계 파괴, 지하수 고갈, 교통문제을 비롯하여 물 없는 온천이라는 주장이 신빙성 있게 제기되었으며 무등산 보존을 바라는 시민적 여론에 막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자연공원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원타당성검토 결과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온천 개발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논란이 진행 중이다.

※공원타당성 검토결과: 공원타당성 검토 결과(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 계획)에 따르면 「온천공 재조사가 선결된 후 온천여부와 가채수량을 근거로 온천지구 시설규모 및 온천 개발 계획이 재검토된 후 허가하는 방안」(1안)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의 축소 안이 수용되거나 장기적으로 폐지안이 결정될 경우 온천 지구를 해제하고 광주시가 매입하는 방안」(2안)

※영산강환경관리청 권고(2002.5.24)사항: 「도립공원내에 온천시설이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함」, 「광주광역시가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결과로 대체한 무등산권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 계획은 공원계획을 위한 것이므로 동종합 계획의 타당성 검토 내용은 공원계획변경안(운림개발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함」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공원 계획 타당성 검토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다) 무등산 고지대 자생 수목단지 조성

광주시는 1994년 무등산 입석대 주변에 구상나무 및 주목을 인위적으로 식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경학을 전공하는 학자 등 전문가 그룹과 본 협의회는 인위적인 식재는 무등산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무등산 도립공원구역에는 1,109종의 식물이 생육되고 있으며 그 중 외래종과 자생종은 각각 325종과 784종으로 외래종이 29,4%나 되어 자연보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인공식재는 무등산 수목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고 예산낭비, 공원식생 파괴, 무등산 자연경관 훼손 등을 내세워 반대하였으며, 원효사, 봉황대, 대피소, 증심사, 까지바위, 중봉, 장불재, 도로변과 휴양시설 등지의 인공식재를 하루 속히 정리하고 주변생태계를 고려한 식생복원을 주장하였다.

라) 호남 창의관 건립

광주시는 1992년 호남이 수많은 충의열사들을 배출한 고장이라는 의미에서 「義의 고장」을 기치로 호남출신 의병장과 충의열사 2,115분의 넋을 기리는 호남창의관을 무등산 원효사 계곡일대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창의관 건립 장소의 변경을 주장했고 광주지방환경청에서 도 창의관은 공원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무등산 지역의 건립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광주시

는 이러한 의견과 주장을 묵살하고 건립 안을 의회에 부의하여 통과시켰고 공사를 강행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부딪혀 결국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창의관 건립을 종결하였다.

6) 그 밖의 무등산 사랑 보호 운동

골프장 조성 반대.

무등산 불법 도로공사 제지운동,

의재 허백련 미술관 조성계획.

무등산 정상 방송. 통신시설 철거 및 통합,

특수 군사시설 철거 및 이전.

원효사 부도전 복원.

산장-바람재 차량 통행금지.

근린 생활체육시설(김삿갓, 당산나무, 산장나무, 산장인공폭포수),

원효사 계곡 인공폭포 폐기. 청품쉼터 개발 반대.

무진고성 복원, 지산유원지 재개발의 건,

무등산 약수터 개발, 무등산 자연공원구역 확대,

무등산 도립공원 입장료 반대 등 많은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바람직한 무등산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제4절 1990년대

1. 프롤로그 - 학산의 황금기를 구가하다

89/90 동계에베레스트의 여운은 길었다. 사상최대 전무후무한 28명의 대 원정대(대장 김하경/전남대68)는 비록 정상등정은 못했지만 이 지역 산악운동 특히 히말라야 알피니즘에 불을 지폈다. 각 대학산악부로 돌아온 그들은 산악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향후 90년대 학산의 불꽃같은 황금기를 구가하는 초석이 된다. 그간 히말라야등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이 지역에 89/90원 정은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됐다. 김하경(전남대68)대장이 뿌린 꽃씨들의 파급력 또한 대단했다. 그들은 민들레 홀씨처럼 각 대학 리더로 중추적으로 활약하며 89/90 원정대의 '저변확대'라는 목표를 십분 발휘했다. 원정대는 80년대 학번이 대부분이어서 이 지역 학산은 젊음과 도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89/90의 자양분을 그대로 물려받아 90년대 초반은 학생산악운동이 꽃을 피운 절정기라 할만하다. 90년대 학산의 황금기는 92년 영·호남 합동 천산산맥 원정대를 서막으로 93년 대망의 초모랑마 원정대 정상등정으로 그 꽃을 피운다.

여기에는 박명선(전남대65), 오성개(전남대76), 임형칠(조선대77)이라는 트리오의 헌신과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 故 정순택(전남대62), 김하경(전남대68), 이정옥(전남대69)이 89/90 동계에 베레스트 원정을 성사시키면서 이룩 해놓은 반석 위에서 이들 트리오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광주·전남 학산인 나아가서 호남인의 숙원이었던 세계 최고봉 정상을 등정한 것이다.

93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초모랑마 원정대는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한을 풀기위해 꾸려졌으며 국내에서는 2번째 북사면 에베레스트 등정이었다.

임형칠(조선대77)대장을 중심으로 한 전 대원이 준비과정에서부터 훈련과정 출발과 등반 그리고 귀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오로지 원정 성공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특히 故 최행준(전남대85) 대원은 폭설과 강풍으로 모든 텐트들이 파괴되었을 때 눈사태의 위험성 때문에 내린 대장의 하산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캠프3, 캠프4의 텐트를 혼자서 복구해 등반의 성공에 큰 일조를 했다.

2. 1992년 한국 영 · 호남 천산 합동원정대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은 89/90동계 에베레스트에서 분패한 뒤 '우리들의 에베레스트'란보고서를 통해 에베레스트를 지상과제이자 숙명으로 설정한다. 92년 천산산맥 원정은 93년 에베레스트 원정을 위한 훈련이자전초전 성격을 띄었다. 89/90대원중 이창수(보도/광주일보) 임형칠(대장/조선대77) 윤호근(의

료통신/송원대79) 등이 참여했고 거기에 당시 학생위원장이었던 박헌주(총무식량/전남대 86) 이 정현(장비/순천대89) 김승룡(촬영기록/서영대88) 등이 합류한다. 당시는 영·호남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광주·전남학산과 대구경북학산이 주최한 원정대로 실질적으로 고산최초의 양지역 합동 원정대다. 따라서 영·호남 화합을 기치로 내걸고 시동을 건 원정대는 산악인뿐만 아니라 양 시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이를 위해 양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인 광주일보와 대구매일에서 취재기자와 사진기자가 파견되고 후원할 정도로 큰 반향 속에 치러졌다. 매월 팔공산과 무등산 등양 지역 유명산을 오가며 행한 훈련등반에는 양 지역산악인들이 대거 참여해 활발한 교류를 펼쳤다. 이 등반을 계기로 영·호남 학산인들은 과거보다 더욱 굳건한 결속으로 뭉쳤으며 정기적인 교류등반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당시 학생산악연맹 회장이었던 박명선(전남대65)과 오성개(전남대76) 전무이사가 원정대의 시동에서부터 출발과 성공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영남지역 대장인 장병호(영남대)와 호남지역 대장인 임형칠(조선대77)은 실질적인 쌍두마차였다.

장병호(영남대80)는 86 K2등정, 88 에베레스트등정 등으로 한국최고의 산악계 스타였으며 임형칠(조선대77)은 88 로체 한국초등 89/90동계에베레스트 등반부대장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였다. 이 두 사람이 이끄는 원정대는 국내 산악계의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이 등반은 영·호남 최초의 합동원정이라는 이슈 외에 구소련 해체이후 최초로 개방되는 천산산맥 최고의 美峯 칸텡그리(7,010m)와 천산최고봉 포베다봉(7,439m) 한국초등을 노리는 각 축장이 되기도 했다. 당시 천산에는 추후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故박영석(동국대83)과 한왕용 (우석대85), 에베레스트, 남북극, 베링해, 그린란드 등 5극지를 탐험한 홍성택(용인대85) 등 나중 에 한국산악계의 거목으로 자리하는 산악인들이 모두 모였다. 전주 대구 강릉 제주 서울등지에서 무려 40여명의 한국산악인들이 모여들었다. 때문에 비록 7천 미터 급이었지만 한국초등의 영예는 누가 차지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컸다.

7월13일부터 8월15일까지 원정대는 한국인에게 처음 개방된 실크로드의 등마루 천산산맥에서 영ㆍ호남 화합의 메아리를 울린다. 삼각형의 깎아지른 대리석봉우리이자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 을 가진 칸텡그리는 1차 공격 실패이후 8월1일 2차공 격에서 박헌주(전남대86) 장병호(영남대80) 가 강풍을 뚫고 8시간의 사투 끝에 한국초등의 영예를 차지한다. 원정대는 여세를 몰아 천산최고 봉 포베다로 향해 5일 만에 정상등정을 시도하는 알파인 속공등반을 펼쳤지만 심설과 강풍, 식량 부족과 눈사태 등으로 눈물의 후퇴를 결정한다.

칸텡그리 등정기 – 박헌주(전남대 86학번)

8월1일 04시 기상. 06시30분 설동(6.000m)출발. 9시 C4도착, 12시30분 꿀루와르 초입도착, 오후 2시30분 칸텡그리 정상등정, 5시30분 설동도착, 6시30분 C3도착, 8시 취침,

새벽4시에 일어나 머리맡에 놓아둔 랜턴으 로 고요한 설동안의 정적을 깨뜨린다. 외부날씨 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눈으로 막힌 설동입구 가 랜턴불빛을 되받아친다. 간신히 작은 틈으로 보는 밖은 눈보라가 거세다. 포카리, 자일, 카메 라. 깃발을 챙겨 5시에 정상공격을 감행하려 했 으나 강풍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 대기한다. 칸텡그리를 한국 초등한 박현주 대원



6시에 1차 출발을 시도했으나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다시 설동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심한 눈보라와 많은 적설량 때문이다. 잠시 앉아서 바람이 잦기를 기다렸다 하는 수 없이 6시30분에 비장한 각오로 설동을 박차고 나간다. 50세의 일본인은 등반을 포기하고 만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간신히 암벽에 설치된 픽스로프를 찾아 쥬마링을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든다. 강풍과 낙석에 픽스로프 곳곳이 찢겨나갔다. 슬립은 금물이며 쥬마에 몸을 의지해서도 안된다. 로프 마지막 부분에서 우측으로 약간 트래버스 하여 능선에 올라서니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몸을 낚아챌 정도다. 잠시 운행을 멈추고 몸을 수그리고 있자니 추위가 엄습해 몸이 금세 얼어붙는다. 등반을 계속해 안부에 도착하니 텐트 1동이 쳐져있다. 경사 60~80도의 암벽에 설치된 픽스로프를 이용한 고된 등반이다.

오늘 우리가 계획한 정상등정 소요시간은 10시간, 그리고 하산은 5시간, 모두 15시간 동안 나의 배낭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곤 포카리 1병(미숫가루는 무거워 넣어올 엄두가 안났다) 간식 1봉이 전부다. 암릉을 오르며 전진을 계속하는데 6,200m지점에서 갑자기 대변이 마렵다.

첫 고산원정에 긴장한 탓일까. 아니나 다를까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했던 왼쪽 아이젠이 벗겨져 버렸다. 계속해서 시간 재촉을 하는 병호형의 야단 속에 하는 수없이 경사진 곳에서 쪼그려 앉아 변을 보며 장갑의 끈을 풀어 임시방편으로 아이젠을 묶는데 설상가상으로 장갑이 바람에 날려 바위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실수 연발이다. 계속해서 암벽에 설치된 불안한 픽스로프를 따라 등반한다. 우리팀의 캠프4 지점에 설치된 천막이 바람에 갈기갈기 찢겨져있다. 어제 하산하지 못하고 능선에서 비박한 일본인 2명이 하강하는데 너무 속도가 더디다. 병호형이 짜증을 내자 I'm sorry!를 연발한다.

사고로 숨진 일본인 동판이 세워진 곳을 지나자 소련팀이 보인다. 그들과 함께 등반하는데 나일론 줄로 묶어놓은 아이젠이 주둥아리를 벌리며 계속 벗겨지려한다. 정말 미칠 노릇이다. 병호형의계속되는 채근에 마냥 쉬면서 정비할 수도 없을뿐더러 후배라는 입장이 여유를 없애버린 것 같다. '내가 고참이라면 차분히 앉아서 마무리를 짓고 갈텐데'. 강풍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불어대고 날려버린 장갑 대용으로 배낭 속에 예비용으로 가져온 오버미튼을 끼고 등반한다. 꿀르와르 진입하기 전부터 피켈을 사용한다.

꿀르와르에서 앞서가는 등반가들을 보니 몹시 지체하고 옷을 껴입느라 부산하다. 정상 설능을 쳐다보니 심한 눈보라가 정상까지 갈기갈기 휘날리고 있다. 뒤따라오던 병호형도 오버트라우저를 껴입고 나도 배낭 안에 있는 오버트라우저 하의를 입으려는데 도저히 바짓가랑이를 끼울 수가 없어 포기하고 말았다. 꿀르와르를 오르며 옆에 우두커니 서있는 한 친구를 쳐다보니 안면이 피투성

이다. 섬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Hi하고 인사했더니 '씩'하고 웃는다. 추위에 얼은 얼굴이 낙석이나 강한 바람에 휘날리는 얼음조각에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꿀루아르를 넘어서 정상설능에 올라서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눈보라와 몸을 가누기 힘든 돌풍이 몰아친다. 더군다나 그곳은 나이프 릿지였다. 도저히 앞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픽켈을 설면에 박고 엎드려 의지했다.(딱딱하게 크러스트 돼 잘 박히지도 않았다.) 뒤를 바라보니 병호형도 기가 질렸는지 얼굴을 푹 숙이고 바람을 피하고 있다. 나는 목출모를 써서 안면추위는 덜했지만 병호형은 고소모라 꽤 추웠을 것이다. 한참을 운행정지하고 있자니 체력도 떨어지고 하이퍼서미아의 위험까지 겹쳐 마지못해 앞으로 한발 한발 나아갔다. 도저히 나의 등반상식으로는 이러한 칼날능선을 안자일렌하지 않고는 못 올라갈 것 같았는데... 다섯 발자국을 뗀 다음 픽켈에 의지하고 몸을 웅크리기를 여러 번, 나이프릿지가 끝나고 설원에 이르러서 단단히 크러스트된 설사면을 오른다.

병호형이 "자신 있냐?"고 묻는다.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정상설원을 우회하여 약간의 바위부분이 나타난다. 조금 돌아서니 앞서가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아! 드디어 정상인가?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짙은 가스와 강한 바람 때문에 정상이라고 인식하기도전에 철로 세워진 삼각대의 구조물이 눈에 들어온다. 앞에서 등산하던 미국인이 나를 틀어잡더니만 엉엉 울어댄다. 나는 너무 호흡이 가빠 철탑아래 꿇고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도 감격에 겨워하는 줄 알았나보다. 괜스레 타인의 포옹을 받으니 나까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실낱같은 눈물이 고글 속에 일렁인다. 재촉하듯 정상등정을 알리는 병호형의 다그침에 다섯컷트의기념촬영을 마치고 서둘러 하산한다.

정신 바짝 차려 하산하라는 병호형의 말을 듣고 딱딱하게 크러스트된 설능을 픽켈을 이용해 내려서는데 갑자기 병호형이 픽켈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친다. "그쪽은 정반대방향으로 낭떠러지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산 길을 서두른다. 병호형은 내가 체력이 소진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줄 알았을 것이다. 하산도중 포카리를 조금 마신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먹을 여유도 없었다. 설동에 도착하니 내일 공격을 준비하는 한상국(성균관대)선배 강릉대 제주팀 홍성택(용인대)선배가 따뜻한 커피한잔과 등정축하인사를 건넸다.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난다.

이창수의 포베다 보도기사

8월9일.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이제까지 날씨는 아침저녁으로 바뀌어 예측이 곤란했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눈이 내리기는 처음이다. 시간이 빡빡한 탓에 알파인 스타일로 등반하고 있는 포베다 정상공격조가 걱정이다. 무전기로 몇 번을 불렀다. 눈이 너무 내려 등반이 불가능하다는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하루 종일 내린 눈 때문에 포베다 정상공격조는 6,800m지점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11시40분부터 서서히 그치기 시작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BC대원들은 잠자리에 들어갔다.

8월10일. "비상, 비상, 비상……여기는 정상공격조. 비상사태다. 눈사태로 텐트가 눈에 반 이상 덮였다. 날씨는 계속 강풍이 불고 있다. 눈도 계속 내리고 있다" 긴장이 감도는 순간이다. 모두 뜬눈으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정상공격조의 홍정기 대원은 10일 새벽1시까지 텐트의 눈을 치웠다. 잠시 눈을 부친 사이 일어났더니 대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텐트가 반 이상 잠겨있었다. 전 대원을 깨워서 비상사태를 알린 후 박헌주 임대장은 등으로 텐트를 밀고 홍정기 김승룡은 밖에 나가 텐트위에 있는 눈을 쓸어내리기 시작, 한 두어 시간 동안 강추위와 사투를 벌였다.

새벽5시 10분, 정상공격조는 모두 무사하지만 체력이 바닥나고 식량도 부족하다. BC에서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산하라고 명령했다. BC에 남아있던 박상우 이동현 이정현 세 명은 공격조를 마중 나갔다. 5시간여 뒤 공격조가 내려온다. 서로 부둥켜안고 울어대기 시작했다. 공격조는 우리를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뿐이었다. 배낭을 바꿔 메고 가벼운 마음으로 BC로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영·호남 합동원정대의 모든 등반은 끝났다. 비록 포베다는 등정하지 못했지만 영·호남의 합동등반은 성공했다. 화합된 팀워크와 일사불란한 행동, 등반 내내 하나가 돼서 움직인 영·호남 등반대는 목적을 충분히 발휘한 등반이었다.

영·호남 합동원정대의 성공으로 양 지역 학산인들의 유대는 더욱 강화됐으며 정기적인 교류등 반 교류체육대회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광주일보와 대구매일신문에서는 원정 전 과정을 취재해 지면에 실었으며 당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됐으며 산악인들의 솔선수범하는 화합정신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3. 1993년 광주 · 전남 초모랑마(Qomolangma, 8,848m) 원정대

광주 · 전남 산악인들의 숙원을 풀다.

89/90 동계 에베레스트의 비원을 담고 출발한 93년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초모랑마 원정대 (대장 임형칠/조선대77)는 지상최고의 아름다운 원정대라고 감히 자부한다. 준비단계에서부터 훈련과정 출발과 등반 귀국 그리고 사진전과 보고서까지 전 시도민과 학산인이 한데 어우러져 위대한 임무를 완수했다.

대장 이하 전 대원은 오직 원정 성공만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다. 서로 캠프를 개척하기 위해 먼저 나섰으며 짐을 배분하는데도, 무너진 캠프를 복구하는데도, 지원조로 따라나서는 데도 대장의 명령에 혼연일체로 뭉쳤다. 선배는 후배를 존중하고 배려했으며 후배는 선배에 순종했다. 그 어떤 원정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산 놈들만의 우정으로 등반은 축제 속에 치러졌으며 등반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정으로 형제애를 나누고 있다.

학산인들은 89/90에 이어 다시 십시일반 만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힘을 보탰다. 훈련 장마다 선후배들의 응원이 이어졌고 합숙소로 사용했던 염주체육관에는 김치, 쌀, 고기 등 선후배 들의 후원이 답지했다.

무려 2년 동안 훈련했다. 일일 및 월별 훈련계획표에 따라 새벽6시 염주체육관에서 모여 인터벌

트레이닝 후 2시간 수영, 오전 오후 금당산까지 산악구보왕복, 대원들 모두 원정을 출발하기도 전에 그로기가 되는 고된 일정이었다. 지리산 주능 무박종주 등 주말이면 무등산 월출산 지리산 등에서 정상까지 한 번의 쉼도 없는 산악구보를 계속했다. 동계한라산에서는 남벽 등을 오르며 6일 동안 실전훈련을 펼쳤다. 또 원정 3개월여를 앞두고 염주체육관에서 합숙하며 오직 에베레스트 등정을 위해 전 대원 청춘을 바쳤다. 물론 금주 금연은 철칙이었다. 61일간의 본 등반 기간 내내 대원들은 형제보다도 더 뜨겁고 끈끈한 우정을 나눴으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안자일렌 정신으로 불타올랐다. 감히 다시는 이런 원정을 없을 것이라고 자평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작금의 등반에서 수많은 산악인들이 산에서 유명을 달리해 돌아오지 못한다. 너무나 많은 산악인이 최근 몇 년 사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짧은 준비, 정상만을 집착하는 등반, 이벤트나 과시에 매몰되는 상업화 등반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93원정대는 '네가 정상에 서면 내가 정상에 선 것이다'는 동료애와 학산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순수한 정신이 근간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다는 정신이 2년간 한솥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레 형성됐다. 지금 우리 학산을 버티는 큰 대들보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궂은일을 도맡아하는 이정현(순천대89) 정우연(송원대89) 정득채(서영대85) 등이 모두 93의 멤버들이다.

숙원이었던 원정이지만 그리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가히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틱했다. 원정 대원이 히말라야 초보자인데다 자금마련에 허덕이면서 원정단장을 추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함께 가기로 했던 대원이 발대식날 사정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해 선발대로 박헌주(전남대86) 정득채(서영대85)대원이 먼저 출발한 뒤 임형칠(조선대77)대장이 동분서주한 끝에 뒤늦게 자금이 마련돼 본대가 출발할 수 있었다. 윤장현(조대의대69, 현광주시장)이 후배들을 위해 모두가 고사하는 단장을 맡아줘 큰 도움이 됐다. 출발 직전에는 금융실명제가 발표되면서 또한 혼란에 빠졌다. 본 등반에서는 4차례의 정상공격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 천신만고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모든 텐트는 폭설과 강풍에 파괴됐으며 정상은 요원한 듯했다. 최행준(전남대 85)대원이 눈사태의 위험성 때문에 내린 대장의 하산명령을 무전기까지 꺼버리고 무시하면서 캠프3 캠프4를 복구한다.

1, 2, 3차 정상공격을 함께 했던 정득채(서영대85)와 박헌주(전남대86)는 마의 8천1백 미터를 넘지 못한다. 캠프4(7,900m)에 불어 닥친 강풍으로 텐트 폴대는 꺾이고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 지원조로 함께한 이정현(순천대89)대원과 함께 폭풍 한가운데서 날밤을 세운 뒤 정상을 바라보며 필사의 탈출이자 눈물의 패퇴하면서 원정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다.

시·도민과 광주·전남 산악인의 숙원이었던 에베레스트는 무려 3년간 준비해 절치부심한 원정인데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취재진으로 합류했던 이창수(광주일보)기자는 실패를 예견한 듯 티베트 라사취재를 위해 떠났고 다른 원정대도 모두 떠나고 베이스에는 우리 팀만 남는 지경이됐다. 식량도 바닥나 생쌀을 튀겨먹으며 근근이 버텨온 원정이었다.

김영학(서영대80), 나관주(서영대86), 정찬주(조선대86), 정우연(송원대89), 이정현(순천대89) 등 훗날 8천 미터를 등정한 기라성 같은 대원들이 있었지만 모두 체력소진으로 누구도 정상등정을 시도할 수 없는 지경.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박현재(순천대88)다. 그는 뒤늦게 원정대에 합류했지만 철두철미한 성격과 원만한 대인관계 끊임없는 훈련과 성실함으로 원정대의 회계업무 등 궂은일을 도맡았다.

박현재는 3차공격조의 지원차 캠프3에 머무르다 히말라야 첫 등반에 정상을 노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 역시 초심자인 판누르 셀파와 함께 시즌초등을 이뤄내며 지구 제3의 극지 초모랑마에 한국 2등, 호남지역 초등의 금자탑을 쌓는다.

● '93 광주 · 전남 초모랑마 원정대 명단

직책	이름	소속(당시 기준)	비고
단장	윤 장 현	조선의대 산악회 OB	학산68
원정대장	임 형 칠	조선대학교 산악회 OB	학산77
등반대장	김 영 학	서영대학교 산악회 OB	학산80
등반부대장	최 행 준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학산85
기록, 촬영	박 현 재	순천대학교 산악회 OB	학산88
식량	정 우 연	송원대학교 산악회 OB	학산89
장비	이 정 현	순천대학교 산악회 OB	학산89
보도	이 창 수	광주일보 산악회	
수송, 포장	정 득 채	서영대학교 산악회 OB	학산85
행정	박 헌 주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학산86
장비	나 관 주	서영대학교 산악회 OB	학산86
의료	정 찬 주	조선대학교 산악회 OB	학산86

다음은 대원들이 기록장으로 전하는 당시의 등반기다.

3차공격(박헌주의 기록장에서)

9월29일 다시 3차 공격조로 임명된 정득채(서영대85) 박현주(전남대86) 두 대원은 신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발을 씻는다. 김영학(서영대80) 등반대장은 비디오를 찍으며 "자신 있냐?"고문는다. 정우연(송원대89) 대원은 자신의 장비를 아낌없이 내놓는다. 이정현(순천대89) 대원은 C4(7,900m)까지 공격조를 지원해야한다. 캠프 복구조인 최행준(전남대85) 박현재(순천대88)대원이 복구해 놓은 캠프3(7,010m)에 도착하자 오후 6시다. 능선에 휘날리는 눈보라로 보아 바람이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다. 오후 7시께 C4에 캠프복구조가 도착했다는 교신이다. 강한 바람이 마치폭탄이 터지는 듯 한 소리를 낸다고 한다. 무전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악천후 속에서 두 명의 대원이 눈에 파묻히고 바람에 찢긴 캠프4를 발굴하고 구축하고 있다.

9월30일 새벽5시에 C3의 공격조와 이정현(순천대89) 대원이 C4를 향해 어둠을 가른다. 초모 랑마 북릉의 눈이 강풍으로 완전 크러스트 돼 부챗살 모양이다. 고도가 높아갈수록 바람의 세기가 더해 눈보라가 우모복을 비집고 들어온다. 한가위의 보름달이 환하게 비춰주지만 갈수록 속도가 더디다. 귓전으로 들리는 바람소리는 공포스럽다. 머리를 땅에 박고 쉬지만 바람에 고정로프가 활 처럼 휘면서 몸을 낚아챈다. 상하를 우모복으로 완전무장 했지만 싸늘하게 온몸이 얼어붙는다. 엄 청난 위력의 눈바람을 맞으며 간신히 C4에 도착, 비좁은 텐트를 비집고 기어든다.

셀파들은 등반이 불가능해 탈출하겠다고 아우성이다. 텐트 1동은 바람에 폴대만 남아있고 남은 1동에 아이젠을 착용한 채로 머리만 들이민다. 간신히 셀파들을 설득해 바람이 잦기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침낭 매트 그리고 텐트까지 내어주고 우리는 바로 밑의 바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인도 텐트로 자리를 옮긴다. 눈이 바람에 깎여 텐트의 3분의1은 허공에 떠있다. 셀파는 호텔(?)에 재우고 대원3명은 매트도 없는 눈 바닥에서 부족한 침낭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추위를 잊으려고 한다. 알파미 한 봉으로 요기를 한다. 정현은 손도 안대고 득채형은 간신히 세 숟가락을 뜨고 만다. 살기위해 움직이기 위해 억지로 먹다가 나머지는 버린다. BC와의 교신은 의식적으로 피한다. 서로의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C4상황은 텐트 밖으로 한발자국도 내딛기가 어렵고 임형칠 (조선대77)대장은 C5진출을 원하기 때문이다.

어둠이 스미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릎을 웅크린 채 매트도 없는 바닥에서 무산소로 잠을 청한

다. 온밤을 껴안고 뒤척이다가 날을 지새운다. 정현(순천대89)은 공격조를 보호한다는 신념으로 찢어진 텐트문사이로 불어 닥치는 눈보라와 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 작은 체구가 거인처럼 보인다. 탱크 구르는 소리보다 더 무시무시한 제트기류가 저녁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텐트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듯 씩씩댄다. 평생 이 밤과 이 바람소리를 잊지 못할 것이다. 이튿날 결국 도망치듯 C4를 탈출하면서 3차공격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정상, 정상입니다"(故 박현재(순천대88) 대원의 기록장에서)

10월5일 오후2시 C4를 박차고 나선다. 89년 겨울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은 에베레스트원정을 꾸린 바 있다. 동계 특유의 바람과 추위로 사우스콜 8,000미터를 최종도달지점으로 하고 대원들은 꼭 다시 오마 다짐하며 눈물을 머금고 철수했다. 그로부터 3년, 그때의 대원과 전 학산인의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힘을 결집,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렵게 이번 원정을 성사시켰다.

이대로 돌아가 선후배들을 대할 수는 없다. 8,000m이상의 등반경험이 없는 판누르셀파가 걱정 스럽지만 나 또한 무경험자가 아닌가? 그래 여기서 한국인의, 남도인의 기개를 보여주는 거다. 초 모랑마 여신의 미소인가? 바람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바람이 없는 C4는 처음이다. 크러스트된 설벽을 우측으로 트래버스해 C5(8,300m)에 도착한다.

침낭하나로 셀파와 함께 밤새 뒤척이다 새벽 4시45분 정상공격에 나선다. 암벽 밑으로 등반하며 고정로프를 찾았으나 흔적도 없다. 3시간가량 직상하니 북동능선이다. 왼편으로는 동벽 컁슝빙하로 떨어지는 급경사의 설벽이 커니스 져있다. 그 너머로는 검은 귀신 마칼루가 희미한 여명 속에보인다. 암봉으로 이어진 북동릉은 동계 설악산 릿지를 등반하는 것 같다. 퍼스트스텝을 지나 급경사 설벽을 지나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힌다. 산소가 떨어졌다. 교체해야하는데 장소가 좋지 않다. 불안정한 자세로 배낭을 벗어 산소통을 교체하니 살 것 같다. 부서진 바위파편사이로 아이젠이 미끌린다. 머리카락이 쭈볏선다. 추락하면 3천 미터 아래의 롱북빙하까지 막힘없이 떨어지겠지.

10시 30분 세컨드스텝이 보인다. 스텝아래까지 진입하기위해 트래버스 하는데 고정로프가 없어 발걸음이 위태롭기만 하다. 세컨드스텝에는 상단부 4미터 직벽에 철제사다리가 설치돼 있다. 사다리 아래 경사 60도 길이 5미터의 설벽과 3미터정도의 암벽에는 고정로프가 여러 가닥 설치돼 있다. 사다리를 밟고 서니 한쪽 고정하켄이 빠져있어 몸이 기우뚱한다. 고글에 성에가 끼고 산소마스크도 거추장스러워 아예 벗고 암벽을 등반하니 오히려 편안하다.

12시 8,600미터 중국대의 C6자리를 지나고 눈과 바위가 믹스된 곳을 한참 등반한다. 앞서가던 셀파가 드러누워 버린다. 정상에서 캉슝쪽으로 거대한 커니스가 이뤄져 있고 커니스 중간에 삼각 대로 보이는 물체와 산소통이 매달려 있다. 저만치 쇠파이프가 보인다. 2시55분. 쇠파이프를 잡으니 앞은 내리막이다. 이제 다 왔다. 1미터정도의 쇠파이프와 지난해 이탈리아 팀이 설치했다던 삼각대가 누워있다. "ABC ABC 여기는 공격조" "정상, 정상입니다" 와하는 대원들의 함성소리가 무전기로부터 흘러나온다. "세계 최고봉에 선 기분을 맘껏 누려라. 장하다 현재야. 장하다 현재야. 침착하고 안전하게 사진을 찍고 신중하게 하산해라. 89/90 에베레스트의 한을 네가 풀었구나."

학산이 주체가 되었던 3대 해외원정

광주 전남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원정대가 꾸려졌지만 그 중에서도 순수 학산 대원으로만 구성되면서 훈련부터 재정까지 전 과정을 학산이 주체가 되어 꾸린 3개의 원정대가 있었다. 이른바 학산 3대 원정대라고 일컬어지는 원정대로 '89/90 한국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 '92 한국 천산 영·호남 합동원정대', '93 광주·전남 초모랑마 원정대'가 그것이다.

89/90 원정대는 당시로서는 유래가 없었던 28명이라는 대규모 원정대로 훗날 광주·전남의 히말라야 원정의 주춧돌이 되었으며, 92 천산원정대는 칸텡그리 한국 초등이라는 업적을, 93 초모랑마 원정대는 호남 지역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자 배출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매우 성공적인 원정대로 학산인의 저력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무려 3년간 절치부심하며 광주·전남 학산인의 숙원을 가슴에 품은 93초모랑마 원정대. 드디어 숙제를 푼 임대장과 대원들은 베이스에서 얼싸안고 눈물을 쏟는다.

박현재(순천대88)의 성공으로 89/90 '우리들의 에베레스트'는 진정 광주·전남 학산인의 산이된다. 한국최초 에베레스트 북면루트 등정 후 하산한 기록도 세웠다. 또한 전 대원 8천 미터 무산소 등반, 85년 이후 가을시즌 북릉-북동릉 루트 첫 등정, 첫 해외원정인 대원이 C5(8,300m)출발후 16시간 만에 등정하고 C4(7,900m)까지 하산하는 진기록, 호남지역 최초 세계 최고봉 등정, 7개국 8개팀 중 시즌초등, 세계최초 학생연맹에 의한 세계 최고봉 등정 등 여러 가지 진기록을 세운다. 박현재는 이 등정으로 일약 한국산악계의 스타가 됐다. 하지만 그는 95년 브로드피크 한국 초등 후 하산 도중 영원한 산사람으로 유명을 달리해 불꽃같은 생을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마감한다.

2. 각 단위 산악회의 활성화

90년대 초반은 23개 대학산악부 전체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학산이 번창하게 된다. 신입생 확보 부재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 산악회가 급성장하면서 명실상부 광주·전남 학산은 전국 최고의 학산이 된다.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는 물론 광주교대, 광주보건대, 서영대, 송원대, 동강대, 조선이공대, 호남대, 광주대, 목포과학대, 목포해양대, 전남대여수캠퍼스, 청암 대, 순천제일대, 동신대 전대의대, 전대치대, 조대의대, 조대치대 산악회 등 모든 대학에서 산악회 가 활발히 활동했다.

매월마다 각 대학산악부 회장단이 참여하는 학생위원회의가 임동 무등경기장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후에는 목포해양대를 비롯하여 광주·전남지역 각 대학산악부를 방문하며 학생위원회의를 열 정도로 활성화됐다.

당시에는 광주·전남 산악연맹 자체가 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산 활동 자체가 연맹활동이나 마찬가지였다. 각 대학 장비전시회때는 서로 방문하며 날밤을 새웠으며 등산학교가 열렸던 월출산, 설악산, 지리산 일대는 학산인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금파화학공고 등에서 열린 학산인의 한마당행사에는 교정에 텐트가 가득 찰 정도로 참여열기가 뜨거웠으며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크로스컨트리 대회도 학산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학산인들은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만나고 장비전시회, 정규·암벽·동계 등산학교, 학산인의 한마당, 크로스 컨츄리 대회 등을 통해 학교를 떠나 학산인이라는 이름으로, 동기로, 선후배로 악우의정을 나눴다. 전국의 어느 산을 가더라도 대학산악인들은 학번별 선후배로 뭉쳤으며 대학산악인만의 독특한 우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주로 80년대 중후반 학번대가 군 제대 후 중추적인역할을 담당했으며 지금도 학번별 동기모임이 활성화돼있다.

3. 매킨리(Mckinley, 6,194m) 등 재학생들의 해외원정 러시

이 시기에 해외원정도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 89/90 에베레스트 원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위산악회별로 재학생을 위주로 한 활발한 해외원정이 시작됐다. 91년 목포대와 김홍빈(송원대83)의 매킨리원정에 이어 92년 서영대(대장 나관주/서영대86)와 송원대(대장 신복남)의 매킨리원정이 이어지는 등 히말라야 등반을 위한 교두보로 북미 최고봉 매킨리원정이 활발했다.

또 92년 조선대의 마나슬루원정(대장 박태규/68.이용철/83 등정)과 조선이공대의 낭가파르밧 원정(대장 문호성), 93년 전남대의 알프스 3대북벽원정(대장 임우근/81. 마터호른: 최행준/85 고 일주/88 등정, 그랑조라스: 백두인/85 등정, 아이거: 최행준/85 고일주/88등정)이 잇따라 학산인 은 매킨리와 알프스 히말라야에서 큰 활약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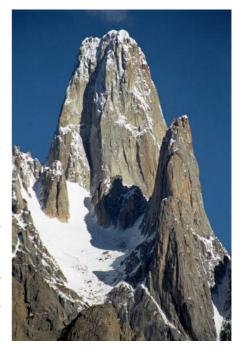
이어 94년 순천대 맥킨리 원정(대장 박현재/88, 조정우/88, 오철식/89, 이정현/89 등정) 94년 서영대 히말츄리원정(대장 정득채/85), 95년 조선이공대 매킨리원정(김주형/86 노광기/88 문종국/88 등정) 등 학산의 해외원정이 줄을 이으면서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며, 95년 목포과학대 탈레이사가르 원정(대장 최호/87), 97년 학산과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추진한 '97 한국 낭가파르밧 원정대는 명목상으로는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꾸린 원정대였지만 박상수(조선이공대77) 원정대장을 비롯한 실질적인 구성원은 모두 학산 출신이었다.

이밖에 대외적인 등반으로 동아여고 동창인 정건(조선대86)과 유명희(전남대89)가 93년 한국최초 의 대한산악연맹 여성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참여해 8천 미터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4. 1996년 트랑고 네임리스 타워(Trango Nameless Tower, 6239m) 한국 초등

학산의 90년대를 통틀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등반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거벽중의 하나인 트랑고 타워에서 이뤄졌다. 고산거벽등반이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하고 전위적인 등반 장르가 학산의 1996년 트랑고 타워 원정대에 의해 열리게 된다.

트랑고 네임리스 타워(6,239m)의 쿠르티카-로레탕 루트에 도전장을 던진 원정대는 한국초등(남가주산악회에서 94년 유고루트등정)은 물론 등정률이 낮은 마의 거벽이어서 학산인의 도전정신을 여실히 보여준다. 원정대는 문종국(조선이공대 88), 서신종(동강대90), 허환(서영대90)의 3인조 소수 정예 대원으로 당시 등반 라인이 그려진 대상산 사진 한 장만 달랑 들고 도전한 전위적 등반의 모범을보이며 문종국, 서신종이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다.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 거벽등반의 기폭제가 되었고 이후 광주·전남의 산악계는 히말라야를 비롯한 요세미티, 파타고니아, 캐나다, 유럽 등 세계 구석구석으로 등반 대상지의 확장과 더불어 거벽등반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원정대장으로 팀을 이끌었던 문종국은 이후 선앤문등산학교를 열어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낙후 된 고산거벽등반과 빅월 클라이밍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등반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후배들의 알피니즘 실현에 살아있는 교과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사회참여 실천을 위한 산악인들의 모 임 푸른산'의 창립을 주도해 청소년 산악문화 창달과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5. 세계 최초 산악실업팀 창단의 산파 - 1997년 한국 낭가파르밧 원정대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과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조 선이공대 산악회 OB와의 합동으로 꾸려진 1997년 한국 낭 가파르밧 합동 원정대는 파키스탄 푼잡 히말라야의 낭가 파 르밧(Nanga Parbat, 8,125m) 디아미르벽 킨스호퍼 루트로 도전하여 김주형 대원이 정상을 등정하였다. 이로서 1990년 광주 낭가파르밧 원정대의 대원으로 참여하여 정상공격 중 추락사한 故 정성백(조선이공대 81) 악우의 한을 풀게 되었 고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히말라야 8천 미터급 14좌 등 정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낭가파르밧을 추가하였다. 1995년



5월 故 정성백 산우를 기리는 계기로 최초 논의가 시작된 97 낭가파르밧 원정대는 우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고유 정신인 '정(精)의 알피니즘'을 실현한 힘의 실체이다. 1997년 한국 낭가파르밧 합동 원정대가 있기 까지 2년여 기간 동안 광주·전남학 생산악연맹 제11대 김상문 회장부터 제12대 김재률 회장까지 대(代)를 이어 전 임원진이 똘똘 뭉쳐 원정대의 성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본부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를 여러 차례 왕복하며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기도 하다.

97 한국 낭가파르밧 합동원정대의 성공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산악 실업팀을 창단하여 우리나라 산악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실업팀 창단의 산파역할을 한 97 합동원정대의 주체인 광주· 전남 학생산악연맹은 산악등반의 특성상 실업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산악계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과의 합동원정 추진은 노동조합의 사 회 개혁운동 참여와 보폭을 같이한 알피니즘을 통한 우리 학생산악연맹의 사회참여 의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우리 학산 알피니즘 고유의 실천정신은 알피니즘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라는 형태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창설 이후 우리 학산 회원들이 중심으로 참여하여 결성한 '사회참여 실천를 위한 산악인의 모임 푸른산' 창립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1997년 한국 낭가파르밧 합동 원정대 박상수(조선이공대 77) 원정대장은 1997년 한국 낭가파르밧 합동원정대의 성공으로 2001년 세계최초 한국도로공사 산악실업팀의 창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에도 원정대를 조직하고 경비를 마련하는 궂은 일을 도맡아 히말라야 8,000m 봉에 도전코자 하는 후배들에게 많은 지원과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서 후배 산악인들의 꿈을 이뤄주는데 뒤에서 도와 헌신하며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산악팀의 대장을 맡아 시샤팡마 남벽에 개척한 '코리안하이웨이' 루트는 히말라야에 개척한 한국 최초의 신 루트로 우리나라가 산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원정대 개요〉

■ 대원명단: 원정대원 총 11명, 단 장 도성환(한국도로공사 노조위원장)

원정대장 박상수

부대장 양준열

등반대장 박형묵

대 원 김주형 장창수 홍동식 노광기 문종국 윤중현 송형근

- 결과: 1997년 7월 9일 14시 12분 김주형 대원 정상 등정
- 주요 추진과정
 - 1995. 5. 최초 원정 거론 및 결의
 - 10. 원정 시기와 대상지 결정
 - 12. 1997. 낭가파르밧 원정 준비위원회 결성
 - 1996. 8.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및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합동 원정 확정
 - 9. 합동 원정 조인식
 - 11. 낭가파르밧 입산허가 받음(파키스탄 관광성)
 - 1997. 1. 훈련대원 최종 확정 및 원정대 조직구성
 - 4. 원정대 발대식
 - 5. 원정대 출국

6. 백두대간 종주로 우리 땅 바로알기 태동

이 시기는 또한 해외원정은 물론 국내산에서의 새로운 시도가 모색된다. 학산의 정체성인 아카데믹 알피니즘 추구를 위해 우리 땅 우리 역사 바로잡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소백산맥 태백산맥이라는 이름의 하계종주등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백두대간종주라는 우리민족 고유의 마루금을 등반하는 시도가 펼쳐진다. 산맥개념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뒤 지 질구조선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산악인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한반도 등줄기를 족적으 로 확인한다.

당시는 백두대간 시도자체가 탐험이나 마찬가지였으며 길도 없어 오직 나침반과 지도만으로 지리산 천황봉에서 설악산 진부령까지 주파해 히말라야 등반에 버금가는 인간한계에 대한 도전이었다.

또한 40여 일간 종주는 대학산악인 특유의 끈기와 집념 불굴의 인내와 극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학산인의 정체성과도 부합됐다.

90년도 학생위원장이었던 서은호(전남대84)는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이름으로 각 대학산악부가 합동으로 모두 참여하는 백두대간 종주사업을 펼친다. 26개 대학산악부가 지리에서 설악까지 각 구간별로 나눠 7월부터 8월까지 하계장기등반형식으로 종주한다. 당시 등반은 학산의 일사불란함과 단합력 협동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90년대 학산의 부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서은호(전남대84)는 이후 전남 대산악회 후배 유명희(전남대89) 와 93년 8월16일부터 10월 1일 까지 장장 46박47일간 도상거리 670km 실제거리 1,240km를 무 보급으로 종주하기도 한다. 그들 은 특히 종주 후 백두대간 종주 등반 기록집을 펴냈는데 손수 그 린 개념도와 막영위치 식수원 실 전독도법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 이고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차



후 백두대간 종주대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또 조선대산악회 86학번 동기 정찬주와 정건은 90년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46박47일간 동기 전재현의 지원으로 단위산악회로는 지역최초로 백두대간을 종주한다. 김경자(조선대82) 신선호(조선대84) 유미정(조선대85) 박동호(조선대86) 장란영(조선대89) 오제하(조선대89) 신광철(조선대90)등이 구가종주하며 힘을 보탰다.

● 1990년도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백두대간 전 구간 종주

〈구간별 참가대학〉

구간	운행구간	참가대학	각 구간별 책임자
1 구간	천황봉-육십령	서영대	안태영
2 구간	육십령-추풍령	조선이공대	윤중현
3 구간	추풍령-이화령	순천대	박현재
 4 구간	이화령-죽 령	목포과학대	임찬수
5 구간	죽 령-태백산	전남대여수캠퍼스	박병준
6 구간	태백산–백복령	동신대	서광현
7 구간	백복령-두노봉	순천제일대	문형근
8 구간	두노봉-설악산	송원대	정우연
9 구간	진부령-북대사	동강대	박인철
10 구간	대관령-태백산	전남대, 전남의대	최행준, 최낙선
11 구간	죽 령-이화령	광주보건대	정정애

백두대간 제 8구간 종주기

참가인원: 정우연 외 6명(김종학, 홍수미, 장희웅, 김준탁, 임시환, 오형욱)

작성자:

7月 18日 수요일 날씨: 흐림

패킹할 때 은철 선배님과 찬득 선배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다. 오후에 은철 선배님이 콩물국수집으로 모두 데려가 맛있는 콩물국수를 사주셨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우연형은 수미와계속 이야기만 했다. 대부분 허풍인 것 같았다. 옆에 앉았던 종학 형이 재잘거리던 우연 형에게 정 뻥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 저녁 늦게 잠도 안 오고하기에 소주 한 병과 오징어 안주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셔서 노래가 다 끝날 때 까지 기다리시더니 끝나자마자 젊은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무슨 짓이냐며 호되게 꾸짖으셨다.

그 이후로 모두 조용해지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7月 19日 목요일 날씨: 맑음

상원사 길목에서 입장료를 받자 우연 형 성질나 하는 말이 "이놈의 산 더럽기만 해봐라. 확 엎어 불랑께!" 드디어 월출산 깡패의 진면목이 나타남.

상원사에서 취사 때 희웅이 버너 살리다 두 번 오바이트 시환이 바통터치 했으나 역시 실패 나중에 준탁이가 살려냄. 두로봉을 향해 출발 한 후 우연 형이 당귀를 발견했으나 개당귀인지 참당 귀인지 구별이 어려워 모두 버림. 4시반경에 도착한 곳이 두로봉 정상이 아니라고 하자 시환이 하는 말 "아이고 죽것내!" 또 오면서 형욱이는 계속 땅만 보고 오다 희웅이 엉덩이만 계속 받음. 분임 토의때 시환이는 통과 형욱이는 Back 만 안했으면 좋겠다. 수미도 통과 희웅이는 재미있었다. 종학 형은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우연 형은 이런 종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은 선택 받았다. 분임토의 후에 종학 형이 라이터를 세워놓고 한 발로 서서 천천히 앉아가지고 그 라이터를 입으로 물면 내일 아침밥을 안한다고 했다. 희웅이가 해냈다. 종학 형이 내일 밥 할 것이다. 그 후십 분이 지나자 다시 안하기로 결정 났음(종학 형 임의대로). 저녁 늦게 창원대 태백산맥 종주 팀을 만남(두로봉 정상에서)

7月 20日 금요일 날씨: 맑음

아침에 장희웅 나뭇가지에 걸려 슬라이딩. 오는 동안 장희웅 3번 넘어가지고 준탁이 형욱이 쐐기에 쏘임. 오는 도중 장희웅 계속 퍼짐.

장희웅 응복산 아래서 점심 먹으려고 배낭을 내려놓은 것이 똥밭에 놓아 씻느라 고생.

그리고 배낭이 무거워 부식이나 쌀은 먼저 내놓으려고 경쟁.

결국 쌀은 희웅이 부식은 준탁이 배낭에서 꺼냄.

분임토의 때 임시환은 "좌우지간 힘들었다"

형욱이는 "허리 안 아팠으면." 수미는 " 백두대간 뛰려고 들어 왔을 때는 이런 산행일 줄 몰랐고 반복되는 산행에 별로 느끼는 게 없다."

김준탁 "50분 산행에 10분 휴식 철저히 지켜줬으면"

장희웅 "힘들었음" 우연 형 "오전에는 잘했지만 오후에 잘못 된 행동이 많았음. 말조심하기" 내일은 쇠나드리까지 목표!

7月 21日 토요일 날씨: 비

엄청난 폭우로 텐트 속에서 밥을 하는데 오형욱씨의 엄청난 히프 힘으로 버너와 그 위에 있던 밥까지 엎음.

식사 이후로 굉장한 폭우로 산행계획을 오후로 연기했으나 계속 비가와 산행을 내일로 연기.

종학이형 텐트에는 시환이 그리고 우연 형 텐트에는 희웅, 수미, 형욱이는 들어가 옷가지를 말리고 준탁이는 한강이 된 우리들 텐트에서 외로이 남음

11:40 쯤에 희웅이와 준탁이가 고기 사러 마을로 내려감.

20분을 차를 타고 다시 1시간 30분은 걸어 내려가다 다시 차를 타고 30여분 정도 내려가서 가게 발견. 그곳에서 설탕, 포장육, 과자, 술 등을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3시30분경 구룡령 도착. 돼지갈비와 오징어볶음으로 술과 음식을 먹고 저녁에 분임토의. 저녁식사 후에 우연 형 종학 형팀과노래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국에 가서는 만화영화 주제가로 막을 내림.

7月 22日 일요일 날씨: 흐림

의외로 희웅이가 잘 따라와 모두 놀람.

968고지에서 점심을 먹는데 모두에게 스프 한 그릇 씩 돌아갔다. 그런데 오형욱 씨는 자기 스프를 다 먹고 꼭 알맞게 김밥과 스프의 비율을 맞춰놓은 장희웅 그릇의 스프에 손을 댔다가 희웅이에게 크게 혼남. 너무 피곤해 분임토의를 간단히 바침.

7月 23日 월요일 날씨: 맑음

점봉산 오를 때 어디가 점봉산인지 모른 채 지도만 보고 능선만 따라 가다보니 엉겁결에 점봉산에 오름. 장희웅 한계령 오는 도중에 손목이 찢겨 종학 형이 소독한 실과 바늘로 꿰멤. 장희웅 끄떡없음. 한계령 오는 길에 칠형제봉(망대암산) 릿지를 뛰게 되어 무척 힘들었음(프리로) 그 와중에 수미가 다리 마비되어 희웅이, 종학이형, 준탁이가 먼저가고 나머지는 뒤따라오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종학 형과 준탁이가 수미와 시환이를 도우려고 먼저 가서 짐을 놓고 다시 와 수미와 시환이 배낭을 지고 옴. 한계령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모두 휴게소안의 사람들의 음식 먹는 것만 군침 흘리며 쳐다봄

그리고 수미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기는 여자화장실" 이라는 여자분의 말에 얼굴이 빨개지며 하는 말 "나 여자에요!"

7月 24日 화요일 날씨: 흐림

한계령에서 끝청으로 가는 도중 수미 다리 또 마비.

종학 형과 희웅, 준탁, 형욱이가 선발대로 가고 우연 형과 수미 시환이는 후발대로 옴.

중청으로 가는 도중 장희웅이 또 퍼짐. 중청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맛이 감(주위사람들에 의하면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였음)

7月 25日 수요일 날씨: 흐림

잦골 도착하자마자 모두들 옷이랑 텐트말리기를 정신없음. 점심식사 후에도 씻고 말리느라 정신 없음. 우연 형과 희웅이가 1.5리터 짜리 플라스틱 병으로 어항 만들어 고기 잡음. 저녁 식사 때는 잡은 고기로 찌개를 끓였으나 창자 등을 따지 않아 너무 써서 우연 형과 희웅, 형욱이 외에는 손도 안 댐. 지금까지 국이나 찌개가 남지 않았었는데 오늘 비로소 남게 됨. 그리고 2일전 한계령 가는 도중 잡은 "사진"이란 독사를 우연 형이 구워서 희웅이, 형욱이 등과 나누어 먹음.

7. 전국대학산악연맹 창립 시도

이 시기는 전국단위의 대학산악연명을 결성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도된다. 지금까지 대학산악연 맹은 서울경인지역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대학산악연맹과 광주·전남 학산, 대구·경북 학산, 부산 학산 등 지역단위로 나눠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의 대학산악연맹 모임은 없었다. 이에 각 지역 대학산악부들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1992년 8월23일 경희대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4차례에 걸쳐 각 시도 대학산악연맹의 재학생대표들이 회동했다.

특히 9월5일 충북 태인에서 열린 전국대학산악인 지도자강습회에는 한국대학산악연맹의 양은숙 대표(이화여대89), 광주·전남의 박헌주 대표(전남대86), 대구·경북의 김기범 대표(대구영진 전문대87), 부산의 하태웅 대표(인제대88), 충북의 이동순 대표(서원대87), 충남의 김효겸 대표(충남대86), 전북의 이종하 대표(원광대89), 경남의 이인우 대표(창원대86), 강원의 김익준 대표(관동대87), 제주의 김영균 대표(제주대87) 등이 모여 밤샘 회의를 개최한다. 사상최초로 전국의 대

학산악연맹 재학생대표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명칭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끝에 협의체성격의 가칭 전국대학산악연맹 창립 준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부산 학산 주관으로 11월28일~29일 1박 2일간 부산해양대학교에서 전국의 대학산 악인이 모여 전국대학산악인 체육대회를 벌이며 친목 과시와 동기회를 조직한다. 이후 초대 준비 위원장으로 광주·전남 학산 박도영위원장(목포대87)이 위촉됐으나 향후 활동이 미약하면서 유명무실해져 버렸지만 이때 다진 전국 단위의 대학산악인간 우정은 추후 활발한 동기모임 등으로 이어진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이후 서로 오가며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양 지역 산악인간교류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된다.

이렇게 90년대 초반 학산의 황금기를 구가하는데 일조한 일등공신으로 박헌주(전남대86)를 빼놓을 수 없다. 박헌주는 92년 학생위원장을 맡으면서 매월 26개 대학산악부 회장단 회의를 처음으로 각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했다. 또 전국대학산악연맹을 결성하기 위해 전국 학산을 돌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대구경북 학산과의 교류체육대회를 성사시켰다. 기자출신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 에베레스트에 오른 한의사 등으로 잘 알려진 그는 기자로서 한국 기자상 앰네스티 언론상 등당대 최고의 기자상을 수상했고 산악인으로서 7년간 3번의 도전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92천산, 93초모랑마 원정에서는 회계 행정 총무 등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 당시 최초로 개방된 중국과 구소련으로의 원정성공에 일조한다. 티베트 쪽 등반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업무를 가능케 했다. 추후 한국최초의 초모랑마 원정보고서를 통해 무궁무진한 중국 쪽 산에 대한 소중한 자료와 입산정보 등을 실어 타원정대에 큰 도움이 됐다.

또한 96년 조선대 에베레스트에 취재기자로 참여했으며 97년 초오유등정(전남대) 2000년 에베레스트 등정(대한산악연맹) 등 산악활동은 물론 산악인 기자로서 지역산악인들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며 산악문화 대중화에 힘을 쓴다. 또 2008년부터는 한의사로 변신해 히말라야에서 동상을 입은 산악인들의 치료에 앞장서는 등 등산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8. 전남 학산 10년

- 광주 · 전남 학산의 분리와 통합

1962년 전라남도 지역 학생 산악인의 뜻을 모아 고등부와 대학부로 전라남도학생산악연맹이 조직



출발하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는 과중한 대학입시 부담 때문에 고교산악부의 활동이 전무하였다. 초대 회장에서 3대 회장을 거치는 동안 산간학교 및 각 시도와의 교류, 연맹 회원 간의 합동등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 고장 산악발전을 이루었으나, 그 후 연맹 조직은 잠시 정체되었다. 그 동안 정체되었던 연맹이 1976년부터 활동을 재개하였고, 1979년부터 현재의 궤도에 들어섰다. 1987년에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으로 개칭하여 활동을 계속하였다.

1987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산악연맹도 두 개로 분리가 돼야 했지만 학산은'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을 새롭게 조직하여 한 울타리 속에서 두 단체는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 동안 산악 분야가 대한체육회의 준 가맹단체로 활동하였고 1998년 문화관광부의 대한체육회에 정가맹단체로 전국 체전에서 정식 종목 또는 시범 종목이 되는 것을 준비해야했다. 1998년 1월 17일목포에서 새로이 분리 결성된 '전라남도산악연맹' 회장에 이상현씨가 취임하였다. 이는 명실 공히 '전라남도산악연맹'이 새 옷을 입고 산악 문화를 주도하며 이끌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몸통이 분리됨에 산악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하던 '학생산악연맹'의 분리도 당연하였다.

1998년 1월 17일 광주광역시산악연맹과 전라남도산악연맹이 각각 분리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1일 학생산악연맹도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되었다. 위계룡 회장이 1998년~2001년까지 이끌었으며, 2002년~2003년 이병철, 2004년~2005년 김인해, 2006년~2007년 김병대 회장이 재임하였다. 이후 2007년에 들어서 등산학교를 교차 주관하는데서 오는 행정상의 불편문제,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전남지역 소재 대학의 활동부진, 그와는 반대로 광주지역 소재 대학들의 두드러져 보이는 활동 등의 문제로 일부에서는 통합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원래 한 뿌리에서 출발하였고 광주와 전남이라는 지역적인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 역대 회장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8년 1월 다시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으로 통합되었다.

분리되었던 10년간 광주와 전남은 전통적 역점사업인 등산학교와 학산인의 한마당을 양쪽에서 번갈아 주관하였기에 형식은 분리 되었지만 내용면은 전혀 분리되지 않은 한 가족 두 집 체제로 잠시 동안 운영되었다.





9. 1999년 GI, GII, K2 원정대

1998년 '광주·전남 학생산악 연맹'이 '광주학생산악연맹'과 '전 남학생산악연맹'으로 분리되고 나서 전남학생산악연맹의 초대 회장인 위계룡(전대의대72)회장 이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한 것 이 중국 쓰촨성 공가산(7,556m)



을 목표로 한 '98 한국공가원정대였다. 김재명(목포대85) 대장을 비롯한 5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98공가산원정대는 캠프 5개를 설치하며 순조로운 등반을 진행하여 1998년 11월14일 김재명(목포대85)대장, 윤중현(조선이공대89), 오종락(목포과학대90) 대원이 정상에 올라 한국 초등과 북동릉세계 초등을 기록했으나 하산도중 오종락 대원이 강풍에 날리면서 추락, 실종되는 아픔을 겪었다.



1999년 원정대 귀국 - 인천공항

새로 분리 결성된 '전라남도산악연맹'과 '전라남도학생산악연맹'은 조직의 정비와 체계화 및 상호 회원들 간의 화합과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면서 등산학교를 '광주학생산악연 맹'과 공동 개최하고 서로의 단점을 수정 보완했다. 전라남도는 전문 산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고 인적·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큰 원정대를 결성해 볼 수 없었던 이 지역의 산악인들은 이번 분리를 계기로 해외 원정 등반의 열망을 품으면서 내적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코자했다. 이러한 회원들의 열망을 '전남산악연맹'과 '전남학생산악연맹'의 두 회장이 받아 들여 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자는 것에 합의, '학생산악연맹'을 중심으로 해외 원정대 결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 있는 8,000M급인 K2(8,611m), 브로드피크(8,046m), 가셔브룸 I (8,068m), 가셔브룸 I (8,035m)봉원정을 계획하였으나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4개의 거봉을 동시에 추진하는 일은 무리였다.

그리하여 전남연맹 이사회, 전남학산 이사회 및 원정대 연석회의를 수차례 거듭한 후 규모의 축소를 논의 이 지역에서 이미 3명의 대원이 초등정한 브로드피크 봉을 원정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K2봉은 영·호남 합동대로 원정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원정 규모를 3개의 봉우리로 결정했다.

I. M. F라는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원정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남인의 기개를 전 세계에 높이고 전남인의 응집된 모습과 영·호남 산악인 합동대를 구성함으로써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 통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며,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학산의 분리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고 학산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회원들 간에 단합과 발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원정을 통하여 산악 문화 재단의 건립 및 등산 장학 사업의 꿈을 실현시키고, 훌륭한 산악 지도자 육성이라는 기원들 담은 원정이었다.

1) 1999년 G1, G2봉 정상 도전기 - 이병철(목포대 81)

1999년 7월 18일 일요일. G1. G2봉에 7명 정상 등정

대단히 흥분된 날이다. 새벽부터 여러 대원들이 등정을 전했다. 이정현과 주우평이 새벽 06:00에 GI정상 등정에 성공하였고 뒤이어 변성호와 김재영이 10:24분에 정상 등정, GI의 최호, 김태호, 김용재가 11:57분 하루에 7명의 대원이 정상에 오른 전남학산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다.

어제 저녁 베이스 대원들은 공격을 하는 대원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하지만 G II 팀이 연락이 되

지 않아 걱정이 된다. 새벽 3시가 되서도 그들이 출발한다는 무전은 오지 않았다. 대원들은 잠을 자러 갔고 총대장과 나는 식당 텐트에서 잠을 잤다.

새벽녘 무전기가 텐트를 울린다. "BC BC 들리면 응답하십시오." 둘은 동시에 놀라 내가 먼저 무전기를 잡았다. 총대장은 "나 총대장이다. 이정현 송신 바란다.", "예! 가셔브룸 I 정상에 06:00에 올랐습니다.", "아! 고생했다. 고맙다. 대원들의 컨디션은 어떠한가?", "예 우평과 저는 컨디션이 양호하고 사진 촬영하고 다운할 때 교신하겠습니다." 그리고 06:44분에 하산을 시작했다.

07:25분 G II 의 김태호 대원이 먼저 등정하고 하산한 이종승 대장을 찾는다. 차이나 릿지 초입부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아이젠 발자국만 있다는 교신을 한다. 이종승 대장은 하단부에는 고정자일이 없으며 아이젠 발자국을 따라 오르면 된다. 어려운 부분에는 약간씩 로프가 깔려 있다고교신을 한다. 그리고 태호는 용재, 최호, 정우 순서로 올라오고 있으며 두 명은 약 100M 밑에 있으나, 정우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

07:41분 이정현이 하산을 하면서 변성호조를 만나 베이스에 교신을 한다. 현재 변성호 조는 컨디션은 양호하나 거리가 문제다. 앞으로 2~3시간 정도 운행을 해야 정상에 설 것 같다고 한다. 총대장은 "본인들의 욕망이 강하면 정상을 도전해라. 그러나 하산할 때 힘을 비축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고도 7,900M다. "정신력을 강하게 하도록" 정상 공격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09:01분 C2에 있는 조민철과 변성호의 교신에서 정상 약 4~50분 정도 거리라고 한다. 베이스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촬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디지털 카메라는 한국 원정 역사상최초로 정상 사진을 등정 즉시 전송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09:14분 G I 봉 C4에 있는 박근구를 고소에서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없어 즉시 아래 캠프로 다운 하도록 지시를 했다. 박근구 09:43분에 하산시작, C3에 11:53분 도착했다. 09:57분 변성호 정상 30여 미터 전 이라 한다.

10:24분 변성호, 김재영 대원이 정상에 도착하였다. 오늘 두 번째로 정상에서 무전이 왔다. 오늘 G I 대원들 5명 중 4명이 등정했다. 총대장은 성호에게 디카로 주변 촬영을 하고 빨리 하산토록 했다.

김재영이 무전기를 잡았다. "이렇게 오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베이스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본인은 약간의 고소 증세가 있으나 컨디션이 좋은 성호가 옆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를 찾았다. 나는 뷰우 포인트에 있으면서 "정상 등정 장하다. 고생하였고 등정하는 것보다 하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발 한발 신중히 하산을 바란다."라고 했다. 조민철에게 감사의 말

을 전하고 있다. 정상을 등정하면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준비를 한 것처럼 말을 잘했다.

11:05분 총대장은 정상의 변성호를 찾는다. 변성호는 아직도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깃발이 너무 많다고 한다. 11:14분 하산을 한다는 소식을 전한다. 총대장은 하산하는데 등정 시간에 비하여 1/2정도 걸리니 앞으로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이야기하고 격시등반으로 하산 할 것을 명 했다.

10:22분 G I 봉 누에고추 바위에서 2명의 대원이 관측 되었다. 김태호와 김용재다. 10:50분 최호 등반대장이 같은 자리에서 보였다. 총대장은 최호를 찾고 있다. 최호는 12시 이전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포기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11:57분 드디어 G I 정상에서 김태호가 교신을 한다.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다.", "총대장님 노래 부를까요?", "용재와 최호가 약 20M 아래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대장은 "노래 부를 것이 없다. 주겠다.", "그러면 용재를 200\$ 주세요.", "오늘 G1도 4명이 등정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니 알고 있다고 한다.

12:34분 최호는 "다운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베이스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인해는 중간에 조정우가 힘들게 하산을 하고 있으니 같이 힘을 합하여 하산하도록 했다.

13:02분 김용재 대원이 누에고추 봉의 시야에 들어온다. 13:24분 두 명의 대원이 다시 하산한다. 두 번째 하산자는 그곳에서 힘이 드는지 글리세이딩을 한다.

14:02분에 피라미드 꼴에 1명 도착하였으며, 14:36분 다시 2명의 대원이 관측이 된다.

조정우 대원은 피라미드 꼴에 12:15분에 관측이 되고 하산을 하는데 대단히 힘들어한다. 그러던 중 정상 등정조가 그를 따라 잡았다. 그리고 한 시간 후 16:05분쯤 최호는 C4에 3명이 도착하였고 약 20분 거리에 김태호가 도착할 것이라는 교신을 하였다. 최호는 C4 텐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다. 개인 중요한 짐만 가지고 하산을 하도록 지시했다.

14:49분 총대장은 K2 대원과 교신을 했다. K2에 오늘 7명이 등정한 소식을 전한다.

그사이 베이스는 축제분위기로 분주하다. 오늘 등정이 두 개봉 모두 이루어짐으로써 8월 3일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다. 내일 정부 연락관과 상의하여 G1의 캠프3 텐트, G2의 캠프4 텐트와 고정로프를 아메리카 G1, G II 원정대에 서류로 넘기기로 했다.

이정현은 정상에서 4시간 걸려 14:03분에 C3에 하산 하였으며, 15:40분에 C2에 도착했다. 컨디션 좋은 정상적인 하산이었다.

15:08분 성호와 재영이 7700M에 있다고 교신한다. 한 시간에 약200M 정도 하산 하고 있다. 18:41분 조민철과 변성호 대원의 교신에서 현 위치가 현재 7500m 정도로 교신을 하고 있다. 조

는 "사람 애타게 하지 말고 빨리 빨리 하산해!" 무전을 한다. 아직 캠프에 도착하지 않은 두 대원은 컨디션은 양호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녁 시간에 K2에서 교신이 왔다. 그들이 앞으로 등반하는데 필요한 식량을 박명환 대원이 불러 주고 있다. 내일 총대장이 K2로 이동할 때 이곳에 남아 있는 식량을 가져 갈 것이다.

20:06분 대원들은 저녁을 먹고 텐트로 들어갔다. 정후식대원은 기사를 쓰고 있고 다른 대원들은 쉬고 있으나 쿡들과 키친보이들 정부 연락관들은 기분이 좋아 노래를 하고 있다. 그들의 노래는 가슴을 애이는 듯 한 애절하지만 흥겹고 아름다운 음의 연속이다. 오늘 등정을 축하하기 위해 RARE 위스키를 한 병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C3로 하산하고 있는 변성호 김재영 대원이 걱정이 된다.

20:41분 주우평과 김재영이 교신을 하고 있다. 재영이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평은 아이젠 발자국을 따라 하산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계속하여 바위 쪽으로 붙으라고 안내하며 안심하고 돌아라 한다. 헤드랜턴을 김재영 대원이 아침에 잊어 버렸다고 한다.

정상 공격을 마치고 마지막 캠프로 귀환하지 못한 두 대원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김재영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 변성호와 거리가 150M정도 되고 서로 안자일렌을 하고 있지 않으며 김재영은 랜턴이 없다. 서로 흩어져서 C3을 찾고 있다. C3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텐트로 그들은 오늘밤 꼭 텐트를 찾아야 한다.

밤 11시가 돼서 베이스에서는 비박을 지시했다. 비박을 지시하지만 무전기 연결은 되지 않는다. 조민철은 그들이 안심하고 삶의 의욕을 주기 위해 무전기에 대고 대답은 없지만 김재영을 부른다. "김재영 대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별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DJ이가 돼 허공에 무수하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전을 하지 않을 때 조민철은 C2에서 C3을 쳐 다보면서 들리지는 않지만 1시간 30분 동안 에코를 쳤다고 한다. 기다리는 사람의 간절한 바램이다. 조민철은 김재영에게 "꼭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사람을 생각하고 딸아이를 생각하고 와이프 배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00:24분 그토록 기다리던 김재영으로 부터 교신이 왔다. "현재 둘이 꼭 껴안고 뽀뽀하고 있다." 조민철은 "야 동개야! 왜 무전하지 않았느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에 C3이 있을 것이다.", "내일 보자.", 김재영은 비박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양말을 바뀌신고 무전기 건전지를 교체시키고 먹을 것을 체크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들은 무사히 베이스캠프로 귀환했다. 김 재영은 나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장님 이제 살았어요!" 하지만 그도 이젠 우리와 함께 숨쉬지 않는다. K2의 영혼이 돼 있다.

● G1, G2, K2 원정대 명단

, , ,	TITU	ALE.	사 소/드니니 기조\	ш¬
	직책	이름	소속(당시 기준)	비고
	단장	이 상 현	서해안 산악회	
	부단장	우윤근		
	총대장	위 계 룡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 OB	
가셔브룸1	원정대장	이 병 철	목포대학교 산악회 OB	
	등반대장/행정	이 정 현	순천대학교 산악회 OB	
	촬영	조 민 철	순천제일대학교 산악회 OB	
	수송/포장	김 재 영	한울산악회	
	장비	변 성 호	순천제일대학교 산악회 OB	
	식량	주 우 평	순천대학교 산악회 YB	
	기록	정 후 식	광주일보산악회	
가셔브룸2	원정대장	이 종 승	유달산악회	
	등반대장	최 호	목포과학대학교 산악회 OB	
	통신	김 인 해	목포과학대학교 산악회 OB	
	의료	김 태 호	하늘별 산악회	
	수송/포장	조 정 우	순천대학교 산악회 OB	
	촬영	박 근 구	목포과학대학교 산악회 OB	
	의료	김 은 주	목포과학대학교 산악회 OB	
	장비	김 용 재	목포대학교 산악회 YB	
	식량	최 영 미	목포YMCA 산악회	
	회계	이 만 례	목포YMCA 산악회	
K2	등반대장	박 정 헌	경남	
	장비	장 순 봉	한울산악회	
	식량/의료	배 훈 희	모듬산악회	
	행정	문 종 국	조선이공대학교 산악회 OB	
	식량	하 태 영		
	기록/회계	유 순 욱	경남대학교 산악회 OB	
	보도	박 명 환		
지원조		이 철 회	서해안 산악회	
		나 민 수	유달산악회	
		김 영 회		
		김 현 민		
		이 성 원	조선이공대학교 산악회 OB	
		윤 중 현	조선이공대학교 산악회 OB	
		김 재 우		
		 윤 태 현		
		윤 태 현		

2) 1999년 이후 전남학생산악연맹의 주요 해외원정 정상 도전기

2000년 K2 등정기

- 주우평(순천대 94학번)

죽음의 지대라 불리는 히말라야 8,000m 14좌 모두를 최초로 완등한 이태리의 세계적인 등반가라인홀드 메스너는 "K2는 어디로 오르던 가장 어려운 산"이라고 14좌 등정을 이룬 후 인터뷰에서말했다.

히말라야의 서쪽 끝에 위치한 파키스탄 카라코람 히말라야 콩고르디아 주변의 4개의 8,000m 봉우리 중 K2는 "하늘의 절대군주", "죽음을 부르는 산"으로 불릴 만큼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며 하늘을 찌를 듯 위협적으로 솟아 있다.

K2는 6개의 주능선을 중심으로 변형 루트를 포함해 현재 16개의 루트가 개척되어 있다. 정상에서 고드윈 오스틴빙하의 베이스캠프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최고 난이도의 매직라인 루트와 서릉, 14좌 등정을 두 번째 이룩한 예지 쿠크츠카가 개척한 남면 직등루트, 거벽등반의 기린아라 불리며히말라야 최고 난이도 있는 루트로 알려진 로체남벽을 단독 도전했던 유고슬라비아의 토모체센이시등했던 남남동릉이 5급의 난이도로 K2를 오르는 가장 어려운 루트로 알려져 있다.

1999년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구성된 '99 한국 K2 원정대(전남연맹주최)는 현대 등반의 흐름으로 그 동안 한국 8,000m 원정에서 등한시되었던 등로주의에 입각한 등반을 시도하며 100일 동안 추위와 강한 눈보라로 사투를 벌이지만 7월말 일찍 찾아온 몬순의 영향으로 많은 폭설이 쏟아져 철수해야만 했다.

그 뿐 아니라 K2는 세계적으로 1996년 등정된 이후 최근 3년간 세계 산악인들의 발길을 거부하여 K2는 역시 8,000m급 중 가장 오르기 힘든 산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며 동시에 인간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었다.

국내산악계는 1986년(대장:김병준) K2의 초등루트이며 노말루트인 아브릿지 루트를 통해 장봉 완, 김창선, 장병호 3명의 대원이 등정을 이룩하는 쾌거를 거두지만, 그해 13명의 외국 유명산악 인들의 죽음을 불러와 K2를 8,000m 산중 가장 위험한 산임을 세계 산악인들에게 각인 시켰다.

이후 한국은 94년 경남 마산의 악동산악회가 아브릿지를 통해 국내 재등을 시도하지만 악천후로 철수하고 만다.

'99한국 가셔브룸Ⅰ, 가셔브룸Ⅱ, K2원정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2000년 영·호남 합동

대는 대원을 재편성 영·호남 최고의 고산경험자들을 선발해 광주연맹이 주최하고 파키스탄을 네 번이나 원정한 이성원 원정대장, 8,000m 봉우리를 다섯 봉이나 등정한 최고의 클라이머 박정현 등반대장, 거벽등반의 메카로 알려진 가셔브륨 IV봉을 등정했던 윤치원, 강연룡대원, 작년 K2원정 경험을 가진 문종국, 유순욱 대원, 97년 낭가파르밧 등정자 김주형, 99년 공가산 북릉을 세계초등했던 윤중현, 그리고 나와함께 가셔브룸 I 봉을 등정했던 이정현 등 히말라야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훈련과정에서 기량이 인정된 김병찬 대원을 비롯해 11명으로 원정대를 구성하였다.

우리 원정대는 버려진 땅이라 불리는 황막한 발토로 빙하지대를 일주일 동안 영상 35℃를 오르 내리는 더위와 싸우며 해발 5,000m에 5월20일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 이때는 본격적인 등반시 즌이 시작되기 전으로 외국 원정대가 도착하기 전이었다. 밤이면 영하 17℃까지 베이스캠프 기온이 급강하는 가운데 루트작업을 했다.

등반 초기 여러 대원들은 추위로 인한 기관지염으로 고생하고 몇몇은 동상과 감기로 컨디션 난조임에도 불구하고 영·호남에서 엄격히 선발된 대원들인 만큼 잘 견디어 냈다.

베이스캠프에서 캠프1까지는 무려 고도차가 1,300m, 다른 봉우리 등반시 캠프거리보다 두 배가 넘는 고도였고 또한 제대로 휴식공간이 없는 끝없이 이어지는 암설빙벽 구간이었다. 하지만 지난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루트를 개척할 수 있었다.

모든 대원이 합심하여 강한 눈보라 속에서 1,500m의 로프를 3일 동안 설치하며 6,300m에 "제비집"이라 부르는 바위 밑에 지난해와 같은 자리에 작은 텐트 2동을 설치했다.

캠프1은 설치했으나 날씨는 여전히 호전될 줄 모르고 10일 이상이나 매일 폭설이 내려 캠프2를 설치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베이스에 입성한지 3주가 지나도 별 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국내에서 전송되는 기사도 없고 소식도 두절되자 모두들 낙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히말라야의 날씨는 주기적이라 나쁜 날씨는 곧 좋은 날씨가 다가올 징조이기에 베이스의 대원들은 등반대장으로부터 정상공격에 필요한 산소사용법을 배우고, 캠프작업에 필요한 1,200m의 로프를 정리하며 지루한 2주를 보내며 날씨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인지 날씨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숨죽인 산사나이들의 기상은 단숨에 7,100m의 바위 밑에 2동의 텐트를 설치하여 캠프2를 건설하고, 등정의 최대난관인 캠프3 설치에 필요한 물량과 장비를 임시 보관할 전진기지를 건설했다.

6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국제합동원정대와 이태리의 세계적인 등반가 한스 캄머란더가 작년에 이루지 못한 K2등정과 스키하산을 목적으로 베이스캠프에 입성했다.

한스는 43세로 이탈리아가 고향이며 8,000m 봉우리 12개를 등정하였고, 세계적 등반가 라인홀드 메스너와 함께 26세에 처음으로 쵸오유(8,201m)등정에 성공한 이후 가셔브룸 I, II 봉 종주 등반과 에베레스트 스키 하산 등 알파인 스타일과 익스트림 스키를 이용해 히말라야에서 인간한계를 실험하고 있는 등반가이다.

하지만 한스팀의 대원은 2명이고 이들은 로프를 설치하지 않고 등반을 하기 때문에 하산할 때 사고의 위험이 도사려 베이스캠프에서 캠프3까지 우리 팀 고정로프 사용을 원했다. 이에 우리 팀 은 약간의 로프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이를 허락했다.

캠프2가 설치되고 대장님을 제외한 10명의 대원이 2개조로 나누어 캠프3 루트 건설 작업에 나섰지만 고도 7,000m를 넘어서면서 5명의 대원이 작업하여 앞으로 나가는 거리는 굼벵이 걸음처럼 느렸고, 날씨라도 급변하는 날이면 폭풍 속을 뚫고, 언제 바위에서 빠져 버릴지 모르는 하켄에의지해 하산을 서둘려야 했다. 이번 등반의 성공의 최대 관건은 캠프3의 건설이었다.

캠프2에서 캠프3까지 고도차는 1,000m에 이르며 로프도 2,000m나 소요되는 먼 거리였다. 고도 8,000m에 위치한 캠프3는 이미 하나의 독립된 8,000m봉을 등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캠프3를 건설하기 위해 대원들은 몇 번을 시도했지만 해발8,000m에 가까워지면서 몰아치는 눈보라와 추위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우리 원정대가 지금까지 한국 히말라야 등반사상 최고의 팀이라 자부했건만 막상 이 거대한 삼 각피라미드 앞에서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전날 건설한 고정 로프에 도달하 면 벌써 캠프2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곤 하였다.

2개조로 운행하며 번 갈아서 캠프3를 공략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저 높이 보이는 K2의어깨, 숄더까지는 멀기만 했다. 날씨가 악화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 이성원 원정대장과 등반대장은 대원들을 B.C로 철수를 지시했고 B.C에서 며칠 쉬었다가 캠프3 건설과 동시에 곧바로 정상등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B.C에 내려오니 나빠질 것 같던 날씨가 오히려 등반이 시작된 이래 가장 좋은 날이 4일간이나 계속되어 대장과 등반대장, 그리고 대원들을 안타깝게 했다.

6월 19일, 김주형, 윤치원, 이정현, 김병찬, 유순욱 5명의 대원을 B조로 편성해 캠프3 건설의 임무를 주고, 문종국 대원의 지원 하에 곧바로 박정헌, 윤중현, 강연룡 그리고 나 4명의 대원이 정상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B조가 캠프1로 출발했다. 하루 뒤 정상공격대원들이 B.C를 출발하려 할때 날씨가 악화되고 B조는 캠프1에서 발이 묶이고, 정상 공격조는 B.C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또하루 뒤 날씨는 개이지 않았고 각각의 캠프에서 대기를 했다.

특히 B조는 비좁은 캠프1에서 텐트를 뒤덮은 눈을 치워가며 이틀 동안 대기하면서, 화장실 갈때도 로프를 묶어야 했고 식량도 변변치 않은 캠프1에서의 이틀을 보내는 B조 대원들을 안타깝게하였다. 그러나 대장과 등반대장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시도하지 못하면 7월을 넘겨야 하기에 계속기다리라는 지시밖에 할 수 없었다.

6월 22일……. 약간 날씨가 호전되는 틈을 타 B조가 캠프2로 진출했다. 하루 뒤 공격조와 공격지원대원인 문종국대원이 캠프1로 진출하고 B조는 공격의 관건인 캠프3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며칠간 내린 많은 신설로 인해 진출이 느려 7,700m지점에서 돌아서고 말았다. 안타까웠지만 고소캠프에서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신설이 많은 상황에서 캠프3건설은 무리였다. B조는 B.C로 철수했고 공격조는 마지막 남은 약 300m구간에 고정 로프를 설치하고 곧바로 캠프3 건설과 함께 정상공격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공격조로서는 개인당 산소 2통씩 메고 거기에 텐트1동, 코펠, 버너, 가스, 식량 등 개인당 15kg의 짐은 대원들을 너무나 몸서리치게 지치게 했다. 공격조는 B.C에서 일주일간 쉬면서 체력을 비축하였고 이번 시도는 히말라야 날씨의 특성상 가장 적기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정상공격을 감행하였다.

6월 25일 새벽 4시 30분 공격조 4명은 캠프3건설을 위해 캠프2를 출발했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마지막 고정로프까지 진출하였고 마지막 남은 구간의 고정로프작업을 마치고 숄더에 올라서니오후 5시를 넘기고 있었다.

캠프 3! 8,000m 봉우리다. 곧바로 날씨는 추워지기 시작했고, 텐트사이트를 만들고 텐트를 치고 B.C에 캠프3 건설 완료를 알리는 무전을 전할 때는 오후 6시 30분이었다. 이곳에서 약 6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 자정에 정상공격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휴식이라지만 침낭도 없고 산소도 사용하지 않으며 해발 8,000m의 고도에서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정했던 출발시각이었던 자정보다 1시간이나 넘긴 새벽1시……. 드디어 정상공격이 시작되었다. 그 동안 K2를 오기 위해 노력했던 숱한 순간들과 공격조를 위해 노력했던 B조의 대원들을 생각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히말라야 법칙이라 할 수 있는 굼벵이 걸음으로 한발 한발 발걸음을 옮겼다. 박정헌 등반대장은 무산소로 등정을 시도하고 나머지 3명의 대원은 개인당 산소 2통씩을 메고 등반을 시작했다.

보틀넥 입구까지는 눈이 잘 얼어 있어 아주 빠른 속도로 진입했으나 보틀넥에 들어서면서 점차 눈이 허리까지 차오며 진행을 더디게 했다. 보틀넥 트래버스 구간에서는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하산할 때를 대비해 로프를 설치하였다. 보틀넥 트래버스구간이 지나고 대빙탑 좌측으로 트래버스하고 등반을 시작하니 눈이 허벅지까지 차오며 전진이 되지 않는다. 시간은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정상까지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작년에 이곳까지 진출하고서 철수했다는 캄머란더의 기분을 이해할 것 같았다. 어렵사리 이 구간을 넘어서고 약 300m의 설벽 구간이 나타나자 여기만 오르면 정상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조금은 힘이 났다.

하지만 이 구간은 쌓인 눈 밑에 강한 청빙이 있어 조금 방심했다간 천길 만길 떨어지는 큰일 나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K2에서의 대부분 사고가 이곳이라니 이해가 된다. 이곳에서도 하산할 것을 대비해 고정 자일을 설치하고 등반을 계속했다. 300m 설벽구간을 오르니 60m정도의 완만한 설벽구간이 나타나고 이곳을 등반하니 저 멀리 정상이 보였다. 정상까지는 약 500m정도의 설사면과 함께 3개의 빙탑이 보이고 3시간쯤 걸릴 것 같았다. 베이스에 무전으로 알리고 마지막 정상을 향해 한발 한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시간이 12시였다. 전체적으로 완만하다 정상으로 가면서 경사가 점점 급해지는 게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대원들은 점점 더 가쁜 숨을 몰아쉬고 한 걸음마다 최선을 다 하는 대원들이 믿음직스러웠다.

오후 3시 30분 무려 15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희박한 산소와 싸우며 숨 가쁜 발걸음 끝에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정상이다.

K2의 정상 !!!

해발 8.611m!!!

최근 4년 동안 세계의 유명 클라이머들의 발길을 거부했던 산중의 왕 K2의 정상이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14년 동안 재등이 되지 않았던, 8,000급 산중 가장 많은 산악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명 높은 산 K2의 정상이었다. 베이스캠프 대장님과 무전을 하면서 그 동안 우리를 위해 애쓰셨던 많은 분들을 생각했다. 정상의 기쁨도 잠시 서둘러 촬영을 마쳐야 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었고 정상공격을 위해 너무 많은 체력을 소모한 터라 하산을 재촉했다. K2의 정상은 올랐지만 또 하나의 정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산을 시작한 시간이 오후 4시다. 올라오면서 소진한 힘을 다시 한 번 부추기며 한 발짝 모든 마음을 모아 캠프3까지 하산을 마무리하니 오후 8시였다. 공격조 대원 4명은 무사히 캠프3에 도착하여 B.C에 무사귀환을 알리고 휴식을 취했다.

이 순간 철수했던 B조가 2차 등정을 위해 B.C에서 하루만 휴식을 취하고 캠프1로 진출하고 다음날 캠프2로 28일 오후 10에는 김주형, 윤치원, 이정현, 유순욱대원이 정상공격을 하고 김병찬대

원이 지원하기로 하여 출발했다. 2차등정은 1차등정조가 러셀과 위험한 구간에 로프를 설치한 터라 비교적 쉽게 등정하리라 예상하고 아침이 되면서 모두들 무전기 소리에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오전 7시 50분 무전기에서 드디어 등정소식이 들리고 대원들의 환호성과 함께 축하전화와 다른 팀들의 축하가 잇따랐다.

하지만 하산을 서두르는 대원들 앞에 정상부위에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산을 시작한지 5시간, 6시간이 지나도 대원들의 무전기에선 캠프3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B.C 에서 대원들을 불러대도 소식이 없어 대장님, 등반대장, 그리고 다른 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애를 태운다. 숄더 위 정상부에는 이미 구름이 하얗게 덮었고 B.C에서도 가끔씩 눈발이 날리며 나빠진 날씨를 실감케 한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오후 5시 정상등정 9시간 만에 숨을 헐떡거리며 유순욱 대원이 B.C에 무전연락을 해온다. 보틀넥을 내려서서 갑자기 나빠진 날씨와 심한 화이트아웃으로 인해 캠프3를 찾지 못해 지금까지 숄더에서 헤매다가 방금 캠프3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대원들은 지쳐있었으나 모두들 무사히 캠프3에 도착했고 B.C에선 한숨을 놓았다.

다음날 대원들은 모두 B.C로 철수했고 B.C에선 대구팀과 함께 등정축하의 파티를 열었다.

K2 등반사상 한 팀에 8명이라는 최대 등정 기록과 함께 대한민국 14년만의 재등, 세계적으로 4년만의 K2등정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내며 한사람의 불상사 없는 등반을 일궈냈다. 영·호남의 11명의 클라이머가 모여 7달 동안 서로 훈련하며 정을 느끼고 산악인만의 독특한 힘을 발휘하여 일궈낸 성과였다. 작년 가셔브룸 I의 등정과 이번에 K2봉에 등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영광이 있기까지 성원해 주신 산악인들에게 다시한번감사하고 모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2000년 초오유 등정기

- 변성호(순천제일대 88학번)

2000년 9월 22일 새벽 4시 정상을 향해 출발하였다. 간밤의 불편한 자리에 거의 잠을 설친 뒤라 정신이 몽롱하였다. 같이 출발하려던 조민철 대장은 남았다. 그리고 나를 선두로 상태형 행동이 순으로 단출하게 록 밴드를 향해 45° 각도의 설사면을 새벽의 찬 공기를 가르며 느릿느릿 전진하였다.

오늘은 어느 팀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제 외국 등반조가 록밴드 바로 밑에서 고정로프를 찾지 못해 후퇴한 것을 상기하면서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상태 형은 어느 정도 컨 디션이 괜찮아 보이지만, 행동이는 자꾸 뒤로 쳐진다. 희박한 공기와 차디찬 설사면에는 정상을 향한 우리들의 헤드렌턴 불빛 3개만 움직였다.

1시간 정도 전진 후 약간 헤맬 줄 알았는데 곧바로 록밴드 직하에서 고정로프를 찾아내 쥬마링을 시작했다. 나는 약간씩 뒤쳐지는 상태 형과 행동이에게 "두 명이 꼭 같이 움직이라고" 말한 뒤눈에 묻힌 고정로프를 꺼내며 힘겹게 전진했다. 약간씩 어둠이 걷혀 뒤를 보니 상태 형은 보였으나 행동이는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행동이가 캠프3로 하산한단다. 서로 힘을 합하여 등반을 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약간 부담이 되었다.

우리는 셀파도 같이 도움을 줄 외국팀도 없다. 상태 형은 따라 붙지 못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7,900미터 지점 이제 고정 로프도 끝이다. 얼어붙은 설사면은 자꾸 무너진다. 픽켈을 휴대하지 않은 게 엄청 후회스럽다. 스키 스톡 한 자루로 팔걸음을 팔며 계속 전진하였다.

그런데 상태 형마저 다운한다는 제스처를 보낸다. 상태 형이 시야에서 멀어지면서 무섭게 덮치는 고독함과 정상을 향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온몸에 감싸옴을 느낀다. 그래서 멀어져 가는 상태형을 모른 척 외면하면서 자신을 위로하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이 마지막 정상 공격이 될 텐데 혼자서 등반을 해야 하는지 잠깐 고 민에 빠졌다. 드디어 상태 형마저 포기하고 나 혼자 위태한 설사면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다.

캠프3의 조민철 대장과는 무선이 되지 않고, 베이스캠프에서는 두 대원을 설득해 같이 등반을 하라고 한다. 캠프3나 베이스에서는 전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모양이다. 어떻게 해 줄 말이 없다. 이젠 어쩔 수 없다.

그래 나 혼자가 더 좋다. 초오유의 청록 여신이 나 혼자 오는 것을 더 반길 것이다. 여신이 나를 품에 안을 것이다. 용기를 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목까지 차오르는 숨을 가르며 혼자서 8,000m 고개 길을 넘었다.

베이스캠프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무전도 불통이다. 이제부터 15°설사면을 두세 시간 정도 더올라야 정상이라는 생각이 된다. 아직 날씨도 좋다.

초오유의 정상부는 거의 일만 여 평으로 어느 봉우리와는 달리 정상을 구분하는 것이 애매모호 하다. 눈이 거의 허리까지 빠지고 적막감마저 든다. 어느새 안개와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좌측 의 전위봉도 자취를 감추었다.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많은 산악인이 이 부근에서 돌아섰고 또한 수많은 등정 의혹을 낳았다. 나 역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정상에 섰더라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문제다. 심한 안개 때문에 에베레스트와 로체도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지난 봄 에베레스트 등반 때 정상 100m를 앞두고 내려설 때의 허망함을 생각하니 도저히 내려설 수 없다. 시간은 충분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무전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되지 않는다.

다시 3시간여를 힘겹게 전진했다. 안개가 잠시 걷혔다. 좌측의 전위봉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거의 정상부에 도달한 것 같지만 아직 안심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상부가 일만 여 평이 되지 않 는가?

한 시간여를 더 전진한 후 후원사 깃발과 카라비너 한 개를 눈 위에 살짝 묻고 비디오 촬영을 했다. 오후 3시 30분 정상이라는 희열보다는 혼자라는 외로움, 인생의 또 다른 반환점을 향해 다시올라왔던 길을 외로이 돌아섰다.

10. 에필로그 - 학산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90년대 학산 절정기를 통해 본 학산의 정체성

학산이 창립된 이래 학산의 이름으로 떠난 해외원정은 모두 3개다. 89/90 동계에베레스트, 92 년 천산, 93년 초모랑마 원정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지역 산악사에서 또는 한국등반사에서 이들 3개 원정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 산악인은 90년대 등반은 우정과 헌신이 있었고 2000년대 등반은 유대가 있었고 2010년대 등반은 개인만 존재한다고 현 등반행태에 대해 일갈한다. 가장 순수했으면서도 황금기였던 당시의 모습을 통해 상업화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현재의 등반에 대해 반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봄으로써 학산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히말라야등반은 흔히 교향악에 비교되곤 한다.

누구하나 잘못하면 불협화음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할 수 없듯이 대원 개개인 하나하나가 유기체처럼 엮어져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당시의 등반은 원정대의 성공이라는 공공목표를 위해 개인이 존재했으며 '후배가 정상에 서면 내가 정상에 선 것이다'는 공동체문화가 있었다. 정상에 오른 개인이 영웅시되고 특정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원정대가 꾸려지는 오늘날의 행태와 비교된다. 또한 캠프구축에서 수송 루트개척 등 모든 작업이 대원들에의 이뤄졌다. 대원간 상호 협동과 팀워크 등 공동체정신은 등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였

다. 때문에 한번이라도 함께 줄을 묶은 대원들은 평생 동지가 됐다.

또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안자일렌정신이 광주 · 전남 학산인들을 지배하는 정체성이었다.

8천미터급 히말라야에 도전하기 위해 1년 이상 동고동락하며 부대낀 대원들은 가족보다 더 끈 끈한 우정을 공유한다. 조난당한 후배를 사지에 두고 혼자서 내려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스스로에게 용납되지 않았다. 특히 학산 원정대는 이런 공동운명체 정신이 강해 개인주의적 경향의 연합원정대에 참여할 경우 등반문화의 차이에서 혼란을 겪는 요소이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안자일렌정신은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각자등반과 각자살기 방식으로 추세가 바뀌면서 등반은 점점 개인주의화 상업화돼 가고 있다.

등반은 스포츠가 아니다. 여기에는 심판도 없으며 경쟁도 없고 관전자도 없다. 그런데 2천 년대에 들어서면서 등반도 스포츠화 되면서 관중을 의식하는, 등수를 매기려는, 각종 이벤트를 등산과 접목하려는 문화가 정통 알피니즘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40kg의 등짐을 지고 수십 일 간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극한의 인내를 감내한 산악인에게서는 산사람특유의 향기가 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自尊(자존)이라는 향기다. 단편적이고 짧은 순간의 희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인내와 집념 지난한 자기희생과 극기 심지어는 목숨까지 담보해야 하는 게 등반이다. 하계 동계 등 장기등반을 해보지 않고는 학산의 문화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학산인은 스포츠클라이머나 철인3종 선수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그들만의 공통 체취와 교감이 있다.

또 학산의 등반에는 아름다운 과정이 존재했다. 히말라야 등반 초창기에 해당됐기에 대원들은 금주 금연은 물론 고된 훈련과 합숙 등 험난한 준비과정이 있었다. 짧은 준비기간과 공항에 모여 등반 후 헤쳐식의 등반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낭만과 고행 우정이 있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에 오르면 최고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아름답고 정당해야했다. 직접 루트를 만들고 픽스로프를 깔고 텐트를 치고 집을 수송하고 8천 미터까지는 무산소로 운행했다. 선배에 대해서는 깍듯이 복종했고 후배에 대해서는 목숨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존재했다. 등반과정에서 대원간에 충돌하고 대장의 명을 거역하고 논공행상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등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물론 첨단사회를 지향하는 디지털시대에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냐고 비아냥거리는 비판이 일수도 있다. 아직도 합숙하고 단체훈련이냐며 이 같은 등반을 전근대적이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경량화 속공등반 각자 훈련 후 공항에 모여 등반 후 헤쳐식 등반이 최첨단 등반처럼 미화됐다.

또 학산의 등반에는 엄격한 기수체계 즉 선배에게는 복종하고 후배는 책임진다는 무언의 불문율

이 있다. 나이나 학번보다 군대처럼 산악회 짬밥을 누가 먼저 먹었는지에 따라 위계질서가 정해졌다. 학산이 50년 동안 면면히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집단에서는, 심지어 군대에서조차 사라지거나 퇴색되고 있는 기수체계가 큰 역할을 했다. 학산인들은 기수에 대해자부심이 있었으며 동기정신이 강해 대학산악부라는 타이틀을 명예로 생각했다. 아무나 대학산악부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정회원 인준을 받고 학산인이 될 수는 없었다. 클라이밍 실력이월등하더라도 아무나 알피니스트라, 산악인이라 부를 수는 없다.

2000년대 들어 자본이 등산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다. 등산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제품홍보를 위한 자본의 이해와 빠르고 쉽게 성과를 내려는 등반가의 욕구가 맞물린다. 등반가는 막대한 자금마련의 압박에서 자유스러워지고 자본은 회사홍보를 위해 다양한 특화등반에 자본을 투자한다. 원정의 성격상 과정보다는 정상등정에 의미가 부여된다. 등정의 영예는 개인에게 돌아갔으며 자본은 스타등반가를 창출하며 이를 최대한 활용했다. 등산에는 보상이 따랐으며 과거 금기시됐던 산에서도 이제 빵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희생보다는 실리를 저울질했다.

원래의 등반성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순수등반을 주창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자본의 논리와 성과 위주의 등산사조에 밀려 공허한 메아리로 묻히고 있다. 갈수록 순수 알피니즘을 추구하는 산악인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자본과 결합한 스타 산악인 개인들만 영웅이 되고 등반은 개인주의화 되고있다. 함께 등반했던 이들은 일회성이 되고 그들의 노고는 아무도 투영해주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적 영웅들이 창조됐지만 아까운 알피니스트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최근 수년간 너무나 많은 산악인들이 자본과 결합된 원정대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현대등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산의 등반정신은 등반의 고전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극지법과 안자일렌 정신 등 전통에 그 뿌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학산은 크레타를 신고 월출산 검정슬랩을 암벽등반했으며 학산의 등산학교는 가장 기본적인 산행예절 배낭쌓기 보행법 알피니즘의 정의부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극지법정신 속에는 협동과 희생과 개척정신이 들어있다. 하루하루 느리지만 끈기 있게 고도를 높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며 정상을 시도하는 겸손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 속도에 집착하는 가벼움이나 개인에 의존하는 영웅등반이 아니다. 끊임없이 협동해야하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한줄 한줄 길을 내야한다. 장인의 손에 한 땀 한 땀 완성되는 명품처럼 학산의 등반에는 대원모두의 숨결이 담겨있다.

또한 안자일렌 정신 속에는 자기희생이 담보돼 있다. 이는 산악인을 산악인으로 만드는 '자기희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즘이다. 등산의 가치인 無償(무상)의 行爲(행위)는 자기희생을 통해 보상받는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좀 더 배낭을 많이 지려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위험한 루트는 내가 먼저 오르려는 희생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 93년 로브홀은 탈진해 내려오지 못하는 고객과 함께 에베레스트 남봉에서 생을 마감한다. 만삭인 부인이 위성전화를 통해 어서 내려오라는 눈물의 호소를 뒤로하고 동료와 함께 죽음을 선택, 21세기 가장 용감한 영웅으로 선정돼 산악인의 정신을 웅변해주고 있다.

오늘날 자기희생을 통해 무상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보상받는 산악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실리를 선택해 산을 통해 명예를 쌓는 것도 좋지만 함께 등반하는 동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산악인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좀 더 어려운 곳에 대한 도전과 無償(무상)의 행위를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등반의 근본은 여전히 변할 수 없으며 근본철학을 벗어난 등반은 더 이상 등반일 수 없다.

극지법과 안자일렌 정신으로 모두가 정상등정의 영예를 만끽한 93년 초모랑마 등반이 그리운 이유다. 등산원칙과 근본에 충실했던 20세기 고전등반이 첨단사회를 지향하며 상업화 자본화되고 있는 21세기 등반에서 그리운 이유다. 그곳에는 우정과 헌신 무상의 행위라는 순수 알피니즘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11. 산정(山情) 마당

2001년 하계장기산행 보고서(설악산, 북한산)

- 이재광(조대의대 99학번)

7월 31일 화요일

본격적인 하계의 시작이다. 하계를 준비했던 나날들이 새로운 기억으로 다가온다. 전대의대 인 공암장과, 상무지구에서 몸을 만들고 대형마트와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선배님들께 연락드리 고, 계획서 발송하고, 친분 있는 지인들에게 인사드리고……

산행은 산행 자체뿐 아니라 준비기간과 갔다 온 후의 정리, 반성, 보고가 있기에 때로는 힘들다. 하지만 다른 회와 차별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에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동방에는 판초우의를 깔고 그 위에는 짐이 한가득하다. 사람도 한가득하고 덩달아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열망도 한가득하다. Packing을 하고 선배들의 배웅을 받으며 동방을 나선다. '선배님들, 함께 산행하지는 못해도 마음만은 함께 하심을 후배인 저로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철이라 어렵게 속초행 표를 구했다. 이렇듯 복병이 숨어 있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여행의 묘미는 변수가 아닐까 한다. 버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도 꽤 힘든 일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버스는 꼬불꼬불한 미시령 고개를 힘차게 넘어간다. 미시령 고개. 밤이라 그렇지 훤한 낮이었으면 아찔한 고도감에 오금이 저릴 뻔했다. 또 베테랑이 운전해야지 감히 내가 운전대 잡고 흉내라도 냈다면 아마 아득한 저편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도 강원은 자신을 찾은 손님에게 선물하나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속초시가 구워내는 뜨거운 감자가 나타났다 숨었다 한다. 숨었을 때는 그 뜨거운 김이 산등성이 너머로 피어오른다. 마치 달님, 별님에게 그 냄새라도 전해주듯이.

8월 1일 수요일

속초에 도착한 시간(02:50)이 어중간해서 인근 중앙초등학교에서 3시간 정도 비박을 했다. 그리고 버스로 C지구 야영장에 들어가서 BC를 구축하고 장비를 챙겨 바로 노적봉릿지에 나섰다. 설악국립공원사무소에 들러 입산허가서를 받기 위해 소공원 가는 버스에서 나만 내렸다. 일처리를 하고 나머지 대원을 만나러 가는 길에 왼편으로 토왕폭이 보였다. 누가 그랬던가? 360m의 거대한 낙숫물이 하늘과 땅을 잇는 한 줄의 명주실 같다고......

노적봉은 처음 가보는 곳인데, 권곤 형이 산지에서 보고 가보자고 한 곳이다. 산지에 글을 기고 한사람도 초입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는데, 우리도 그 전철을 밟고야 말았다. 결국 back을 해서 겨우 찾아서 붙었는데 하다 보니 영 이상하다. 최고난이도가 5.8로 알고 있는데 꽤나 어려운 것이다. 알고 보니 그곳은 노적봉릿지의 1 pitch가 아니라 소토왕골 암장이었다.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몸이나 풀자하며 연습을 했다. 먼저 와있던 중앙대팀과 얘기도 나누면서…….

점심을 먹고 나서 권곤 형은 노적봉 초입이 바로 근처인 것 같다며 계속 찾았으나 초입에 있어야 할 볼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산지에 전화를 해봐야겠단다. 조금 더 연습을 하다가 비가 많아져하산을 했지만 노적봉 초입을 찾아 비룡폭포 쪽으로 가는 중의 휘돌아 내리는 물줄기가 위안이 되어준다. 그토록 시원해 보일 수 없는 것이 저 아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나를 상상해본다.

소공원에서 BC까지 걸어오는 동안 본 설악산의 운무는 한 폭의 한국화를 연상시키게 했다. 아 니 한국화 그 자체였다. 지리산이 무뚝뚝한 경상도 아저씨라면, 설악은 정말 볼륨 있는 여성의 아 름다운 몸과도 같은 것 같다.

8월 2~3일 목요일. 금요일 - 천화대 릿지

1박 2일로 천화대 릿지에 나섰다. 노적봉 릿지에 실패했기에 릿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한 층 더 부풀어 있다. 신선이 되어 날아간다는 비선대에 도착해 장군봉과 앞의 계곡을 바라보니 멋진 한 수가 저절로 떠오른다.

고개 들어 보라. 고개 들어 설악의 저 속살을 보라. 수줍어 얼굴을 가린 설악의 속살을…….

천화대 초입에 붙어 시작한다. 갈 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에 조금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가야할 길이기에 한발 한발 내딛는다. 권곤 형의 리드로 치고 나가지만 속도는 그리 나지 않는다. 중간에 성대팀과 일반산악회 분들도 만났다. 일반산악회 분들은 free로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저러다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free로 하는 것에 스릴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기에 간섭할 일은 못되지만, 결국 헬기가 뜨고 말았다. 많이 안 다쳤기를…….

막상해보니 릿지란게 무섭다. 자일을 써서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헛디디지나 않을까 많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날이 어둑해지고 기상도 악화되어 산행을 마무리 지었다. 비박을 해야 했는데 마땅한 비박 사이트조차 없다. 다행히도 권곤 형이 아래로 내려가서 텐트 사이트를 찾았다.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집에서 편히 먹고, 편히 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 새삼 느끼게 해준 밤이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더 수월하고 속도도 좀 더 붙은 듯 했다. 주변의 풍경들과 우리가 지나온 길, 그리고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피로를 씻어준다. 사선 크랙에서의 정상적인 하산을 이루지 못하고 사선크랙 못 미친 곳에서 탈출을 했다. 가파른 경사에 물기 젖은 나뭇잎, 돌이끼가 결코 쉬운 하산을 용납하지 않았다. 내려오는 내내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다. 거의 다 내려와서 계곡에서 쉬었다. 천화대 오면 항상 쉬어가는 곳이라고 한다. 등반 중에 있었던 약간의 불협화음과 이틀간의 땀을 흐르는 물에 실어 보낸다.

다시 계곡 따라 하산을 하는데 비선대 도착 전에 큰 벌에 쏘였다. 왼 무릎과 왼 팔꿈치에 한방씩.

다행히 알레르기가 없어 별 일은 없었지만 워낙 큰 벌이라서 금방 죽을 줄 알고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절뚝거리며 내려와 비선대 아래에 있는 청운정에 둘러 휴식을 취했다. 본대 80학 번 선배님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푸짐한 안주거리와 막걸리가 보는 이로 하여금 군침 돌게 하였다. 그 형은 좋은 말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중 산을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품어준다는 말이기억에 남는다.

8월 4일 토요일 - 울산암 릿지

동양에서 단일바위로는 제일 크다는 울산암 릿지를 하는 날이다. 울산암 초입의 지옥문은 보고 와야 하지 않겠냐는 경삼형의 말에 따라 나섰지만 결국 BC까지 함께할 줄은 몰랐다. 흔들바위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울산암 초입으로 향했는데, 길이 꽤 멀다. 겨우 도착한 울산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름 붙였다는 '하나 되는 길'을 하기로 했다. 권곤 형이 선등을 했는데 애를 먹는다. '하나 되는 길' 초입이 어렵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다. 2번, 3번 주자가 후등을 서지만 역시나시간은 꽤 걸리고 힘들어한다. 쥬마를 써서라도 갈 수 있었지만 결국 1박 2일 예정이었던 울산암을 하루만 하기로 한다. 여기엔 울산암 초입에서 계조암까지 길 잃기가 쉬운데 벌에 쏘여 몸이 안좋은 나를 혼자 돌려보내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권곤 형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형들은 울산암의 그 멋진 광경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워했다. 뭐 다음에도 기회는 있으니까. 내려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 길을 개척한다면 길 이름을 무어라 할까? '잘 먹고 잘 살자?'

8월 5일 일요일

울산암을 하루만 하는 바람에 하루 여유가 생겨 공룡능선을 가기로 했다. 산의 생김새가 공룡의 머리에 나 있는 뾰족뾰족한 모양새를 닮았다하여 공룡능선이라 하는데 산행 전부터 기대가 되었다. 동아리방에 있던 공룡능선의 사진이 무척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천불동 계곡을 따라 희운 각까지 가서 공룡능선을 타고 마등령을 거쳐 내려오는 것이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설악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천불동계곡. 지리산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 가는 길의 계곡과는 많이 달라 내게 기억이 많이 남는 곳이다. 계곡이 등산로 바로 옆에 있어서 때때로 한기가 더위를 가시게 했고,지리산처럼 계속 오르막길이 아닌 오르막내리막이 반복되어 있었다. 또한 오련폭포, 음폭, 양폭,천당폭 등 볼거리가 많은 것도 지리산과의 차이점이었다. 그리고 간간이 보이는 외국인 등산객까지…… 설악은 밋밋한 지리산과는 달리 무척이나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희운각에서 점심을

먹고 드디어 능선길을 탄다. 걷다 보니 스핑크스 한 마리가 저쪽 너머에 앉아 있는데 너는 선녀의 강천을 보고 있느냐? 금강초롱과 절벽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노란 꽃 몇 포기가 눈요기를 시켜준다. 지루하지 않은 길을 걷는데, 역시 산의 날씨는 아가씨의 마음과도 같나보다. 안개가 순간 왼편하늘을 뒤덮어서 마등령, 울산암을 침몰시킨다. 그리고는 잠시 후 수줍은 처녀처럼 살짝 모습을 드러낸다. 능선상에서 남쪽을 보니 서북주능이 가로로 쫙 펼쳐졌는데 그 길이가 엄청나다. 며칠후면 우리가 가야할 길. 한편으로 한 번 해볼만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하나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소나무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나무들의 가지가 한 방향으로 뻗어있다는 것이었다. 남서풍의 얼마나 긴 프로포즈에 너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느냐? 내게도 좀 알려주려무나.

8월 7일 비

오늘부터 2박 3일간 설악산 종주를 한다. 비선대에서 마등령까지 가파른 오르막길. 공룡능선에서 바라본 길고 긴 서북주능. 그리고 대청봉과 천불동계곡. 앞으로 거치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곳들이다.

BC 출발 5시간 만에 마등령에 도착했다. 2박 3일 종주의 반을 해버린 느낌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천막치고 당귀차를 팔았다던데 그 맛은 어떠했을까. 가늠만 해볼 뿐이다. 마등령에서 내설악쪽으로 틀어 내려가다 보니 오세암이 나온다. 조금 쉬다가 한 산아가씨-가 아니라 알고 보니 산아줌마-를 만났다. 백담사에서 3박 4일간 열리는 시인학교에 왔는데 일정 중에 산행이 포함되어 있다다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우리의 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판초 우의를 꺼내 입고 배낭커버를 씌우고 영시암으로 출발! 산 아가씨 아니 산아줌마가 앞장서는데 맨몸이라지만 산행능력이 대단하다. 강원도 토박이로서 슬리퍼 신고 설악산을 동네 뒷산처럼 다녔다니 뭐 할 말 다했지. 속보로 한 시간 반을 가니 영시암이나온다. 규모면에서는 오세암에 뒤졌지만, 훨씬 아름다운 곳이었다. 밭에 있는 채소며, 꽃, 그리고 측간의 냄새까지 오세암의 인공적인 냄새는 완전히 배재된 곳이었다. 영시암, 한자로 어떤 뜻일까 궁금했지만 결국 궁금함만 안고 돌아왔다. 조금 쉬었다가 산아줌마와 함께 백담산장으로 향했다. 이젠 비도 그치고 마음도 안심이다. 백담사 근처에서 야영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비가 내라고 야영지도 여의치 않아 산장에서 자기로 했다. 저녁으로 내가 카레를 만들었는데 성공이다. 만들어 먹는 재미가 이런 것이군. 집에 가서도 해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삼이 형이 사준 조껍데기

막걸리를 먹고 잠을 청한다. 아니 자연스레 빠져든다. 비가 계속 내리는 밤이다.

8월 8일 수요일

어제 맞은 비로 체력소모가 컸나보다.

이토록 달콤한 잠을 또 잘 수 있을까.

하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과의 싸움.

발이 까져서 몹시 아팠다.

완전히 젖어버린 신발을 신기도 싫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또 내딛는다.

고통은 잠시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대승령에 도착한 시각이 10시 30분. 현재까지는 순조롭다.

지금부터가 이번 종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서북주능의 시작이다. 우리 대원들 중 누구도 가본적이 없기에 더욱 신비롭게 다가오는 곳이다. 그러나 막상 부대낀 서북능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지리산의 주능 같은 편하고 시원하게 뚫린 흙길을 생각했는데……. 내 머리 속에 입력되어 있던 주능에 대한 개념과 공룡능선에서 본 미끈한 서북주능이 나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참으로 지루한 바윗길의 연속이다. 속도도 나지 않고……. 처음 가보는 길인데 지도만 믿은 것이 큰 실수였다. 대청까지의 애초 계획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귀때기청을 지났다. 이제 해는 서산너머로 기울려하고…….너덜지대에 들어섰는데 무등산의 너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양이 대단하다. 놀라웠던 마음은 지루함으로 바뀌고, 갑자기 낀 안개가 시야를 가리니 독도도 어렵다.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진다. 너덜이 끝나는 지점에서 능선을 탔는데 가다보니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너덜에서 능선이 2개로 갈라졌는데 잘못된 능선(한계령 가는길)을 탔던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야영을 하기로 하였다. 자연의 거대함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새삼 느끼게 해준 날이었다.

8월 9일 목요일

어제 못간 길을 오늘 가야한다. 한계령 삼거리에서 다리쉮을 했다. 어김없이 어디선가 인기척을

느끼고 꼴통 다람쥐들이 달려든다. 그래서 쿠키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까이 가져가니 겁도 없이 다가와서 잘도 먹는다. 두 앞발로 쥐고는 야물야물 잘도 먹는다. 어찌나 귀여운지. 경삼 형은 이 장엄한 광경을 놓치지 않고 '찰칵' 담아낸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포획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당장 먹는 것이 좋은가보다. 그래서 꼴통이라 하는가보다. 오전 10시에 끝청에 도착했다. 이제 대청도 멀지 않았다. 대청은 어떤 모습일까? 역시 지리산 천왕봉에 비추어 상상해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조금 걸으니 웅장하고 깔끔한 중청대피소가 보인다. 잘 닦여진 터 에 레고처럼 놓여있다. 저기 보이는 게 대청이라는데 생각보다 가까워서 놀랐다. 배낭을 벗어놓고 다녀오기로 한다. 가는 길 양쪽으로는 안전 로프가 설치되어 있다. 옆으로 추락하지 말라고 설치 한 건지, 이 길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인지, 아님 눈비 와서 미끄러울 때 잡고 가라는 의미 인지……. 15분 정도 가니 느닷없이 대청이란다. 정상이 이렇게 어이없이 나타나서 오히려 당황스 러웠다. 역시 지리산을 생각했기에…….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하는가보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춥지가 않다. 1707.9m 의 바람막이 하나 없는 곳인데도 말이다. 의아해하며 기념촬 영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 그럼 그렇지. 가져간 파일 옷을 입고 천천히 중청대피소로 내려 왔다. 이제 정말 하산하는 일만 남았구나. 소청 거쳐서 희운각에서 점심을 먹고. 양폭 대피소까지 미친 듯이 달려 내려왔다. 하산길이라 다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보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워 도중에 형근이가 한 번 넘어졌다. 그래도 금방 털고 잘 내려가니 기특하다. 비선대를 거쳐 다시 청 운정에 들렀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들렀는데 선배님은 다짜고짜 우릴 앉히시고는 또 좋은 말 씀을 해주신다. 막걸리와 안주를 앞에 놓고…….

2박 3일 종주를 끝으로 설악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났다. 이제 서울로 이동해서 북한산 산행만이 남았다. 홀가분하다.

못올 것 같던 길을 왔다.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닐까.

못할 것 같은 일, 안될 것 같은 일, 하기 싫은 일도 참고 이겨내면 못할 일이 없으리니…….

8월 11일 토요일

어젯밤에 북한산에 들어와 BC를 구축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북한산 산행 시작.

BC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15분 정도 올라가니 인수봉 대슬랩 초입이다. 어제 들어온 재필 형까지 다섯 명이서 우선 대슬랩부터 붙었다. 1 pitch는 내가 선등을 섰는데 월출산 슬랩의 기억이 나게 하는 곳이었다. 암벽화가 밀리지 않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게 2, 3 pitch까지 끊고 나니 우릴 반기는 건 오아시스. 과연 오아시스라 부를 만하구나. 간식을 먹으며 쉬었다가 인수A길에 붙었다. 총 4 pitch 길이었는데 침니가 왜 이리 많은지. 슬립 안 먹으려고 몸으로 막 부볐다. 시간은 걸렸지만 한 pitch, 한 pitch 올라갈수록 서울 시내의 풍경이 점점 더 시야에 들어왔다. 4 pitch 까지 끊고 나서 하강을 하려는데 하강터가 정상에 있단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더 올라가야 했는데 웬걸 오히려 더 잘됐다. 처음 와서 인수봉 정상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되다니 말이다. 이번 하강은 80m에 달하는 긴 하강이다. 옆으로 보이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지는 해와 함께 보람찬하루를 마감했다. 하강완료!

8월 12일 일요일

인수봉 둘째 날이다. 어제 하강 직전에 발바닥이 벗겨져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 어제 오후에 들어오신 상현이형, 재필 형과 함께 한 조가 되어 대슬랩부터 다시 시작했다. 일요일이라서 어제보다 등반객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더불어 서울의 산악문화를 엿볼 수 있었는데, 광주처럼 대학산악회, 일반산악회 분들 위주가 아닌 다양한 연령대에 굉장히 활성화된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옆집 아줌마를 데리고 온 듯 "누구 엄마, 오른 발을 올려봐." 하는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자주 들렸고, 60은 족히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의 분투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 사람들이 레저 문화에 있어 조금 더 앞서가고 있음을 체감한 순간이었다. 권곤 형, 경삼 형, 형근이 조와 오아시스에서 만났는데조금 쉬었다가 상현이형, 형근이와 함께 먼저 하강을 했다.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나머지는 집으로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BC에서 형근이 짐을 내주고 북한산 입구까지 함께 나왔다. 잊지 않고 후배들을 챙겨주신 상현이형께 고마웠고, 형근이에게는 함께 하계를 끝마치지 못해서 아쉬움이 들었다. 내가 일학년 동계 때 경삼 형과 재필형도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8월 13일 월요일

북한산 종주를 하는 날이다. 남은 집을 모두 꾸려서 떠날 채비를 했다. 백운대를 거쳐 정릉 계곡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떠나려 하는데 비가 내린다. 마지막 날이라 긴장이 풀려서일까 후배가 없어서 힘이 나지 않은 걸까. 어택이 온몸을 옭죄어온다. 한 발, 한 발 떼어놓기가 무척이나 힘이 든다. 결국 백운산장에 짐을 내려놓고 맨몸으로 백운대까지 다녀오기로 한다. 백운산장 위는 비바람이 더하다. 아니 엄청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마치 원정 나온 느낌이다. '헥헥, 여기는 정상, 베이스 응답하라' 북한산 정상 백운대에 섰지만 주변은 온통 하얀색,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세 봉우

리가 멀리서 보면 세 개의 뿔 같다 해서 삼각산(三角山)이라는데 거센 비바람에 내가 딛고 있는 뿔조차 제대로 느껴 보기 힘들다. 인수봉에 섰던 기억으로 주변 경치를 상상만 해볼 뿐이다. 백운산장에서 백운대까지의 길은 온통 철기둥과 와이어로 넘쳐난다. 꼭 산에게 이런 고통을 주면서까지 정상가는 길을 만들었어야 했는지 아쉬웠다. 이제 신발은 완전히 젖어버렸다. 안 젖으려고 물을 피해 걸음을 내딛던 모습은 이제 온데 간데 사라지고 아무 곳에나 발을 내딛는다. 이게 오히려 편하다.

백운산장에 내려와 점심을 해 먹고 다시 어택을 배고 하산이다. 북한산 입구까지 몇 번 가본 길이지만 왜 이리 오늘따라 길게 느껴지는지……..몸이 힘들긴 힘든가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01년 하계도 끝나 가는데, 후련한 마음은 조금 뿐. 마지막에 북한산 종주를 계획대로 못하게 되어 형들에게 미안하다.

돌이켜 보면 2주간의 하계 장기 산행이 정말 빨리 지나간 느낌이다. 비선대, 청운정, 마등령, 중 청대피소, C지구 야영장, 대청, 소공원, 인수봉…… 아직도 오늘의 일처럼 기억 속에 선명하다. 빨 리 지나갔다는 건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반증이겠지. 무엇보다 대장으로서 하계를 무사히 마쳐서 다행이다. 그리고 서로 일 미루지 않고 열심히 임해준 대원들과 OB 선배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01년, 본과 1학년의 여름방학을 나는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을지니, 산을 들어오는 자여 겸손하라.

제5절 2000년대

1. 학산 알피니즘의 특징

2000년대는 가장 가까운 과거이고 현재이면서 우리의 미래상이기도 하다. 새로운 밀레니엄 (Millennium)이 시작된 후 약 10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학산 내에서 지난 10년의 변화는 사회의 그 어느 분야 못지않다. 그래서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하 학산)의 역사를 논할 때 가장 고민 되어지는 것이 대상과 범위이다. 그 변화만큼 학산 출신들의 활발한 활동이 지역 산악문화 전반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재학생(YB) 신입회원 감소로 대표되는 학산 침체의 양상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가속화되어 이제는 YB가 없는 대학 산악부가 더 많아졌다. '대(代)가 끊어졌다' 할 정도로 해당 산악회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학생 신입회원이 없으니 산악회의 각종 행사가 축소되거나사라지게 되었고 재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OB의 역할과 활동이 활력을 잃어 졸업생(OB)산악회도 덩달아 침체하게 되었다. 가맹 회원단체의 OB·YB 활동이 예전만 못하니 학산의 활동도 자연스레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해외 원정등반 등 90년대까지의 왕성한 국내·외 산악 활동이 2000년대부터는 이와 같은 신입회원 감소 및 악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의 여파로 산악문화 전반에 걸쳐 학산 회원단체의 활동실적이 저조하게 되었다. 더불어 다양성과 환경으로 대변되는 산악윤리의 세계적 변화 흐름은 2000년대 학산사(學山史)를 기술하는데 전통적인 잣대나 기록 및 평가를 애매하게 하고 있다.

이에 2000년대 국내·외 산악계 및 지역 산악문화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학산 출신 산악인들의 빛나는 활동과 그 기여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까 한다. 따라서 학산의 전통과 정신을 잇는 고유 사업 및 산악 활동의 의미를 시류에 맞춰 추론·작성할 수밖에 없어 글쓴이의 주관적 요소가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글의 필요상 먼저 광주·전남 학산의 정신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시작하고자 한다.

아카데믹

아카데믹이란 기록에 철저하다는 것이고 기록이란 곧 정보이며 발전의 자산이다. '학생산악연 맹'은 학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카데믹(Academic)한 산악활동을 추구한다.

실천정신

학생이라는 것은 젊음이며 젊음은 곧 도전이고 도전은 실천으로서만 가능하다. 바로 그 실천정 신이 산악문화를 리드하는 역동의 중심에 학산이 서 있도록 하는 원천이다. 방에 누워 아무리 히 말라야나 설악산, 한라산을 가보았자 등산의 역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학산 50년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도전정신을 가진 실천의 결과들이다.

'정'의 알피니즘

학산은 알피니즘(Alpinism)을 추구한다. 알피니즘이란 도전과 모험이며 그 바탕에는 '무상의 행위'로 표현되는 순수함이 있다. 등반의 결과 보다는 과정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동안우리 학산은 동료와의 관계를 무엇보다 우선시 했다. 광주·전남 학산의 알피니즘 순수성의 특징은 그래서 '정'이라 하겠다.

위의 세 가지 - 아카데믹, 실천정신, '정'의 알피니즘 - 을 광주·전남 학산의 정신으로 정의하고 이에 기반하여 2000년대 우리 학산 출신 산악인들의 산악 활동을 분야별로 살펴보겠다.

2. 해외원정(Expedition)

미국의 백만장자 딕 베스(Dick Bass)가 1985년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한 이래 일반인과 전문 산 악인과의 경계 모호가 더욱 심화되어졌다. 세계 산악인들은 2002년 오스트리아의 티롤지방에 모여 '산악 스포츠 공동체(Mountain Sports Community)'라는 개인의 다양한 동기를 존중하는 산 악 윤리규범으로 '티롤선언(The Tyrol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이 후 전문등반에서는 스포츠 클라이밍, 산악스키 등 상호 호환성 강한 유사활동들이 일반 동호 인과 산악인의 경계 해체에 더욱 앞장서고 있고, 2013년 봄 에베레스트에서의 셀파 폭행사건이 시 사 하 듯 이제는 주변부가 중심부로, 보조인력이 주도세력으로 산악운동의 주체가 확대되거나 이 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해진 스펙트럼을 하나의 스포츠 공동체로 묶으면서 상호 호환되는 종목들 간의 스타일 문제, 용어(정상, 스타일 등)의 정의, 환경을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이 티롤선 언이다. UIAA에서는 1982년 '카트만두 선언'부터 2010년 'UIAA 산악윤리선언'까지 지속적으로 산악윤리의 정립을 위해 각종 선언과 강령을 채택, 발표하였지만 실제 활동하는 전 세계의 대표적 산악인들이 모여 선언한 티롤선언만큼 파급력을 주진 못했다. 티롤선언의 핵심은 바로 다양성을 인정한 '산악 스포츠 공동체'라는 개념을 기정사실화 하였다는 것과 늘어난 산악활동 인구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언급이다. 산악인에게 있어 가장 권위 있는 황금 피켈상에서도 환경과 관련한 문제 - 고정로프, 소규모, 산소사용 및 등반장비의 과다한 사용 등 - 는 주요한 심사기준이다. 이처럼 2000년대 세계 산악계의 주요 변화는 산악인의 경계해체를 담보로 하는 다양성의 인정과 산악 스포츠 공동체 전반의 환경보호 정신 대두라 하겠다.

세계 산악운동의 이 같은 흐름에 비해 학산의 산악활동은 아직까지 다양성이나 친환경에 대해 만족할 만큼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산악회의 창립기념 등 O.B.회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원정대의 등반 대상지는 여전히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를 선호하고 있다. 네팔과 파키스탄 지역에 8천 미터 봉우리가 몰려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난 10년간 우리 지역의 등반 대상지는 모두 8,000m 봉이었다. 세계의 등반 대상지는 광역화되었고 고산거벽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8,000m 라는 대중적 인지도를 따라 비교적 안전과 성공을 확보할 수 있는 노멀루트로의 등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2〉참조.

2,000년대에는 학산 차원의 원정이 없는 관계로 기록 대상을 학산의 구성원인 단체(산악회)와 개인 모두로 하였다. 산악회 주최 원정등반과 개인자격이라도 학산 출신 산악인이 참여한 등반 중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소개하였다. 힘닿는데 까지 단체와 개인, 결과와 과정의 양면을 모두 기록,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누락된 점이 있다면 추후 60년사나 개정판이 나온다면 수정 · 보완토록하겠다.

1) 네팔

2000년 대한산악연맹이 새천년 기획으로 추진한 7대륙최고봉 원정대에 박헌주(전남대86)가 참여해 뉴밀레니엄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올라 학산의 자긍심을 높였다. 그는 7년 동안 무려 3번의도전 끝에 세계최고봉에 오른 데다 현직 신문기자로서는 세계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다

2003년 조선대학교 아일랜드 피크 원정대(대장 김경자/조선대82)는 서상진(조선대98) 등 Y.B.회원을 주축으로 꾸려졌는데 이러한 고산경험이 2000년대 학산의 산악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04년 한국도로공사 팀의 영·호남합동 로체남벽 원정대(대장 박상수/조선이공대77)에 이정 현(순천대89) 등 학산 회원이 대거 대원으로 참여 악전분투 하였으나 7,750m 도달에 만족하여야 했다.

2007년 봄에는 한국도로공사 팀의 윤중현(조선이공대89), 김미곤(서영대94)이 에베레스트와로체봉 연속등정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8,000m급 연속등정으로 우리 학산의고산등반 역량을 확인시켜준 일이라 하겠다. 같은 해 봄, 에베레스트 남서벽에서는 눈사태로 이현조(전남대92)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학산은 물론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2013년 1월에는 광주교대 O.B.회원 5명의 동계 임자체² 원정등반(대장 이영규/광주교대95)으로 광주교대산악부 O.B.의 꺼지지 않는 등반열정을 보여 주었다.

2) 파키스탄

2000년 영·호남 합동 K2(8,611m) 원정대(대장 이성원/조선이공대79)는 이정현(순천대89), 주 우평(순천대94) 등 K2 등반사상 단일팀 최다 등정기록(8명)과 시즌초등, 86년 이후 한국 팀 재등 등 풍성한 등반기록으로 한국 산악계에 큰 이정표를 남겼다.

2005년 낭가파르밧(8,125m) 루팔벽 원정대(대장 이성원/조선이공대79)는 이현조(전남대92)와 김창호(서울시립대88)가 루팔벽으로 등정 후 디아미르 벽으로 하산하는 횡단등반을 성공하여 학산 출신이 주축이 된 세계 산악사에 위대한 쾌거를 남겼다. 루팔벽은 1970년 라인홀트 매쓰너의 초등 이후 35년 동안 재등이 없던 지구상에서 등반고도가 가장 긴 대장벽이다. 이성원(조선이공대 79) 대장이 이끈 이 등반대에는 김주형(조선이공대 86) 등반대장을 비롯하여 김미곤, 김병찬, 이현조, 송형근, 주우평, 박상훈, 박현수, 구형준, 박남수, 김창호 등이 참여했고 일 년여 동안의 철저한 훈련과 준비과정을 거쳐 이룩해 낸 성과였다.

또한 2005년 낭가파르밧(8,125m) 루팔벽 등반은 산에서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소중한 동료가 나보다 먼저라는 학산의 순수 알피니즘을 실천한 최근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송형근(조선이공대92), 이현조(전남대92), 주우평(순천대94)은 약 7,600m 지점에서 낙석을 맞고 부상을 입은 김미곤(서영대94)을 구조해 내려왔다. 2차 낙석이 거의 90%이상 다시 올 상황, 혼자서도 오르

² 대상산의 범위는 전통적 등반성(높이, 경사, 길이, 규모 등)을 가져야 하나 학산 단일팀이었을 때 히말라야의 트레킹 피크까지 포함하였다.

임자체(Imja The(Island Peak), 6189m)는 가장 인기 있는 트레킹 봉우리 중 하나로 얼음바다에 뜬 섬과 비슷하다고 하여 1951년 아일랜드 피크(Island Peak)라고 명명하였으나 1983년 임자체로 바뀌었다.

내리기 힘든 7천m대 지점의 위험한 쿨루와르에서 조난당한 동료를 포기하지 않고 구해 내려온 것이다. '산사나이들의 목숨 건 우정', '7천미터 절벽에서 낙석맞은 동료 4일간 구조' 등의 여러 제목으로 신문 방송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학산의 순수 알피니즘은 승리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광주·전남 학산은 전통적으로 눈부신 결과보다는 과정과 도전 자체에 의의를 두었고 정과 의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같은 시기 故 박현재(순천대88) 10주년 기념 추모등반으로 꾸려진 2005년 순천대학교 가셔브럼 1 원정대(대장 이정현/순천대89)는 기상악화로 정상을 앞두고 돌아서야 했으나 고드윈오스틴 빙하의 메모리얼에 동판을 부착하고 故 박현재(순천대88)를 추모하였다. 시간이 흘러도 산 친구를 잊지 않는 학산의 우정을 보여준 원정대이다.

2008년 전남대학교 산악회에서는 2006년 초모랑마 등정에 이어 2년 만에 또 다시 8,000m 봉 원정을 꾸렸다.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2008년 전남대학교 G1(8,068m), G2(8,035m) 원정대(대장 김영필/전남대88)는 강풍과 폭설로 아쉽게 물러서야 했지만 연이은 2번의 8천 미터봉 원정으로 광주·전남 학산과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알피니즘에 대한 열정과 저력을 국내 산악계에 각인시켰다.

3) 중국

대중 인지도가 등반성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 보다 낮은 봉우리들을 도전함에 있어 경비조달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요구는 소규모, 경량, 단독, 속공등반이 가장 효과적 해결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조는 물론 'By Fair the Means'라는 머메리즘을 지향한 결과이다. 어찌됐든 개인적 노력으로 원정경비의 충당이 가능한 서구의 클라이머들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1980년부터 서방에 등산문호를 개방하자 중국의 산으로 향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및 파울로가 이끄는 영국대가 쓰구냥산(四姑娘山 6,250m)의 북벽 신 루트로 등정하여 황금피켈상을 수상하면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한 해 동안 세계의 의미 있는 등반을 정리하는 미국의 산악연감(AAJ)을 보면 중국과 티베트의 등반 기록 보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내 원정등반에 필요한 빠른 인프라를 구축했다. 중국산으로 원정대가 몰리는 이유로 이러한 등반 인프라, 지리적인 잇점, 짧은 등반기간, 비교적 저렴한 등반비용, 손쉬운 행정절차, 축적된 정보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왕성한 탐험활동을 벌인 몇몇 산악인의 노력으로 구축된 정보가 큰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학산의 김재명(목포대85)과

안선희(전남대98)가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한다.

19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산까지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중국산에 대한 정보부족과 네팔이나 파키스탄 히말라야도 다 못 가는 상황에서 차선지라는 인식으로 대상지 선택의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 1996년 실패, 1998년에 재도전한 중국 내륙의 최고봉 공가산(貢嘎山 7,556m) 북동릉을 김재명(목포대85), 윤중현(조선이공대89), 오종락(목포과학대90)이 루트 초등을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종락이 하산 중 추락사하는 비운을 겪었다.

2001년에는 중국의 대설산맥에 위치한 아이더자봉(愛德嘉峰, Aideja, 6,618m)을 김재명(목포대 85), 이용부(목포대95)가 세계 초등하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1998년과 같은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중국으로의 원정이 탐험과 다름없던 시절에 이와 같은 선구적 등반과 결과는 우리 광주·전남 학산의 해외 원정사 뿐만 아니라 국내 산악계에서도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되어져야 할 것 이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산악계의 관심이 중국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등반에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이때 2004년 안선희(전남대98)의 쓰촨성(四天省) 쓰구냥산(四姑娘山 6,250m) 트레킹 보고서는 론리 플래닛 같은 여행 가이드북처럼 유용한 자료가 되어 당시 중국 쪽으로 향하고자 했던 산악인들 사이에 공공연히 유통되어 현지정보의 갈증 해소에 기여하였다. 이는 등반기록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아카데믹 알피니즘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라 할 것이다.

순천제일대학의 2000년 초오유(8,201m) 원정대(대장 조민철/순천제일대87)는 광주 외 지역의 단과대학중 처음으로 8천 미터급 등반을 꾸리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중국령 티베트 초오유의 북서 릉 루트로 등반하여 변성호(순천제일대88)가 정상을 등정하였다.

2006년 조선대학교 시샤팡마 원정대(대장 신광철/조선대90)는 장정규(조선대99)가 남서벽을 통해 정상에 등정하였고 원정대장이 70~80년대 학번에서 90년대 학번으로 세대 교체하였다.

2006년 전남대학교에서는 개교54주년 및 총동창회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초모랑마(에베레스트/8,848m) 원정대(대장 백두인/전남대85)를 꾸려 중국 쪽의 북릉-북동릉으로 이현조(전남대92), 이형관(전남대95)이 정상 등정에 성공하였다.

4) 기타 지역

2001년 광주·전남등산학교 강사 6명의 알프스 3대북벽 원정대는 문종국(조선이공대88), 이현조(전남대92), 진상건(순천대94), 함경준(전남대95), 류승현(조선이공대97), 박상후(순천제일대

97)이 아이거 북벽과 그랑드 죠라스 북벽을 그 해의 시즌 초등으로 6명 전원이 등정하며 광주·전남 학산의 등반력을 보여 주었다.

2002년에는 순천대학교 돌로미테 원정대(대장 박원표/순천대96)가 알프스 동부 돌로미테 지역의 암장 순례와 정찰을 하였다.

2001년 캐나다의 스쿼미시 대 암벽 등반(문종국/조선이공대88, 송형근/조선이공92), 2003년 노르웨이 트롤월 거벽등반(송형근/조선이공92, 진상건/순천대94), 2005년 남미 파타고니아 파이네 북봉 등정(문종국/조선이공대88, 이경주/조선이공대95), 2011년 요르단 와디럼, 모로코 타기아조지 벽 등반(문종국/조선이공대88) 등 2000년대 들어부각 되는 국내 거벽등반의 추세와 발맞춰 다양한 지역으로의 등반활동을 펼쳐 나갔다. 아쉬운 것은 벽 등반이 소수 개인에게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한 분야의 등반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등반의 다양성이 적다는 것이다. 거벽 등반에 대한 산악회와 등산가의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 알라스카(Alaska)에서는 2009년 전남대학교 데날리 원정대(대장 박상규/ 전남대76)의 김 가영(전남대04)이 맥킨리봉(=데날리, 6194m)을 등정함으로서 2000년대 학산의 여성 산악인 계보를 이어나갔다. 여성 산악인이 귀한 국내 등반계에서 이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광주교대산악회에서는 2006년 남미 아콩카구아를 등반하였고 2008년에는 키르키즈스탄 트랜스알라이 산맥의 카우프만³(Kaufmann, 7134m)을 김종철(대장, 광주교대76), 김도윤(광주교대00)이 정상 등정 하였다.

2013년 전남대학교 요세미테 원정대(대장 임도균/전남대95)는 앨캡 조디악 코스를 문석민(전남대05), 강민준(전남대09) 2인조가 6박 7일 만에 등반에 성공하였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의 불확실성으로 대변되는 예견된 위험이 모험이다. 모험의 양이 클수록 그 도전은 값진 것이다. 벅찬 도전에서는 정신력이 곧 실력이다. 6박 7일의 등반을 통해 보여준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도전의 모습은 바로 학산의 모습이다. 이번 요세미테 원정대의 많은 등반 소요일은 비록 기술은 부족했으나 좀 더 경험과 기술을 쌓는다면 클라이머로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다. 학산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기대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요세미테는 거벽등반의 상징이자 입문으로 우리 학산에서는 1995년 김애란(서영대86), 문종국(조선이공대88), 장희웅(송원대90) 3명이 처음 등반을 했고, 1998년 서은호(전남대84), 문종국(조선이공대88), 2002년 문종국이 등반 후 11년 만의 학산 팀 요세미테 거벽등반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³ Mount Kaufmann은 Lenin Peak(Ibn Sina Peak)의 원래 이름

3. 국내등반

대한산악연맹은 국민의 산악운동을 보급하는 체육단체이기에 스포츠 등산을 3대 사업 축의 하나로 삼는다. 그러나 학산은 산이라는 자연에서 일반등산(Mountaineering)과 전문등산(Alpinism)을 추구하였지 스포츠 등산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스포츠는 무상의 행위가 아니며, 목숨을 담보로 한 도전과 모험의 대상이 아니다.

순수 알피니즘은 학산의 아이덴티티이다. 등산대회나 경기벽 등 스포츠 등산에 있어 학산의 고 유 활동과 대산련의 사업 방향은 다를 수 있다. 학산은 전통적으로 아카데믹한 순수 알피니즘을 추구하는 동호회의 연합체이지 범국민적 산악활동을 책임지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적 암벽등반(트레드 락)이 스포츠클라이밍으로 전도 되다시피 하여 암벽등반의 추세가 실내 인공암벽과 경기등반 위주의 분위기로 흐른지 오래다. 그러나 안전을 이유로 월출산 시루봉과 매 봉의 등반루트에 확보물을 추가 설치하여 모험적인 등반코스를 스포츠화 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하 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학산 회원의 괄목할 만한 코스개척이나 자유등반의 고난이도 그레이드 도달이 없는 침체 상황에서 학산이 추구했던 전통적 암벽등반과 호환성이 강한 인공암벽 등반을 통해 학산의 활성화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광주·전남의 실내암장 이용 현황을 참고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표1〉 개인이 운영하는 광주·전남 지역 실내 인공 암벽장 현황(2014, 6, 30, 현재)⁴

지역	아자며/ㅁ스)	OCHTL	人 ナルナリ	회원평균인원		
\\\	암장명(무순)	운영자	소재지	일반	학산	
광주	첨단빛고을실내암벽	도레즈	광산구 첨단지구		2~3	
	빛고을실내암장	조계주	북구 양산동			
	광주실내암벽(광주클라이밍클럽)	이윤재	북구 운암동	100 100		
	익스트림클라이밍센터(ECC)	배훈희/김미경	북구 두암동	100~120		
	황평주등반교실 실내암벽장	황평주	서구 금호지구			
	자유등반클럽	유영욱	남구 봉선동			
	G1 클라이밍센터	윤욱현	광산구 우산동	60~80	7~8	

⁴ 여기서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선수 양성의 측면이 아닌 학산 본연의 알피니즘 실현을 위한 등반력 향상에 목적을 둔 훈련의 방편으로서 실내 인공암벽을 다뤘다. 학산의 암장 이용률 파악이 목적으로 회원 평균 인원수(총 회원수 ÷ 암장 수)를 비교함.

TICE	암장명(무순)	OGITL	A T T	회원평균인원			
지역	급경징(十正)	운영자	소재지	일반	학산		
	목포실내암벽장	나상근	목포시 석현동		1~2		
	목포클라이밍센터	목포시	목포시 무안동	200,40			
	락클라이밍센터	함봉주	광양시 광양읍	20~40			
	타기클라이밍센터	장효국	광양시 광양읍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포 등지에 지자체(목포시), 청소년 수련 원(순천청소년수련원, 백운학생야영장 등) 및 기업(광양제철 등), 사회단체(여수적십자회관 등), 산악회(악동회 등)에서 인					
	기 타	공 암벽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학산 회원의 이용이 지					
		속적이지 않고 불특정 시민에게 개방 및 등반력 향상을 위한 계획적 트레이닝 교습이 없어 통계 생략함.					

4. 학술 기록

1) 원정보고서

원정 보고서는 우리 학산의 아카데믹 알피니즘 표현의 한 방법이다. 원정 등반 후 보고서를 발간한 원정대는 전체 숫자의 절반 수준이다. 그 중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산악회는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히말라야는 물론 어지간한 오지의 산들조차 정보와 편의성의 증대로 탐험과 정보구축, 원정등반이라는 전통적 발달단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행 상품이 넘쳐나고 인터넷에는 각종 등반기가 돌아다닌다.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보고서는 비례해 줄어든다. 원정대 자체에서도 기록은 본인들의 등반 홍보 외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기가 힘든 것은 우리 학산 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등산은 계획과 실행, 기록 이 세 단계가 모두 이루어져야 비로소 등산이 되는 것이다. 요즘은 CD, 책자, 사진집, 팜플렛 등 보고서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시간과 경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면 된다. 등반 후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학산인으로서 반성해야할 부분이다.

※원정을 다녀온 후 등반 보고회는 이제 낯설지 않다. 많은 원정대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들의 등반을 알린다. 그것은 원정대를 후원해준 협찬, 후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며 등반에 대한 자기 정리이자 반성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여 더 나은 등반을계획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홍보하는 모습은 분명 후원과 협찬을 다시 얻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80년대 이후 학산의 원정 보고서 발간 목록(보고서명/산악회/연도/분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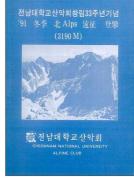
렌포강 하늘길/ 전남의대산악회 렌포강 원정대 보고서 (전남의대산악회 /1987/213쪽)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 보고서 (광주 · 전남학생산악연맹 /1991/272쪽)



91 일본 남알프스 동계 원정 등반 보고서 (조선대학교산악회/ 1991/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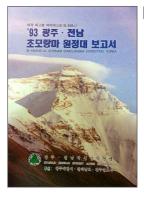
91 전남대 동계 북알프스 원정보고서 (전남대학교산악회/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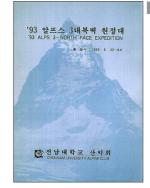
여신의 미소/92조선대 마나슬루 원정대 보고서 (조선대학교산악회/ 1992)



92 송원 매킨리 원정보고서 (송원대학교산악회/ 1992/59쪽)



93 광주 · 전남 초모랑마 원정대 보고서 (광주 · 전남학생산악연맹/ 1994/210쪽)



93 알프스 3대북벽 원정대 (전남대학교산악회/ 1993)



94 서강전문대학 히말츄리 원정대 보고서 (서강전문대/1994/89쪽)



95 광주 요세미테 등반 보고서 (조선이공대, 송원대, 서영대 합동/1995/63쪽)



95 맥킨리 원정 보고서 (조선이공대/1995/49쪽)



96 조선대학교 에베레스트 -로체 원정보고서 (조선대학교산악회/ 1996/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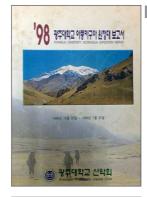
97 한국 초오유원정대 원정보고서 (전남대학교산악회/ 1997/140쪽)



97 한국 낭가파르밧 합동 원정대 원정보고서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997/324쪽)



98 공가 원정보고서 (전남산악연맹/1999/98쪽)



98 광주대학교 이콩카구아 원정대 보고서 (광주대학교산악회/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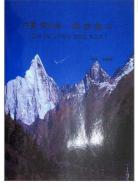


99 신이 허락한 땅 G I, GII, K2 (전남산악연맹, 2000, 2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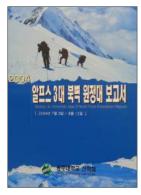




2003 조선대학교 아일랜드 피크 원정대 (조선대학교산악회/ 2003/56쪽)



2004 전남대신약회 쓰꾸냥산 트레킹보고서 (전남대학교산약회/ 안선희/2004)



2004 알프스 3대북벽 원정대 보고서 (광주대학교산악회/ 2004/57쪽)



2006 조선대학교 시사팡마 원정대 (조선대학교산악회/2006)



2006 전남대학교 초모랑마 원정대 (전남대학교산악회/2006)



2008 광주교대 카우프만 (Kaufmann, 7,134m) 원정대 (광주교육대학교산악회/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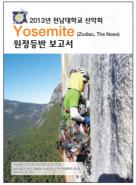
2009 전남대학교 산악회 데날리 원정등반 보고서 (전남대학교산악회/ 2009/57쪽)



2008전남대학교 G1,G2 원정등반 보고서 (전남대학교산악회/ 2008)



2012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최고봉 (유럽 엘브루즈) 원정등반 보고서 (전남대학교산악회/ 2012)



2013 전남대학교 산악회 요세미티 원정등반 보고서 (전남대학교산악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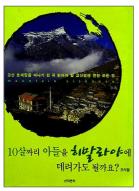
2014 전남대학교 세계7대륙최고봉 (호주 코시어스코) 원정등반 보고서 (전남대학교산악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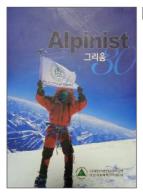
2) 산악도서⁵

한국산서회에서는 매년 신간 산악도서와 각종 산악관련 인쇄물을 소개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산서에 소개된 산악도서를 보면 원정보고서를 포함해 평균 1년 100여권 이상의 산악관련 도서가 생산된다. 소식지, 회보, 단행본, 가이드북 등 산악도서의 종류와 분야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우리 학산에서 발간된 단행본은 아래의 단 5권이다. 그나마 정순택(전남대64) 고문의 산악 에세이집 한권을 제외하고는 주로 산악회의 역사서와 등반 보고서 류가 전부이다.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아쉬운 점이다. 저변의 산악문화 보급이 곧 회원부족으로 침체된 학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전자출판 등 나아진 도서 출판 환경을 활용해 모두가 힘써야 할 부분이다.

| 학산 발간 산서(제목/저자(학번)/연도/분량/출판사) |



10살짜리 아들을 히말라야에 데려가도 될까요? 조석필(전남의대75), 2005, 244쪽, 사람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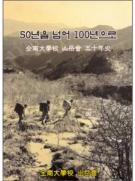


Alpinist 그리움30 조선이공대산악회, 2006, 320쪽, 미래인쇄 - 조선이공대학교산악회의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국내, 해외 원정등반을 기록, 정리한 30년사

^{5 2000}년 이후에 발가된 산 관련 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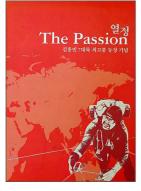


산에서 나눈 얘기 정순택(전남대62), 2008, 255쪽, 남도기업사 - 정순택 고문의 산에 관한 글 모음



50년을 넘어 100년으로 전남대산악회, 2008, 342쪽, 남도기업사

-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50년 활동내용을 정리한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사



The Passion(열정) 김홍빈(송원대83), 2009, 285쪽, 누리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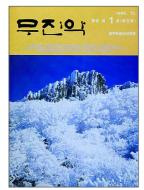
- 김홍빈 7대륙 최고봉 등정 기념으로 발행한 원정등반 보고서
- ※ 개인적 보고서라는 점에서 원정보고서가 아닌 산악도서로 분류

3) 무진악

무진악은 학생산악연맹의 성격과 정신을 대변하는 기관지이다. 회원들의 소식을 전하고 학산의 알피니즘을 일깨우는 글과 학술적 연구를 통해 학산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1999년 창간호 (발행인 김하경/전남대67)를 시작으로 2011년 제10호(발행인 오성개/전남대76)까지 발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 등반기, 회원문단, 산과 관련된 학술정보 등이 담겨있다.

1999년 창간호를 만들 당시 매년 발간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처음의 의욕과는 달리 사무국 임기 내 1권 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전통 있는 단체의 증표이며 학산의 자존심이다. 아카데믹 알피니즘을 추구하는 학산의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 역대 무진악 목록(호수/년도/분량/발행인/편집위원장/편집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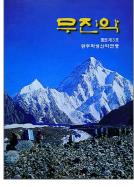
제1호(창간호)/1999/132쪽/ 김하경/소병현/문종국 외

특집으로 가입산악회 소개와 원정기, 산악도서. 대통령기 등산대회 참가기, 광주학생산악연맹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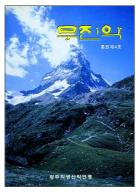
소병현/문종국 외

제2호/2000/90쪽/김하경/ 특집으로 고산병에 관하여와 산행기. 장비연구. 문단. 그리고 광주등산학교 소개



제3호/2001/87쪽/전의천/ 소병현/문종국 외

고산의학, 특집-산악기상, 등반기, 등산학교 입교기 장비연구-빙벽. 그때를 아십니까(80년대 초반 선배들의 등산학교 입교 소감기)



제4호/2002/164쪽/ 전의천/정찬득/방경환 외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상황과 등산상식, 느낌이 있는 산악도서(연재), 산악영화연구, 장비연구-기능성 섬유, 추억어린 산행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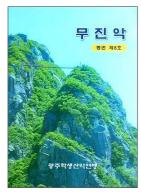
제5호/2003/133쪽/ 이정옥/장희/김병률 외 산악세미나, 산악정보, 암장정보, 산악도서, 해외원정기, 광주학생산악연맹 행사, 각 학교별 산행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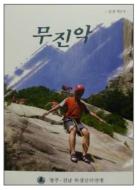
제6호/2004/135쪽/ 이정옥/이광복/장정규 외 산악정보, 장비연구, 산악도서, 해외원정 등반기, 각종 행사 결과보고, 각 학교별 산행기, 8000m 급 14좌에 대해서 등



제7호/2005/112쪽/ 임형칠/양홍식/마수광 월출산 암장정보, 스포츠클라이밍 소개, 장비연구, 산악도서, 해외등반기, 각종행사보고, 각 학교별 산행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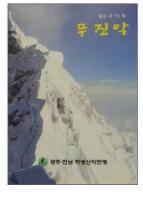


제8호/2006/임형칠/양홍식 장비연구, 트레이닝 정보, 응급처치, 산악도서 소개, 해외원정기



문종국.허환.임성근

제9호/2008/64쪽/박상수/ 등산학교 보고서, 원정등반기, 특집 - 등산의학 - 고산병에 대하여. 추모-이현조 악우를 생각하며



제10호/2011/104쪽/ 오성개/임도균

연혁, 해외원정기, 산행기, 기고 등

5. 광주 · 전남등산학교

광주·전남등산학교는 전국에서도 손꼽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산의 자랑이다. 매년 1회 정규 반, 암벽반, 동계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효과적 교육을 위해 정규반과 암벽반 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한민국 산악대상(등산교육 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2014년 1월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사단법인으로 전환 후 첫해인 2014년 7월에는 4박 5일 일정으로 제36회 등산학교 정규반과 암벽반을 개최하여 33명의 수료생을 배출함으로서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광주·전남등산학교는 학산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산의 소속감은 모두 등산학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입교생은 대부분 학산 회원이 주축이고 강사는 등산학교 졸업생이 강사로 활동하는 순환제도이다. 이는 신입회원의 지속적 유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학산의 침체현상은 등산학교도 피해갈 수 없어 수강생과 강사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절 없이 등산학교가 이어 올 수 있었던 힘은 교장을 비롯한 운영진의 등산학교에 대한 애착과 투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수강생의 숫자가는에 띄게 줄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등산학교의 운영진은 단 한명의 수강생이라도 최선을다한다는 마음으로 교육준비에 있어 철저를 기했다. 2000년대 들어서 달라진 점이라면 등산학교의 전통적 교장이 교육목적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변경되어 운영했음을 들 수 있겠다.

기존 정규, 암벽반의 경우 월출산 천황사 야영장과 시루봉, 매봉, 사자봉 등 자연암장에서 교육이 이루어 졌었지만 우천 시에도 전천후로 야영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영암군의 실내 인공암벽장을 이용하고 있다.

동계반의 경우는 2005년 제 27회 동계 등산학교(교장 임형칠)를 우리나라 남과 북의 명산인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실시하였는데 「우리 민족 모두가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에 산악인으로서 금강산의 빙벽에서 한 자일에 깊은 신뢰와 우정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임형칠 교장 인사말 中)」한다는 기원을 담은 매우 뜻 깊은 등산학교였다. 분단 이 후 광주·전남의 산악인들이 북한산 인수봉과 더불어 한국 근대등산의 각축장이었던 북한 땅인 금강산에서 등산학교를 개최한 진정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2009년도 제 29회 동계 등산학교(교장 박상수)는 영동빙장과 설악산에서 실시하였는데 자연 빙폭이 아닌 인공빙장에서 처음 실시함으로서 교육의 내실을 높였다. 2011년 1월 제 32회 동계반 등산학교(교장 오성개)에서는 1990년 이후 줄곧 설악산에서만 실시했던 동계반 교육을 1985년 1월 제6회 등산학교 동계반(교장 김현곤) 이후 26년만에 한라산에서 실시했다. 이는 동계라는 계절의 특성상 눈과 얼음이 많아야 하는데 겨울이 춥지않고 산에 눈도 많이 쌓이지 않는 이상기후가 심화 되어 전통적 대상지인 설악산에 밤새 달려 도착했는데 낙엽만 무성하다거나 무거운 빙벽구를 짊어지고 산속 깊은 빙장에 도착했는데 너무 얇게



얼어 빙폭 속에 물이 흐른다거나 하여 교육에 차질을 빚는 경험으로 인한 고육지책의 한라산 선택이기도 하다.

2005년 겨울, 금강산에서 등산학교를 개최해 근대 알피니즘 선구자들의 숨결을 호흡했던 것처럼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이 한국의 유일한 실질적 알피니즘 행위의 장(場)인 백두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등산학교를 개최하는 기쁜일이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그 때까지 자랑스러운 알피니즘 전통의 맥을 사명감을 가지고 등산학교를 통해 이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6. 가맹단체 활동

학산의 특징이자 정체성은 학생이다. 이것은 결국 YB가 있는 학교만이 학산의 전통을 이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YB가 없는 학산은 존재할 수 없다. 2000년대 학산 가맹대학의 활동은 신입회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래의 〈표2〉에서 보듯이 YB가 없는 대학이 전체 19개 대학 중 13개나 된다. 70%의 대학 산악부가 재학생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지속적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산악회 정도이다. 그야말로 와해 일보 직전이다. 2000년대 학산 차원의 창조적 산악운동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신입생 환영등반, OB·YB 체육대회, 매월 훈련등반, 하·동계 장기등반, 장비전시회, 크로스 컨츄리 등의 행사는 재학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학산의 모든 대학 산악부에 YB가 있었 던 시절, 각 대학 축제시 산악회는 보통 장비전시회나 크로스 컨츄리 등의 행사를 열었다. 그 때가 되면 학산 회원들은 각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밤늦도록 만남의 장을 가지며 산에서 뿐만 아니라 도 심에서도 다분한 교류를 가졌다.

그러나 요즘의 재학생 산악회는 YB가 사라진 대학산악부의 숫자만큼 불행하다. 공동의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산악회가 몇 안 되기 때문이다. 학산 간의 교류가 없으니 관계형성이 되지 않고 당연히 소속감이나 결속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등산학교에 재참여가 적어지고, 타 학교 선후배 간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며 정이 사라져 간다. 학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2000년대 학산의 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송원대학의 정우연(송원대89)은 20년째 산악회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목포대학교 OB산 악회는 재학생들에게 2008년 일본 북알프스 등반비용을 지원하며 활성화에 애쓰고 있다. 지급 조건은 다르지만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송원대학, 조선이공대학 등에서는 YB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YB모집 보다는 OB라도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로 친목활동에 중점을 두는 곳도 있지만 마음은 편치 못하다. 2000년대 가맹단체의 가장 주요한 활동은 YB모집에 관한 일이지만 딱히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나의 가능성이라면 사회적 붐이 다시 일기를 바라는 것이다.

신입회원 감소는 산악회의 잘못이 아니다. 사회 저변의 분위기와 연동한다. 우리사회는 언제 부터인가 공무원의 직업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회가 되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일수록 모험과 도전 정신이 약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빨리 도전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회가 되어 산악회의 가치를 알고 문을 두드릴 그날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표2〉 2000년대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원정대 현황(2013. 7. 31. 현재)

구분	연번	학교명	원 정 대 (개인등반 제외)	원정 보고서	Y.B. 유무
	1	광주 · 전남학생산악연맹	2001 광주 · 전남등산학교 알프스 3대북벽 원정대	×	0
광 주	2	광주교육대학교	2006 광주교대 아콩카구아 원정대 2008 광주교대 카우프만(Kaufmann, 7,134m) 원정대 2013 광주교대 동계 임자체(6,189m) 원정대	× 0 ×	×
	3	광주대학교	2004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	0	×
	4	광주보건대학교	없음		×
	5	동강대학교	없음		×
	6	서영대학교	없음		×

^{6 2013}년 현재, OB산악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

구분	연번	한교명 원 정 대 (개인등반 제외)		원정 보고서	Y.B. 유무
	7	송원대학교	없음		0
			2006 전남대학교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대	0	0
			2008 전남대학교 가셔브룸 ㅣ,॥ 원정대	0	0
	8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2009 전남대학교 데날리 원정대	0	0
	0	[전급대역표	2012 전남대학교 7대륙최고봉(엘브루즈) 원정대	0	0
			2013 전남대학교 요세미테 원정대	0	0
광			2014 전남대학교 7대륙최고봉(코시어스코) 원정대	0	0
주	9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없음		×
			2003 조선대학교 아일랜드 피크 원정대	0	
	10	조선대학교	2006 조선대학교 시샤팡마(8,027m) 원정대	0	0
	11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없음		×
	12	조선이공대학교	없음		×
	13	호남대학교	없음		×
	14	목포과학대학교	없음		×
	15	목포대학교	없음		0
	16	목포해양대학교	없음		0
┰┙			2002 순천대학교 유럽 알프스 돌로미테 등반대	×	
전 남	17	순천대학교	2005 순천대학교 가셔브룸2(8,035m) 원정대	×	0
	18	순천제일대학교	2000 순천제일대학 초오유(8,201m) 원정대	×	×
	19	청암대학교	없음		×
	20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여수수산대)	없음		×

7. 산악문화 일반

1) 캠핑문화의 확산

야영장을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캠핑장에 들어갈 수 도 없을 정도로 오토캠핑의 열기가 뜨겁다. 캠핑은 산악인들에게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야였다. 그러나 2000년대의 특징인 다양성은 캠핑 인구조차 산악 스포츠 공동체에 포함시켜 산악문화의 하나로 같이 호흡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캠핑이란 것이 국민의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기 전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에 뛰어든 학산 출신으로 정제호(조선이공대87)가 있다. 2004년부터 캠핑카고트레일러를 전국에서 최초로 생산하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캠핑의 원년은 2002년 호상사의 전국대회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뉜다. 이후 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대중화의 계기가 되었고 빠른 경제성장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현재는 저가형 캠핑장비와 캠핑문화의 확산으로 초기 '가족' 캠핑 개념의 문화가 많이 희석되어지고 있다.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돌아설 정도로 야영장들은 고성 방가는 물론 늦은 밤까지 음주 및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 캠핑문화는 '가족' 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배려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가족과 배려의 건전한 캠핑문화가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2) 산악인의 사회참여

산악인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라는 취지로 광주·전남의 산악인들이 모여 2007년 4월 푸른산을 창립하였다. 우리 학산에서는 윤호준(송원대88), 문종국(조선이공대88), 이정현(순천대89), 허환(서영대90), 손경춘(조선대91) 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창립당시 광주·전남 산악인 특유의 끈끈한 정이 주 매개체로 작용하였고 2013년 현재 대표는 박찬호(목포해양대89)이며 회원은 100여명 정도이다. 국내의 3개 산악잡지에 모두 소개되어 전국의 산악인들이 관심 깊게 활동상을 지켜보고 있다. 작은 시작이지만 산악인의 사회봉사라는 산악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어 진다.

주요 활동은 매년 2회,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산악캠프를 무료로 열어주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청소년 캠프에 산악을 접목하였다. 또 환경 정화 활동, 워크샵 및 각종 산악문화 관련 행사를 주최·주관하고 있다. 산악인의 사회참여 활동은 산악인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 학산의 활성

화에도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더욱 많은 사회적 활동과 참여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3) 산악 관련 자격증

산림청이나 대한적십자사 등 산악관련 유사 자격증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산악단체인 대한산악연맹의 자격제도를 보면 〈표3〉와 같다. 특히 등산강사 자격은 등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학산에서 꼭 필요한 자격이 아닌가 한다.

2000년대 들어 등산인구의 급증과 전문등반의 대중화로 인해 산악 사고 증가 및 등산학교 난립 등의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이에 대한산악연맹에서는 증가하는 등산인구에 대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체계적인 등산교육을 통해 올바르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보급하고자 등산강사 제도를 2005년 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표3〉 광주·전남 산악관련 자격증 소지자 현황(2013, 7, 31, 현재)

		нь¬	х П			소지자		
명 칭		발급 기관	주무 기관	종류	일반		학산	관련참조
					광주	전남	(광주 · 전남)	
(국민등산학교) 등산강사		대한 - 산악	등 산 교 육 원	교수 부교수 1급 2급	(교수) 배록현 (2급) 이기창 배훈희 황평주 민현주	(2 급) 김홍곤		(문체부 후원사업) 등산교육원 http://kafedu. or.kr/home/
스포츠클라이밍 루트세터		선탁 연맹	해 당	없음	윤현승 이윤재 진선교	조한익		스포츠클라이밍 위원회 http://
심 판	스포츠 클라이밍		위 원 회	1급 2급	(2 급) 김연곤 조계주	(2급) 송석현 나상근 최성귀		kafsc.or.kr/ home/about. php?mid=26

명 칭		ш.=	.	으 으 !	소지자			
		발급 기관	주무 기관		일반		학산	관련참조
			710		광주	전남	(광주 · 전남)	
심 판	일반등산			1급 2급	(1급) 김병현 최유진 (2급) 변제공 양선화 민현주 김순화 오기석	(1급) 조성일 이준종 전판성 (2급) 오옥현 김정진 김상근	(1급) 소병현(조선대77) (2급) 오경탁(조선대84) 서은호(전남대84) 김주형(조선이공88) 이경주(조선이공88) 리경주(조선이공97)	대산련대회규정 http://new.kaf. or.kr/ ?c=2/19/83
	산악스키			1급 2급				대한산약스키협회 http://kafsma. or.kr/
산악구조강사		구조 협회	구조 협회		김미경 민현주	·		산악구조협회 http://kafrescue. or.kr/home/
경기지도자 (산악)		문화	체 육 지	1급 2급	(2급) 황평주 조계주 이윤재 윤현승 서권한 박만열	(2급) 오옥현 이 준종 최성기 전판성	(2급) 임형칠(조선대77) 김인해(목과대81) 이병철(목포대81) 김흥규(목포대82) 김정원(목과대81)	체육지도지연수원 http://www. insports.or.kr
생활체육지도자 (산악)		체육 관광 부	도 자연수 원	1급 2급 3급	(3급) 윤현승 황평주 양선화 서권한 조계주		문 호(목과대93) 서은호(전남대84) 문종국(조선이공88) 이정현(순천대89) 송형근(조선이공92) 주우평(순천대94)	체육과학연구원 http://www. sports.re.kr 국민생활체육회 http://www. sportal.or.kr/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신해서 나는 위성

4) 산악 워크숍

어려움에 처한 지역 산악문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지역 산악문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 2001년도 지역산악문화발전 워크숍 광주 · 전남지역 산악문화의 발전방향 |

가) 개요

일시: 2001. 12.18 (화) 19:00~21:30

장소: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미나실 (체육관 5층)

주최: 광주광역시산악연맹 · 광주광역시학생산악연맹

주관: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원

협찬: ㈜ 제너시스 · (주) 샬롬산업

정리: 차민섭 (전남의대 00), 우승수 (조대 00)

이번 행사는 "광주, 전남지역 산악문화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 원과 광주광역시 산악연맹 및 광주광역시 학생산악연맹 등 전문 산악단체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지역 산악 문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악문화 발전에 기 어코자 기획됐습니다.

나) 워크숍 정리

1부: 지역산악문화발전 워크숍 (19:00~21:00)

◈ 개회식 (19:00~19:20)

사회: 임형칠 (대한산악연맹 등반기술위원장)

국민의례

개회사: 전의천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원장)

인사: 김병용 (광주광역시 산악연맹회장) 축사: 박선홍(광주광역시 산악연맹 고문)

감사패 수여 : ㈜ 제너시스 대표이사 윤홍근

㈜ 샬롬산업 대표이사 김정매

◈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

사회: 선종구 (광주산악연맹 산악연수원장)

제1 기조 발표: 광주 · 전남지역 산악문화의 어제와 오늘

* 발표: 박명선 (광주광역시학생산악연맹 고문)

제2 기조 발표: 광주·전남지역 대학산악문화의 활성화 방안

* 발표: 임형칠 (대한산악연맹 등반기술위원장)

* 토론: 이정옥 (무등산악회 부회장)

김용철 (조선대학교산악회OB회장)

최경주 (대한산악연맹 기획위원장)

박상수 (조선이공대학OB산악회장)

정후식 (광주일보산악회장)

박헌주 (광주광역시학생산악연맹 이사)

방경환 (광주광역시학생산악연맹 학생위원장)

제1 기조 발표

광주 · 전남지역 산악문화의 어제와 오늘(박명선)

국내적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산악회가 있었는데 일본인들보다 먼저 우리의 산에 다니자는 생각으로 산행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서울, 경북에 산악회가 존재했다.

해방 후의 광주지역에서는 산사람(빨치산)의 존재로 인해서 산행이 불가능했다. 전쟁 전에 광주지역에서는 1945년경에 무등산을 중심으로 산행을 시작하면서 동호인을 조직하게 됐다. 그것이 전남 산악회였다. 전남에서는 지리산을 바탕으로 한 구례에서의 구례연합회가 시작되었다. 광주지역의 산행은 보고회가 시작되면서 열기를 고조시키게 되었다. 보고회가 끝나는 4월 20일 처음으로 노고단 산행을 1박2일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산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경찰 2명이 동행을 함으로서 가능했다.

학생산악연맹은 1958년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창립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해 7월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한라산 등반을 함으로써 최초의 해외원정(?)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1958년 10월 2일 무등산악회가 창립되었고 1961년 광주제일고 산악회가 창립되면서 고등학교산악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때의 산행지식은 보통 시합 (등산대회), 출전을 통해서 습득되었다. 또, 외국서적의 구입을 통

해서도 산행지식을 습득했다. 4개 대학, 6개 고교가 지리산에서 훈련하였다. 1969년 7월 19일 무등산 규봉암에서 암벽등반을 시작했다. 그것을 발판으로 암벽등반이 시작되었다.

최초의 등산대회는 대구에서 시작되었는데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광주가 아닌 대구에서 그런 의미 있는 축제가 열린다는 것이 아쉽다. (격년제로 대구와 광주에서 열기로 했으나 아직 광주에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아쉽지만 심판 등으로 광주에서 참여하고 있다. 그때 역시 등산대회를 통해서 산행지식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1957년 동창회관에서 60만세운동 기념으로 등산대회를 치르게 되었다.

60년대에는 등산인구가 적었다. 1961년에 전북학생산악연맹에서 주최한 등반대회가 있었는데 전남에서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66년 전남대학교에서 주최한 크로스컨트리대회가 지금까지 이어 져오고 있다. 조선대학교에서도 크로스컨트리 대회가 있었다. 역시 지금은 사라졌지만 고등학교에서도 크로스컨트리대회가 꽤 많이 있었다.

1969년 전남산악연맹이 창립되었다. 전남산악연맹에 학생산악연맹도 포함됨으로 인해서 학생산악연맹의 입지가 많이 약화되었다. 그 당시에는 동계산행을 갔다 와야 산악인 인증을 받았다. 동계는 보통 지리산, 한라산에서 했다. 이때가 60년대 후반이다.

이후 알피니즘이 워킹과 암벽으로 나뉘게 되었다. 71년과 72년에 첫 번째 두 번째 원정대를 보내게 되었다. 등산학교는 60년대에 연맹이 생기면서 산간학교에 생기게 되었다. 처음은 무주구천 동에서 시작되었다. 1978년부터 정규반, 암벽반, 동계반으로 분리되어 생기게 되었다.

제2 기조 발표

광주 · 전남 지역 대학산악문화의 활성화 방안(임형칠)

현재 대학산악부가 유지되는 곳은 한국뿐이다. 일본은 거의 무너진 상태이고 유럽의 여러 국가 역시 무너진 상태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200여개 이상의 산악부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중흥기에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 보통 1985년 즈음에서부터 대학산악부는 두 자리 수 회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광주지역 대학산악부 역시 12개 산악회 중 신입생이 없는 산악회가 꽤 있다.

이러한 대학산악회의 쇠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재학생들에 대한 선배들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이 커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산업체(산악회와 관련된)와 연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현재의 기관과 협조함으로써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 등 산악회와 관련된 단체에 산악인들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산악회의 부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재학생들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안내등반, 장비전시회 등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대학교 재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산악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 하겠다. 대학 내에인공암장을 설치하는 것도 인공암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대학산악회가 해결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장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즉 워킹, 암벽, 빙벽 등으로여러 곳에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필요한 것이 산악환경자연보호에 참여나 무등산보호 같은 여러 환경운동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아래로부터 산악회가 활성화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에서 아래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산인의 한마당, 등산학교에 선, 후배의 자녀를 등산학교에 보내야 (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지금의 쇠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일반인들도 산에 많이 다니고 있고 산행장비 역시 일반인들도 꽤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반인들을 왜 산악회로 유도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실용주의 사회이다. 대학산악부에 가입하면 어떤 이익이 되는가를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지정토론

시간의 경과로 인해 만찬과 지정토론을 같이 함으로써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이정옥(무등산악회 부회장)

김용철(조선대학교OB회장): 물론 동아리가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이지만 산은 다른 동아리와 다르다.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산악회 생활을 했으면 한다.

최경주(대한산악연맹 기획위원장): 자랑스러운 대학 산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을 하자. 산이란 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자. 산악활동은 본인의 성취의 과정이다. 본질은 산악인의 정신 본질 그 자체다.

정후식(광주일보산악회): 물론 흰산, 즉 해외 원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 우리의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인문, 지리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박현주(광주광역시 학생산악연맹 이사): 학산의 침체에 있어서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 요소가 있는데 먼저 내부적인 요소로는 정을 중시함으로써 단결력을 호소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뒤쳐진다. 그리고 군대식의 상명하복과 권위주의적 요소가 상당부분 작용하였다. 이러면 관계를 친근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체질개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부적 요소로서 히말라야, 즉 흰 산의보편화로 인해서 흰 산으로 다가서기에는 유리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새로운 메커니즘에 맞게추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안내산행으로 좀 더 산을 가까이 접하게 하면서 산악부원을 모집하여야하고 단위 연맹강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학산에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통을 지켜 가느냐 아니면, 현실 인식이냐라는 것이다. 정통의 경우 소수전문가에 의한 정통파주의를 추구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되는 면이 있어 회원 확보 난으로 도태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ISM에 대한 고찰이필요하다. ACADEMIC 알피니즘에서 ELITE 알피니즘이나 생활체육 알피니즘이 도입되어야 한다.

방경환(광주광역시학생산악연맹 학생위원장): 재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겠다. 현재 대학산악부가 발전하는데 저해되는 요인은 산악부원의 감소다. 산악부원의 감소에 따라 산행일수가적어지고 자연스럽게 기술저하로 이어진다. 안전 산행으로만 추구하고 대학 산악부의 정신인 도전, 탐험정신은 와해되어 산악인의 꿈인 하얀 산도 자체적으로 포기해 버리는 배경이 되는 것 같다. 산악부원의 증가와 신입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급선무, IMF로 인한 주말마다 산행은 힘들어지고 위험한 산행 회피, 그래도 우리에게는 불행 중 다행인 게 아직도 꾸준히 신입회원은 들어온다는 것, 그러나 산에 한번 갔다 와서 빠지는 게 다반사, 첫 산행 때는 강압적인 교육위주의 등반보다는 등산의 본질 및 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만족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OB선배님들은 재학생들과 함께 산행에 참여하여 격려 및 대화의 장을 자주 가져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각 학교 대장들은 학교의 특색에 맞게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듯하다. 대학 산악부의좋은 점만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는 대장들의 알피니즘을 정립시켰으면 한다.

내가 바라본 선배님들의 말씀들

먼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산악회 원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로 영광이었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광주학생산악연맹 회장님이신 전의천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의 학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다. 이러한 워크숍이 열림에 있어서 학산의 발전은 작은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학산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워크숍이나 모임은 자유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 학산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의 학산 문화가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 것은 산악회의 정이라고 생각한다. 선배와 후배간의 정, 선배가 후배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후배가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학산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므로 상당히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옛날부터 전해오는 오랜 전통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즘 사람들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악습은 고치고 나름대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악습은 아니다. 본질은 하나지만 그 본질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가 학산이라는 작지만 큰 산을 움직이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8. 산정(山情) 마당

암벽반, 하계 훈련의 치열했던 여름 끝에서

- 박병현(광주교대 06학번)

드디어 다가오는 등산학교와 하계. 선배들의 재미있다는 말을 뒤로 한 채, 치중이와 나는 등산학교 암벽반에 먼저 들어갔다. 정규반과 암벽반이 있었는데 우리는 암벽반만 들어갔기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차차 사람들과도 친하게 되고 강사님들도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첫날밤의 코스인 인공 암벽의 제일 쉬운 코스를 올랐다. 속으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만 하면 정말 선배들 말처럼 재밌는 2박 3일 암벽반이 될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까지는 구보라고 해봤자 앞에 농구장 몇 바퀴 산가를 부르면서 돌기에 나름 신나는 마음으로 구보를 했다. 그날 찾아올 엄청난 고난을 예견하지 못한 채 나는 시루봉을 향했다. 우리는 분명 물 1L라고 들었다. 1L……. 정말 적은 양이었다. 원래 물을 많이 먹는 편이라 오전에 전남슬라브와 B길 한번을 오르는데 이미 물은 다 먹어 버렸고 오기 전 3일전부터 밥이라곤 고기 한번

먹고 왔기에 먹을 것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목만 타올랐다.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다. 얼차려가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목마르다'는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다들 물을 다 마셔버렸기에 어디에 물 좀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물의 소중함이라는 단어를 뼈 속에 새겼다.

그 다음날 물도 정말 많이 챙겨가고 날씨도 적당해서 정말 그 전날에 비하면 천국이라 할 만큼 좋은 컨디션으로 바위를 올랐다. 이날은 볼트 따먹기 하는 방법과 주마질, 프렌드 사용법을 익혔다. 볼트 따먹기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시도할 때마다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밸런스 잡기가여간 쉽지 않았다. 등산화를 신고 해서일까 볼트의 잡는 부분이 그다지 넓지 않아서일까 쉽지는 않았다. 주마질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할만 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확보줄을 잘 조절해서주마가 내 이마에 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인공등반이라 그런지 프리 클라이밍보다는 훨씬 수월했다.

이날 밤 마지막으로 야간산행을 시작하였다. 우리 조는 연실봉을 올라가기로 했다. 연실봉은 가는 곳 중에 가장 쉽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 마음 없이 길을 떠났다. 시루봉 쪽으로 처음에는 가다가 왼쪽으로 빠졌다. 여기부터 우리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연실봉이 원래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인지 나무와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버려서 이게 길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다가 잘못 간 것 같아서 뒤로 조금 갔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서 옆으로도 갔다가 바위도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야말로 산을 헤집고 다녔다.

이렇게 산을 헤집고 다니면서 배운 내용은 다 써본 것 같다. 슬라브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마질까지 거의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연실봉을 올라갔다. 이거는 거의 길을 개척하는 것에 가까웠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잠이 오기는커녕 우리가 산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이 감기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밤이라 주위가 보이지 않기에 겁도 없이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슬라브를 자일도 설치하지 않고 뛰어올라 갔다는 것이다. 지금 낮에 올라가라하면 절대 그냥은 못 갈 곳을…….

강사님들과 학생회장의 힘으로 우리는 겨우겨우 연실봉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 도착해 앞으로 확 트인 풍경을 보니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다. 때 마침 해가 뜨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역시 하산 길도 얼차려 받으며 내려가고 다시 인공암장까지 뛰어갔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갔던 곳을 기분 좋게 뛰어 올라갔었다.

이제 수료장을 받고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드디어 등산학교 끝났다고 외치며 기뻐서 날뛰었지만 치중과 나는 매트나 깔고 누워서 앞으로 다가올 하계를 예상하며 허탈감에 젖어 쉬고 있었다. 이 날 우리는 월출산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시루봉까지 올라가는데 짐도 무겁지 않고 얼차려도 받지 않아서인지 정말 뛰어가라고 해도 뛰어갈 수 있을 만큼 쉽게 올라갔다. 아마 이제는 몸이 슬슬 적응을 한 것 같았다. A, B, 공전, 중앙길을 모두 해보았는데 A길과 중앙길은 처음 올라가봤는데 암벽반에서 익힌 스킬 때문인지 뒤에서 말해주는 형들의 도움 때문인지 많은 힘듦 없이 바위를 올라갔다. 이날 골고루 2번 정도 올라가보았는데, 나는 공전길이 가장 어려웠다. 공전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끝에 정말 난감한부분이 나를 막고 있었다. 나는 아무리 끙끙대도 그곳을 올라가지 못했다.

20일 우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시루봉을 올랐다. 이날 시루봉은 정말 편안한 것 같았다. 그동안 많은 연습과 여러 가지 요령을 통해서 훨씬 수월하게 올랐다.

이날 2피치를 선배들과 함께 올라가 보았는데 1피치와는 역시 다른 느낌이었다. 확실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편안하게 쉬다가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내려왔다. 다음날 드디어 사자봉을 오르게 되었다. 형님들께서 사자봉은 정말 재미있다고 가볼만하다고 하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올랐다. 하지만 시작부터 길을 살짝 헤맸기에 연실봉의 악몽이 떠올랐지만 곧 길을 다시 찾고 사자봉을 오르기 시작했다. 맨 처음 부분을 올라가는데 그놈의 가방은 어떻게 지고 올라가는지 정말 아무리 낑낑대며 힘을 써도 맨 처음 부분은 못 올라갔다. 가방을 벗고서야 어찌어찌 올라갔다. 가방이 원래 이리 무거웠던지 사자봉은 나름 살 떨리는(?) 인공등반도 있었고 릿지를 하면서 가는 거라 그런지 재미있었다. 무엇보다도 다 같이 함께 갔기에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이날 하산길은 다른 어느 날보다도 가벼웠다. (중간에 손목에서 피나고 복숭아뼈 찍은 것 빼면.)

22일 처음으로 시루봉 정상을 찍은 날로 기억한다. 2피치 3피치 난이도는 어려운 편은 아니었으나 2피치는 쉴 곳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약간 실망했다. 3피치를 올라가는데 치중이가 확보를 보는데 선등을 서고 있는지 알았다. 올라가는데 자일이 저 밑에서 대롱대롱 정말 확보줄이라도 어디에 걸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중에 올라가서 물어보니 자기는 있는 힘껏 기고 있었다고……. 3피치 정말 공포감의 무한대를 경험하게 한 곳이었다. 이날 밤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올랐다.

23일 오전의 인공암장코스를 들러서 드디어 광주로 돌아가게 되었다. 동춘이형 차를 보고 아 정말이제 산을 떠나는구나. 이제 아침에 텐트를 열고 나무를 보지 않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약간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학교 준비를 해야 했기에 광주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마지막 뒤풀이에 다들 참가해서 총화를 듣고 싶었지만 다들 바쁘셔서 가셔서 아쉬웠다. 아마늙어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들로만 가득 채웠다.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형들께 감사드립니다.

제6절 새로운 50년을 위한 제언

앞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듯이 전국적인 전문등반의 침체 현상 속에서도 학산은 우리나라 산악계에서 항상 역동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50년을 어떻게 이어 나가느냐 이다.

2000년대 학산사를 기술하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서두가 침체로 인한 자료의 빈곤함이었다. 이에 '활성화'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학산의 알피니즘과 등산학교, 조직의 세 가지를 주제로하여 글을 맺도록 하겠다.

1. 알피니즘의 활성화

자본주의의 생리와 조직의 운영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서 스폰서를 위한 상업적 역량이 필요함을 알았고 그 역량이란 산의 이슈화를 통해 스타 산악인을 키우는 것이다. 스타 산악인은 여론을 만들 수 있고 산악회와 기업홍보 양면의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산악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스타 산악인의 활동은 소속 산악회의 활동을 대표한다. 그래서 학산의 활성화를 위해 선배가 후배를 키워주는 것, 인적 네트워크를 물려주는 것, 원정대의 직함에 연연하지 않는 것 등 학산 출신의 스타 산악인 만들기도 알피니즘 활성화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은 대상지의 문제이다. 여건상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하다 보니 등반 대상지의 다양성이 크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체도 침체이다. 높이가 낮더라도 알피니즘의 본질을 쫓아 도전과 모험에 입각한 등반,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지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등반이 필요하다. 외형은 화려하지 않지만 내용이 충실하다면 이미 활성화된 것이다.

이에 더해 친환경 등반의 실천이 요구된다. '클린' 클라이밍은 자유등반에서 한때 유행했던 등반 사조이다. 산악 윤리적인 면에서는 2002년 티롤선언을 기폭제로 다양성의 인정과 친환경 등반이 대세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LNT 도입 등 친환경 등산의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이 제는 고산이든 빅월이든 모든 등반 행태에서 클린은 지켜져야 할 덕목이다. 아카데믹 알피니즘을 추구하는 학산의 산악인이라면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이 되었다.

일본은 1920년대 유럽 알프스를 등반했고 1930년대 이미 히말라야에 진출했다. 8천 미터봉도

마나슬루(8,163m)를 세계 초등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부럽지 않은 것은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의 아픔을 이용해 얻은 경제력으로 이룩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일어선 도전정신의 표상이다. 우리의 '77 에베레스트 등정이 일본의 마나슬루 초등보다 값진 이유이다.

이렇게 앞서나가던 일본이 1990년대 중반 경기침체를 계기로 등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열기가 식었다. 일본 최고의 알피니스트였던 다나베 오사무(田辺治) 등 일본 산악인들의 인터뷰를 참고해 보면 일본에서는 히말라야 등반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다. 산악 등반이 사회적 작용 없이 등반가 개인의 행위로 치부되어 버리는 일본의 클라이머들은 불행하다. 산악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갖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겨우 소수 클라이머들에 의해 세계적 수준의 첨예한 등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위안을 삼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경제위기인 IMF를 계기로 오히려 등산의 외형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도전과 전문등반으로 지원의 폭도 커졌다. 이는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내는 도전적인 우리 민족성에 있다. 학산 알피니즘의 활성화는 우리의 '77 에베레스트를 꾸린 정신과 학산 고유의 정과 의리라는 알피니즘을 전제로 해야 한다. 휴면 알피니즘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

2. 등산학교의 활성화

잘 될 때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어려워지니 하나 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등산학교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점을 고민해 보았다.

첫째, 사회적으로는 등산인구의 증가로 등산 교육의 수요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한 학산에서 오히려 등산학교가 침체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둘째, 강사 수급의 방법이다. 졸업생이 강사가 되는 선 순환제도이다. 문제는 학산에 대한 소속 감이 부족해 재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순환이 되지 않으니 고참 강사가 다시 강사로 나설 수밖에 없다. 고생한 사람만 계속 고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매 번 반복되면 책임감이 중압감으 로 작용, 그나마 있던 열정도 멀어지게 된다.

셋째, 학산의 임원체계가 그대로 등산학교 운영 체계로 이어진다. 학산 임원들이 등산학교에 모

두 참여하여 내 일처럼 운영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학산 임원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고 사무국도 바뀌게 된다. 문제는 사무국이 바뀜에 따라 등산학교 운영의 연속성 과 전문성이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등산학교와 학산 조직은 이미 한 몸이기에 동문회 활동이 필요하지 않았었고 조직되지 않았다. 학산이 침체되면서 등산학교 졸업생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보석을 허공에 날려버린 결과이다. 그러나 동문회라는 실체가 있었다면 등산학교만이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진다.

다섯째, 위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항상 행사 치르기에 바쁜 상황에서 사무국이 등산학교의 발전적 미래를 충분히 모색할 여유가 없었다. 전과 후로 뚜렷이 구분되는 학산의 침체를 보면서 무엇인가 변화의 결단이 필요함을 느낀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등산학교를 독립해 학산의 별도 기구로 한다면 어떨지 제시해 본다. 임명 또는 위촉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니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강사와 수강생 등 관리체계가 서게 되면 일정 강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강사수급 문제도 해결된다. 운영의 전문성이 있으니 일반인 수강생의 비율을 높여 교육시킴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있다. 일반인의 수강료를 현실적으로 인상할 수 있어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워진 새로운체제 속에서 비로소 동문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동문회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모이다 보면 자연스레 다시 학산의 결속력이 생기게 되고 그 결속력으로 학산의 활성화를 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일반인까지 확대 모집하여 명실상부 광주ㆍ전남 등산교육의 본산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꿈꾸어 본다.

3. 학산 조직의 활성화

산악계의 변화 흐름이 다양화 되어지는 속에서 학산의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유일한 활로 인 재학생이 많이 가입할 희망도 불투명해 보인다. 활성화에 관한 미시적 시각의 방안은 앞 장의 자격증, 가맹단체 활동 등에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제안을 통하여 학산 조직의 활성화와 결속을 다지는 방안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듯 산악계의 미래이고 학산의 미래이다. 2013년 대산련 각종 위원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직·간접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대산련에서도 이를 인식해

청소년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만큼 청소년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침체 이전에 학산의 소속감과 정신이 투철했던 90년대 학번까지는 모두 학부모 세대가 되었다. 이에 학산 조직의 활성화를 부모가 된 학산 회원들과 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 자녀들은 또한 대학 산악부 신입회원의 대기자이기도 하다.

학산의 전통과 정신인 배려, 정, 의리, 약속, 모험과 도전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인간사 지고 지순의 가치이다. 이것은 요즘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 문제시 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에 게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와 같은 부모 세대의 정서를 계승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산악캠프를 제안한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산악캠프에서는 지도자와 참가자의 관계가 되어 효과적으로 학산의 정신을 전수할 수 있다. 등산학교라는 공공적 이미지 때문에 학산이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이 간다. 우리 학산 회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니 참가자와 지도자의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학산의 정신을 계승하니 학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다.

학산만의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이다. 방법은 요즘 유행하는 협동조합도 괜찮다. 이사회비가 아닌 조합비를 걷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청소년캠프를 통한 정과 배려라는 학산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커뮤니티는 O.B., Y.B.가 동반 침체되고 있는 요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2000년대는 남아있는 학산의 모든 회원이 학산 전통의 명맥을 유지했다라고 말하고 싶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학 산악부의 침체는 계속 이어지리라 전망하면서 당분간은 대학 산악부 2학년이 되어야겠다. 50살 먹은 2학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학산으로 새로운 50년을 맞이하자.



추모

기억해야 할 사람들



추모 | 기억해야 할 사람들

산악사는 등정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조난 사고의 이력과 역사로 우리에게 감동과 비탄, 가르침을 준다.

1972년 제2차 마나슬루 원정대의 오세근(조선대), 1990년 낭가파르밧 원정대의 정성백(조선이 공대 81), 1995년 빛고을 브로드피크 원정대의 박현재(순천대), 1996년 유럽 알프스 3대북벽 원정대의 최전식(순천대), 1998년 공가 원정대의 오종락(목포과학대), 2007년 에베레스트 남서벽 원정대의 이현조(전남대), 2010년 마나슬루 원정대의 박행수(광주대) 회원이 영원히 산으로 갔다. 또한 히말라야의 하얀산은 아니지만 국내의 산에서 유명을 달리한 회원들이 있다. 86년 북한산 병풍암에서 사고를 당한 이용문(순천대), 정윤기(순천대), 92년 월출산 시루봉에서 사고를 당한 박석현(조선대), 93년 설악산 양폭산장에서 눈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김민정(보건대) 회원 등이 우리 곁을 떠났다.

먼저 가신 산우들의 젊음을 불사르는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학산 50년의 역사는 실체를 가지고 존재한다. 고인의 꿈과 열정을 이어받아 우리 학산의 도전은 계속 될 것이다. 모험과 도전의 알피니즘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하기 때문이다.

| 해외 등반 |

故 오세근(조선대 65, 1945 ~ 1972)

1945년 11월 22일 담양읍에서 오철수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출장 사진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보성초등학교를 거쳐 서석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사진관과 등산은 이 집안의 내림이자 분위기였던 것 같다. 보성서 미광 사진관을 했던 오병수(일고 산악회 창립회원)는 5촌간이고, 오종태(너덜 산악회 초대회장)씨는 종조부이며, 오종태씨도 젊었을 때는 순천에서 사진관을 경영하였다.

담양으로 생활터전을 옮긴 후 광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에 입학하자 곧 동교 산악회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등반 경력을 쌓았다. 1965년 늦깎이로 대학을 진학한 후 조선대학교 산

악회를 창립하기 위해 게시할 벽보판을 좁은 자취방에서 제작했으며, 대학 1학년인 그는 거의 모든 시간을 조대 산악회 관계 일로 푹 빠져 있었다.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 씀씀이가 커져버려 책값과 등록금은 물론이고 나중엔 전세금도 써버려 사글세로 자취방을 옮겨 다녔다.

창립회장이었던 그는 군 입대로 회장 재임기간이 짧았으나 무등산 창립기념등반, 한라산 하계 장기등반, 산악강습회 공동 주최, 한국특수체육회가 개최한 설악제와 운장산 대회에 참여하는 등 전국의 산악인들과 폭 넓게 교류하는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그는 군복무 후 복학하여 다시 산악회 회장을 맡았으며 1972년의 제2차 마나슬루 원정대에 참가하였다.

그의 강인한 의지와 지구력은 물론 산악인으로서의 자질을 높이 평가받아 제2차 마나슬루 원정 대원으로 선발되어 장도에 올랐으나 1972년 4월 10일 제3캠프 6,500미터 지점에서 불의의 눈사태로 고이 잠들었으니 그때의 나이는 28세였다.

다음해 무등산 천문사 대피소 옆에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추모비는 72년 추모식 때 거출한 조의 금과 조선대학교산악회 OB회원의 납입금을 가지고 조선대학교산악회가 주관하였으며, 주말을 이용한 회원들의 노력으로 한 달간의 작업 끝에 1973년 4월 2일 제막식을 올렸다. 장소는 천문사 대피소 옆, 비문은 허연 선생님께서 지어주시고, 글씨는 김상필 선생님께 받아 각서 하여 세웠다.







아나들의 눈속에 되 맺힌 한을 묻어두고 어기 전다운 돌으로 돌아와 안기 세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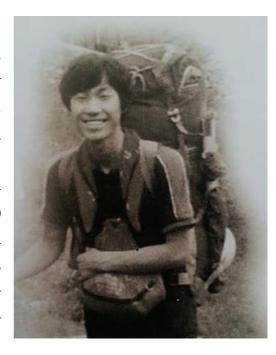
행원상 이다니 무등사는 그대의 이다를 사장으로 짚어 주된다

3

- 1, 1972, 마나슬루원정대 故오세근(좌측4번째) 사진제공 전민조
- 2. 1973. 故오세근산우 추모비 제막식
- 3. 장소: 무등산 대피소 터

故 정성백(조선이공대 81, 1962 ~ 1990)

1962년 8월3일 전남 강진군 작천면에서 정주채님 의 3남으로 태어나 1981년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전 문대학(현 조선이공대학교)에 입학하여 곧 동교 산 악회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등반 실력을 쌓았고 83년 광주 전남 암벽대회에서도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였으며, 그의 강인한 산악 정신은 전 산악인의 모범이되고 산악인으로서의 자질을 높이 평가 받아 파키스탄 소재 세계 제9위봉(8,125m)정상 도전을 위해 '90 광주 낭가파르밧 원정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장도에 올라 '90 7월2일 제 4캠프(7550m)를 설치한 후 7월 3일 정상 공격 중 전위봉 7,900m 지점에서 악천후로 인해 추락사 하였으니 그 때 그의 나이 당 28세였다.



-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었다.
- 광주 무등산 중턱에 세워진 故 정성백 산우 추모비 중에서



장소: 무등산 대피소 터

8,125m 나가파질 사 건사 2 두른 하늘 속 드듬은 얼덩에 이르는 몫이고서 떠돌이고서 두방을 나라서지다 나라서다 얼리에 오르고 오르던 우리 사무! 아! 8000m. 대부 디아니르 2 얼원이 손짓하지 부르던가 차라리 이곳에 안지바친 우리 사무이 이제 그대 띄돌던 이 뚜듬의 돌아드로 돌아무소서 돌아무소서.

故 박현재(순천대 88, 1968 ~ 1995)

1968년 4월 16일생(2남 1녀 중 장남)

전남 광양군 옥곡면 장동1구 42

1984년 옥곡 중학교 졸업

1988년 순천대학교 금속공학과 입학

순천대학교산악회 입회

1990년 순천대학교산악회 대장 역임

광주 · 전남등산학교 강사 및 교수부장 역임

1993년 '93 광주 전남 초모랑마 원정대' 대원

-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등정
- 12월 사단법인 대학산악연맹 광주·전남연맹 공로상 수상

1994년 '94 순천대학교 맥킨리원정대' 대장

- 북미 최고봉 맥킨리 정상 등정
- 9월 대한민국 체육훈장 포장 수상
- 12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전남연맹 공로상 수상

1995년 '95 빛고을 브로드피크 워정대' 대원

- 정상 등정 후 하산 중 실족 사망

1996년 대한민국 체육훈장 백마장 수상

- 순천대학교 제1회 명예 졸업



장소: 순천대 교정



化号 오르ा

다스한 본호 행사들은 시간을 향하게 하고 내 혹은 시간을 오르고 있다!

가게시는, 월호산, 무등산, 지리시는, '얼박사는 내 생물'로 당는 곳 모두 그리운 곳이네!
내 다음 떨정 더 높은 곳을 향하다 오르고 물업지이 시간 향하다 오르고!

라인지(이 시간 향하다 오르고!
고운 사는 그곳은 나를 면제나 생산기네!

故 이현조(전남대 92)

전남 영광군 묘량면 출신의 이현조는 1992년 전남대 불문과에 입학한 것을 계기로 전남대학교 산악회에서 산악 인생을 시작하였다. 무등산, 월출산, 지리산, 설악산 등 국내의 산을 휘저으며 뛰어다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박영석이라는 걸출한 등반가를 만나 마칼루를 시작으로 브로드피크 시샤팡마 낭가파르바트 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8000m 급 봉우리 5개를 등정했다. 2001년에는 광주·전남등산학교 출신 선후배들로 이루어진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를 조직하여 알프스 3대 북벽을 등정하기도 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남대학교산악회의 초모랑마 원정대에 등반대장으로 참여해 정상을 등정하는 기쁨도 맛보았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7년 참여한 박영석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원정대에서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반도중 C4에서 갑자기 닥친 눈사태로 친한 형이자 친구 같았던 오희준과 함께 히말라야의 별이 되고 말았다.

1999년 네팔 마칼루(8,463m) 북서릉 등반

2000년 네팔 마칼루(8,463m) 등정

2000년 파키스탄 브로드피크(8,047m) 등정

2000년 티베트 시샤팡마(8.027m) 등정

2001년 남미 아콩가구아(6.959m) 등정

2001년 알프스 3대 북벽 등반(아이거, 그랑죠라스 등정)

2004년 남극점 최단기간 무보급 도달(44일)

2005년 파키스탄 낭가파르밧(8.125m) 루팔대장벽 등정(세계 두 번째 등정)

2006년 티베트 에베레스트(8,848m) 등정

2007년 네팔 에베레스트(8,848m)남서벽 등반중 사망

2005년 알파인클라이머상 사람과 산

2006년 대한민국 산악상 '대상' 및 '고산등반상' 수상(대한산악연맹)



하다 보다 이는 '얼썽따나라 폭풍'之이 된 아무이기! 그대 불물의 정시고나 순수한 이모주의. 못다 한 꿈을 따라 오늘도 Wuki을 떼라니 천상에서 확한 웃음으로 됐어 위시게나





故 최전식(순천대 90)

1996년 유럽 알프스 몽블랑 등반 중 사망



故 오종락(목포과학대 90)

1998년 11월 14일 중국 최고봉인 공가(해발 7,556m) 등정 후 하 산 도중 추락 사망.



장소: 월출산 사자봉 정상

故 박행수(광주대 2000)

1998년 공가산 등정사진

2010년 4월 마나슬루에서 정상공격 중 기상악화로 하산 중 실종 사망



はない (1983. 11. 18 - 2010. 5. 7)

다나술록 등생산중 사한당한 학우이! 무등의 들에서 던해 쉬게나...



| 국내 등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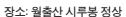
故 심용석(1961~1987)

1961년 전남 보성출생 1980년 조선이공대학 기계과 입학

1981년 전국암벽대회 3위입상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일본 나고야) 1987년 봄, 월출의 품으로 영원히 안김. 假付车到

시는이 같아 시는다는데 당원히 간 그대 해와 달이 벗어되고 너의 그 정 당원히 간지하되다





故 이용문(순천대 83), 故 정윤기(순천대 84)

1986년 8월 6일 북한산 병풍암에서 하켄이 빠져 추락 사망

故 박석현(조선대 88)

1990년 봄, 월출산 시루봉 B코스 3피치 등반 중 안전벨트 불량으로 추락 사망 卫好特起水岭之721121121

식제(동은 사는 향상 뜨거운)로 당원히 우리를 가슴에 받으리라 1990. 9. 15. 조선대학교 사학회

장소 : 월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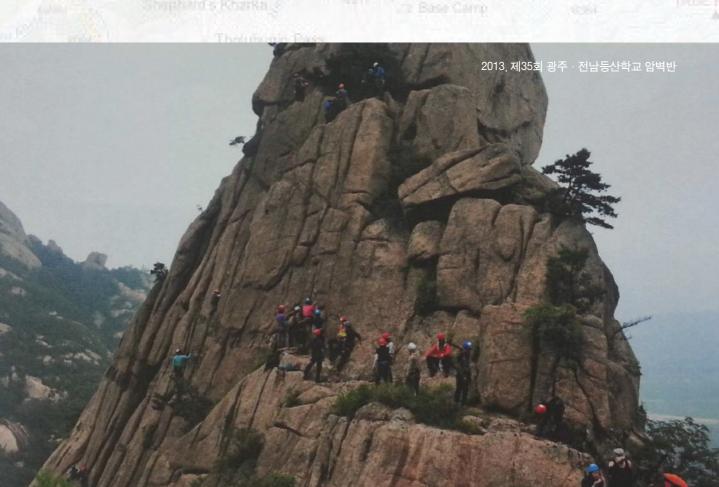


故 김민정(광주보건대 90)

1993년 1월 18일 설악산 양폭산장에서 눈사태로 사망



| 사진으로 보는 50년의 학산 주요활동 |



광주 · 전남등산학교 …











- 1
 2

 3
 4
 - 1, 1979, 제1회 하계산간학교 개교식
- 2. 1979. 제1회 하계산간학교 개교식
- 3. 1979. 제1회 하계산간학교
- 4. 1981.하계산간학교-도강훈련(지리산)
- 5. 1981.하계산간학교-지리산











- 1 2 3 4
- 5
- 1, 1981, 산간학교 동계반-지리산
- 2. 1981. 동계등산학교-지리산 천왕봉
- 3. 1983. 동계등산학교-설악산
- 4. 1983. 동계등산학교
- 5_. 1983_. 동계등산학교-설악산







· '

2

- 1. 1984. 제6회 등산학교 동계반-어리목산장
- 2. 1983. 동계등산학교-설악산

3

3. 1986. 제8회 전남등산학교 정규반











- 1_. 1986_. 제8회 전남등산학교 정규반 2. 1987. 제8회 전남등산학교 동계반 3. 1987. 제9회 등산학교 정규반
- 4. 1987. 제9회 전남등산학교 암벽반 5. 1988. 제9회 전남등산학교 동계반











1 2 3

5 6

1, 1988, 제10회 광주등산학교 암벽반 2, 1988, 제10회 광주등산학교 정규반 3, 1988, 제10회 광주등산학교 암벽반 4, 1990, 제11회 광주등산학교 동계반 5, 1990, 제12회 광주등산학교 정규반 6, 1991, 제13회 광주등산학교 정규반









4

- 1. 1992. 제14회 광주등산학교 암벽반
- 2. 1993. 제14회 광주등산학교 동계반
- 3. 1993. 제14회 광주등산학교 동계반
- 4, 1993, 제14회 광주등산학교 동계반 (양폭산장을 배경으로)











4 5

- 1. 1996. 제18회 광주등산학교 정규반
- 2. 1997. 제18회 광주등산학교 동계반
- 3. 1998. 제19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암벽반
- 4. 1997. 제18회 광주등산학교 동계반
- 5, 1998, 제20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반









1

1, 1999, 제2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암벽반 2, 1999, 제2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암벽반 3, 1999, 제2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

3, 1999, 제2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 4, 2000, 제22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암벽반















1 2 3 4

1. 2000. 제22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암벽반

2, 2001, 제23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 · 암벽반 3, 2002, 제24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 · 암벽반 4, 2002, 제24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 · 암벽반 5, 2002, 제24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 · 암벽반









3 4

5

1, 2003, 제25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반

2, 2003, 제25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반

3. 2005. 제27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금강산)

4, 2005_. 제27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금강산)

5, 2007, 제29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반













1, 2007, 제29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반 2, 2007, 제29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반 3, 2008, 광주 · 전남등산학교 30주년 기념식 4, 2008,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수료식 5, 2008, 광주 · 전남등산학교 30주년 기념식









4 5 1, 2012, 제33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 2, 2013, 제35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반 3, 2012, 제34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반 4, 2012, 제33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 5, 2012, 제33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 6, 2010, 제3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











1, 2010, 제3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 2. 2010. 제3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 3, 2010, 제3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동계반 4, 2013, 제35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규 · 암벽반

5. 2013. 제35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 암벽반





학산인의 한마당…







1. 1987. 학산연맹 체육대회-금파화학공고

2. 1990. 학산인의 한마당

3. 1987. 학산연맹 체육대회-금파화학공고

4, 1989, 학산인의 한마당

1 2

4











- 1, 2003, 학산인의 한마당
- 2. 2007. 학산인 한마당-노안 청소년야영장
- 3. 2009. 학산인의 한마당-도로공사 광주지사
- 4, 2010, 학산인의 한마당-월출산 인공암장
- 5, 2013, 학산인의 한마당-운림중





제2장

학산 주요활동

제1절 광주·전남등산학교

제2절 학산인의 한마당

제3절 학생산악연맹 합동등반



제1절 광주 · 전남등산학교

1. 광주 · 전남등산학교 역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전남등산학교(최초 명칭은 '전남산간학교')는 「성실·인내·안전」을 교훈으로 「건전한 정신과 굳센 체력을 바탕으로 인내심과 협동정신을 길러 바른 등산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자연을 탐색, 연구, 극복, 보호하며 내 나라를 사랑하는 능력 있는 산악인 양성함」을 설립이념으로 하였다.

산간학교는 첫 출범 시(초대 교장 : 고재기/전남대 지도교수, 초대 운영위원장 : 정순택/전남대 62)부터 교칙을 정하여 학교체계를 정립하였다. 교육과정은 정규반, 암벽반, 동계반으로 3개의 커리큘럼으로 정규반(7~8월), 암벽반(10월), 동계반(익년 1~2월)의 3개 과정으로 진행해오다 2001년부터는 정규반과 암벽반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초창기부터 구급법 및독도법, 산악기상, 조난대책, 암벽이론 및 실기 등 기초산행지식과 등산문화의 올바른 전파와 가치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1987년부터는 등산과 山學을 접목시킨 철학적인 면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술등반 및 스포츠클라이밍, 고산등반 등에 특화된 엘리트산악인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물론 초기 산간학교 시절부터 강조되어 온 올바른 등산가치관의 형성에 필요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등산학교 10주년을 맞이할 무렵에 학생산악연맹 회장을 역임한 정순택 교장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 『 1. 산이라는 공통의 장에서 산악인의 유대감을 갖자.
 - 2. 어느 한 지도자의 독선적으로 전수되는 도재교육이 아닌 보통교육실시
 - 3. 학교로서 여러 사람이 기초에서 광범위하게 배워 산의 거시적인 안목을 기르는데 의미를 부여』

라는 이 3가지 기본 이념이 정순택교장의 등산교육 목표였다.

1965년 덕유산에서 개최된 3개도(전남,전북,경북) 합동산간학교에서 시작된 등산교육을 바탕으로 1969년 전남 구례군 토지동국민학교에서 전남학생산악연맹에서 주관한 전국하계산간학교가 개최된다.

1979년 8월 7일 그동안의 간헐적인 등산교육에서 벗어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등산교육을 목적으로 구례군 토지동국민학교에서 제1회 전남하계산간학교를 정식 개교하였다.

이후 2014년에 제36회 광주·전남 등산학교까지 매년 빠짐없이 실시되고 있다. 그 명칭은 1979년 전남산간학교, 1984년 전남등산학교, 1988년 광주등산학교, 1998년 광주·전남등산학교'로 변경되었지만 그 뿌리는 변함없이 현재에까지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14년 1월 등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환하였고 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하였다.

현재 광주·전남등산학교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거나 초빙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정 및 지도자과정을 거친 등산학교 출신 선배 산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에 의해서 강사진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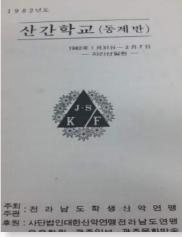
이점에서 국내에 무수히 존재하는 여타의 등산학교와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광주·전남등 산학교가 학생산악연맹에 의해서 운영되고 등산학교 강사 및 교육생의 대부분이 끈끈한 정으로 묶 여진 대학산악부 출신들로 이뤄져 선배에게 받았던 사랑을 후배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다.

| 등산학교 교재의 변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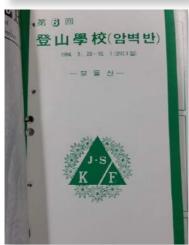


| 등산학교 계획서로 본 변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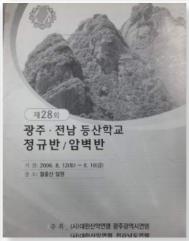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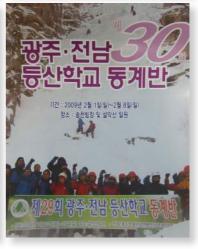












|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무진악 3호 발췌) |

1981년 하계산간학교 입교소감일시: 1981년 8월 4일 ~ 8월 9일

장소: 지리산 피아골



E 81年 更多山野野校 日正全地 和亚

천본자는서 하게 산간 항记에 입고하며 여러가지 훈련하 정해진 시간 내의 일점하 감기를 받아 나가여 여한생들도 이런 훈련한 출설히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불률한 산각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지도 사는서 나 사건의 한 일을 그는서 생활해 나가는데 의지다 인간한게, 작기 극복 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산은 역시 인간의 정신경부 제점, 끝없는 인터를 필(은 하는 만큼 쏩의 도움없이 소스로 살아가야 하는 무리 정근이들의 사건에 큰 할것은가 퇴어 하는 정신 건강 생활상 여러 가시는 도움이 된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수 있는 한 인경체가 되기 위하여 밀은한 한 안정 이사는 생각된다. 산에서 특히 면인한 리이터 워트 한 약을 될게 하는 사생한다.

E 81年 更本山图野校 DIE全地 北亚

지금이 인고했을러 정각했던 것 마는 이구 나는데이 한이 있었습니다.
아라이 되 되는 구보도 나이게는 할 그렇은 말이었습니다.
맛이 있어서 용보고 "산 분하"라 많은 관계는 어려워서 맛이 있어서 용보고 "산 분하"라 많은 관계는 어려워서 지수준으로는 알아들은수가 없었습니다.

는 왕부 포파스템 李校 원포소환 환산 참 원들인, 기급인 명이 지원한 열한 흥연 한다.

기급 가장 이 원은 때문에다 한다고 보다 그때 가 다시 생각내기도 확나다.

프로그 처리들이 확인되는 지지 이오에서 제한권을 이라진 여러 손생성들이 보고를 생각하나 나는 후에들에게 가는지는 건강한 상략인이 되겠습니다. 너무를 지의 등은 가는지씨들이는 요생 않이 됐습니다.

병기 본 악인된 악식하다 가신 등 살살 하는데 이 라는 반 이 만 바보는 반찬 아도 참나다. 그러나 산학인은 웃신은 간수된 보운 것 본당니다.

교내 전 환경나 보는다 않는 역원인 이건 등이라고 아 전하지 않는 기요 보다 나는 역사 이 시간들이 되는 기계를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기계를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는 기계를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는 기계를 하나 하는 기계를 하나 하는 기계를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는 기계를 하나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나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나 하는 기계를 하는 하나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이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나 기계를 하는 하나 기계를 하

- 1981년 산간학교(암벽반) 입교소감 일시: 1981년 10월 1일 ~ 10월 4일

장소: 월출산

선생님들대의 노스에 대한의 관차 합니다.
산을 다닌지반도별로 되지 않아는데 이런게 전배들의
후계로 제가 기렇게 사장 됐습니다 몇분 오시면군때
이 라게 하는데 산에서 원이런 지역 모두 발휘 해서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할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께서는 물을 찾으면 같은데
이십 를 등산에서는 자기동기도 잘 보는
- 레를 보이 시 그러지 않아 쓰너 할 나다
이 한 를 등산에서는 자기동기도 잘 보는
- 레로 구배 에게 발음을리고 이렇게 종기 않는 것
같은데다
- 건강산악 체육대체도 그건에 해우시 빨라나
시 비 님들에게 대한 의
소사 항너다

목포대학교 1년 이병철

God EM असा असी प्रस्त प्रमा प्रभा

에게 우리의 보변명은 CH란히 감사히 여십니다.

서강대학 산악회 1년 정광우

신배님들며의 노고에 대한 최 강사 합니다
산은 다닌지를도벌로 되지 않아는데 이런게 선배들의
추게로 제가 시장게 사장 됐습니다 몇일 있으면 크대
이 강대 화는데 산에서 보이면 지역 모두 발휘 해서
열심히 군대 생활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선배성 제시는 술을 갖으신다
하시가지 끝나지 않아보네 술을 갖으신 할 나다

이란 를 등산이에는 자기동기도 말을 그 일 일 하는데 얼마나 하는데 얼마나 하는데 얼마는 수 바이게 말을 물리고 이렇게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一型文化中、刘安川到了 37日 到中小型之外

선배신들에게 대한 회

송원산악회 2년 윤희관

2. 사단법인 광주 · 전남등산학교

- 1) 광주 · 전남등산학교 사단법인화 추진경과
 - 가) 명칭: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
 - 나) 최초발기인

정득채, 박헌주, 정찬주, 김영필, 박찬호, 정우연, 허환, 윤욱현

다) 법인설립 경과

▶설립 배경 (문제의식)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핵심사업인 '광주·전남등산학교'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정 및 지도자과정을 거친 등산학교 출신 선배 산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대학산악부의 쇠퇴와 함께 강사인력과 수강생의 부족 등 한계에 부딛혀 점차적으로 교세가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등산학교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책임경영을 통하여 등 산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동의자들이 모여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학산연맹 임원 간담회 (2013, 11, 21)

2013.11.21 우리 학산연맹의 현안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여러 안건 중 하나로 등산학교의 법인화를 거론하였고, 법인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참석자: 정득채, 박헌주, 정찬주, 김영필, 박찬호, 정우연, 허환, 윤욱현)

- ●우선 사단법인화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납부하기로 의결하였다.
- ●실무 추진위원에 김영필을 임명하고 행정업무를 위임하였다.
-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설립을 먼저 하고 추후에 학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받 기로 하였다.

▶설립준비 (실무자)모임 (2013, 11, 22)

● 김영필, 정우연, 허환 등은 사업방향 등 장시간 논의하였고, 초기 준비자금 마련을 위하여 임 시계좌를 계설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 행적적으로 이사장이 필요하므로 최초 설립발기인 등과 논의 한 끝에, 임형칠 본 연맹 고문에 게 이사장직을 맡아 봉사해주실 것을 부탁하여 본인 동의를 받았다.

▶창립 발기인총회 (2013, 12, 09)

설립발기인 일동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법인 설립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참석자: 임형질, 정득채, 박헌주, 정찬주, 김영필, 박찬호, 정우연, 허환)

▶법인설립 허가 : 2014. 1. 8 광주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증 교부 받음.

▶법인등기: 2014, 1, 13 광주지방등기국에 법인등기 완료함.

▶고유번호증 교부 : 2014, 1, 16 북광주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

▶CMS 후원 개설 : 광주은행을 통하여 금융거래원에 CMS 개설함.

▶기부금단체 등록 예정 : 추후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단체로 등록할 예정임.

2) 사단법인 광주 · 전남등산학교 설립취지문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이자 '어머니의 산'인 무등산이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였다. 온 국민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경사스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대한민국의 등산인구가 1천만 시대를 열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운동의 대명사가 바로 등산이다. 국민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최고의 레저스포츠임을 잘 알고 있다. 직장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산악회가 없는 곳이 없다. 일상의 생활이되었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자 배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35년 전인 1979년,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선배들은 체계적인 등산교육의 필요성을 선구적으로 자각하고 「성실·인내·안전」이라는 교훈으로〈전남산간학교〉를 창립하였다. 설립이념은「건전한 정신과 굳센 체력을 바탕으로 인내심과 협동정신을 길러 바른 등산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자연을 탐색, 연구, 극복, 보호하며 내 나라를 사랑하는 능력 있는산악인을 양성한다. 는 것이었다.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전남산간학교〉,〈광주등산학교〉,〈광주·전남등산학교〉로 개 칭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봉사와 희생으로 약 3,200여명에 이르는 산악인재를 양성한 공을 인정받아〈대한산악연맹〉에서 수여하는 '2013년 산악대상(교육분야)'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엘리트 산악인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였으나 등산인구의 폭발

적 증가로 일반시민, 청소년 등으로 교육대상을 넓히고자 한다. 이에 행정적, 공익적 필요 성에 따라 이미 35년간 운영되어온 등산학교를 사단법인화하기로 하였다.

본 법인은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부설 교육기관으로서, 35년간 발전시켜 온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등산교육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등산교육 등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대학생·일반시민 등에게 심신수련의 장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치관과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건전하고 진취적인 사회기풍을 진작하여 국가 발전에이바지하고자 한다.

2013, 12, 09

법인설립발기인 일동

- 3) 주요사업 추진 방향
 - 가) 일반시민 등산교실 및 스포츠클라이밍교실
 - 나) 정규 및 지도자 등산교실(정규반,암벽반,동계반) 기존의 광주·전남등산학교
 - 다) 어린이 · 청소년 캠프 및 청소년호연지기센터
 - 라) 공공단체 및 직장 극기훈련
 - 마) 명사(산악인 등)초청 각종 강연회
 - 바) 각종 등산대회 (일반등산대회,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등)
 - 사) 해외트레킹 지원센터 및 해외원정등반
 - 아)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3. 광주 · 전남등산학교 개최 현황

구분	교장	기간	장소	일반 과정	지도자 과정
제1회 하계산간학교	고재기	'79.08.07~08.12	지리산 피아골	79	
제2회 산간학교	최환석	'80.10.01~10.04	월출산	44	
'81 산간학교(동계반)	최환석	'81.01.26~02.01	지리산	20	
'81 하계산간학교	최환석	'81.08.04~08.09	지리산 피아골	111	
'81 산간학교(암벽반)	최환석	'81.10.01~10.04	월출산	38	
'82 산간학교(동계반)	최환석	'82,01,31~02,07	지리산	10	
'82 하계산간학교	임승락	'82,08,05~08,10	월출산	89	
'82 산간학교(암벽반)	임승락	'82.10.01~10.04	월출산	48	
'83 산간학교(동계반)	임승락	'83.01.13~01.24	설악산	23	
'83 하계산간학교	임승락	'83.08.10~08.15	지리산 피아골	97	
'83 산간학교(암벽반)	임승락	'83.10.01~10.04	월출산	54	
'84 산간학교(동계반)	임승락	'84.01.07~01.18	설악산	24	
제6회 등산학교(정규반)	김현곤	'84.08.07~08.12	지리산 피아골	139	
제6회 등산학교(암벽반)	김현곤	'84.09.29~10.01	무등산	34	
제6회 등산학교(동계반)	김현곤	'85.01.15~01.25	한라산	35	
제7회 등산학교(정규.암벽반)	김현곤	'85.08.10~08.16	월출산	37	
제7회 등산학교(동계반)	김현곤	'86.01.15~01.25	설악산	31	
제8회 등산학교(정규반)	정순택	'86,08,14~08,19	지리산 피아골	65	
제8회 등산학교(암벽반)	정순택	'86.10.02~10.05	월출산	75	
제8회 등산학교(동계반)	정순택	'87.01.05~01.11	설악산	39	13
제9회 광주등산학교(정규반)	정순택	'87.08.08~08.14	지리산	48	16
제9회 광주등산학교(암벽반)	정순택	'87.10.01~10.04	월출산	75	26
제9회 광주등산학교(동계반)	정순택	'88.01.07~01.13	설악산	27	13

구분	교장	기간	장소	일반 과정	지도자 과정
제10회 광주등산학교(정규반)	정순택	'88.08.09~08.15	지리산	38	25
제10회 광주등산학교(암벽반)	정순택	'88.09.30~10.03	월출산	58	26
제10회 광주등산학교(동계반)	정순택	'89.01.06~01.11	설악산	37	13
제11회 광주등산학교(정규.암벽반)	정순택	'89.08.07~08.14	월출산	78	17
제11회 광주등산학교(동계반)	정순택	'90.02.07~02.11	지리산	17	9
제12회 광주등산학교(정규반)	정순택	'90.07.14~07.17	담양, 월출산	64	15
제12회 광주등산학교(암벽반)	정순택	'90.10.06~10.09	월출산	55	8
제12회 광주등산학교(동계반)	정순택	'91.01.28~02.02	설악산	41	3
제13회 광주등산학교(정규반)	박명선	'91.08.05~08.11	월출산	36	12
제13회 광주등산학교(암벽반)	박명선	'91.10.02~10.06	월출산	28	14
제13회 광주등산학교(동계반)	박명선	'92.01.06~01.12	설악산	45	12
제14회 광주등산학교(정규반)	박명선	'92.08.08~08.14	월출산	32	9
제14회 광주등산학교(암벽반)	박명선	'92.09.28~10.40	월출산	11	6
제14회 광주등산학교(동계반)	박명선	'93.01.05~01.11	설악산	9	2
제15회 광주등산학교(정규반)	박명선	'93,08,07~08,10	지리산	9	1
제15회 광주등산학교(암벽반)	박명선	'93.10.29~11.03	월출산	47	
제16회 광주등산학교(정규반)	박명선	'94,08,10~08,15	지리산	55	1
제16회 광주등산학교(암벽반)	박명선	'94.09.30~10.03	월출산	51	4
제16회 광주등산학교(동계반)	박명선	'95.01.05~01.12	설악산	35	7
제17회 광주등산학교(정규반)	김상문	'95,08,10~08,15	지리산 피아골	34	12
제17회 광주등산학교(암벽반)	김상문	'95.09.30~10.03	월출산	39	6
제17회 광주등산학교(동계반)	김상문	'96.01.05~01.12	설악산	21	9
제18회 광주등산학교(정규반)	김상문	'96.08.09~08.15	월 출 산	26	7
제18회 광주등산학교(암벽반)	김상문	'96.10.03~10.06	월출산	32	3
제18회 광주등산학교(동계반)	김상문	'97.01.07~01.14	설악산	29	9

구분	교장	기간	장소	일반 과정	지도자 과정
제19회 광주등산학교(정규반)	김재률	'97.08.07~08.11	장성 입암산성	23	
제19회 광주등산학교(암벽반)	김재률	'97.10.02~10.05	월출산	43	10
제19회 광주등산학교(동계반)	김재률	'97.01.07~01.14	설악산	27	10
제20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반)	김재률	'98.07.30~08.03	장성수련원	18	4
제20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암벽반)	위계룡	'98.09.24~09.27	월출산	36	7
제20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김재률	'99.01.04~01.11	설악산	28	7
제2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반)	위계룡	'99.08.14~08.18	월출산	24	8
제2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암벽반)	김하경	'99.10.02~10.10	월출산	35	10
제2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위계룡	'00.01.06~01.13	설악산	35	9
제22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반)	김하경	'00.08.11~08.15	월출산	26	5
제22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암벽반)	위계룡	'00.09.29~10.03	월출산	35	5
제22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김하경	'01.01.30~02.06	설악산	35	5
제23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위계룡	'01.08.09~08.15	월출산	14/10	1/3
제23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전의천	'02.01.13~01.20	설악산	19	7
제24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전의천	'02,08,12~08,18	월출산	17	3
제24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이병철	'03.01.11~01.18	설악산	14	8
제25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이병철	'03.08.09~08.15	월출산	26	4
제25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이정옥	'04.01.04~01.11	설악산	17	3
제26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김인해	'04 <u>.</u> 08 <u>.</u> 16~08 <u>.</u> 22	월출산	23	5
제26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김인해	'05.01.16~01.23	설악산	12	5
제27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이정옥	'05.08.16~08.22	월출산		
제27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임형칠	'06.02.02~02.07	설악산,금강산	11	4
제28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임형칠	'06.08.16~08.22	월 출 산		
제28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김병대	'07.01.14~01.21	설악산	18	3
제29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박상수	'07.08.12~08.15	월출산		

구분	교장	기간	장소	일반 과정	지도자 과정
제29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박상수	'08.01.21~01.27	설악산	14	3
제30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박상수	'08.07.27~08.02	월출산	20/19	4/4
제30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박상수	'09.02.01~02.08	영동빙장, 설악산 7		3
제3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오성개	'09.08.01~08.08	월출산	15	15
제31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오성개	'10.01.25~02.01	영동빙장, 설악산	5	1
제32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오성개	'10.07.24~07.31	월출산	13/10	2/4
제32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오성개	'11.01.18~01.26	한라산	4	1
제33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신욱철	'11.07.27~07.31	월출산	9	11
제33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신욱철	'12,02,02~02,09	한라산	10	1
제34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신욱철	'12,08,02~08,05	월출산	13	
제34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신욱철	'13.01.21~01.26	한라산	9	6
제35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정찬득	'13.07.24~07.28	월출산	18	4
제35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동계반)	정득채	'14.01.19~01.22	설악산 11		3
제36회 광주 · 전남등산학교(정규.암벽반)	김경자	'14.07.23~07.27	전남대, 월출산	29	4

4. 등산학교 수료자 현황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년노	회수 제1회 하계산간학교	일반과정	송원대 조선대 전남대 동강대 조대이공대 전대의대 광주교대 소속불명	윤호근, 명재욱, 임노욱, 유제철, 윤희관 김경자, 이정희, 황일록, 이광우, 김홍섭 김석곤, 조규상, 김문숙, 김진우 송하정, 김영연, 김민희 나귀수, 심용섭 김석채 정재철 김홍선, 김승일, 오준근, 조기종, 전철웅, 오미경 허경숙, 이향윤, 정상래, 전성욱, 유수영, 최인섭 김윤표, 조기석, 김옥임, 정춘순, 김왕근, 오현화 임 갑, 윤남구 이종민, 서기문, 임진용, 채종철, 허준무, 구동주 조언규, 이진행, 조성철, 한경로, 김명진, 송경종 김영선, 곽인주, 김민국, 박종훈, 하광현, 박철주 이종인, 박상석, 정연배, 강세희, 김용훈, 박기화 고재남, 한기철, 최영문, 최치환, 고원태, 이존강
		지도자과정		
1980	제2회 산간학교	일반과정	전남대 동강대 조대이공대 광주교대 서영대 조선대 송원대 전대의대	송진한, 오성개, 유순정, 한석천, 최영수, 김삼룡 김석곤, 조규상, 김문숙, 김진우 오세빈, 송하정, 김영연, 김민희 정성민, 김용규, 이강신, 장욱, 김기열, 김권일 나귀수, 심용섭 정재철, 문영호 고재복, 윤정수, 김영학, 정영준 오태근, 정춘순, 신도근, 손정기, 김경자, 이정희 황일록, 이광우, 김홍섭 임노욱, 윤호근, 유제철, 윤희관 최정원, 방보형, 김석채
		지도자과정		_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산간학교	일반과정		자료없음
1981	(동계반)	지도자과정		_
	하계산간학교	일반과정	목포대 목포과학대 전남대 전대의대 조선대 송원대 서영대 호남대 옥과고교 금파공고 석산고교 광주상고 일반 목포토요산악회 유달산악회	김거봉, 김하송, 김요철, 김태호, 양성종, 고원석, 나평수, 양귀남, 박유경, 안혜숙, 양복금 김진식, 김인해, 박종우, 박희온, 고병준, 장 찬 이연근, 김진우, 박진수, 이복현, 이종찬 박형철, 정종재, 안남규 김홍섭, 문현숙, 김진화, 고광수 윤희관, 조포현, 정병범, 김서형 김영학, 유정훈, 유남석, 정광우, 기연옥, 마애정 양현성, 박정래, 김면수, 이정옥, 남혜영 이상철, 이윤희, 김용석 신성찬, 권병호, 정해운, 윤상기, 박정배, 기영제, 김용주, 강영철, 이남호, 염기수, 강영철, 이영재, 문기원, 문귀남 김판영, 정해문, 신성찬 정재한, 오찬식 김기태, 이광천, 이건호, 양완순 김경식, 김정일, 구윤석, 김구택 정북진, 박재완, 이의길, 김미경, 이창석
		지도자과정		_
	산간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전남대 송원대 조선대치대 조선대 호남대 조선이공대 서영대 광주교대 전대의대 동강대	조규상, 이건훈, 문태철, 김병갑, 김형진 윤희관, 조포현 현용휴, 김기홍, 김우진, 전상섭, 김 운 손정기, 이광수, 김경자, 신욱철, 노광한, 정기춘, 이권일, 김미영 양현성, 김면수, 정민옥 심용석, 정성백 정현석, 정광우 조혜영, 김미숙, 심영애, 박기홍 장영진, 조덕수, 김현태, 허정필, 박창수 최옥주, 이충헌
		지도자과정		_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산간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목포대 금파공고 한바람산악회	김태호, 김요철, 이병철, 양성종 신성찬, 조광석, 정해문, 이남호,염종석, 이민수 김정일, 김경석
		지도자과정		_
1982	하계산간학교	일반과정	목포과학대 전남대 서영대 송원대 광주교대 호남대 조대의대 정광고 금파공고 순천산악회 한바람산악회	김인해, 김병대 김광현, 문태철, 박윤국, 김성조, 이현숙, 정애경 고재연, 김현영 오필규, 기원갑 강명자, 김순희, 장영미, 이정자 김면수, 김상래, 노 섭, 박금나, 박춘선, 채종철 최영화, 오금숙, 김형덕 나복수, 박병관, 장형욱, 신중섭, 지금수 최희선 장원술, 강종유, 최병민 박재형, 이연희, 강옥자, 김재천, 이상곤, 이영호, 제갈둘레 박승현, 강순원, 이애경
		지도자과정		_
	산간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동강대 송원대 전대의대 목포대 전남대 광주교대 목포과학대 조선이공대 호남대 목포대 애산동회 바자울	장진환, 이성만, 유상영 오필규, 박금희 최광호, 권종득, 김태삼, 박성철, 최용훈, 김형주 이병철 정권희, 서옥원, 김영구, 이종호, 박연호, 김병구 정애경 김현익, 김종헌, 최경련, 김영일, 강명자, 이정자 김인해, 고병준, 김병대, 김정원, 오금철 윤섭현, 서재철, 오철순 김상래, 노 섭 김거봉, 이철흥, 양성종 김구택, 윤영근 이병갑, 한민현, 김정일
		지도자과정		_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산간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조선대 호남대 전남대 조선이공대 송원대 목포대	김경자, 김면수, 김병규, 김상래, 김성복, 김제정 김호석, 신도근, 신욱철, 오태근, 채강국 나왕주, 노 섭 문태철, 서옥원, 양일승, 윤성룡, 이종호, 임우근 정권희, 정애경 박종진, 서재철, 윤명석, 윤섭현, 정성백 오필규 김요철, 김흥규, 이병철, 이철흥
		지도자과정		_
1983	하계산간학교	일반과정	조대의대 전남대 조선대 조대치대 호남대 광주교대 조선이공대 송원대 서영대 목포대 광주일고 금파공고 옥과고 인웅산악회 순천산악회	박근용, 강전오, 김용배, 김재삼, 고준성, 박창현 박기정, 조용민 박진영 김기근, 박기환 전상섭, 김현섭, 김언민 김경선, 황 록 이정자, 정소화 김광우 심기수 문인석, 이연주, 장미라 이철흥, 김흥규, 고광조, 박성원, 박희진 이현성, 공성순 차신환, 안인석, 강성곤 허재근, 정동길, 고영주 김교돈 장원진, 최병민, 고재숙
		지도자과정		_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83	사가하고	일반과정	조선이공대 전남대 광주교대 호남대 송원대 조선대 조대의대 전대의대 금파공고 한바람산악회	김창호, 정경희, 윤태영 임현철, 반민환, 한민수, 김용희, 김인숙, 정광희 강혜정, 이순예, 김영재, 윤성룡 김영일, 김시중, 정소화 김경선, 임종완, 배우태, 추윤기, 이재홍, 곽재호 윤수화, 이혜경, 홍창진 오필규, 김은철, 김홍빈, 정남옥, 정앵숙, 김육곤 윤장호, 최홍수, 이순옥, 신 정, 나건용, 김병규 강태용, 김경자 박창현, 김재삼, 최태행, 류화자, 김은영 김재익, 임채민, 곽부상, 홍운기, 오상용, 류성근 정용운, 한승민 조성주, 강성완
		지도자과정		_
1984	산간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서영대 송원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교대	박정호, 이준봉, 이연주 김홍빈, 김은철 정권희, 윤성룡, 이종호, 서옥원, 박진영, 김정환 한민수, 강미라 나건용, 최홍수, 박광균, 이순옥, 오경탁 나왕주, 노 섭, 이재홍, 임종완 김시중
		지도자과정		_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84	제6회 등산학교 (정규반)		목포대 송원대 호남대 조선이공대 조대의대 서영대 조선대 금파공고 남원상 중 일반 애향산악회 지리산악회 조대처대 전남대	차경재, 서규명, 서민희, 문광성, 고원주, 이종식 서규명, 이종식, 고원주, 차경재 김홍빈, 정앵숙 이혜경, 임종완, 피길연, 이재홍, 임종완, 피길연 이점호, 박상채 심영숙, 김창호, 박정수, 장미호, 한영희 김혜숙, 윤용복, 고영환, 임규섭, 고영환, 윤용복 김용석 이준봉, 한대열, 이연주 김명신 김창영, 이용철, 고광채, 서길영 박원창, 이광용, 김석중, 박명호, 임인철, 손성주 박진호, 최문수, 윤희준, 정병현, 신종식, 양성호 한원기, 박재술, 김현환, 한승민, 장윤호, 최영주 오인호, 배세훈, 안인석, 김정호, 박형곤, 김종진 이송섭, 김재영, 신종수, 양기만, 오기석, 진학주, 김영만, 소성호, 이인택, 최동근, 홍인재 허경돈 채희도, 선한승 김기응, 박영봉 이종원, 강만석 여춘희 신용욱, 고승백, 손한신, 정경환, 문혜성 박진영, 반민환, 한민수, 박승식, 서은호, 최경하 박회수, 한옥자, 공화심, 강복희, 배영숙, 오혜란 장영숙
		지도자과정		_
	제6회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순천대 전대의대 조선이공대 서영대 목포해양대 송원대 목포대 광주교대	김동열, 모갑원, 백경식, 국선진, 서영배 이창진, 이정훈, 임준섭, 강성훈 박정수, 장미호, 박형묵, 선영수 이연주, 한대열 최태열, 김태현, 김춘곤, 박병주, 정석훈,송기환 김홍빈, 김인근 서민희 이복남
		지도자과정		_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닌노	제6회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조대의대 전남대 서영대 조선대 목포대 송원대 조선이공대 호남대 광주교대 조대치대 전대의대 일반 담양공고 광주예고	고준성, 임규섭, 고영환, 최태영, 김용석 서은호, 정숭룡 이준봉, 이연주, 한태열 김제정, 서길영, 오경탁 문광성, 차경제, 김태호, 고원주 김홍빈, 김인근 박정수 피길연, 임종완, 박상채 김시중, 강명자, 장영미 신용욱, 문혜성, 정경환, 전상섭 류성근, 이창진 김하용 박영봉 정중여
1005		지도자과정		_
1985	제7회 등산학교 (정규, 암벽반)	일반과정	호남대 광주교대 전대의대 조대치대 목포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전남대 조대의대 남원상고 YMCA 일반	박상채, 윤현승 오여선 김석재, 김수현 최낙찬, 정선균 김재명, 김상준, 김미한 이용철, 김동호, 이병석 김덕중 공화심, 김광미, 전창언, 송해상, 김세현, 백두인 남석우, 최행준 고영환, 조민자, 김영숙, 박중채, 김중형, 최선진 반금진, 정혜경, 양원호 홍인재, 양원용, 김영만 김백억, 박형선 문채일
		지도자과정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제7회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호남대 조선이공대 서영대 송원대 목포대 전남대 조선대 조대의대 제주대 목포과학대 조대치대	박상채, 이점호, 윤현승 장현필, 최병길, 유백환, 정득채 황인천 김선미, 김재명 손완승, 최행준, 조기성, 백두인, 김양성 나상훈, 이용철, 정용철, 이병석, 조현동, 유미정 김용석, 박중채, 정혜경 김병준, 김용호, 서동춘 박종우, 김인해 문혜선, 고승백
		지도자과정		
1986	제8회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전남대 조선대 조대치대 목포대 호남대 산천대 서영대 목포과학대 광주보건대 송원대 중앙여고 강진종고 호남원예고 청년Y산악 일반 푸른숲산악회	백두인, 조기성, 김광미, 백복순, 서만석, 권경희 김길봉, 김호근, 권성구 김동호, 박동호, 고광조, 정 건, 나상현, 정찬주, 전재현 오주안, 정원중, 김선국, 정용희 김상준, 김광곤, 이승희, 나해영, 정미아, 장미순 김우현, 조중해 김호중 서종철 정득채, 라관주, 박선홍, 김애란, 김수영 현정란, 김종우 장필선, 강동원 박동환, 신용인 정성인, 박민화, 박형순, 박영미 신용석 김찬수 안준태, 오창호, 임한용 김두만, 박경희, 김경숙, 김정원, 나광엽, 고재천 송태익, 이문범, 김상평, 염장렬
		지도자과정		_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86	제8회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목포대 순천대 조대의대 전남대 광주보건대 서영대 호남대 광주교대 동강대 조대치대 조선이공대 목포과학대 전대의대 목포해양대 송원대 송원대 송원대 송원대 송원대 일반	김광곤, 이은주, 이정남, 나해영, 김병희, 박학균 이창형, 이성주 서종철, 김양수, 강현진 박중채, 김영완, 정혜경, 전미선 조기성, 서만석, 김민철, 김용욱, 차 운, 박헌주, 임정우 강동원, 전상현, 김홍주, 장필선 정득채, 김해곤, 나관주 조경숙, 김호중, 황승연 정월선, 이재운, 송춘달, 정성훈, 옥윤옥, 조미숙 이영만, 민성자, 조선주, 윤재종 정원중 김종식, 장현필, 김용선, 박영묵, 이창환, 감동봉 현정란, 정수미, 임경숙, 김진희, 위 성, 김백일, 김종우 심재진, 손영남, 송제헌, 박원규, 김수현, 양수정 김창준, 김중엽 박동환, 김종학 안두환, 송행수, 전재현, 정 건, 장성복, 최양규 김두만
		지도자과정		_
	제8회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전남대 서영대 조선대 목포대 목포과학대	한규성, 박헌주, 김길봉, 조양택, 김수근, 차 운, 권경희 김해곤 박동호 이창형 황재삼
		지도자과정	전남대	백두인, 최행준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산 5개 나는 위**성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87	제9회 전남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전남대 호남대 목포대 순천대 광주교대 조대의대 조대기대 광주보건대 서영대 목포과학대 순천제일대 조대부고 전남공고 중앙여고 목포유달산악회 일반	조양택, 김일섭, 이태기, 이완선, 송지용, 김수근 이광복, 박진호, 홍명국, 송여진, 박선철, 정정조 김난식 박성우, 임미라, 전동균 이정남, 김현석, 박진숙, 나철운 송원주 정성훈, 박지은, 이명자, 황경미 홍민석, 정병준, 전미선 최성욱 박철주, 조애임, 강만원 안성원, 주선미 나미영 주춘호 김종규 정귀섭 심재순, 박영미, 김성희, 이선미 이명희, 김현주 노영희, 한내희, 임 권
		지도자과정	서영대 일반	나관주 이종원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87	제9회 전남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목포대 조대의대 전대치대 호남대 조선대 소천대 조선이공대학 송원대 광주교대 순천제일대 전대의대 목포과학대 서영대 전남대 유달산악회 바자울 푸른숲산악회 일반 대우전자산악회	박성언, 김현석 김종형, 박답진, 김영완, 정병준, 김수경 이완선, 홍명국, 김용우, 김하익 박성우, 박춘원, 전동균, 황승연 장성복, 박동호, 이종원, 위승찬, 김재철, 송미선, 장영호, 이재홍, 오수용 최기열, 황정미, 박양순, 오선미, 송원주, 김춘삼 박지원, 송홍순, 장홍수, 서봉자 신용인, 김현주, 고제상 허 진, 이명자, 정성훈 주춘호, 서홍원, 김영민, 조민철 최낙선, 이내섭 나미영, 최 호, 황재삼 주선미, 주현희, 장운이, 우정숙 김수근, 권경희, 김호근, 곽현수, 김난식, 박선철, 송여진, 정미정, 구장호 이명희 정귀섭 염장열 최수경 임 권, 이행준, 강정균, 홍종민, 성복현, 조영두
		지도자과정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조대의대 광주교대 서영대 조선이공대 조선대	김용욱 나해영, 이철홍 김동렬 박중채, 고영환 이재운 이연주, 정득채, 김해곤, 정광우 원규식, 윤섭현, 최규환 신욱철, 김병규, 조상일, 이용철, 정건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88	제9회 전남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전남대 광주교대 서영대 송원대 조선이공대 전대치대 바자울 대우전자산악회 제주도 일반	김난식, 송여진, 박선철 이재운, 정성훈 안성원 고제상, 김현주, 김옥신, 홍동식, 신용인 장창수, 박지원, 이경환 이완선, 김연환, 송지용, 정정조 김종규 강정균, 임 권 양영수, 진성종, 김영균, 임창현 최병우, 염장렬, 김경선
		지도자과정	전남대 조선대 서영대 송원대	최행준, 김수근 박기환, 신욱철, 윤장호 정득채 윤호근, 정찬득, 김홍빈, 김은철
	제10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 송원대 일반	고일주, 신용기, 최국진, 이종환, 한오성, 윤명숙 송원주, 박현재, 강경아 윤경숙, 오종갑, 정상무, 김흥규 이재현, 김해주, 윤종호, 신병철 오정현, 주인성 임 진, 이헌창, 서용군 윤호준 박홍수, 소정희, 김현정, 성복현, 정수현, 조경미 김정희, 정남희, 백성렬, 허 진, 이현석
		지도자과정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88	제10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목포대 서영대 순천대 조선대 목포해양대 광주교대 조선이공대 송원대 전남대 전대의대 일반 조대의대 일반 조대의대 일반 조대의대 호남대	김현석, 박도영, 박진숙, 윤경숙, 김태기, 오종갑 진상수, 김승룡 강동수, 조정옥, 강경아, 김은숙, 김춘삼 오수용, 장영호, 이재인, 정진호, 윤종호, 박석현, 위승찬 주인성 임종택, 박동군, 이우홍, 박경민 정성훈, 허 진, 이현석, 박대성 정성현, 이 연, 노형진, 문종국 홍동식, 윤호준 김영필, 고일주, 문귀현 김정민, 김병룡, 박은주, 심야성 박흥수, 이장순, 조경미, 배봉수, 김경원 김현정 김현성, 김찬상, 임희택, 박형직, 김남형, 김금옥 이재홍, 이점호, 박성우, 임재만, 박재필, 김 률
		지도자과정	목포대	이철흥, 박진석, 박희진, 이종식, 고원주
1989	제10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목포대 일반 송원대 서영대 광주교대 조선이공대 순천대 조선대 전대여수캠퍼스 일반 조대의대	박도영, 김태기, 이병규 이종승 윤호준 진상수, 김강영, 장문영 정성훈, 이현석 박재필, 임재만 정성현, 이 연, 문종국, 송홍순, 노광기, 최병연 서영배, 송원주, 강동수, 박현재, 조정우, 김춘삼, 송원주 오수용, 위승찬, 이명노, 윤종호, 이재운 홍성진, 정길룡 박정희 김금옥, 박당진, 김현성
		지도자과정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년도	외수 제11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 암벽반)	일반과정	목포대 순천대 광주교대 조대치대 호남대 전남대 목포과학대 송원대 서영대 동강대 순천제일대 청암대 광주보건대 적십자 중앙여고 광덕고 정광고	허금옥, 박극민, 장민오, 추은정, 홍 정, 이병규, 문광성, 이종식 서영배, 박현재, 조정우, 정지숙, 이정현, 김회원, 오철식 박대성, 조성일, 김미선 신흥식, 노기문 임재만, 김종필 이경석, 고일주, 김선주 임찬수, 김헌철 정우연 진상수, 안태영, 김애란 문준오, 황은하, 장혁수, 최병완, 박인철 변성호 김현정, 류은정, 전순옥 정정애 김윤만, 한영일 손복실, 김정아 허시봉, 이영성, 문형관 박주상, 박주한
		지도자과정	일반 송원대 목포대	김운희, 한형석, 문숙 자, 오광영 윤호준 오종갑
1990	제11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조선대 목포대 서영대 일반 전남대 조선대 전대여수캠퍼스 순천제일대 광주보건대 조선대 서영대 목포과학대 송원대 조선이공대	이명노, 이재운, 정용철 이병규, 허금옥, 장민호, 임성준 이연주, 고재연, 이준봉, 나관주 이병우 김인주 김병규 정명식, 김재식, 박병준, 장준영 변성호 정정애 최종태 안태영, 한건순 김인웅, 임찬수 정우연
-		지도자과정	조선대	정용철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90	제12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서영대 순천대 조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목포과학대 순천제일대 청암대 전대여수캠퍼스 광주보건대 동강대 송원대 광주보건대 송원대 광주보건대 송원대 강대 상악의 기소난악회 기소난악회 의 일반	허 환, 조정권 강동수, 김희원, 이정현, 최전식, 박현화, 박종범이재윤 신 창, 황인선, 이병규 박찬호, 정순일, 소병용 박찬희, 황재삼 문형근, 김정한, 김정숙, 손선자, 장향숙신애라. 최은경김성진, 박병준, 김영석, 장진서영희, 이은희, 김민정, 정정애박인철, 서신종, 김복순, 신경원장희웅, 임시환, 오형욱, 김준탁, 정금이, 홍수미박연정, 최영숙조성일, 김미선, 조성부, 임희남윤옥, 유창균, 심숙자하성영, 안호걸, 박미라조정권, 박미정, 홍기숙구진숙, 최영국신창수, 구명환, 임신자, 임대원, 박해진, 박정애, 고영국
		지도자과정	목포대 서영대 목포과학대 송원대 조선이공대 광주교대	허금옥 나관주, 정득채, 안태형 임찬우 김종학, 정우연 김주형 김시중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90	제12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전남대 호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조대의대 전대의대 동강대 송원대 서영대 목포과학대 조선이공대 광주보건대 전대여수캠퍼스 Y 산악회 모듬산악회 일반	김지형, 문성근, 김현성, 이 현, 고경아, 최지환, 조경기, 유명희, 임철환 정차균, 최기춘 최종태, 장란영, 박정완, 윤장석 신 권 오옥현 정홍배, 배윤오, 주 신, 김현정, 조미경, 조미정 장창용, 송상국, 김상덕 김혜정, 김복순, 윤희영 장희웅, 오형욱, 김준탁, 장병호 허 환 김인웅 한승룡, 윤중현, 서경부 김민정, 서영희 장 진, 현경환, 박병준 문대영, 한영숙, 배경란, 구진숙, 이종곤 심숙자, 서영주, 남윤옥 선민정, 임정수, 박미라, 이영돈, 신창수, 서문경
		지도자과정	송원대 동강대 순천대 조선이공대	김종학, 정우연 박인철 오철식, 강동수 노형진
1991	제12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순천대 조선이공대 조대치대 송원대 광주보건대 조대의대 호남대 조선대 서영대 전남대 수천대 목포대 목포과학대 전대여수캠퍼스 일반	강동수, 정지숙 정제호, 한승룡, 윤중현 최완기, 오종화, 신흥식, 노기문, 김종욱, 이병욱 장병호, 홍수미, 장희웅, 김준탁 서영희, 정민정 주신, 조미정, 김현정, 배윤오, 조미경 윤인숙 신광철 허 환 서만석, 이광복, 신기호, 조경기 오철식, 김희원 신 권 오종락 김영석, 장진, 박기호 형경환, 추화 박미라, 김두만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91	제12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지도자과정	조대의대 송원대 서영대	김현성 정우연 안태영
	제13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광주보건대 목포대 전남대 조선대 서영대 송원대 유달산악회 일반	정회갑, 박이수 이지지 김현성, 조경기, 류호성 김용길, 정현수, 손경춘, 오영선, 박수현 염영미, 유은선, 유순옥, 윤혜연 장병호, 문기갑, 김경희, 이정아, 이상진, 장현성 조경미, 신복남, 문옥경 임채운, 신성욱, 김애정, 오미순 박건구, 홍 정, 고재인
		지도자과정	광주보건대 목포대 전남대 조선대 서영대 송원대	김민정 신 권 이광복, 박헌주, 류명희 장란영, 장영호, 이명노 허 환 장희웅, 홍수미, 김준탁
	제13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동강대 호남대 전대여수캠퍼스 순천제일대 순천대 전대의대 목포해양대 목포과학대 조선이공대 서영대 송원대 전남대 목포대 조선대 광주교대 석곡중학교 일반	송수영, 박승현, 이심오, 신원선 윤인숙, 홍기숙 김영석, 오영철, 김기영 김민호 최전식, 김귀진, 신보우 박상운, 박준형 장형주, 이종산, 김시영 유세진, 오정욱, 권용수, 홍영교 정제호, 임경엽, 이현자 염영미, 윤혜연, 유순옥, 유은선 문기갑, 장현정, 조경미 임준철, 김수영 박은진, 이정기 김재중 이성재 이진영, 김진영, 최현길, 최종성, 김현식 박건구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91	제13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지도자과정	순천대 전남대 목포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광주보건대 서영대 송원대	이정현 이광복, 김지형 신 권 정찬주, 장란영, 장성복 장홍수, 박지원, 한승룡 서영희, 김민정 허 환 장병호, 김준탁
1992	제13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목포대 동강대 목포해양대 전남대 광주교대 전대여수캠퍼스 순천대 조선대 서영대 조선이공대 송원대 적십자 순천상고 일반	박은진, 문종호, 박성삼 송수영, 박미례 박찬호, 김시영 류호성, 임준철, 김지형, 정만철, 류명희, 박태준 김정국, 김수영 이성재, 허 진 이창현 이정현, 최전식, 신보우, 김귀진, 양영준 장도순, 김재중, 손경춘 윤순옥, 윤혜연, 염영미 한승룡, 임경엽, 한상규, 이현자 조경미, 장현정, 문옥경, 신복남 추순철, 한영일 박선호 서종권, 이정식, 김백억, 유영미, 정 옥, 정회갑, 박건구
		지도자과정	목포대 전남대 호남대 전대여수캠퍼스 조선대 조선이공대 서영대 송원대	신권 조경기 윤인숙 김영석 오재하 문종국 허 환, 김승용 장병호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제14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자료없음
		지도자과정	일반 호남대 송원대 목포대 서영대 조선대	고재인 윤인숙 문기갑, 장현정, 문옥경 오종갑 유순옥, 염영미 손경춘
1992	제14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서영대 조선이공대 송원대 호남대 동신대 동강대 목포대 광주보건대 전대의대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소천대 소천대 소천대 소천대 소천대 소천대 소천대 소천대 소천대 소천	황의갑, 박병선 정광재, 박상민, 조평익 정필섭, 정선미, 김영태, 양치영, 박대식 김종석, 우기정 박은주 박헌욱 김은양, 이은하, 정희숙 이춘화, 정선희, 김창모 양홍식 강성곤, 송여진, 이동경, 신윤자, 이현조 송상현 윤순주 박금숙 장준영, 박건률 허진감 박건구, 박영한
		지도자과정	조선이공대 송원대 순천대 호남대 동강대 서영대 전남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임경엽 문기갑, 장현정, 김귀진 윤인숙 이심오 김강영, 김승용 문귀현, 고일주 유세진, 홍영교 박은진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회수 제14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동신대 서영대 송원대 조선이공대 호남대 조선대 광주보건대 광주대 전대여수캠피스 청암대 전남대 목포해양대 일반	우기정, 김종석 황의갑, 신화춘 문기갑, 조평익 박상민 진동균, 최기춘 윤순주, 김용진, 이종아 김은양, 김헌수 양홍식, 윤영술, 김종률 추은경, 박상훈, 박원호 서봉선, 박근숙 문준연 윤승렬 최한기
1993		지도자과정	순천대 송원대 전남대 전대여 수캠 퍼스	김귀진 장현정 문귀현, 고일주 박병준, 박기호
	제15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전남대 조선이공대 조선대 유달산악회 동신대 광주보건대 광주대 목포해양대 목포대	김창한, 김 현, 목문성, 임해중, 원정일 송청근 이종아, 윤순주, 최 훈 박재완, 김명준 노인호 김정님, 김지현, 박용호 김범재, 조희창, 박성범, 광정식, 한동철, 박노안, 박정양, 추상민, 서상옥 이종식, 하영태, 박상숙, 김금숙, 염지연, 김용재, 김신안
		지도자과정	조선이공대 동신대	박상민 김종석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제15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목포해양대 목포대 청암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조선이공대 서영대 송원대 목포대 조선대 전남대	허진감, 이대병, 최정훈, 하영태 박상숙, 김금숙, 김용재 서봉선, 오미정, 임선주, 김정인 오철식, 방남호 최행동, 조영란, 김지연 박상민, 송청근 윤점곤 오형욱 이홍헌 김해주, 유병원 김창한, 류명희, 임해중, 박근영
		지도자과정		
1994	제16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송원대 서영대 Y 산악회 목포과학대 조대치대 목포YMCA 조선이공대 전남대 순천제일대 순천대 청암대 광주보건대 일반	김태종, 김정남 백필송, 김미곤, 박윤미, 박순심, 임형선 문명희, 변재공 문 호, 권혜민, 김미자, 김강필 이병욱, 김명빈, 한상권, 이재국, 박은정 황정원, 김경완, 문은희 강성진, 서경부, 김대현, 조인성, 박철준, 김수희, 김혜영 박태준, 한창균, 정만철 최행동, 조영란, 정인자, 박삼기, 김지연 진상건, 주우평, 김용재, 김종광 전양숙, 오미정, 임선주, 최영미, 정순미, 김기선, 박근숙 김기석, 문종률, 고선화, 기 진 류문수, 이영민, 박건홍, 박정욱, 박건구
		지도자과정	송원대 조선대	오형욱 신광철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94	제16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광주대 목포과학대 조선이공 동신대 일반 조대의대 조대치대 세한대 동신대 소천제일대 전남대 청암대 목포대 서영대 목포대 서영대 목포해양대 숙천대 독자대의대 목포해양대 동강대 등강대 등강대 등당하여고	박만철, 박동주, 곽명옥, 나명수 김미자 송형근, 김종규, 박철준, 김대현 정종북, 박신귀 류문수, 김경완, 최성희, 최용호, 김찬희, 이도형, 문준선 한정일 김종욱, 한상권 신동환 박상율 이종아, 강연숙 조영란, 정민자, 박상기, 이진우 박근영, 한창균, 진용훈 오미정, 김기선, 장현경, 이신영, 최영미, 정순미 김남일, 김이조 임형선, 백필승, 박순실, 박윤미 정순만, 곽예진, 한경희, 임종주 홍경수 김종광, 고명심, 조소영 이미숙, 서민정, 배시용 배시용, 송희중, 정경철, 이범준
		지도자과정	광주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양홍식 이홍헌 김용재
1995	제16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목포과학대 광주대 조선대 목포대 조대의대 송원대 목포해양대 조선이공대 전남대 청암대 동서울대 순천대 일반	김강필, 김미자 박동주 정은님, 강연숙, 고재춘, 배종민 김신안, 김남일, 이재훈 한정일, 정연화 김정남 박춘성, 홍경수, 양지춘 송형근, 박철준, 조인성, 김대현, 김수희, 김혜영 김현성, 최지환, 천옥랑, 진용훈, 한창균 정순미, 최영미 전영석, 양병진 진상건, 주우평, 김종광, 진선의 박순정, 황정원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제16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지도자과정	광주대 조선대 송원대 순천제일대	양홍식 신광철 오형욱, 장희웅 최행동
1995	제17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조선이공대 전남대 청암대 모듬산악회 광주YMCA 목포과학대 송원대 광주대 순천제일대 광주교대 동강대 조선대 서남대 순천대 목포YMCA 일반	안성표, 임흥관 진용훈, 이수연 이은정, 정희순, 김 수, 윤형섭 유진호, 조경숙 양승현 임천익 임 철 박은령, 구경희 장옥수, 배윤희 정태훈, 박군방, 노경헌, 성창근 김찬희, 윤소영 강연숙, 고재춘 정승호 진선의, 주경삼, 홍정식, 강구언 이광훈, 문자연, 이춘자, 박수량, 손애란 이재국, 정승창
		지도자과정	조선이공대 전남대 청암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순천대	김대현, 조인성, 김혜영 오장민 정순미, 최영미 박순실, 임형선 정인자 김종관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95	제17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조선이공대 광주교대 전대의대 전남대 목포해양대 광주대 순천제일대 청암대 순천대 서영대 목포과학대 일반	김혜영, 조인성, 안성표, 임홍관, 이경주 성창근, 박군방 김명숙 진용훈, 천옥랑, 박아미, 김연정, 김현준, 김성석, 방경환, 임도균 김상근, 김원종, 윤경준, 오정섭 김종률 배윤희, 장옥수 김 수, 이은정, 정희순 진선의, 위혜진, 홍정식, 주경삼 김은하, 윤정곤 김승민, 임천익 김치복, 정승창, 윤영창, 이춘자, 고은아, 김양구 윤용동, 장인수
		지도자과정	조선이공대 전남대 청암대 서영대 순천대	김종규 이현조 최영미 박순실 최전식
1996	제17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동강대 서영대 전남대 목포대 순천제일대 청암대 목포과학대 목포해양대 일반	김찬희 김은하 오장민, 김성석, 이형관, 노원기, 방경환, 함경준, 김연정 이용부 장옥수 김 수, 정희순 김승민 김원종, 윤경준, 김상근, 오정섭 배훈희, 이춘자, 정승창
		지도자과정	조선대 조선이공대 동강대 전남대 목포대 청암대 서영대	김재중, 강연숙 서경부, 조인성 서신종 진용훈, 이현조 이재훈 최영미 윤정곤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제18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동신대 동강대 광주보건대 서영대 송원대 순천대 청암대 순천제일대 조선이공대 일반	김선화 김경화, 기은희 배우심, 김사라, 장영섭, 최지영, 최경화 김은하, 김수향, 이재희 이봉태, 홍계수 방남호, 양순화, 김주연, 박원표 강윤숙 정진아, 조현정, 김평윤 강용구, 박경원, 여인서 이경용, 김윤덕, 김민숙
		지도자과정	동신대 동강대 청암대 순천제일대	우기정 김찬희 김 수, 윤형섭, 정희순 정옥수, 배윤희
1996	제18회 광주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광주대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광주보건대 서영대 송원대 순천대 청암대 순천제일대 전남대 전대의대 조선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일반	강해준, 임선영, 이수정 조현옥, 장지웅 박현수 이병건, 서민수, 송광호 배우심, 장영섭, 최경화, 최지영 김수향 이봉태 이한재, 박원표 윤형섭, 정옥선, 강윤숙, 고현화, 박정아 김평윤 노원기, 함경준, 정종천, 임병한, 이지연 윤현식, 박지노 오영선, 박용규 최효성, 신은지, 김영순, 한재필 강용구, 박경원 오용교, 신승호, 조원선, 윤성재, 김재각, 김민숙 김연곤, 전대근, 박현숙, 임수정
		지도자과정	광주대 동신대 서영대 송원대 청암대 순천제일대 전남대 조선이공대	김종률 우기정 김미곤 조평익 김 수 배윤희 김연정 안성표, 이경주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97	제18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광주대 동신대 동강대 목포해양대 광주보건대 송원대 서영대 순천대 순천대 전대여수캠퍼스 조선이공대 조대의대 조선대 전남대 일반	박은영, 강해준 김선화, 이숭룡, 조현옥 고광영 송광호, 서민수, 이병건 김사라, 최지영 이봉태 김미곤, 이재희 박원표 배윤희 장현경, 정옥선, 강윤숙 노일현, 최기재 안성표, 강용구, 박경원 신은지, 김영순 박용규, 김석곤, 심선임 김현준
		지도자과정	광주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제일대 청암대 조선대 전남대	윤영술, 김종률 우기정 오정섭 장옥수 김 수 손경춘 오장민, 김성석
	제19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전남대 조선대 제주 유달산악회 일반	박근영, 천옥랑, 김연정, 박수정, 오윤미, 고수형 주 리 김희철, 변성범, 강철수, 박현주, 고은정 김 정, 이재동, 임태균, 고경석, 백현규, 박혜경 박건홍, 김태근, 임중근, 이만례, 김정연
		지도자과정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회수 제19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동신대 광주교대 목포해양대 전남대 목포대 제주대 조선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목포Y산악회 광주매일 유달산악회 창평고 일반	이시례 송민정, 나판수, 박펄 김호근, 신진희, 조정익, 황대근 김경호, 오윤미, 박수정, 심동현, 고수형, 김선영 김희정, 이명희, 김경화, 지여정, 이은주, 정용기 강철수, 오은숙 주리 김종기, 이향란 박상훈, 서영민, 김동원 류승현, 박경빈, 김현철 박수량, 이만례, 박인숙, 김정연, 이대규 이재동, 백현규, 천명의, 박혜경 조인 박건홍, 임중근
		지도자과정	동신대 목포해양대 전남대 목포대 조대의대 순천대 조선이공대	조현옥, 장지웅 이병진 박근영, 김연정 박현수 신은지, 한재필 박원표 박경원
1998	제19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순천제일대 조대의대 조선대 전대여수캠퍼스 전남대 광주교대 조선이공대 목포Y산악회 목포해양대	김문정 한재필, 이향란, 최지원, 박지운 주 리, 조민재 윤형섭 김태용, 황재웅, 이상법 김현준, 심동현, 오윤미, 박수정, 고수형 박철 장지웅 박경빈, 김현철, 김천 이만례 배미영, 김호곤, 신진희, 황대근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제19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지도자과정	조대의대 조선대 전대여수캠퍼스 송원대 조선이공대 목포대 전남대 순천대	신은지 장도순 최기재 김정남 박경원 김남일 한창균, 김연정 진상건, 박원표
	제20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보건대 서영대 송원대 조선이공대 순천제일대 일반 청암대 전남대	류주숙, 박세은 박미라 박상석 김 천 김문정 김제은, 마광식 장선주 안선희, 김재우
		지도자과정	순천대 전남대	진상건, 주우평 한창균, 김현준
1998	제20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여수대 목포대 서영대 목포해양대 조대의대 동신대 보건대 조선대 순천제일대 순천대 목포Y 전대의대 전남대	김태용, 조동현, 이정화 양현욱, 김기호, 이원희, 김영숙 반창윤, 민영기, 오성희, 박미라 최두진, 정수동, 김성덕, 최선경 김경삼 조 유 이형구, 정은선, 박수아, 고승연, 류주숙, 명경미 서상진 안치호 나후영, 한정덕 신봉철 조승현, 이유진, 김관식, 이용선 김재우, 안선희
		지도자과정	목포대 목포해양대 보건대 조선이공대 순천대 목포유달 전대의대 전남대	김희정 김호곤, 조정익 배우심 조인성 주우평 문용옥 진은주 한창균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제20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보건대 조선이공대 조선대 조대의대 전남대 순천제일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수천대 광주교대 목포과학대 일반	류주숙, 박수하, 이형구 김진복 서상진 김경삼, 김권곤 임도균, 김경호, 김재우, 안선희 안치호, 김형석, 박상희, 김평윤 김기호, 박헌수, 김희정 최두진, 정수동, 조정익 나후영 문웅규, 조성훈 김동주, 박현희 신상열, 최영미
1999		지도자과정	조선이공대 광주교대 조대의대 전남대 목포해양대 목포Y산악회	주수환 박 철 박거운 이형관 배미영 이만례
	제21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조선이공대 목포대 전남대 광주보건대 서영대 광주교대 송원대 순천대 목포YMCA 유달산악회 하늘벽산악회	김진복 임조숙 전현주, 황현숙, 윤승희 류주숙, 박세은, 손효주 박미라, 이태문 조정심, 손현경, 김세나, 조성훈, 문웅규 박상석 박대현, 송현석 김백남, 김후언, 백현자, 김진아 김현숙 김남중
		지도자과정	순천제일대 목포대 전남대 순천대 청암대	김평윤 이용부 이형관, 함경준, 김재우, 안선희 주경삼, 장선주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1999	제21회	일반과정	조선이공대 동신대 전남대 광주교대 목포대 순천대 조선대 광주보건대 조대의대 목포해양대 영암고 일반 목포 Y산악회 목포사해안산악회	김병률, 김진복 최철호, 유옥현 윤승희, 전현주, 황현숙 조정심, 박주연 이광진, 윤일환, 이경현 송현석, 박대현, 정미애 이승환 김경임, 송희숙, 박은주 김권곤 문태식, 이종재 전득열 최동식, 이주미 김진아, 권진산, 김후언, 김백남, 박정운 심우엽, 이준종
		지도자과정	동신대 전남대 광주교대 목포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광주보건대 조대의대 목포해양대 목포YMCA	박신귀 함경준, 안선희 박군방 이용부, 김영숙 김종광, 이한재 안치호, 김평윤 류주숙 김경삼 최두진, 김성덕 김재각
2000	제21회 광주 등산학교	일반과정	전남대 제주	황현숙 송영학
	(동계반)	지도자과정	순천제일대	김평윤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제22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광주교대 조선이공대 서영대 광주보건대 순천대 전남대 광주대 순천제일대 동신대 일반	이상윤, 박주연, 김도윤, 이지영 박인배 김계덕 채영석 백송희, 정미애, 홍근진 서세희, 김연주, 박지순 윤욱현 박상훈, 이양기, 전영식 이승용 김한용, 박영일, 전정식, 오백곤, 김성곤, 박철수, 신혜경, 이철희, 박준규, 김현정
2000		지도자과정	순천대 목포대 순천제일대	이한재 박현수 안치호
	제22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일반 순천제일대 조선대 전남대 광주교대 순천대	정병희, 박경수, 강석후, 김형찬, 정홍명, 김현택 박승종, 이정우, 전영식, 양영미, 심한이, 마수광, 우승수 이경숙, 이승현, 박지순, 김연주 하은경, 김창래, 이영규, 이지영, 김도윤, 이양기, 정미애 홍근진, 장근택, 정부일, 최창준, 정소리, 송은정, 오진숙 백송희, 김한용, 김민국, 최혜자
		지도자과정	조선이공대 순천제일대	이한재, 송희숙, 문태식, 이종재 류승현, 이경현 박상훈, 김동원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제22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광주대 보건대 순천제일대 서영대 순천대 전대의대 목포대 전남대 조선이공대 목포해양대 조선대	정소연 채영석, 김형식 박상훈, 심한이, 전영식, 이양기 김계덕, 김선영 정미애, 홍근진 박도회, 정홍명 이경현 박창곤, 한성필, 정종천, 김연주 류승현 김재각, 김성덕, 문태식, 박경두, 정병희, 강석후 마수광, 우승수, 박찬석, 이승현, 정자은, 송진숙 황금자, 김희정, 장윤희
2001		지도자과정	보건대 순천대 목포대 전남대 목포해양대	송희숙 이한재 박현수 임도균 정수동
	제23회 광주 등산학교	일반과정	목포해양대 서영대	박경두 이현영
	(정규반)	지도자과정		
	제23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서영대 조선이공대 일반	손진 박경빈, 조영준 임석규
	(D¬L)	지도자과정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2002	^{외구} 제23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전남대 목포대 광주대 조선대 순천제일대 조선이공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조대치대 일반 중고생	박지순 정소리, 정선화 양동수 곽종인, 이춘길 박충렬 조영준 이상현 양인복 한동희 김수영, 박준규 황두남, 류상희, 류우현, 박광평, 이샛별, 류아라,
		지도자과정	목포해양대 순천대 조선대 목포대 전남대	김석후 정매애 서상진, 조민재 정웅기 한성필, 김경호, 정종천
	제24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 암벽반)	일반과정	광주보건대 금릉산악회 일반 목포한솔산악회 광주대 조선이공대	이정경, 김수양, 윤이경, 임선미 강승석, 김상은, 윤은경, 신유빈, 이의송, 양일석 오옥현 조병환 류승현
		지도자과정	송원대	박상석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제24회 광주 등산학교	일반과정	일반 전남대 조선대	오옥현 김가영 김리아
	(동계반)	지도자과정	목포대	정선화
2003	제25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 암벽반)	일반과정	광주대 조대의대 전남대 목포대 예당고 강남여고 충장중 중앙초 일반	김인영, 송향미 이석재 손용주, 임성근, 이슬기, 정효준, 이선진 정대웅, 정광석 김남희, 김상미 이대희 류상희 류비 이상희
		지도자과정	조대의대 목포대 광주보건대 청암대 순천대	이재광 김소희 김수양 박충렬 박대현
2004	제25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광주대 순천대 강남여고 광주교대 조대의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이공대 전남대 목포대 광주보건대	이윤제, 김인영 손은경 이대희 유동춘, 가영구 최태진 양성한, 정화성, 양은정 박대용 임성근 김소희, 정대웅, 정광석 배정아, 장성민
		지도자과정	조선대 전남대	이승환, 장정규 김가영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2004	제26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조대의대 전남대 조선대 광주보건대 순천대 예당고 초,중생 일반	최태진 김가영, 정선영, 이연희 최민호 김대성, 이승재, 홍경석 이아름, 김경은, 박태욱 이용범, 김유리, 주은화 김명준, 이원행, 양호승, 이정행 강인선
		지도자과정	조선대 순천대 전남대	마수광, 장정규 홍근진 임성근, 이재국
	제26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광주보건대 순천대 광주교대 전남대 조선대 예당고 초중교 일반	김선희, 김대성, 이승재, 홍경석 손은경, 김경은, 이아름, 박태옥 신재우, 신아람 정선영, 이재국 최민호 이용범, 김유리, 주은화 이원행, 양호승, 이정행 강인선
		지도자과정	조선대 순천대 전남대 목포대 광주보건대	마수광, 장정규 홍근진 김가영 정대웅 배정아
2005	제26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순천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목포해양대 광주교대 미상 전남대	이아름 장정규 조영준 박상현 신아람 심우혁 이재국, 정선영
		지도자과정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2005	제27회 광주 등산학교	일반과정	순천대 초중교	손은경, 윤보람, 서미영, 이지수, 김호철 박천식, 박세훈
	(정규반)	지도자과정	전남대 조선대	이재국, 정선영 최민호
	제27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여수대 전남대 조대의대 조선대 광주교대 순천대 초중교	최윤성, 김지영 황우리 최태진 양성한 송이정, 이안나 윤보람, 서미영, 김호필, 이지수 박천식, 박세훈
		지도자과정	조선이공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조영준 손은경 이재국, 정선영 최민호
	제27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목포대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서광중	곽효정, 김나영, 김현주 손용주 고관섭 오미혜 정성호
2006		지도자과정	순천대 전남대	양인복, 이아름 이재국, 정선영
2006	제28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 암벽반)	일반과정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일반 목포유달산악회	정용호 김니다, 김나영, 박재철, 박서영, 부기동 이승재, 박성민, 박동민 나대철, 최혁민 이덕호
		지도자과정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2007	제28회 광주 등산학교	일반과정	순천제일대 순천대 목포대	박동민 서미영 정대웅
	(동계반)	지도자과정		
	제29회 광주 등산학교	일반과정		자료없음
	(정규, 암벽반)	지도자과정		
	제29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전남대 목포대 광주대 조선대 일반	박주현, 심민의, 문석민, 심우담, 안나윤, 노경미 곽새미 곽효정, 김니다, 박석영 박행수 고관섭, 이영록 송하철
		지도자과정		
2008	제30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월출신관리공단 조선대 목포대 전남대 영암클라이밍 목포해양대 조선이공대 일반	오치복, 김복남, 최문길 이영록, 고관섭, 이두범 곽효정 심우담, 최기원, 배아름, 심민의, 이창교, 장한올 임경아 윤경훈, 노장한, 황진솔, 이재경, 김준호, 이상협 김종진 박정주 정 헌
		지도자과정		
	제30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전남대 목포해양대 목포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월출산관리공단 영암클라이밍 일반	신민의, 심우담, 최기원, 배이름, 이창교, 정한올 김준호, 이재경, 노장한, 윤경훈, 황진솔, 김종진, 이상협 곽효정 고관섭, 이영록, 이두범 박정주 김복남, 최문길, 오치보 임경아, 김현경, 김애경 정 헌
		지도자과정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제30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조선이공대 전남대 순천대 일반	박정주 박주현, 이경미, 노경미, 곽새미, 정한올, 배아름 이기수 장영주, 임대원
		지도자과정		
2000	제31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목포해양대 조선대 전남대 초중생	홍소선, 진희성, 김진원, 오탁근, 나종빈, 김민수, 최경민 정호석 박지영 백형욱, 김민성, 김승민, 김정빈
2009		지도자과정	목포대 전남대	부기동 노경미
	제31회 광주 등산학교 (암벽반)	일반과정	목포해양대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초중생	진희성, 홍소선, 김민수, 오탁근 박지영 정호석, 박성현 김진원 백형욱, 김승민
		지도자과정	조선대 목포대 전남대	양성한 박재철, 부기동 노경미
	제31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목포대 전남대	부기동 황효정 강민준, 박지영 박성현
		지도자과정	조선대	양성한
2010	제32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반)	일반과정	전남대 목포해양대	강민준, 박현범, 김진현 배형렬, 하민수, 손유석, 곽태정, 김찬호 이나라, 이보현, 신영서, 이태훈, 김상민 한상윤, 최성후, 박한국
		지도자과정	전남대 순천대	박주현, 박지영 이승재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2011	제32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전남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김진현 이보연 배형렬
		지도자과정	전남대 순천대	안나윤 이승재
	제33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 암벽반)	일반과정	순천대 조선대 목포해양대 고려대 일반	박건영 곽태정, 김유신 김태훈, 유원선, 손바름, 전종관 최도경 곽현중
		지도자과정		
	제33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순천대 조선대 전남대 유달산악회	김건우, 박성민, 박건영 곽태정, 황현익, 이동준, 김유신 이원재, 윤상화 허진홍
2010		지도자과정	전남대	심우담
2012	제34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 암벽반)	일반과정	조선대 전남대 목포해양대 초중생	김유신, 김명준, 하상욱, 강석국 이원재, 김수룡, 이나원, 박두리 오정현, 박윤재 정혜윤, 정호림, 정인성
		지도자과정		
2013	제34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전남대 목포해양대 조선대 일반	박성향, 이나원, 박두리 손바름, 오정현 강래현, 하상욱 문영권, 정호림
		지도자과정	전남대 조선대 목포해양대	강민준, 윤상화, 김진현, 박지영 김유신 배형렬

년도	회수	과정	소속	이름
2013	제35회 광주 등산학교 (정규, 암벽반)	일반과정	전남대 조선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송원대 송의고 초중생	박성향, 윤대석, 박성향 설세영, 윤승현, 곽민용, 박윤재, 김현지, 정득민, 이재환 이근수, 김민태, 박서영 김균후 김서영, 송희, 서은지 정호림, 정규현
		지도자과정	전남대 목포해양대	박현범, 이나원, 박두리 오정현
	제35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목포해양대 송원대 순천대 전남대	박윤재, 이진희, 문인주, 윤승현 김균후 박서영, 김민태 박현범, 신정혜, 장봉조, 윤장한
2014		지도자과정	목포해양대 전남대	오정현 박성향, 이나원
2014	제35회 광주 등산학교 (동계반)	일반과정	목포해양대 송원대 순천대 전남대	박윤재, 이진희, 문인주, 윤승현 김균후 박서영, 김민태 박현범, 신정혜, 장봉조, 윤장한
		지도자과정	목포해양대 전남대	오정현 박성향, 이나원

제2절 학산인의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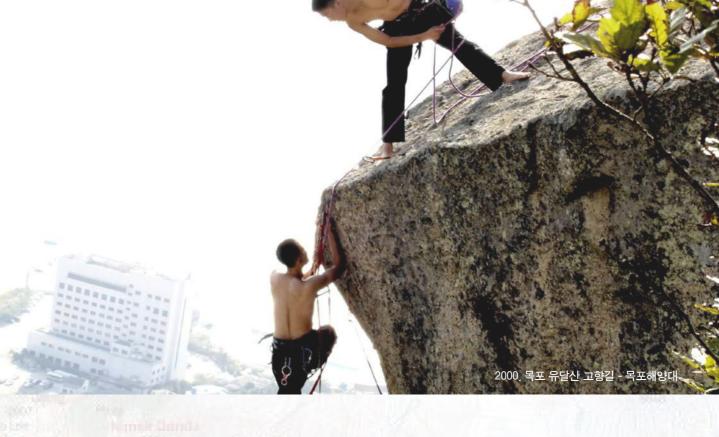
학생산악연맹 주도로 3개의 큰 해외원정을 성공시켰으며 해마다 회원들의 단합을 위하여 학산인 한마당과 합동등반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는 광주·전남지역 회원들만의 합동등반에서 벗어나 영호남 화합을 위한 영호남 합동등반을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 부산.경남학생산악연맹과 합동으로 양 지역을 오가면서 개최하여 지역간의 우의를 다지고 있다.

구분	내용	비고
1979. 4.27.	학생산악연맹 체육대회	
1981. 11.22.	학생산악연맹 체육대회	조선대 운동장
1982. 5.5.	학생산악연맹 체육대회	전남대 운동장
1983. 5.5.	학생산악연맹 체육대회	조선대 운동장
1984. 4.29.	학생산악연맹 체육대회	금파화학공고
1986. 5.11.	학생산악연맹 체육대회	금파화학공고
1987. 5.10.	학생산악연맹 체육대회	금파화학공고
1988. 5.29.	학생산악연맹 체육대회	금파화학공고
1989. 4.29.~30.	학산인의 한마당	금파화학공고
6.25.	학생산악연맹 체육대회	금파화학공고
1990. 5.12.~13.	학산인의 한마당	금파화학공고
1991. 4.27.~28.	학산인의 한마당	우산초등학교
1992. 5.9.~10.	학산인의 한마당	금파화학공고
1993. 5.1.~2.	학산인의 한마당	정광고등학교
1994. 5.21.~2.	학산인의 한마당	금파화학공고
1995. 5.27.~28.	학산인의 한마당	호남대제2캠퍼스
1996. 12.7.~8.	학산인 송년의 밤	월출산
1997. 5.31.~6.1.	학산인의 한마당	동신대학교
1998. 5.9.~10.	학산인의 한마당	목포대학교
1999. 5.8.~9.	학산인의 한마당	하남공단안청공원
2000. 5.20.~21.	학산인의 한마당	순천제일대학
2001. 5.19.~20.	학산인의 한마당	하남공단안청공원
2002. 5.28.~29.	학산인의 한마당	하남공단안청공원
2003.	학산인의 한마당	하남공단안청공원
2004.	학산인의 한마당	하남공단안청공원
2005. 9.14.~16.	학산인의 한마당	

구분	내용	비고
2006.	학산인의 한마당	
2007. 9.14.~16.	학산인의 한마당	노안천주교청소년야영장
2008. 9.27.~28.	학산인의 한마당	도로공사광주지사
2009. 9.26.~27.	학산인의 한마당	도로공사광주지사
2010. 10.2.~3.	학산인의 한마당	영암 인공암벽경기장
2013. 11.3.	학산인의 한마당	운림중학교

제3절 학생산악연맹 합동등반

구분	내용	비고
1975. 11.22.~23.	제1차 전남학생산악연맹 합동등반	무등산
1976. 11.13.~14.	학생산악연맹 합 동등 반	
1979. 5.3.~5.	학생산악연맹 훈련등반	무등산
1981. 1.26.~2.1.	학생산악연맹 동계훈련등반 1차	지리산
2.8.~14.	학생산악연맹 동계훈련등반 2차	지리산
5.30.~31.	춘계 학산연맹 훈련등반	무등산
1982. 6.19.~20.	학생산악연맹 합동등반	내장산
1983. 6.18.~19.	학생산악연맹 합동등반	월 출 산
1984. 5.12.~13.	학생산악연맹 합 동등 반	월 출 산
1987. 5.23.~24.	학생산악연맹 합 동등 반	지리산
1988. 7.17.	학생산악연맹 전반기 합동등반	장성 입암산성
11.6.	학생산악연맹 후반기 합동등반	무등산
1989. 5.28.	학생산악연맹 합동등반	지리산
1990. 10.	학생산악연맹 합 동등 반	고흥 팔영산
2001. 11.17.~18.	학생산악연맹 합 동등 반	광양 백운산
2003.	학생산악연맹 합 동등 반	변산반도
2004.	학생산악연맹 합 동등 반	
2009. 6.7.	영 · 호남 학산연맹 합 동등 반	무등산
2010. 5.30.	영 · 호남 학산연맹 합 동등 반	팔공산
2011. 5.29.	영 · 호남 학산연맹 합동등반	부산 장산
2012. 6.2.	영 · 호남 학산연맹 합동등반	담양 금성산성
2013. 7.7.	영 · 호남 학산연맹 합동등반	팔공산
2014. 6.1.	영 · 호남 학산연맹 합 동등 반	부산 승학산



| 사진으로 보는 50년의 학산 회원단체 활동 |



80년대…











- 1 2
- 3 4
- 5
- 1. 1980. 신입생환영등반 무등산-조선이공대
- 2. 1980. 신입생환영등반(지리산)-호남대
- 3. 1980. 단합등반(대둔산)-호남대
- 4. 1981. 신입생환영등반(지리산)-광주교대
- 5. 1981. 춘계훈련등반(입암산)-송원대













1. 1980. 뱀사골 도깨비집-송원대

2. 1982. 합동등반-목포대

3. 1982. 목포대학장기 C-C대회 1위-목포대

4. 1982. 훈련등반(지리산)-호남대

5. 1985. 목포대학장기 C-C대회-목포대

6. 1985. 제4회 조선대 C-C대회-조선대









1 2 3

4

5 6

1. 1986. 조선대C-C대회 여자부우승-순천대

2. 1986. 장비전시회-순천대

3_. 1986_. 하계등산학교-목포대

4. 1985. 하계장기등반(설악산)-호남대

5. 1986. 장비전시회-순천대

6. 1986. 조선대 C-C대회 여자부우승-전남대

















1. 1986. 새인봉 암벽등반-전남대

2. 1986. 지리산 등반-송원대

3. 1986. 하계장기등반 설악산-전남대

4. 1986. 서강대 합동등반(지리산)-송원대

5. 1987. 동계장기등반(귀때기청봉)-전남대

6. 1987. 동계훈련등반(지리산)-순천대







1,1987, 전남대C-C대회 여자부우승-순천대 2,1987, 춘계훈련등반(월출산)-조선대

3.1987. 제1회 산제(조계산)-순천대

4.1987. 호남대학교OB산악회 창단식-호남대

5.1987. 훈련등반(무등산)-호남대









A

1.1987. 월출산 등반-조선이공대 2.1987. 하계장기등반(백두대간)-전남대 3.1988. 하계 장기등반(지리산)-조선대 4.1988. OB회 창립10주년 기념등반-광주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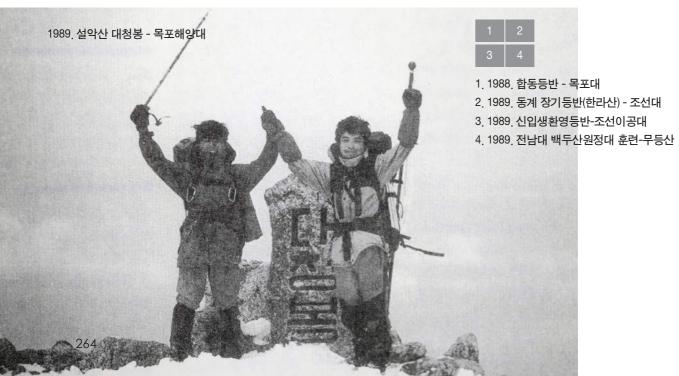












90년대…









1

3 4

- 1, 1989, 인수봉 등반-조선대
- 2. 1990. 지리산 훈련등반-보건대
- 3. 1990. 춘계훈련등반 뱀사골-전남대
- 4. 1990. 지리산 훈련등반-보건대
- 5, 1989, 인공암벽-순천대













4

- 1. 1990. 백두대간 종주(죽령) - 보건대
- 2. 1990. 백두대간 종주-보건대
- 3. 1990. 신입생환영등반-송원대
- 4. 1990. 신입생환영등반-조선대
- 5. 1990. 목포대산악회 OB 창립식-목포대
- 6. 1990. 등산학교 동계반-전남대(여수)







- 1. 1990. 등산학교 동계반-전남대(여수)
- 2. 1990. 지리산 노고단-목포해양대
- 3. 1990. 등산학교 동계반-전남대(여수)
- 4. 1991. 월출산 시루봉 정상-보건대















- 1. 1991. 하계장기등반(설악산)-송원대
- 2. 1991. 전남대 C-C대회 여자부우승-송원대
- 3. 1991. 일본 북알프스 동계 등반-전남대
- 4. 1991. 인공암벽 준공 기념식-전남대
- 5. 1992. 지리산 훈련등반(화개재)-조대의대











- 1 2 3 4 5
 - 1, 1992, 죽음의 계곡(송원, 서강, 동신, 경북대)
 - 2. 1992. 월출산 시루봉-보건대
 - 3. 1992. 창립기념일 모임-조대의대
 - 4. 1992. 지리산 훈련등반-조대의대
 - 5. 1993. 지리산 훈련등반-조대의대









1995. 울산암 마당바위 - 조선이공대

1 2 3 4

- 1. 1994. 동계 장기등반-조대의대
- 2. 1994. 1차 훈련등반 출발전 조선이공대
- 3, 1994, 하계등반(북한산 인수봉)-조선이공대
- 4. 1998. 신입생오리엔테이션-조선이공대















1, 1995, 하계등반(설악산)-조선이공대

2. 1996. 순천 조계산-목포해양대

3. 1996. 목포대 C-C대회 우승-목포해양대

4. 1996. 하계장기등반-동신대

5_. 1996_. 하계장기등반-동신대

6. 1996. 하계장기등반-동신대











4

- 1. 1997. 설악산 대청봉 목포해양대
- 2. 1997. 목포대 C-C대회 우승-목포해양대
- 3. 1997. 목포 유달산 앞벽-목포해양대
- 4. 1997. 동계장기등반(한라산)-전남대
- 5. 1998. 동계장기등반(덕유산)-전남대
- 6. 1998. 백두대간 종주-목포해양대



2000년대…









1 2

3 4

- 1. 2000. 故 박현재 추모조형물 제막식-순천대
- 2. 2001. 전남대 총장기C-C대회-전남대
- 3. 2002. 산행출발전 학교앞 목포해양대
- 4. 2004. 개강등반(무등산)-보건대
- 5. 2002. 목포 유달산 고행길-목포해양대





















5

1, 2006, 지리산 등반-목포대

2. 2007. 목포대C-C대회-목포대

3. 2007. 북한산 인수봉(의대길)-목포대

4. 2007. 전남대C-C대회-목포대

5, 2007, OB정기산행(어등산)-서영대













5

1, 2008, 지리산 무박종주(세석산장)-서영대

2, 2008. 故정성백 추모제(무등산)-조선이공대

3. 2008. 백두대간 종주(류재강)-서영대

4. 2008. 춘계OB등반 (계룡산)-조선이공대

5. 2009. 창립 40주년 기념모임-조대의대

6. 2009. OB합동등반(팔영산)-전대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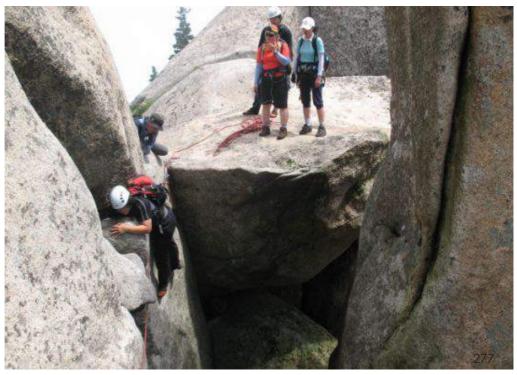


2

3

- 1. 2009. 전국체전 금메달 수상 전남대
- 2. 2008. 송원대 합동등반(덕유산) 서영대
- 3. 2009. 동계OB등반(검단산)-조선이공대
- 4, 2009, 하계장기등반(울산암) 목포대





2010년대…











-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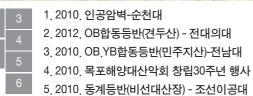
 3
 4
 - 5
- 1. 2010. 진해산악회 합동등반(지리산)-광주대
- 2. 2010. 월출산 시루봉 등반-조선이공대
- 3. 2010. 시산제(월출산)-광주대
- 4, 2010, OB합동등반-순천대
- 5, 2010, 하계장기등반(설악산)-순천대













6, 2011, 정기산행(팔영산)-광주대









- 1. 2013. 신입생환영등반-조선대
- 2. 2013. 월출산 등반-순천대
- 3. 2013. OB정기산행(불갑산)-서영대
- 4. 2014. 환경정화봉사활동(내장산)-전남대
- 5. 2013. 故박행수 추모등반(무등산)-광주대





제3장

학산 회원단체

제1절 회원단체 현황표(창립연도 순)

제2절 광주(가나다 순)

제3절 전남(가나다 순)



제1절 회원단체 현황표(창립연도순)

연번	학교명	창립년도	비고
1	전남대학교 산악회	1958년	
2	광주교육대학교 산악회	1960년	
3	조선대학교 산악회	1965년	
4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	1969년	
5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	1972년	
6	광주보건대학교 산악회	1975년	광주보건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7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산악회	1976년	
8	조선이공대학교 산악회	1976년	1967 불로초산악회 전신 조대병설 공업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9	동강대학교 산악회	1978년	동신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10	목포대학교 산악회	1979년	
11	서영대학교 산악회	1979년	서강실업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12	송원대학교 산악회	1979년	송원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13	호남대학교 산악회	1979년	성인경상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14	광주대학교 산악회	1980년	광주경상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15	목포과학대학교 산악회	1981년	목포공업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16	목포해양대학교 산악회	1981년	목포해양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17	순천대학교 산악회	1982년	
18	순천제일대학교 산악회	1985년	순천공업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19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산악회	1985년	
20	동신대학교 산악회	1987년	
21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악회	1987년	여수수산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22	청암대학교 산악회		순천전문대학 산악회로 출범

제2절 광주(가나다 순)

1. 광주교육대학교 산악회



산을 사랑하고 산을 아끼며 산이 좋아 산에 오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권이나 명예욕을 추구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산과 더불어 살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산은 우리들을 부른다. 우리도 산처럼 의젓하게 살자"는 한 선배의 말처럼 늘 그곳에 있어주는 산, 넉넉하고 푸근한 산의 모습을 닮아 커다란 마음을 지닌 산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1) 창립

1960년 3월 최성호 교수님과 서규열 회원을 초창기 멤버로 하여 광주교육대학교 산악회는 창립 되었다. 현재 안타깝게도 재학생은 없지만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과 애정으로 당당하게 광주교대 산악회는 이어지고 있다.

2) 산악회기

'ㄱ'은 광주교대의 첫 자모이고 'ㄷ'은 대학의 첫 자모이다. 즉 'ㄱㄷ'은 광주교대의 상징이다. 산은 산악활동의 가장 근본이므로 중앙에 배치를 시켰다. 광주교대 산악회는 그 역사가 60년부터인 전통 있는 모임이다.

 $K \cdot N \cdot U \cdot E \cdot A \cdot C = K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lpine Club$

3) 현재 활동

광주교대 산악회는 광주교육대학교 동아리관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2014년) 재학생회원은 없지만 50여명의 OB 회원들이 산악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봄, 가을에 월출산 암벽 등반을 하고 겨울 빙벽 등반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명산을 찾아 활발히 등반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3년 1월 히말라야 아일랜드 피크 등반(76김종철, 95이영규, 95이상윤, 00김도윤, 02강영구) 2008년 8월 레닌봉 등정(76김종철, 00김도윤)을 하였다. 또한 2006년 1월 아콩카구아를 등정하였으며(76김종철, 95이영규, 99김세나, 02강영구) 그 외 김종철 회원은 2003 초오유, 2007포베다. 89-90동계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등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광주대학교 산악회



광주대학교 산악회(Gwangju University Alpine Club)는 1980년 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광주 경상전문대 산악회에서 1983년 광주대학교산악회(GUAC)로 개칭되어 최초 태동으로 부터 현재 34년간을 이어져 광주대학교 역사와 함께 이어져오고 있다.

창립 취지대로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과 정신을 함양하고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극기의 힘과 회원 상호간의 협조 단결하는 사회성을 기르고자 노력해 왔다.

매년 지리산과 설악산 등 장기 하계훈련과 동계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우의를 돈독히 하고 산악활동을 통하여 심신단련 및 자연보호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얀산" 그 세계의 높이를 향해 젊음을 불태울 ALPINST의 꿈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90년 OB산악회가 창립되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함께 하며 후배양성에 적극 매진해 왔으나, 2010년 마나슬루에서 故 박행수 악우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자 2011년 OB산악회를 재정립하여 다시 "백호"(Echo)를 외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 연혁 및 주요 등반기록

구분	내용
1980년	광주경상전문대 산악회 창립 (1기 배정만, 조재근)
1983년	광주대학교 산악회로 개칭
1990년	광주대학교 OB산악회 창립

구분	내용
1992년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가입
1993년	제1회 쌍용클라이밍대회 남자부 2위 (김범재)
1994년	호남정맥 장기종주 30일
1994년	광주대학교 동아리내 암장설치
1998년	광주광역시 등반경기대회 남자대학부 1위 (박성범)
1998년	광주대학교 아콩카구아 원정대 (김 종률 , 박성범)
2000년	광주광역시 등반경기대회 여자대학부 2위 (한정희)
2000년	광주대학교 킬리만자로 원정대 (양홍식,곽명옥,윤욱현 등정)
2000년	땅끝기맥 장기종주
2004년	광주대학교 알프스3대북벽 원정대 (양홍식,박성범,이덕수,조병환 등정)
2007년	한국 청소년 오지 네팔,티벳탐사대 (등반대장 故 박행수)
2007년	키나발루 로우피크 (윤욱현 등정)
2008년	빛고을 마칼루 원정대 (故 박행수 등반)
2009년	땅끝기맥 장기종주 12일
2010년	한국도로공사 마나슬루 원정대 (故 박행수 등반중 사고사)
2011년	자유를 향한 마나슬루 원정대 (윤욱 현 등반)
2011년	광주대학교 OB산악회 재정립
2013년	꿈과 도전의 가셔브롬1봉 원정대 (윤 옥 현 등정)

3. 광주보건대학교 산악회



광주보건대학교 산악회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인간의 정을 쌓아가자"라는 신념으로 1975년 에 창립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기 위해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가지만 우리 산악인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산에 오른다. 산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우리를 위해 열려있다.

우리 산악회는 단순히 꽃 산행이나 나들이 산행이 아니다. 산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면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마음가짐으로 산에 오른다. 힘들고 어려운 산행을 통해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그리고 동기는 동기를 믿고 믿어주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정을 쌓으며 살아간다.

창립 초기 선배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싸움 끝에 이뤄 놓으신 우리 보건 산악회의 뒤를 이어 후 배들이 가꾸고 다져가고 있다.

1) 에코 : 뚫어

4. 동강대학교 산악회





1) 창립

1978년 동신산악회로 창립하였으며 산사랑의 실천을 보여주고자 뜻있는 사람들이 뭉친 것이다.

2) 에코 : 어~이야

3) 연혁 및 주요활동

구분	내용
1985년	한국산악회의 히말라야 푸모리원정대에 4기 조태형회원 참가
1986년	설악산 토왕폭 등반
1988년	한라산 적설기 등반
1990년	전남대학교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우승
1990년	한라산 적설기 등반
1991년	4기 송하정외 3명 일본 북알프스 등반
1992년	전남대학교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우승
1994년	전국 O.L 대회 4위
1995년	교내 체육관에 전문 실내인공암장 개장
	광주 · 전남 암벽등반대회에서 남자대학부와 여자부에서 각각 1위로 입상
1996년	서신종회원이 파키스탄 히말라야의 거벽인 트랑고타워 원정대에 참여하여 정상등정

5. 서영대학교 산악회



서 영 대 학 교 산 악 회

1979년 서강실업전문대학 산악회(SKAC, 스카시)는 산악활동 전반에 대한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산악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공헌함과 참다운 산악인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하였다.

신입생 환영등반으로 시작해서 훈련등반, 종주산행, 하계장기산행, 등산학교 참가, 암벽등반, 동계장기산행 등 단계적 체계적 활동을 해오면서 졸업생들은 O.B. 산행을 꾸준히 산행을 매 년 진행하고 있다. 1988년 10주년 기념 태백산맥 종주등반을 기점으로, 1994년 서영대학 히말츄리 (7,893m) 원정대를 꾸리면서 회원들 간의 단합과 추진력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으며, 광주·전남 히말라야 워정 등반에 회원들이 참여하여 전위적인 등반을 하고 있다.

본 산악회는 회원들의 활동으로 국내는 물론, 히말라야, 해외 여러 지역에서 산악등반을 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서영대학 O.B. 산악회에 가입하여 회원들의 끈끈한 정과 선배님들의 열성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매월 1회의 월례산행을 하고 있고, 본 산악회의 전통을 발전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30명 정도의 회원이 산악활동을 해오고 있다.

본 산악회는 산이 이 지구에 있는 한 계속 도전 할 것이며, 발전 할 것이다!!!

1) 연락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서강로 1번지 학생회관內 서영대학교 산악회

2) 연혁

구분	내용
1979년 5월	서강실업전문대학 산악반 결성
1979년	회계과 이경섭 지도교수님 취임 (1979년~1984년)
1985년	행정과 이용연 지도교수님 취임 (1985년~1995년)
1992년 3월	서영대학 산악회로 변경
1996년	건축과 나상훈(조선대.84) 지도교수님 취임 (1996년~현재)
1998년 7월	서영대학 산악회로 변경
2011년 12월	서영대학교 산악회로 변경
2013년 현재	회원수 30명으로 활동중

3) 주요 등반활동

구분	내용
1988년	태백산맥 종주등반 (이연주,류백환,김애란,진상수,김강영,김승용)
1989년	89/90 한국 동계 에베레스트(8848m) 원정대 참여 (김영학, 고재연, 이연주, 김애란)
1990년	동계장기등반 토왕폭 등정 (나관주, 김해곤, 안태영, 허환)
1991년	토왕성 폭포 빙벽등반 (나관주)
1992년	서영대학 매킨리(6,194m) 원정대 (나관주, 김해곤)
	백두대간종주 (김애란, 한진순)
1993년	광주, 전남 초모랑마(8,848m) 원정대 (김영학, 정득채, 나관주)
1994년	서영대학히말츄리(7,893m) 원정대 (원정대장 정득채, 대원 나관주, 허환, 염영미, 윤
	정곤. 결과 : 7400m 등반)
1995년	초모랑마(8,850m) 등반 (나관주)
	시사팡마(8,046m) 등반 (나관주)
1996년	네임리스 트랑고타워(6,239m) 원정대 (허환)
1997년	로체(8,516m) 등반(나관주)

구분	내용
1998년	낭가파르밧(8,125m) 등정 (나관주)
	유럽 알프스 아이거북벽, 마터호른 북벽 등정 (김미곤)
	마나슬루 등반 (나관주, 김미곤)
1999년	로체남벽 등반 (나관주, 김미곤)
2000년	마나슬루 등반 (나관주, 김미곤)
	K2(8,611m) 등반 (나관주)
	남원 합동 초오유(8,201m)원정대 참여 초오유 등정(김영학, 나관주, 김미곤)
2001년	마칼루(8,463m) 등정 (김미곤)
	로체(8,516m) 등정 (나관주)
	유럽 알프스 몽블랑(4,801m) 등정 (나관주)
	시샤팡마(8,027m) 등정 (나관주)
2002년	에베레스트(8,848m) 등정 (나관주)
	피상피크(6,091m) 등정 (나관주)
	시사팡마(8,027m) 남벽등반 (김미곤)
	킬리만자로 등정 (김미곤)
2003년	가셔브룸 II (8,035m) 등정 (나관주)
	브로드피크(8,047m) 등정 (나관주)
	초모랑마(8,850m) 등반 (나관주)
2004년	로체 남벽 등반 (김미곤)
	K2 클린마운틴 등반 (나관주)
2005년	다울라기리 라운딩 (나관주)
	낭가파르밧 루팔벽 등반 (김미곤)
2006년	가셔브룸 II (8,035m) 등정 (김미곤)
	남원 지리산 에베레스트(8848m) 원정대 참여 (김영학)
	에베레스트 클린마운틴 등반 (나관주)
	알프스 몽블랑 등반 (나관주)

구분	내용
2006년	스판틱(7,025m) 등정 (나관주)
	임자체(6,119m) 등정 (나관주)
	가셔브룸 ㅣ봉 등반 (김미곤)
2007년	에베레스트(8,848m),로체(8,516m) 한국최초연속등정 (김미곤)
	엘브루즈(5,642m) 등정 (나관주)
2008년	백두대간 종주 (류재강)
2008년	가셔브룸 , 등반 (김미곤)
2009년	다울라기리(8,167m) 등정 (김미곤)
	안나푸르나(8,091m) 등반 (김미곤)
2010년	안나푸르나(8,091m) 등정 (나관주)
2011년	마나슬루(8,163m) 등정 (김미곤)
	시사팡마(8,012m) 등정 (김미곤)
2012년	K2 등정 (김미곤)
2013년	한국 가셔브룸 I (8,068m) 원정대 참여 (김미곤 등정)

6. 송원대학교 산악회



송원 대학교 산악회(SUAC)는 1979년에 송원 공업전문대 산악회(SCAC)로 김용우 교수님과 초창기 멤버 김양중.류영범.민향석.임노욱.윤호근 등과 함께 창립되어 1981년 송원 실업 전문대 산악회(SCAC)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송원대학교 산악회(SUAC)로 변경되어 올해로 35돌을 맞으며 졸업생 재학생 포함해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19개 대학산악회로 구성된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가맹단체로서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악연맹 임원진및 해외원정 참가 등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송원대학교 산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간의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선배님들의 전통을 지금까지 잘 받들어 오고 있다.

첫 히말라야 해외원정은 89/90년도 동계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하였고, 송원대학교 산악회 회원들만으로 1992년 북미 맥킨리를 원정등반 하였으며, 여러 선후배님들이 많은 해외원정에 참여하였으며, 산행의 경험을 많은 후배들에게 전해주어 미래의 꿈꾸는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

1) 에코 : 머루

2) 연혁

구분	내용
1979년 3월	송원공업전문대학 산악회 창립
1979년 3월	제1대 김용우 지도교수님 취임
1979년 11월	제1회 산악안전 장비전시회

구분	내용
1980년 3월	제2대 식품영양학과 정순택 지도교수님 취임
1980년 11월	제2회 산악 장비전시회
1981년 3월	송원실업전문대학 산악회 명칭변경
1981년 11월	제3회 산악 장비전시회
1982년 3월	제3대 응용미술학과 손영일 지도교수님 취임
1982년 11월	제4회 산악 장비전시회
1983년 8월	제5회 산악 장비전시회
1984년 3월	제4대 전자공학과 허선득 지도교수님 취임
1984년 6월	제6회 산악 장비전시회
1985년 9월	제7회 산악 장비전시회
1986년 10월	제8회 산악 장비전시회
1987년 10월	제9회 산악 장비전시회
1989년 10월	제10회 산악 장비전시회
1990년 10월	제11회 산악사진 및 장비전시회
1991년 10월	제12회 산악사진 및 장비전시회
1992년 10월	제13회 산악사진 및 장비전시회
1993년 10월	제14회 산악사진 및 장비전시회
1994년 10월	제15회 산악 장비전시회
1995년 10월	제16회 산악 장비전시회
1996년 10월	제17회 산악 장비전시회
1997년 10월	제18회 산악 장비전시회
1998년 10월	제19회 산악 장비전시회
1999년 3월	제5대 토목공학과 김응록 지도교수님 취임
1999년 10월	제20회 산악 장비전시회
2000년 10월	제20회 산악 장비전시회
2001년 10월	제21회 산악 장비전시회
2002년 10월	제22회 산악 장비전시회
2003년 10월	제23회 산악 장비전시회
2004년 10월	제24회 산악 장비전시회
2012년 3월	송원대학교산악회 명칭변경 (SUAC)
2013년 3월	3기 정찬득 제20대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회장 취임

3) 주요등반기록

구분		내용
1979년 3월	월	창립 기념등반 무등산
	월	제1차 훈련등반 월출산
1980년 5월	월	제17회전국등산대회남자대학부우승(류영범.윤호근.임노욱,김종삼)
1981년 7월	월	일본 북알프스등반(정찬득)
1984년 4월	월	제2회 전남암벽대회 2위 입상(김홍빈)
10	0월	제17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등산대회(여자대학부 우승: 김명신 / 남자대학부 장려상: 김홍빈)
1987년 2월	월	노령산맥 종주(윤호근, 신용인, 류백환)
1988년 1월	월	설악산 토왕폭 빙벽등반 (김은철, 김홍빈)
1988년 5월	월	송원.서강 10주년 기념 지리산등반
1989년 10	0월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 (윤호근,장찬득,김홍빈,김은철.윤호준)
1990년 5월	월	낭가파르밧(8,125m) 등반 (김홍빈)
1992년 5월	월	제7회 광주·전남 암벽등반대회 (남·여대학부 최우수상 문기갑,홍수미)
5	월	송원대학 맥킨리(6194m) 원정대 (대장 신복남, 대원 홍동식, 윤호준, 정우연, 장병호)
7	월	92 한국 천산 합동원정대 (윤호근 등반)
1993년 7월	월	광주·전남 초모랑마(8,848m) 원정대 (정우연)
1994년 2월	월	말레이시아 키나발루(홍동식 등정)
1995년		광주 요세미테 원정대 장희웅 등정
5 1	월	루푸가르사르 동봉(7,200m) 북벽 등반 (임노욱, 홍동식)
10	0월	대만 옥산 등정 (정찬득. 홍동식. 정우연. 장병호)
1996년		킬로만자로 등반(5,895m) (홍동식)
5 1	월	낭가파르밧(8,125m) 등반 (홍동식)
7	월	유럽 엘브리즈(5,642m) 등정 (김홍빈)
		일본 다테야마(3,015m) 등반 (김홍빈)
9	월	아프리카 킬로만자로(5,895m) 등정 (김홍빈)
1998년 1월	월	아콩가구아(6,959m) 등정 (1.16 김홍빈)
5	월	맥킨리(6,194m) 등정 (김홍빈)
6	월	98 알프스3대 북벽 원정대 (조평익)
1999년		아콩가구아(6,959m), 쎄레또레(3,128m) 등반 (김홍빈)
	월	파미르고원 레닌피그(7,134m) 등반 (김홍빈)
2000년 7월	월	마나슬루(8,163m) 등반 (김홍빈)
		에베레스트(8,848m) 등반 (김홍빈)

구분	내용
2001년 1월 박	백두산(2,744m) 1월1일 해돋이 등반 (김홍빈)
2002년 5월 특	쿡미 맥킨리(6,194m) 등정 (김홍빈)
11월 7	데35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남자대학부3위 (박상석. 이상영)
C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895m) 등정 (홍동식)
2003년 🧦	키르기즈스탄 레닌피크(7,134m) 등정 (김홍빈.이상영)
2004년 -	로체남벽(8,516m) 등반 (이상영)
4월 7	데16회 광주광역시 전국 등반경기대회 여자 대학부3위 (이문정)
7월 경	중국 사천성 오타이나(5,210m) 등정 (임노욱)
2005년 9월	코스클락(7,028m) 미답봉 등반(김홍빈)
2006년 4월	키나발루산(4095m) 등정 (류영범)
2006년 7월 - 경	중국 사천성 스와즈산(5,800m) 등반 (임노욱, 정찬득, 김종학)
7월 7	가셔블룸 ㅣ (8,068m) 등반 (김홍빈)
7월 7	가셔블룸 II (8,035m) 등정 (김홍빈)
10월 기	시샤팡마 남벽 (8,046m) 등정 (김홍빈)
Ē	루프가르샤르 (7,200m) 등반 (임노욱)
2007년 5월 5	5월16일 에베레스트 (8,850m) 등정 (김홍빈)
3	호주대륙 코지어스코 (2,228m) 등정 (김홍빈)
С	다울라기리 (8,167m) 등반 (김홍빈)
9월 🧦	키나발루산 (4,095m) 등정 (정찬득)
2008년 5월 [마칼루 (8,463m) 등정 (김홍빈)
7월 7	7월26~8월3일 중국 운남성 합파설산(5,396m) 등정 (임노욱, 홍동식)
2009년 1월	남극대륙 빈슨매시프(4,897m) 등정 (김홍빈)
5월 5	5월1일 다울라기리(8,167m) 등정 (김홍빈)
I	파키스탄 K2(8,611m) 등반 (김홍빈)
Ć	안나푸르나(8,091m) 등반 (김홍빈)
8월 유	유럽 엘브루즈(5,642m) 등정 (정찬득)
2010년 대	마나슬루(8,163m) 등반 (김홍빈)
2011년 9월 9	9월 23일 초오유(8,201m) 등정 (김홍빈)
8월 8	3월6일~13일중국 사천성 당령설산(5,474m) 등정 (임노욱, 김홍빈)
2012년 🖟	<2(8,611m) 등정 (김홍빈)
7월 7	7월28일~8월5일 중국 공가산 나마봉(5,588m)등반 (임노욱)
2013년 1월	백두산(2,744m) 1월1일 송원대학교 산악회 OB등반 (정찬득.정우연.장병호)
5월 5	5월20일 칸첸중가(8586m) 등정 (김홍빈)

7. 전남대학교 산악회



전남대학교 산악회(Chonnam Natioal University Alpine club)는 1958년 산악반으로 부터 시작하여 다시 산악부로, 그리고 1961년 전남대학교산악회(CNUAC)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전남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해오고 있다.

한 등반가는 산에 오르는 이유를 "산이 거기에 있으므로"라고 했지만 우리는 더 큰 이유가 있다. 수많은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사라져 갔지만 아직도 꿋꿋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가 변하고 시대의 분위기가 변해도 산은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 있으며, 나에게 자유를 안겨주기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누구나 원하면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좋아졌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의 진면목을 알 기회가 더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자연의 위대함을 모르는 채 겉만 보고 내려 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산의 더욱 진실한 내면의 모습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한 산을 정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혼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니 혼자서라도 산에 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자 모인 곳이다.

흔히 사람들은 정상을 정복했다는 표현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상을 올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상을 올랐다고 해서 산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산행은 고통만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산에 오르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잊고 그보다 더 커다란 희열과 자유와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 산에 오른다.

1) 연락처

우편번호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제1학생회관 400호

전화: 062) 530-0075

2) 에코 : 알~핀

3) 연혁

구분	내용
1958년 6월	전남대학 산악반 결성
1959년 7월	산악반을 산악부로 개칭
1961년 6월	전남대학교 산악회로 재개칭되면서 본격적인 대학산악활동전개
	(1958년 문리과대학 산악반, 59년 공과대학, 농과대학 산악부 1960년 법과대학, 의과
	대학 산악부 창립)
	- 무등산 등산 대회 개최
	- 장비 및 사진 전시회
	- 등반 기술 향상 강연회 개최
	- 안내등반
	- 전남지역 중·고교 순회 등반 강연회 - 회원을 파견하여 산악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광주 전남 지역 단위 산악회 회원 육성 많은 기여
1963년 6월	소식지 '악우' 창간호 발간
1974년 5월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창립
2013년 현재	회원수 223명 (재학생 16명)

4) 주요등반기록

구분	내용
1961년	● 60km극복등행대회,특수체육대회 참가 시작
1961년	● 한라산,지리산 등반
1963년	●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창립 초대회장 임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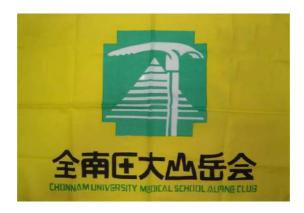
구분	내용
1963년	● 대통령 등산대회부터 참여하고 여러번의 우승
1968년	● 대한산악연맹주최 국토종주 3,000리 제 1차년도 참여
1971년	● 최창돈(생물학과)의 서울신문사 마나슬루봉 원정대에 참여
1982년	● 7월 대만 옥산 등반
1982년	● 8월 7일~23일 일본 북알프스 원정등반
1986년	● 1월 28일 17:00 설악산 토왕폭 등반완료 (조규상, 이은수)
1989년	● 11월 10일~12월 3일 동계 백두산 등반 (대장 박향식 외 7명)
1989년	●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동계 에베레스트원정대에 김하경(원정대장)회원 등이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
1990년	● 광주 낭가파르밧(8125m) 원정대에 본교 산악회 최창돈 회원(대장) 및 , 오성개 회
	원(대원) 등반참가
1991년	● 1월 30일~2월 11일 일본 북알프스(3190m) 동계원정등반
1992년	● 8월 구소련 천산산맥 칸텡그리 한국초등(박헌주), 포베다등반
1993년	● 5월 한국 여성 에베레스트 원정대 유명희 회원 참가
	● 6월 30일~8월 6일 알프스 3대 북벽(그랑드죠라스, 마터호른, 아이거) 등정 (대장 임우근 외 5명)
	● 8월 16일~10월 1일 백두대간 무지원 종주 (서은호,유명희,유영관)
	● 10월 광주·전남 초모랑마 원정대 (최행준, 박헌주)
1997년	● 8월 16일~10월 14일 개교45주년기념 세계 제6위봉 히말라야 초오유(8,201m) 등정
	(대장 이정옥 외 7명 / 박헌주, 김성석 등정)
1999년	● 이현조 회원 네팔 마칼루(8,463m) 북서릉 등반
2000년	● 대산련 새천년 7대륙원정대에 참가하여 킬리만자로(김훈봉), 아콩카구아(서은호),
	에베레스트(박헌주) 등정
	● 5월 15일 네팔 마칼루(8,463m) 등정 (이현조)
	● 7월 30일 파키스탄 브로드피크(8,047m) 등정 (이현조)
	● 10월 5일 시샤팡마(8,027m) 등정 (이현조)
2001년	● 1월 5일 남미 아콩카구아 등정 (이현조)
	● 8월 1일 알프스 그랑드조라스(4,208)등정 (이현조)
	● 8월 15일 알프스 아이거(3,907)등정 (이현조)
2003년	● 2월 북극 원정대 참가 (이현조)
2004년	● 1월 12일 남극원정대 참가 및 남극점 도달 (이현조)

구분	내용
2005년	● 5월 한국 낭가파르밧(8,125m)원정대 이현조 회원 루팔벽으로 35년만에 재등
	● 이현조 회원이 '사람과산'에서 시상하는 '알파인클라이머상' 수상
	● 8월 코스클락(7,028m) 미답봉 등반 (이형관)
2006년	● 5월 초모랑마(에베레스트, 8850m) 등정 (단장 이계윤, 대장 백두인,김용욱, 김영필,
	이현조, 이형관, 김현준, 윤현식, 김가영), (이현조 이형관 등정)
	● 이현조 회원이 대한산악연맹에서 시상하는 '대한민국산악상 대상' 및 '대한민국산
	악상 고산등반상' 수상
2007년	● 이현조 회원이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 신루트 개척등반 중 눈사태로 사망
	● 8월 전남대학교 가셔브롬 ㅣ,Ⅱ 등반
2008년	(단장 이정옥, 대장 김영필, 이광복, 김가영, 손용주, 임성근, 문석민, 곽새미) (동행 :
	김미곤, 이형모, 강기석, 김영미)
	● 6월 북미 최고봉 데날리(맥킨리) 등정
2009년	(단장 김부용, 대장 박상규, 김가영, 노경미) (김가영 등정)
	● 8월 전남대학교 7대륙최고봉(유럽 엘브루즈) 등정
2012년	(단장 이정옥, 대장 오성개, 김영필, 김나연, 김경선, 장희, 윤성룡, 김태중, 이재국, 윤
	상화) (등정 : 오성개, 윤성룡, 김태중, 이재국)
	● 8월 전남대학교 요새미티 원정 조디악 등정
2013년	(대장 임도균, 문석민, 강민준) (문석민, 강민준 등정)
	● 8월 전남대학교 7대륙최고봉(호주 코시어스코) 등정
2014년 	(단장 최희동, 대장 오성개, 김태중, 김영필, 이나원) (전원 등정)

5) 역대 지도교수

- 초대 정종 교수, 고재기 교수 (정종 교수는 1980년 동국대학으로 이동, 고재기 교수가 1968년 까지 전남대 산악회 지도교수)
- 이후 김용선 교수(교육학과), 이방기 교수(법학과), 김현곤 교수(불문학과), 김재률 교수(물리학과), 이계윤 교수(체육교육과) 등이 역대 지도교수로 전남대학교 산악회 및 광주·전남 산악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김태중 교수(수의과대학)가 산악회의 중흥을 위해 물심양면노력하였다.

8.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



1971년 윤기현, 강대석, 김익성, 김웅기 회원이 전남대 크로스컨츄리대회 참가를 계기로 양병익 교수를 모시고 전남대 의예과산악회를 발족시켰으며, 1972년 김하경, 윤영준, 박강식, 박재황, 박제천, 윤기현이 윤재룡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전남의대산악회를 정식으로 창립하고 전남대산악회와 의대내의 기존 등산동아리들로부터 독립하여 간호학과를 포함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소식지 '무돌'을 발간하였다. 1987년에는 세계등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의사와 의대생들만으로 팀을 구성하여 렌포강 서벽을 세계초등정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의욕적인 등반활동으로 무등산 새인봉에 '의대길'을 구례 용서폭에 10여개의 루트로 이뤄진 '의대벽'을 개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재학생 신입회원의 단절로 재학생산악회는 명맥의 끊겼지만 OB선후배들과의 꾸준한교류로 지속적인 등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 연혁

구분	내용
1971년	의예과산악회 서클 등록 (창립 회원:윤기현, 강대석, 김익성, 김웅기)
	주요 활동 : 신입생환영등반, 훈련등반, 지리산 철쭉등반, 하계합동등반, 축제등반. 칠
	선계곡 등반
1972년	전남의대산악회 공식 창립 (창립 회원 : 김하경, 윤영준, 박강식, 박재황, 박제천, 윤기현)
	주요 활동 : 전남대학교산악부로부터 분리하여 하계 및 동계 장기등반을 중심으로 활동
	회지〈무돌〉창간
1973년	산 노래 모음집 〈후야후야〉 발간

구분	내용
1979년	의예과산악회, 일반 동아리와 분리하여 회원 모집
1980년	전국 최초로 산노래를 악보로 정리한 산노래 모음집 〈후야후야〉 발간
1980년	전남의대산악회 OB회 발족 (초대 회장 : 윤재룡)
1990년	의과대학 캠퍼스에 전남 최초의 인공암장 '파랑새' 완공.
1997년	백두대간 이론서 〈태백산맥은 없다〉 발간 (조석필)
2005년	전남의대산악회 YB 회원모집 중단, OB회원으로만 활동 지속

2) 주요 등반활동

구분	내용
1973년	하계 설악산 장기 등반. 총 24명 참가
1974년	전남대학교 총장기 크로스컨츄리 대회 우승. 의예과 산악회(김주오, 김수곤, 박중욱,
	김배영)
1975년	무등산 새인봉 의대길 개척
1월	동계 지리산 등반. 본격 적설기 등반
8월	하계 설악산 등반. 용아장성 완등
1976년	77 한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최종 훈련대원 참여(김하경)
1979년	무등산 선비바위 개척
	북한산 인수봉 등반
1980년	전남대학교 크로스컨츄리 대회 우승. 의예과산악회(박항근, 최태엽, 김석곤, 김석채)
	월출산 사자봉 리지 개척
	설악산 울산암 침니길 개척
1981년	일본 북알프스 단독 종주(윤재룡)
1982년	월출산 매봉 추모길 시도
1984년	전남대학교 총장기 크로스컨츄리 대회 우승. 의예과산악회(임준섭, 민완기, 유성근)
	월출산 매봉 의대길 완성
	월출산 깃대봉 의대길 개척
1985년	월출산 구름다리길 개척
1986년 2월	2월 10일, 설악산 토왕폭 완등, 전남 지방 제3등 (정회정, 이창진, 임준섭, 이정훈)
	네팔 히말라야 랑탕리룽 정찰등반 (김하경, 윤석기)

구분	내용
1987년	네팔 히말라야 렌포강(7,083m)서벽 세계초등(윤재룡, 조석필, 권현, 홍운기, 이정훈, 김수현)
1988년	전남대학교 크로스컨츄리 대회, 여학생부 우승(심야성, 박은주, 김선화)
	8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 참여 (원정대장 : 김하경)
1990년	90 광주 낭가파르밧 원정대 참여 (대원 : 김웅기, 위계룡)
1993년	전남대학교 크로스컨츄리 대회, 여학생부 우승(이춘화, 정선희, 김선옥)
1995년	빛고을 브로드피크 원정대 참여 (단장 : 위계룡)
1996년	전남대학교 크로스컨츄리 대회, 남학생부 준우승(나성진, 김정창, 윤현식)
1997년	전남대학교 크로스컨츄리 대회, 남학생부 3위(윤현식, 이용선, 조승현)
1998년	5월 9일~7월 5일 백두대간 단 독종 주 (대원 윤현식)
	지리산 용서폭 개척등반, 의대벽 10개 루트 개척(대장 나성진)
1999년	광주산악연맹 암벽등반대회 남자 대학부 3위(윤현식)
2000년 10월	전남의대산악회 OB회,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BC 트레킹
10월	전남의대산악회 OB회, 네팔 히말라야 랑탕히말 트레킹, 나야캉 등반(대원 윤현식
	등정, 5,844m)
2002년 10월	전남의대산악회 OB회, 네팔 히말라야 쿰부히말 트레킹
2006년	2006 전남대학교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대 참여 (대원 윤현식, 8,500m 진출)
2010년 6월	미국 요세미테 엘캐피탄 등반, 조디악 완등 (대원 이창진)
10월	전남의대산악회 OB회, 네팔 히말라야 랑탕히말 트레킹
2012년 8월	개교 60주년 기념 2012 전남대학교 세계 7대륙 최고봉(유럽 엘브루즈) 원정대 참여
	(대원 윤현식 등정, 5,642m)

9. 조선대학교 산악회



조선대학교 산악회는 1965년 5월 5일 창립하여 6일 무등산 등반을 시작으로 조선대학교 산악회의 발걸음은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된다.

1966년 전국 무등산 등행대회를 시작하여 1967년 2회 대회 실시이후 전국남녀 고교대회 C-C, 산악회창립 C-C, 총장기 C-C 등 명칭을 바꿔가며 명맥을 유지하다가 1986년 총장기 전국 대학 생 Cross-Country 대회를 전국 40여개교가 참가하여 조선대학교산악회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나 학사일정의 변화와 자금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마지막 대회가 되었다.

67년 68년에는 전국남녀 대학생 등반대회에 참가하여 4회 5회 대회 우승함으로써 밖으로는 지방산악문화의 촉진제역할을 하며 안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결속을 다지게 된다.

1969년에는 67년, 68년 두 차례의 도전과 실패를 딛고 오세근 외 21명이 참가하여 적설기 지리 산 극지법 종주등반을 성공리에 마친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조선대학교 산악회는 72년 한국 마나 슬루 원정대에 1기 오세근이 참가하여 국내등반에서 해외등반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아쉽게도 4 월 9일 제 3캠프 6,500m지점에서 눈사태로 조난사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된다.

73년에는 조선대학교 산악회 OB가 창립되었다. 선배님과 후배간의 가교역활을 하며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등반을 하며 한자릿 기수 선배님들이 재학생 안부를 묻는 것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정겨운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대학교 산악회는 92년 마나슬루(8,163M)를 등정함으로써 고 오세근 산우의 뜻을 이었으며 96년 에베레스트(8,848M) 정상에 고난과 역경을 딛고 두 대원을 올림으로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대학산악회가 되었다. 2006년 시샤팡마 등정은 조선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등반으로 대학산악회로서의 소입과 산과의 약속을 져버리지 않았다

조선대학교 산악회는 지금까지 경험에 자만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원대한 꿈과 포부를 서로 나누며 가꾸어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젊은 꿈을 펼쳐 나갈 것이다.

1) 연혁

구분	내용
1965년 5월	조선대학교 산악회 창립
1973년 7월	조선대학교산악회 졸업생공식모임 OB창립
1982년	"조악" 창간호 발행
1991년	키슬링을 어택배낭으로 바꿈. 동아리방 내 인공등반구조물 설치

2) 주요등반기록

구분	내용
1966년 11월	제1회 조선대학교주최 전국 무등산 등행대회 실시
1967년	제4회 전국남녀 대학생 등반대회 우승
1968년	제5회 전국남녀 대학생 등반대회 우승
1969년 1월	1월22일~31일 오세근 외 21명 적설기 지리산 극지법종주(67년, 68년 세번째 도전하여 완주한 쾌거)
1972년 2월	네팔 히말라야 마나슬루 제2차 원정대 오세근 회원 참가(6,500M지점에서 조난사)
1973년 5월	전남일보주최 전국학생등반대회 남자부 종합우승(이상선, 김석, 김갑중, 박영묘)
1980년 6월	전국 대학생 O.L 대회 단체전 3위, 6위. 개인전 1위
7월	스위스 세계대학생 O.L 대회 한국대표로 김두환 참가
1981년	7월30일~8월25일 일본 북 알프스 등반. 대장 박태규 외 5명
1983년 2월	광주 · 전남 암벽대회 1위(김병규)
1984년	2월26일~5월30일 안나푸르나 3봉 원정. 대장 고광수 외 3명
8월	제2회 광주·전남 암벽대회 1위(강태용)
1987년 1월	8월21일~27일 월출산 양자봉 개척등반 손정기 외 9명
1988년 7월	설악산 토왕성폭 두 차례 완등 신욱철 외 9명
9월	88 한국 에베레스트-로체 원정대에 임형칠 회원 참가 (로체봉 한국초등 임형칠)
1989년 9월	89/90 한국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 참가(등반대장 임형칠, 신욱철, 김병규, 윤장호)
1990년 1월	9월15일~10월31일 백두대간 종주등반(정찬주, 정건 외 8명)
1991년 7월	1월22일~2월1일 일본 남알프스 등반(오경탁 외 5명)
1992년 7월	7월20일~10월16일 마나슬루 원정대(대장 박태규 외 10명 / 이용철 등정)
	한국 천산산맥 캉텐그리봉 포베다봉 영호남 합동원정대 임형칠 회원 참가

구분	내용
1992년 8월	IFC 세계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도쿄대회 한국대표팀 감독 임형칠
1993년 4월	한국 여성 에베레스트 원정대 정건 회원 참가
8월	광주 · 전남 초모랑마 원정대(대장 임형칠, 정찬주)
	목포대학교 C-C대회 3연속 우승
1996년 7월	7월18일~10월25일 개교5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 로체원정대 (전의천 외 9명) 대학산
	악회 단일팀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최종태,신광철 등정)
1997년	한국 안나프루나 칸첸중가 원정대 신광철회원 참가
1998년	한국 공가원정대(신광철)
1999년	한국 칸첸중가원정대(임형칠)
2000년 6월	엘부르즈 원정대(장정규)
2001년 8월	8월11일~9월16일 백두대간 전구간 무지원 단독종주 (서상진)
2002년	칸첸중가원정대(서상진)
2003년	조선대학교 산악회 네팔 아일랜드피크 원정대(김양수 외 7명)
2006년 8월	8월15일~10월24일 개교60주년 조선대학교산악회 시샤팡마 원정대
004017 00 04	(10기 전의천 외6명 / 장정규 등정)
	전주호남 클라이밍 페스티벌 → 34기 서상진 3위 입상
	제10회 문경산악체전 → 일반부 1위 48기 김현재
	제93회 전국체육대회 → 일반등산 남자대학부 2위 48기 김현재
	전국 13회 장년부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참가 → 노년부 1위 김양수 제46회 대통령기 전고도사대회 및 나지대화법 2일 49기 기험제 이미역 이익역
	제46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 남자대학부 2위 48기 김현재, 임재열, 이원영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키르키즈스탄 알르아르차등반 → 48기 임재열
8월	인천시장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 → 1위 49기 김홍일
9월	22회 대한산악연맹 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 1위 김홍일
_	건국 14회 장년부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참가 → 4기 김양수(2년 연속 1위)
	근국 14의 8년 1 글리어당 대의 B21 - 421 B3 1 (2년 년국 11) 제11회 문경산악체전 → 최우수상 48기 임재열, 이원영
	94회 전국체육대회 스포츠클라이밍
10,20	→ 남자일반부 난이도 49기 김홍일 3위, 24기 서상진 준결승 진출
	→ 남자일반부 속도 48기 김현재 2위, 49기 김홍일 4위
	→ 일반등산 남자대학부 1위 48기 임재열, 이원영
10.27	6회 호남스포츠클라이밍 대회 → 34기 서상진 2등
	설악산 토왕폭 빙벽등반(하단, 상단)
	선등 26기 신광철, 20기 이용철, 22기 정찬주, 23기 장영호,
	(25기 장란영)
2014년 8.30.	, , , = = = /
-	선등 23기 장영호, 20기 이용철, 22기 정찬주, (25기 장란영)

10.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



의과대학의 설립과 거의 맥락을 같이하여 1969년 1기 윤장현, 이지현 선배님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는 조선대학교 산악부에 3여 년 간 소속되어 도움을 받다 독립하여 올해로 45주년을 맞으며 산을 통한 의학도의 만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흩어진 마음들을 바로잡고 산행을 통해 인내, 용기, 진정한 사랑을 배움으로써, 올바른 학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동아리로서 활동을 해왔다.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설악산, 지리산, 무등산, 북한산 인수봉, 도봉산 선인봉 등에서 동·하계 등반을 이어왔으나 현재는 재학생의 부재로 100여명의 OB모임 위주로 꾸려지고 있으며, 몇몇 회원들이 매년 동하절기 설악산 등반을 하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CUMAC은 각자의 삶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신입회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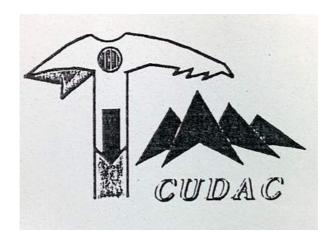
1) 에코: '쿠~막!'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 (Chosun University Medical Alpine Club: CUMAC)

2) 주요등반기록

구분	내용
1990년 1990년 1993~ 2000년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광주 낭가파르바트 원정대 참여(1기 윤장현 선배님) 토왕폭 등반
2003년 2011년	일본 북알프스 종주등반(99학번 이재광)

11.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산악회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산악회(DENTAL ALPINE SCHOOL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는 산이 좋아 산길을 가고 형과 아우가 좋아 모이는 동아리이다. 많은 형 아우와 자신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으며 고민과 애환을 말할 수 있는 모임이다. 산에 열정적으로 가고 산에 있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배우고자 한다. 동기들간에 우애와 사랑을 느끼고 아우들과는 정을 느끼게하고 형과는 고민과 자신의 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 가족적 동아리이다. 우리 'CUDAC'는 산을 통해 산의 정신을 배우고 형, 아우와 사랑을 배우게 하고자 한다

현재는 29기 57명의 OB회원으로만 유지되고 있으며 YB산악회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OB산악회는 전국(서울,경기,충청,전남,경남,강원,제주)에 거주하고 계시며 연 2회 (봄, 가을) 정기모임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증진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1) 창립

1979년 정제헌(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산악회 OB)지도교수님을 모시고 1기 김왕근, 고희종 김대수 2기 신철규, 김운, 하종운, 현용휴, 김수권 3기 김기홍, 김선렬 회원님이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산 악회를 창립하였다

2) 에코 : 어~이야

12. 조선이공대학교 산악회



1963년 중견 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대학교 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가 설립되었고 1967년 조선대학교 공업고등전문학교 산악반이 창설되어 산악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선배님들은 불로초 산악회 활동으로 지방 산악운동에 기여한 바가 있다.

1973년 5년제에서 2년제 조선대학교 공업전문학교로 학칙이 변경되어 본 산악회도 약간의 공백이 있었으나 당시 불로초 산악회 마지막 학번인 1976학번 당 10기 선배님을 1기로 모시고 본 대학산악회가 재창설됨으로써 이전 불로초산악회와 구별되는 본격적인 등반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100여명의 회원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전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산악문화 발전을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1) 에코: 기~봉!

조선대학교 공업전문대학으로 기술에 있어서 최고가 되겠다는 뜻으로 학교의 별칭이다

2) 산악회기

〈디자인〉

큰 삼각형의 오른쪽 잔상은 동적형상의 시각화로 우리 산악회의 역동성과 생기를 계단식 표현 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진보의 상징이며 정상에 있는 또 하나의 삼각형은 우리 산악회의 순수한 높 은 이상실현을 뜻한다. 삼각형 안의 피켈은 산악인의 상징으로서 슈피체 부분을 뾰족하고 날카롭 게 표현하여 빈틈없고 정확한 등반기술을 의미하며 산에 대한 사랑과 정열, 오르고자 하는 도전정 신의 표현이다. 산(삼각형)과 피켈의 음양각의 조화는 우리 산악회의 협동과 단결을 의미하며, 에 델바이스는 산악문화로서 아카데믹 알피니즘의 구현을 의미한다.

〈색상〉

흰색은 순수와 만년설을 상징한다. 녹색은 오염되지 않는 자연으로서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고 짙은 녹색은 우리 산악회의 발전과 안정을 상징하며 노랑은 밝음과 따뜻함으로서 회원 간의 정, 결속을 상징한다.

3) 연혁 및 주요 등반기록

구분	내용
1963년	중견 기술인을 양성하는 조선대학교 병설고등전문학교 설립
1967년	조선대학교 공업고등전문학교 산악반 '불로초산악회' 창설
1973년	2년제 조선대학교 공업전문학교로 학칙 변경
1976년	학칙 변경에 따라 본 대학 산악회 재창설
1977년	76학번 당10기 선배님을 1기로 모시고 본격적인 산악활동 시작
1978년	15일에 걸친 지리산 동계훈련과 해외원정을 위한 한라산 동계훈련
1980년	무등산 새인봉 암벽코스 개척 (공전길)
1981년	제1회 전국암벽등반경기대회 참가 (故 심용석 회원 3위 입상)
	故심용석회원 국가대표로 일본 국제암벽대회 참가
	일본 북알프스 원정등반
1982년	월출산 매봉 암벽코스 개척 (공육사길, 공전길)
	16일에 걸친 설악산 하계훈련 등반
	조선이공대산악회OB 창설
1983년	제1회 광주 · 전남 암벽등반대회 참가 (윤섭현 2위)
	무등산 선비바위 암벽코스 개척
1984년	월출산 시루봉 암벽코스 개척 (공전길)
	제2회 광주·전남 암벽등반대회 참가 (김창호 2위)
1987년	故 심용석 회원 원출산에 추모비 건립
	월출산 시루봉 암벽코스 개척 (추모길)
1988년 	월출산 사자봉 정면벽 암벽코스 개척

구분	내용
1990년	당가파르밧 원정대 참가 (이성원, 정성백, 서종갑) 故 정성백 회원 7,900m에서 불의의 사고
1991년	설악산 토왕성폭포 완등 (김주형)
1992년	낭가파르밧 원정등반 (원정대장 문호성, 대원 이성원, 김주형, 장홍수, 서종갑)
1995년	북미 맥킨리 원정등반 (원정대장 양준열, 대원 김주형, 장창기, 노광기, 문종국)
	북미 요세미티 원정등반 (원정대장 문종국)
1996년	트랑고타워(6,239m) 원정등반 (원정대장 문종국)
	알프스 3대북벽 원정등반 (노광기)
	공가산(7,556M) 원정등반 (윤중현)
1997년	낭가파르밧 원정등반 (원정대방 박상수, 대원 이성원, 양준열, 박형묵, 김주형, 장창수,
1998년	노광기, 문종국, 윤중현, 손형근, 홍동식(송원대))
	공가산(7,556m) 원정등반 (윤중현, 송형근)
	남미 쎄레토레 등반 (문종국)
	유럽 알프스 원정등반 (김덕중, 노광기, 김천)
1999년	칸쳉중가(8,586m) 원정등반 (김주형)
	K2 원정등반 (문종국)
	제16회 광주 · 전남 암벽등반경기대회 참가 (이경주 2위 입상)
2000년	K2 원정등반 (원정대장 이성원, 대원 김주형 문종국 윤중현)
2001년	북미 스쿠아미시 원정등반 (문종국, 송형근)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등반 (문종국, 류승현)
2002년	시사팡마(8,046m) 원정등반 (원정대장 박상수, 대원 김주형)
2003년	북유럽 '트롤월' 원정등반 (원정대장 송형근)
2004년	로체 남벽(8,516m) 원정등반(원정대장 박상수, 대원 김주형, 송형근)
	남미 '파이네' 원정등반 (문종국, 이경주)
2005년	낭가파르밧 루팔벽 원정등반 (대장 이성원, 대원 김주형, 송형근)
2007년	에베레스트(8,848M),로체(8,516M)연속 원정등반 (원정대장 박상수, 대원 김주형, 윤중현)
	마나슬루(8,163M) 원정등반 (원정대장 김주형)
2010년	마나슬루(8,163M)원정등반 (원정대장 박상수)
2011년	모로코(타기아조지),요르단(와디럼)원정등반 (문종국)
2012년	시샤팡마(8,046M)원정등반 (김덕중)
2013년	K2(8,611M) 원정등반 (김덕중)
	가셔브롬(8,068M)원정등반 (김덕중)
	캉첸중가(8,586M)원정 등반 (부단장 박상수, 원정대장 이성원)

13. 호남대학교 산악회



호남대학교 산악회(HONAM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는 1979년 성인경상 전문대학 산악회로 지도교수 최윤홍 교수님을 모시고 신입회원 32명으로 창립하여 1982년 호남대학 산악회(HONAM COLLEGE ALPINE CLUB)로 개칭 되면서 지도교수로 이동렬 교수님을 모셨고 1992년 호남대학교 산악회(HONAM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로 호남대학교 역사와 함께 해 오고 있으며, 산악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에 정을 느끼고 친목 도모와 연구를 통해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문화 조성으로 참다운 산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활동으로는 매년 신입생 환영등반을 시작으로 훈련등반, 종주산행, 하계장기등반, 암벽등반, 동계장기산행 및 산악장비 전시회, 등산학교(하계반,암벽반,동계반) 참여로 기초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산악회 회원들은 여러 지역에서 꾸준한 산악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호남대학교 OB산악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선후배들 상호간에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정기적인 산행을 하고 있으며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대학산악회 신입 회원의 급감 현상으로 인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은 없지만 호남대학교 O.B산악회는 지속적인 정기 모임과 정기산행으로 회원상호 간의 친목과 우애을 돈독히 하며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또한 호남대학교 산악회의 재정립을 위하여 다 방면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바 언젠가는 과거처럼 왕성한 재학생의 활동을 기대하여 본다.

1) 연혁 및 주요 등반기록

구	 분	내용
1979년	3월	성인경상전문대학 산악회 창립(초대회장:이봉진)
		1기 회원 32명의 입회 / 지도교수님으로 최윤홍 교수님 모심
	4월	지리산 신입생환영 등반
	8월	하계 덕유산 훈련등반
1980년	4월	2기 19명 입회 지리산 신입생환영등반
	7월	대둔산 단합등반
1981년		3기 15명 입회 무등산 신입생환영등반
		산간학교 입교
	수시	월출산, 새인봉 암벽훈련 등반
1982년		호남대학 산악회로 명칭 변경
		4기 10명 입회 / 이동렬 지도교수님 모심
	4월	무등산 신입생환영 등반
	7월	지리산하계훈련등반(7명)
	10월	교내장비전시회
	수시	월출산, 새인봉 암벽등반
		산간학교 입교
1983년	4월	5기 12명 입회 월출산 신입생환영등반
	7월	한라산 하계훈련등반(8명)
	수시	월출산, 새인봉 암벽등반
		산간학교 입교
1984년		6기 12명 입회. 무등산 신입생환영등반
	7월	하계 월출산 암벽훈련 등반(16명)
		17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등산대회 참여.
		일본 북알프스(오쿠호다카다케-3,190m) 5명 등반.
	수시	월출산, 새인봉 암벽등반
		등산학교 입교
1985년		7기 10명 입회 월출산 신입생환영등반
		설악산 하계 훈련등반(8명)

구분		내용
1985년	수시	월출산, 새인봉 암벽등반
		등산학교 입교
1986년		8기 10명 입회 무등산 신입생환영등반
	7월	하계 장기 훈련등반(설악산-5명)
	수시	월출산, 새인봉 암벽등반
		등산학교 입교
1987년		9기 7명 입회 월출산 신입생환영 등반
	7월	하계 장기 훈련등반(설악산4명)
	수시	월출산, 새인봉 암벽등반
		등산학교 입교
		호남대학 O.B산악회 창립(무등산 대피소 앞)
1988년		10기 5명 입회 무등산 신입생환영 등반
		하계 지리산종주등반(4명)
		월출산, 새인봉 암벽등반
		등산학교 입교
1989년		11기 5명 입회 월출산 신입생환영 등반
		월출산 암벽 훈련등반(6명)
		월출산. 새인봉 암벽등반
		등산학교 입교
1990년		12기 7명 입회 월출산 신입생환영 등반
		월출산, 새인봉 암벽등반
		등산학교 입교
1991년		13기 2명 입회 무등산 신입생환영 등반
		월출산, 새인봉 암벽등반
		호남대학교 산악회로 개칭
1992년		14기 2명 입회 무등산 신입생환영 등반
		대만 南湖大山(3742m)등반

제3절 전남(가나다순)

1. 동신대학교 산악회



동신대학교 산악회는 학교 개교와 같은 해 1987년 산악회를 창립하였으나, 군 복무 이후(1기, 2기 이후) 명맥이 끊였으며 이후 1992년에 다시 결성하여 1999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현재학교에 산악부 재학생은 없다.

2. 목포과학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산악회 (Mokpo Scince University Alpine Club)는 1981년4월 목포공업전문 대학 쌍룡산악회로 김보연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신입회원 26명으로 창립하여, 1985년 목포전문 대학 산악회로 개칭되었고, 1997년 목포과학대학 산악회, 2012년 목포과학대학교 산악회(Mokpo Scince University Alpine Club)로 개칭되어 활동해 오고 있다.

회원들의 산행 및 산악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신뢰형성과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산에 대한 철학을 함양하며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신입생 환영등반을 시작으로 훈련등반, 암벽등반 하계장기등반, 승달산 산신제 등을 통하여 기초 훈련을 다지고 산악장비전시회를 통해 산악회 활동을 알렸고, 등산학교(하계반, 암벽반, 동계반)참여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산악 활동을 해 왔다.

산악회 회원들은 졸업 후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산악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에 새롭게 꾸린 OB산악회에 가입하여 년 4회의 정기산행을 통해 선후배들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YB산악회 활동이 단절되어 있으나 앞으로 YB산악회를 되살려 다시한번 목포과학대학교 산악회의 번영을 맛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목포과학대학교 산악회는 OB산악회 회원들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원대한 꿈과 포부를 서로 나누며 선, 후배간의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는 산악인으로 거듭 날 것 이다.

1) 연혁 및 주요 등반기록

구분	내용
1981년	목포공업전문대학 쌍룡산악회 결성
1981년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하계등산학교 참가 이후 매년 참가
1982년	승달산 산신제 이후 매년 실시
1982년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동계등산학교 참가 이후 매년 참가
1982년 5월	장비전시회 개최 이후 매년 개최
1986년	광주 · 전남학생연맹 암벽학교 참가 이후 매년 참가
1989년	여름 장기산행 (설악산)
1989~90년	89/90동계에베레스트훈련 1차 설악산, 2차 한라산 참가(5기 현정란)
1990년	겨울 장기산행 (설악산)
1990년	백두대간 종주 (완주-박근구, 김공주, 김헌철, 1구간완주-주인성, 임찬수)
1994년	설악산 토왕폭포 빙벽등반
1995년	목포전문대 탈레이사가르 원정대 (대원:최호, 박근구, 김인철, 김대중, 김은주, 임찬수)
1996년	중국 공가산 원정대 (대원:임찬수, 이미영, 이홍원)
1998년	중국 공가산원정대 (대원: 오종락, 임찬수)
1998년	맥킨리 원정 (대원:김은주)
1999년	한국 K2,G1,G2 원정대 (대원:김인해, 최호, 박근구, 김은주)
2000년	초오유 원정대 (대원: 김병대)
2005~06년	전남학생연맹 회장 (1기 김인해)
2007~09년	전남학생연맹 회장 (2기 김병대)
2011~12년	전남 산악구조대장 (2기 김병대)

3. 목포대학교 산악회



목포대학교 산악회는 1979년 목포 대학 산악부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목포대학 산악부에서 목포대학교 산악회(MOKPO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 M.N.U.A,C)로 개칭 되었고 할뫼 라는 에코를 사용 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목포대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전남 무안의 명산인 승달산에서 환경정화 활동 및 기초체력을 다지고 또한 월 2회 이상 정기산행을 통해 월출산 등지에서 암벽등반 훈련을 하고 여름 방학 때 는 하계훈련으로 설악산에서 보름정도 훈련을 하며 겨울방학에는 설악산이나 한라산 등지에서 동계 훈련을 한다.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가맹단체로서 광주·전남 히말라야 원정 등반에 많은 참여를 하였으며 또한 목포대학교산악회 단일팀으로 2001년 중국의 사천성 아이더자(6,618m)를 세계초등 하였다.

2014년 현재 OB회원과 YB회원은 끈끈한 정으로 36년간 전통을 잇고 아름다운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전통을 인정받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는 목포대학교 산악회의 옛 장비들이 전시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총회 및 합동 산행으로 산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열정을 불태우며 끊임없는 도전을 추구하고 있다.

박공래 초대 지도교수님께서 산악부 창설과 기틀을 마련하고 산악인으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고, 그 후 김석주, 박형빈 교수님을 거처 지금은 나혜영 지도교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1) 연혁 및 주요 등반기록

구분	내용
1979년	목포대학 산악부 창립
1981년	제1회 학장배 크로스컨트리 행사 시작
1985년	제1차 하계 장기등반 시작
	목포대 산악회지 '할뫼' 1집 발간 시작
1986년	제1차 동게 장기등반 시작
1989 \sim	동계 에베레스트 등반 (81 이병철 , 85 이병규)
90년	낙동정맥 동계 단 독종 주 (85 김재명)
1990년	종합대학교로 승격 목포대학교 산악회로 개명
	목포대학교 산악회 OB 창립총회
1991년	북미 맥킨리(6,194m) 등반 (79 김거봉, 82 김흥규, 84 이종식, 85 김재명, 87 강영관, 90 신권)
1993년	일본 북알프스(3,190m) 동계 종주 등반 (85 김상준, 85 김일용, 85 김재명)
1996년	공가산 등반(7,556m) (85 김재명)
1998년	공가산 (7,556m) 북동릉 세계초등 (85 김재명)
1999년	G I , G II , K 2 원정대 가셔브룸 I 원정대장(81 이병철), 가셔브룸2(8,035m) 남릉루트 등정 (93 김용재)
2000년	공가산 등반(7,556m) (85 김재명, 93 김용재)
	제 33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여자대학부 2위
2001년	중국 사천성 아이더자(6618m) 세계초등: (85 김재명, 95 이용부) 등반: (93 이용재)
	대산련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몽골 알타이산맥 지도의원 (81 이병철)
	목포대학교 총장 표창장 수상 목포대학교산악회
2003년	로체샬(8,400m) 등반 (96 박현수)
2004년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파미르고원 알라이 산맥 탐사대장 (81 이병철)
2005년	낭가파르밧(8,125m) 루팔대장벽 등반 (96 박현수)
	동티벳 탐사 (85 김재명, 85 김상준)
2007년	대산련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네팔&티벳 탐사대장 (81 이병철)
2008년	목포대학교 산악회 창립 30주년기념 일본 북알프스(3,190m) 동계 등반 (대장 03 정대
	웅) (고문 85 김상준) (대원 03 정광석, 05 곽효정, 06 김니다, 06 박서영, 08 김진)
2009년	다울라기리(8,167m)/안나푸르나(8,091m) 등반 (06 김니다)
	제90회 전국체전 대학 산악부 3위 (06 부기동, 06 박재철, 08 김진)
	제29회 총장배 크로스컨트리 마지막으로 폐회
2010년	공가산 등반(7,556m) (85 김재명)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빅람회 성공 기원 킨첸중가 원정대(8,586m) (부단장 81 이병철, 대원 96 박현수)
	중국 사천성 텐하이즈 등반(6,070m) (85 김재명)

4. 목포해양대학교 산악회



목포해양대학교 산악회(Seaman Alpine Club)는 1981년 목포양전문대 산악회를 시작으로 1993 년 목포해양대학 산악회, 1994년 목포해양대학교 산악회로 개칭되었다. 통상적으로 '해악 산악회' (海岳,SAC)라 불리워지며 '해악'이라는 동일한 에코(Echo)를 사용하고 있고 목포해양대학교의 동 아리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동아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해양대학교라는 특성상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함은 물론 매일매일 군대시절을 연상케하는 점호를 아침, 저녁으로 치르고, 가장 왕성한 시기인 대학 2~3학년 중 1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실습을 위해 승선을 해야 하는 등 열악한 등반 환경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더우기 회원들의 고향 또한 전국 각지여서 베이스캠프로 삼을 만한 장소 또한 없으며, 졸업 후에는 최소 3~4년동안 이어지는 승선기간으로 인하여 선후배간의 만남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승선기간 중에는 짧은 등반은 물론 장기등반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기에 학창시절 등반에 대한 불꽃같은 열정은 그 꿈을 펼쳐 보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간직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토록 힘져웠던 시절을 견뎌내고 30여년 이상 동안 우리 해악 산악회는 한 기수도 낙오된 적이 없이 그 인연의 끈을 아직까지 함께 이어오고 있다. 매년 학기 초에는 모교에서 신입회원 환영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하계, 동계 OB 합동등반을 실시하는 등, 년 3회의 정기 모임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1) 연혁 및 주요 등반기록

구분		내용
1981년		목포해양전문대 산악회 결성
1982년	5월	장비전시회 및 사진전시회 개최 (모교) 이후 매년 개최
1986년		조선대학교 총장배 Cross-Country 대회 우승
1987년		전남대학교 총장배 Cross-Country 대회 우승
		하계,동계 장기등반 시작 이후 매년 실시
1989년		전남대학교 총장배 Cross-Country 대회 1,2,3위
	12월	동계 명산 연속등반(한라산-지리산-치악산-설악산)
		목포해양대학교 소식지 [해악] 창간 이후 98년까지 발간
1990년		전남대학교 총장배 Cross-country 대회 1,3위
	12월	목포해악대학교 산악회 O.B 결성 초대회장 이기영(83)
1992년	12월	(12월-3월) 동계 백두대간 단독종주-신승호(87)
		동계 태백산맥 단독종주-김명신(87)
1993년		목포해양대학 산악회로 개칭
1994년		목포해양대학교 산악회로 개칭
	4월	탈레이사가르 북벽등반 (6400m) - 신승호(87)
1996년	10월	목포대학교 크로스컨트리 대회 우승- 최정훈(93) 김원종(95)
	10월	목포 유달산 개척등반 [해악길]
1997년	12월	(12월-1월) 동계 호남정맥 단독종주-최정훈(93)
	10월	목포대학교 총장배 Cross-Country 대회 우승
		대한산악연맹 주최 오지탐험대 참가 - 이종재,문태식
1998년	7월	7월~8월 하계 백두대간 단독 종주-하영태(93)
2000년	5월	해악20주년 기념식 (본교 교정)
2010년	5월	해악 30주년 기념식 (본교 교정, 목포 신안비치호텔 일원)

2) 회기의 변천





5. 순천대학교 산악회



순천대학교 산악회는 1982년 순천농업전문대학에서 순천대학교로 개편되는 해 5월5일 순천대학 산악부(SUNCHON COLLEGE ALPINE CLUB / S.C.A.C)로 창립되었다. 그리고 1991년 순천대학 산악부에서 순천대학교 산악회(SUNCHON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S.N.U.A,C)로 개칭 되었다.

1980년대 순천 광양 여수지역은 전문산악의 불모지여서 초창기 회원들이 전문등반을 배우기 위해 산간학교에 입교하여 전문등반을 익혔으며, 타 산악회와 합동등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였다. 학기 중에는 월 2회 이상 정기산행을 하고 방학 동안에는 하계와 동계 장기등반을 하고 있다. 회원의 체력단련을 위해 대학교 주변 향림사~조비마을 6Km 오르막길 뜀박질을 하였으며, 암벽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89년 건축현장 자재와 석재공장의 돌들을 이용한 인공암장을 학생회관에 독창적으로 설치하였다.

그 성과로 전남대학교 Cross-country 남자부 3연패(91년, 92년, 93년)달성하여 전남대학교 Cross-country기를 영구 보관하였으며,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제32회 대학부 준우승, 제33회 대학부 우승, 전국체육대회 산악 제84회, 제85회 대학부 동메달을 수상했다. 1993년 故 박현재 회원(7기 88학번)이 세계 최고봉 초모랑마(에베레스트 8,850m) 광주·전남 초등, 1995년에는 故 박현재, 이정현 회원이 카라코람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한국초등을 이룩했다. 순천대학교 자체등반으로는 1994년 북미 최고봉 맥킨리(6,194m)원정대 등정, 2002년 돌로미테 등반, 故 박현재 회원 10주기 기념등반으로 2005년 가셔브룸 I(8,035m)원정등반을 하였으며, 그 외 광주·전남에서 꾸려지는 해외원정대에도 참가하고 있다.

1986년에는 북한산 병풍암 등반사고, 1995년, 1996년 회원의 해외원정 등반사고로 존폐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끈끈한 악우애로 극복하였다.

2013년 현재 32년간의 산악활동으로 슬픔과 기쁨을 간직하고 회원 간의 끈끈한 정으로 산악활동을 하고 있다.

1) 연락처

우) 540-950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학생회관 4층 산악회

2) 연혁 및 주요 등반기록

구분		내용
 1982년	5월	5일 "순천대학 산악부" 창립 (S.C.A.C)
	9월	제1회 산악장비 전시회 개최 (임양호,김용철,최기열,허규만)
1983년	10월	제2회 조선대 Cross-country대회 우정상 수상
	11월	전남 산악연맹 2회 월출산 추계 암벽반 수료
1984년	2월	동계 지리산 종주 (2박 3일)
	7월	소백산맥 종주 (18박19일)
1985년	9월	9월 18일~10월 29일 : 전국 단독 도보 일주 (1기 임양호)
		제21회 전남대학교 Cross-country대회 여자부 우승
		제5회 조선대학교 Cross-country대회 여자부 우승
1986년		북한산 병풍암 하계 훈련 중 사고(이용문, 정원기 회원 추락사, 임양호 회원 중상)
		제20회 대통령배 전국 등산대회 여자부 준우승
1987년		제22회 전남대학교 Cross-country대회 여자부 우승(2연패)
1989년		89/90 한국 동계 에베레스트(8,848m) 원정대 (김동열 회원 참가)
		학생회관에 직벽 인공암장 제작 설치
1990년		90 광주 낭가파르밧(8,125m) 원정대 (문태철 회원 참가)
		학생회관 증축으로 인공암장 철거
1991년		"순천대학교 산악회"로 개정(S.N.U.A.C)
		학생회관 측벽에 홀드 에폭시 부착 인공암장 만듦
		제26회 전남대학교 Cross-country대회 남자부 우승
1992년		92 한국 천산 영호남 합동 원정대 (이정현 회원 참가)
		제27회 전남대학교 Cross-country대회 남자부 우승(2연패)

구분	내용
1993년	93광주 · 전남 초모랑마(8,848m)원정대 (박현재, 이정현 회원 참가)
	박현재 회원 세계 최고봉 초모랑마(에베레스트) 광주 · 전남 초등
	제27회 전남대학교 Cross-country대회 남자부 우승(3연패)
1994년	94 순천대학교 맥킨리(6,194m) 원정대 (원정대장 박현재, 대원 조정우, 이정현, 오철
	식 북미 최고봉 맥킨리 등정)
1995년	95 빛고을 브로드피크(8,047m)원정대 (박현재, 이정현 회원 참가)
	박현재, 이정현 회원 한국 8,000m급 마지막 미 등정봉 브로드피크(8,047m) 초등,
	박현재 회원 하산 도중 추락사
1996년	96 광주 · 전남 알프스 원정대 (최전식 회원 참가)
	최전식 회원 몽블랑(4,808m) 등반 중 사망
1999년	제1회 전남산악연맹 회장기 등반대회 대학부 우승
	99 한국 가셔브룸 I (8,068m) 가셔브룸 II (8,047m) k2(8,611m) 원정대 (조정우, 이정
	현, 주우평 회원 참가 / 이정현, 주우평 회원 가셔브룸 I (8,068m) 등정
	제32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대학부 준우승
2000년	2000년 한국 K2(8,611m)원정대 (이정현, 주우평 회원 참가 / 이정현, 주우평 회원 세
	계2위봉 K2 등정)
	제33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대학부 우승
2001년	2001년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 (진상건 회원 참가)
2002년	2002년 순천대학교 돌로미테 등반대 (박원표 등반대장, 양인복 대원)
2003년	2003년 노르웨이 트롤월 등반대 (진상건 회원 참가)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산악 대학부 동메달
2004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산악 대학부 동메달
	제6회 전남산악연맹 회장기 등반대회 대학부 준우승
	2004년 한국도로공사 로체(8,516m) 남벽 원정대 (이정현,주우평 회원 참가)
2005년	2005 순천 가셔브룸 II (8,035m) 원정대 (원정대장 이정현, 대원 오철식, 박대현, 이아름)
	2005 한국 낭가파르밧(8,125m) 루팔대장벽 원정대(주우평 회원 참가)
2011년	2011 청소년 오지탐사대 아프리카팀(김건우), 중국 사천성팀(이승재)
	학생회관 리모델링으로 홀드 에폭시 부착 인공암장 철거

3) 역대 지도교수

1984년~1988년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임성래 교수님(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재직 중) 1999년~2004년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이윤호 교수님

6. 순천제일대학교 산악회

순천제일대학 산악회(SUNCHEONJEILCOLLEGE ALPINE CLUB)는 1985년 이교태 지도교 수님을 모시고 순천공업전문대학 산악회로 창립하였고 1998년 순천제일대학 산악회로 개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활동으로는 매년 신입생 환영등반을 시작으로 등산학교(하계반,암벽반,동계반), 하계장기등반, 등 체계적인 산행을 해왔다. 현재 재학생은 없고 O.B산악회는 정기산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회원간 친목과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1) 연혁 및 주요 등반기록

구분	내용			
丁正	1-2			
1985년	순천공업전문대학 산악회 창립			
1994년	요세미티 조민철 등반			
1998년	순천제일대학 산악회로 변경			
1997년	전남대학교 산악마라톤 대회 2등(박상훈, 서영민)			
	목포대학교 산악마라톤 대회 1등(장옥수, 배윤희, 박상훈)			
1999년	G1,G2,K2 원정대 조민철 등반 G2 변성호 등정			
	전남대학교 산악마라톤 대회 준우승(안치호,김평윤)			
	전남산악연맹회장기 등산대회 대학부 준우승(안치호, 김평윤 외 2명)			
2000년	순천제일대학 초오유 원정대 변성호 등정			
	전남대학교 산악마라톤대회 2등(박상훈)			
	대산련 에베레스트 원정대 변성호 등반			
	알프스3대북벽 박상훈 등반			
2001년	알프스샤모니 스키등반 변성호			
2002년	도로공사 시샤팡마 원정대 남벽 신루트 변성호 등반			
2003년	탈레이사가르 변성호 등반			
2004년	로체남벽 박상훈 등반			
2004~ 2012년	알프스지역 변성호 등반			
2005년	낭가파르밧 루팔벽 박상훈 등반			
2005~ 2006년	요세미티 변성호 등반			
2007년	로체샬 남벽 신루트 변성호 등정			
2008년	대산련 고산등반상 변성호 수상			
2013년	캉첸중가 박상훈 등반			
2014년	키르키스산 코로나5(4,860m) 신루트 변성호 등정			

7. 청암대학교 산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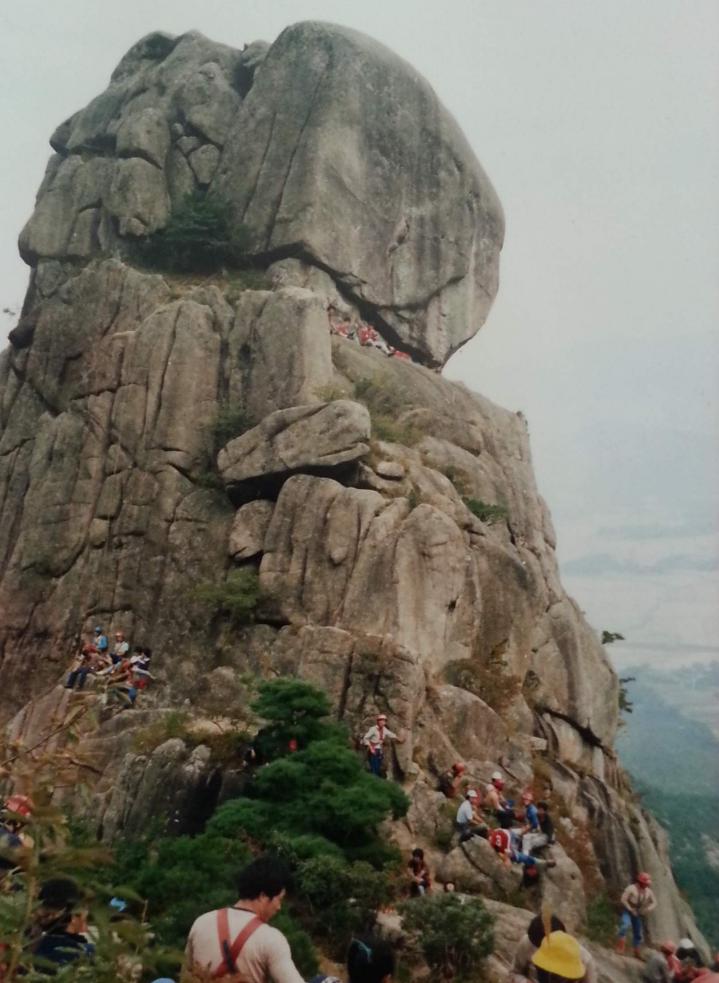
청암대학교 산악회는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순천간호전문대학에서 1993년 순천전문대학으로 2010년 청암대학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산과 인간 존중을 실천하고자 1988년 순천간호전문대학 산악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간호전문대학에서 시작된 산악회는 여성 회원들로만 구성되어 타 대학산악회와 교류를 통해 산 악문화를 이해하고 광주등산학교에 입교하면서 전문등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993년 순천전문 대학으로 개정되면서 남성회원을 받았지만 여성회원이 주를 이루다 보니 OB회를 결성되지 못하고 YB도 없어 휴면 상태입니다.

8.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악회



1987년 3월 성실, 인내, 안전이라는 회훈을 바탕으로 산에 첫 발을 내 딛고 오른지 2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하계, 동계 장기 산행을 통한 암벽등반, 빙벽등반, 설상훈련 등을 통하여 등산기술을 연마하여 92년 백두대간 구간종주를 시작으로 93년 3월 네팔 로부제, 96년 10월 북미 맥킨리, 06년 요세미테, 12년 엘브루즈, 13년 킬리만자로 등을 등반하였다.



제4장

부 록

제1절 해외원정 연표

제2절 학산인의 8,000m 급 14좌 +1

제3절 국내산 개척등반

제4절 역대 임원 명단

제5절 광주ㆍ전남 학생산악연맹 정관

제6절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 정관

제7절 회원명부(가나다 순)



제1절 해외원정 연표

등반기간	원정대명	대상산	대원	비고
1984. 9.15 ~ 10.27	'84 한국 안나푸르나 Ⅲ봉 원정대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봉(7,555m)	대장 고광수 외 3명	6,700m 까지 등반
1987. 8.14 ~ 10.13	'87 전남의대 렌포강 원정대	네팔 쥬갈히말라야 렌포강 (7,083m)	대장 윤재룡 외 5명	이정훈, 김수현 서벽루트 세계 초등정
1989. 9. ~ 1990. 1.	'89/90 한국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	대장 김하경 외 27명	사우스콜(8,000m)까지 등반
1990. 5. ~ 7.	'90 광주 낭가파르바트 원정대	파키스탄 푼잡 히말라야 낭가파르바트 (8,125m)	대장 최창돈 외 15명	학산출신 회원이 주축으로 참여
1991. 5. ~ 8.	김홍빈 원정대	북미 알라스카 매킨리 (6,914m)	김홍빈	5,800m 도달
1991. 5. ~ 8.	'91 목포대학교 매킨리 원정대	북미 알라스카 매킨리 (6,914m)		
1992.	'92 한국 천산 영호남 합동원정대	카자흐공화국 천산산 맥 포베다(7,439m), 칸텡그리(7,010m)	대장 임형칠 외 5명	대원 박헌주 칸텡그리 등정
1992, 8.7 ~ 10.8	'92 조선대학교 마나슬루 원정대	네팔 히말라야 마나슬루(8,163m)	대장 박태규 외 10명	이용철, 셀파 푸르바 등정
1992. 4.28 ~ 7.17	'92 조대공전 낭가파르바트 원정대	파키스탄 푼잡 히말라야 낭가파르바트 (8,125m)	대장 문호성 외 4명	
1992.	'92 서강대학 매킨리 원정대	북미 알라스카 매킨리 (6,914m)	나관주, 김해곤	
1992.	'92 송원대학 매킨리 원정대	북미 알라스카 매킨리 (6,914m)	대장 신복남 외 4명	신복남, 홍동식, 윤호준, 정우연, 장병호 5,700m 도달

등반기간	원정대명	대상산	대원	비고
1993. 6.30 ~ 8.6	'93 전남대학교 알프스 3대북벽 원정대	유럽 알 <u>프스</u> 3대 북벽	대장 임우근 외 5명	마터호른: 최행준, 고일주 등정 그랑조라스: 백두인, 김기범 등정 아이거: 최행준, 고일주 등정
1993. 8.9 ~ 10.20	'93 광주 · 전남 초모랑마 원정대	티벳 히말라야 초모랑마(8,848m)	대장 임형칠 외 10명	박현재, 셀파 판누루 등정
1994.	'94 순천대학교 매킨리 원정대	북미 알라스카 매킨리 (6,914m)	대장 박현재 외 3명	박현재, 조정우, 오철식, 이정현 등정
1994. 8.18 ~ 10.16	'94 서강전문대학 히말츄리 원정대	네팔 히말라야 히말츄 리(7,893m)	대장 정득채 외 4명	700m 대암벽밑 7300m 까지 등반
1995. 5.26 ~ 6.9	'95 조선이공대 매킨리 원정대	북미 알라스카 매킨리 (6,914m)	대장 양준열 외 4명	김주형, 노광기, 문종 국 등정
1995 .6.3 ~ 8.15	'95 빛고을 브로드피크 원정대	파키스탄 푼잡 히 말라야 브로드피크 (8,047m)	대장 박찬기 외 4명	박신영 박현재 이정현 등정
1996. 5 ~6	'96 여 수수 산대학교 맥킨리 원정대	북미 알라스카 매킨리 (6,914m)		
1996. 7.18 ~ 10.25	'96 조선대학교 에베 레스트-로체 원정대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 로체(8,516m)	대장 임형칠 외 8명	최종태, 신광철, 등정
1996.6 ~ 7	'96 알프스 3대북벽 원정대	유럽 알프스 3대 북벽	대장 윤호준 외 3명	
1996.6 ~ 8.	'96 한국 트랑고타워 원정대	파키스탄 카라코룸 트랑고타워 (6,239m)	대장 문종 국 외 2명	문종국, 서신종 등정

등반기간	원정대명	대상산	대원	비고
1996.10. ~ 11	'96 한국 공기산 원정대	중국 쓰촨성 공가산 (7,556m)	대장 김재명 외 5명	
1997. 8.16 ~ 10.4	'97 한국 초오유 원정대	중국 티벳 자치령 내 초오유 (8,201m)	대장 이정옥 외 7명	박헌주, 김성석 등정
1997. 5.17 ~ 7.20	'97 한국 낭가파르바트 합동원정대	파키스탄 푼잡 히말 라야의 낭가파르바트 (8,125m)	대장 박상수 외 8명	김주형 등정
1997. 7.25 ~ 8.3	장애인 5대륙 원정대 유럽 엘부르즈	유럽 엘브루즈	김홍빈	김홍빈 등정
1997. 9.12 ~ 9.26	장애인 5대륙 원정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케냐 킬리만자로(5,895m)	대장 김홍빈 외 1명	김홍빈 등정
1997. 9.12	장애인 5대륙 원정대 남미 아콩카구아	남미 아콩카구아 (6,959m)	김홍빈	김홍빈 등정
1998. 5.13 ~ 6.08	한국 장애인 5대륙 원정대 북미 매킨리	북미 Mt.맥킨리 (6,194m)	대장 김홍빈 외 1명	김홍빈, 김은주 등정
1998.7 ~8	'98 알 <u>프스</u> 3대 북벽 원정대	알프스 3대북벽	대장 홍 동 식 외 6명	
1998.10.8. ~11.	'98 공가산원정대	중국 쓰촨성 공가산 (7,556m)	대장 김재명 외 5명	김재명, 오종락, 윤중현 북동릉 세계 초등
1998. 12 ~ 1999. 1.	'98 광주대 아콩카구아 원정대	남미 아콩카구아 (6,959m)	대장 정명호 외 3명	정명호 등정
1999. 5.22. ~ 8.29	'99 한국 가셔브룸 I , 가셔브룸 II , K2 원정대	파키스탄 카라코람 G I , GII, K2	G1:대장이병철외6명 G2:대장이종승외9명 K2:대장박정헌외6명	G1:이정현, 주우평, 변성호, 김재영 등정 G2:이종승, 최호, 김태호, 김용재 등정

등반기간	원정대명	대상산	대원	비고
2000. 5. 6 ~ 7. 23	새천년 맞이 영 · 호남 합동 2000 한국 K2원정대	파키스탄 카라코람 K2 (8,611m)	대장 이성원 외 11명	박정헌, 강연룡, 윤중현, 주우평, 윤치원, 이정현, 김주형, 유순옥 등정
2000.	2000년 한국 초오유 원정대	중국 티벳 자치령 내 초오유(8,201m)	대장 이동호 외 4명	김영학, 나관주,김미곤 등정
2000.	2000년 한국 순천제일대학 초오유 원정대	중국 티벳 자치령 내 초오유(8,201m)	대장 조민철 외 9명	변성호 등정
2001. 7 ~8	2001년 알프스 3대북벽 원정대	알프스 3대북벽	대장 문종국 외 5명	아이거, 그랑드조라스 북벽 전원 등정(문종국, 이현조, 함 경준, 진상건, 박상훈, 류승현)
2001.	2001년 한왕룡 원정대	네팔 히말라야 마칼루 (8,463m)	대장 이동호 외 4명	김미곤 등정
2002.	2002 순천대학교 돌로미테 원정대	이탈리아 돌로미테	박원표, 양인복	
2003.	2003 노르웨이 트롤월 원정대	노르웨이 트롤월	송형근, 진상건	
2004.	2004 로체 남벽 로체샬 영 · 호남 합동 원정대	네팔 히말라야 로체 (8,516m)	대장 박상수 외 12명	송형근 7,800m 도달
2005.	2005 순천대학교 가셔브룸 II 원정대	파키스탄 카라코람산맥 가셔브룸 II (8,035m)	대장 이정현 외 3명	7,400m 도달
2005. 4.12 ~ 8.11	2005 한국 낭가파르바트 루팔벽 원정대	파키스탄 푼잡 히말 라야의 낭가파르바트 (8,125m) 루팔벽	대장 이성원 외 11명	이현조 김창호 등정
2006. 3. 25 ~ 5.29	2006 전남대학교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대	중국령 티벳 히말라야 초모랑마(8,848m)	대장 백두인 외 7명	이현조, 이형관 등정

등반기간	원정대명	대상산	대원	비고
2006. 6. 9 ~ 8.14	2006 한국 G I , G II 원정대	파키스탄 키라코람산맥 가셔브룸 I (8,068m) 가셔브룸 II (8,035m)	대장 김홍빈 외 1명	가셔브룸 II : 김홍빈, 김미곤 등정
2006. 8.14 ~ 10.22	2006 조선대학교 시사팡마 원정대	티벳 랑탕-쥬갈히말 시샤팡마(8,027m)	대장 신광철 외 4명	장정규 등정
2006. 8.14 ~ 10.22	2006 김홍빈 시사팡마 원정대	티벳 랑탕-쥬갈히말 시샤팡마(8,027m)	대장 김홍빈	김홍빈 등정
2007.	평화를 위한 2007 에베레스트 · 로체 원정대	네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 로체(8516m)	대장 박상수 외 8명	김홍빈, 김미곤, 윤중현 등정
2007. 7. 1 ~ 7.5	한국 장애인 7대륙 최고봉 원정대	오세아니아 코시어스코 (2228m)	대장 김홍빈	김홍빈 등정
2007. 8.30 ~ 10.25	2007 한국 다울라기리 원정대	네팔 중부 다울라기리 (8,167m)	대장 김홍빈 외 1명	7,700m 도달
2008. 4. 3 ~ 5.23	2008 빛고을 마칼루 원정대	네팔 히말라야 마칼루 (8463m)	대장 김홍빈 외 2명	김홍빈 등정
2008, 6,10 ~ 8, 8	2008 전남대학교 가셔브룸 I ,II 원정대	파키스탄 키라코람산맥 가셔브룸 I (8,068m), 가셔브룸 II (8,035m)	대장 김영필 외 10명	G I: 김미곤, 밍마셀파 6,900m 도달 GII: 김가영, 이형모, 김영미, 팸바셀파 7,600m도달
2008. 7.24 ~ 8.22	2008 광주교대 Kaufmann원정대	우즈베케스탄 타슈켄트 Kaufmann(7,134m)	대장 김종철 외 1명	
2008. 11. ~ 2009. 1.	2008-2009 남극대륙 빈슨메시프 원정대	남극대륙 빈슨메시프	대장 김홍빈 외 1명	김홍빈, 정후식 등정

등반기간	원정대명	대상산	대원	비고
2009. 3.24 ~ 5.13	2009 안나푸르나 . 다울라기리 원정대	네팔 중부 다울라기리 (8,167m)	대장 김홍빈	김홍빈 등정
2009. 5. 8 ~ 5.30	2009 전남대학교 산악회 데날리 원정대	북미 맥킨리(6,194m)	대장 박상규 외 2명	김가영 등정
2009. 6.12 ~ 8.14	2009 K2 · 브로드피크 원정대	파키스탄 카라코람 K2 (8,611m), 푼잡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대장 김홍빈	K2 8,300m 도달
2009. 9.11 ~ 10.17	2009 안나푸르나 원정대	안나푸르나	대장 김홍빈	7,500m 도달
2009. 3.24 ~ 5.29	2009 안나푸르나 · 다울라기리 원정대	네팔 중부 다울라기리 (8,167m)	대장 김미곤 외 1명	김미곤 등정
2010. 3.22 ~ 5.28	2010 마나슬루, 안나푸르나 원정대	히말라야 마나슬루, 안나푸르나	대장 김홍빈 외 1명	8,070m 도달
2011. 3.22 ~ 5.28	2011 마나슬루 원정대	네팔 히말라야 마나슬루(8,163m)	대장 박상수 외 7명	김미곤 등정
2011, 8.22 ~ 10.3	2011 김홍빈 초오유 원정대	티벳 히말라야 초오유 (8,201m)	대장 김홍빈외 1명	김홍빈 등정
2011.	2011 김미곤 시사팡마 원정대	티벳 랑탕-쥬갈히말 시사팡마(8,027m)	대장 김미곤	김미곤 등정
2012.	2012 김미곤 K2 원 정대	파키스탄 카라코람 K2 (8,611m)	대장 김미곤 외 1명	김미곤 등정

등반기간	원정대명	대상산	대원	비고
2012. 8.	2012 전남대학교 7대륙 최고봉 (유럽 엘브루즈) 원정대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 (5,642m)	대장 오성개 외 13명	오성개, 윤성룡, 설낙순, 김태중, 윤현식, 이재국 등정
2013. 4. ~ 6,	2013 한국 칸첸중가 원정대	티벳 히말라야 칸첸중가 (8,586m)	대장 김홍빈 외 1명	김홍빈, 박남수 등정
2013. 7.	2012 김미곤 G1원정대	파키스탄 카라코람 산맥 가셔브룸 I (8,068m)	대장 김미곤 외 1명	김미곤, 윤욱현 등정
2014. 5.	2014 한국 칸첸중가 원정대	티벳 히말라야 칸첸중가(8,586m)	대장 김미곤	김미곤 등정
2014. 7.	2014 꿈과 도전의 브로드피크 원정대	파키스탄 푼잡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대장 김미곤 외 2명	김미곤, 조강현 등정
2014. 8.	2014 전남대학교 7대륙 최고봉(호주 코시어스코 동계) 원정대	호주대륙 최고봉 코시어스코(2,228m)	대장 오성개 외 4명	오성개, 최희동, 김영필, 김태중, 이나원 등정
2014. 8.29 ~10.20	2014 한국 마나슬루 원정대	네팔 히말라야 마나슬루(8,163m)	대장 김홍빈 외 7명	김홍빈, 나관주 등정

제2절 학산인 8,000m 급 14좌 +1(등정자/등정 연월일/소속)

1. 에베레스트(Everest, 8,848m)



에베레스트(8,848m)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네팔에서는 사가르마타(산스크리트어: 하늘의 이마)라 부르고, 티베트어로는 초모랑마(세상의 어머니). 중국어에서는 티베트어 '초모랑마'를 그대로 차용해 주무랑마 봉(중국어: 珠穆朗瑪峰)이라고 부른다. '에베레스트'는 현지명이 1865년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측량국장 워의 제창으로 전임자 조지 에베레스트 경의 이름을 따서 에베레스트라고 붙여졌다. 1953년 존 헌트가 이끄는 영국 원정대의 에드먼드 힐러리와 셰르파족인 텐징 노르게이가 정상 등정에 성공하였다.



박현재 1993. 10. 6 (호남초등)순천대학교



신광철/최종태 1996, 10, 11, 조선대학교



박헌주 2000. 5. 16. 전남대학교



김미곤(우) 2007.5.16. 서영대학교



나관주 2002.5.16. 서영대학교



이형관/이현조 2006.5.16. 전남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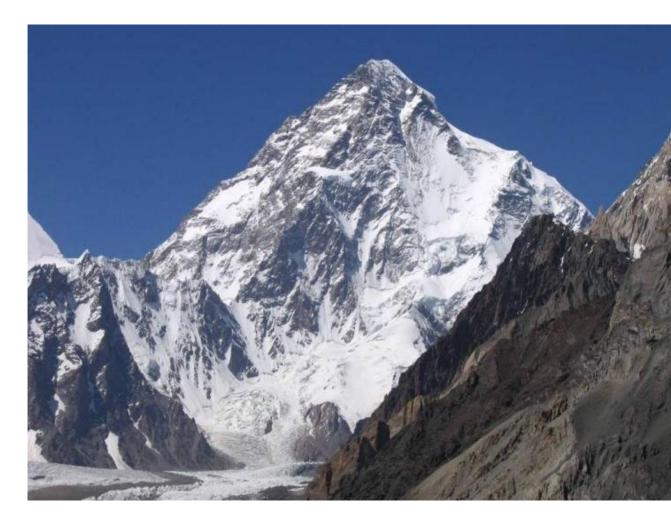


윤중현 2007. 5. 16. 조선이공대학교



김홍빈(좌) 2007. 5. 16. 송원대학교

2. 케이 투(K2, 8,611m)





2000.6.26. 김주형(좌) 조선이공대/이정현(우) 순천대학교



주우평 순천대학교



윤중현 조선이공대

K2(8,611m)는 발토르 빙하 북쪽에 솟아 있는 고봉으로 에베레스트에 이은 세계 제2의 고봉이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회록색을 띤 4각추형(四角錐形)의 산체(山體)는 지질적으로 보면 편마암이라고 불리는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편리면(片理面)이 사방으로 약 30°의 경사로 완만하게깎이어 보기 좋은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고 있다. 1856년 인도 측량국의 몽고메리가 카라코럼의 고봉을 순차적으로 K1, K2...K32까지 기록한 데서 K2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는 카라코람 산맥의두 번째 봉우리라는 뜻으로 토속명으로는 답상(Dapsang), 또는 초고리(Chogori)라고 불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954년 이탈리아의 아르디토 데시오가 이끄는 원정대중 리노 라체델리와 아킬레 콤파뇨니가 첫 등정에 성공하였다. 두 번째 등정은 23년 후인 1977년 일본 원정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미곤 2012. 7. 31. 서영대학교



김홍빈 2012, 7, 31, 송원대학교

3. 칸첸중가(Kanchenjunga, 8,58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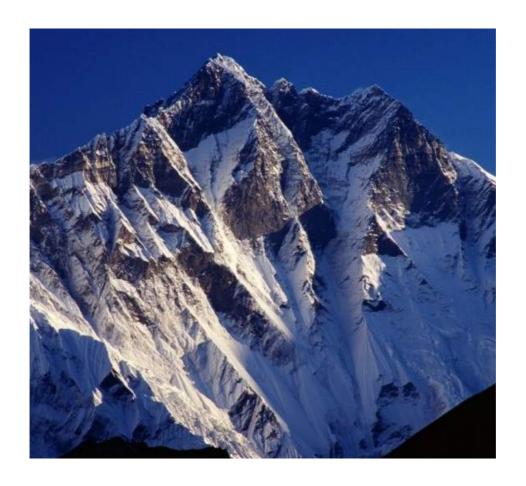
김홍빈(좌) 2013. 5. 20. 송원대학교



김미곤 2014. 5. 18. 서영대학교

칸첸중가(8,586m)는 인도의 시킴 과 네팔의 국경에 있으며 칸첸중가 산 은 그곳의 사투리로 '눈으로 된 보물 다 섯 가지'를 의미한다. 보물이란 물론 봉 우리를 말한다. 칸첸중가의 다섯 봉우 리는 칸첸중가 주봉(8,586m), 칸첸중가 서봉(얄룽캉: 8,505m), 칸첸중가 중봉 (8,482m), 칸첸중가 남봉(8,494m), 캄 바첸(7.902m)이 있다. 인도의 피서지로 유명한 다르질링에서 직선거리로 50여 km밖에 되지 않아 세상에 가장 먼저 알 려진 산으로 1890년 호와이트가 탈룽빙 하를 통해 입산을 시작으로 수차례 등정 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955년 영국의 찰스 에반스가 이끄는 탐험대가 얄룽빙 하를 거쳐 첫 등정에 성공하였다.

4. 로체(Lhotse, 8,516m)



로체(8,516m) 산은 티베트 어로 에베레스트의 '남쪽 봉우리'라는 뜻이다. 이산은 동서로 뻗어 있는 수직 능선인 사우스콜을 통해 에베레스트와 이어져 있다. 로체 산의 능선은 8,000미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로체 산은 종종 에베레스트 산의 남쪽 능선으로 오인받기도 한다. 로체 산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더 있다. 하나는 주봉우리의 동쪽에 있는 로체 샤르이고 또 하나는 왼쪽 능선의 눕체이다. 로체 샤르는 칸첸중가 서봉인 얄룽캉과 더불어 16좌로 일컬어지기도하지만 아직 독립봉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형칠(좌) 1988. 10. 2. (한국 초등) 조선대학교



나관주 2001, 5, 16, 서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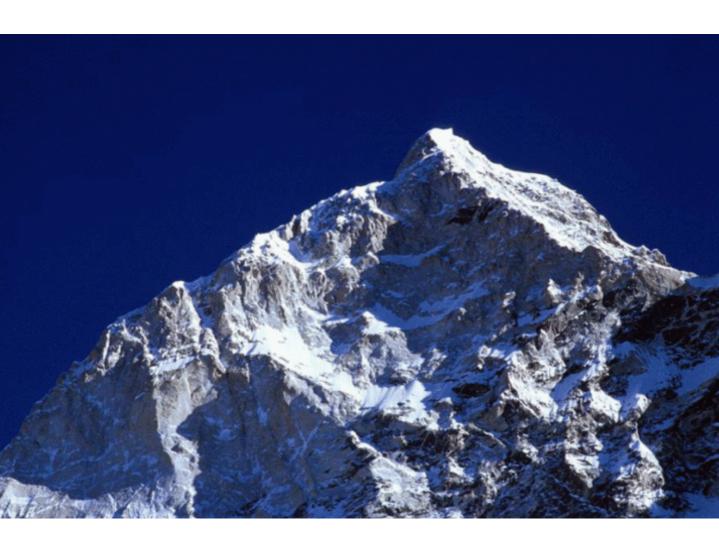


윤중현 2007. 5. 4. 조선이공대학교



김미곤 2007. 5. 4. 서영대학교

5. 마칼루(Makalu, 8,463m)



마칼루(8,463m) 산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봉우리로서 에베레스트의 남동쪽으로 2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 산은 모습이 독특해서 절대 다른 산으로 착각할 수 없다. 해발 8,463미터인 마칼루 봉은 빙하가 발달했고 네개의 날카로운 능선이 이어져 있는 피라미드 형태이다. 마칼루 봉의 북쪽으로는 또 다른 봉인초모론조 봉이 있는데 해발 7,818미터이다. 마칼루 봉은 험난하기 이를 데 없는 산이다. 빙설의 혼합지역, 가파른 경사면, 눈사태의 위협으로 인하여 14좌중에서도 등반하기 어려운 축에속한다. 1955년 존 쿠지와 리오넬 테레이가 처음으로 등정에 성공하였다. 마칼루 남서벽은 낭가파르밧의 루팔벽과 함께 등반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이현조 2000. 5. 15. 전남대학교



김미곤 2001, 5, 14, 서영대학교



김홍빈 2008. 5. 8. 송원대학교

6. 초오유(Cho Oyu, 8,201m)

초오유(8,201m)는 '여신이 거처하는 곳'이란 이름을 가진 우아한 산이다. 네팔쪽의 남면은 상당한 급경사에 장장 2Km에 달하는 넓고 긴 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면은 비교적 완만한 사면으로 형성되었다. 1954년 오스트리아의 티치가 이끄는 등반대에 의해 초등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들은 네팔과 티베트간의 교역로이자 남체 바자르에서 가까운 난파라 (Nanpa La, 5,716m)를 넘어 북서릉을 통해 무산소 등정에 성공하였다.





김성석/박헌주 1997, 9, 21, 전남대학교



김미곤/김영학 2000. 9. 16. 서영대학교



나관주 2000, 9, 16, 서영대학교



변성호 2000. 9. 23. 순천제일대학교



김홍빈 2011. 9. 23. 송원대학교



7. 다울라기리(Dhaulagiri, 8,167m)

다울라기리(8,167m)는 산스크리트어로 '하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808년 다울라기리가 처음으로 알려졌을 당시에는 칸젠중가가 알려지기 전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여겨졌다. 1949년 최초의 항공사진 촬영 이후 1950년에서 1959년 사이에 프랑스, 스위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가 교대로 일곱 번에 걸쳐 원정을했으나 모두 8,000미터선 아래서 실패했다. 1960년에는 막스 아이젤린이 조직한 스위스 원정대가 북동릉을 경유하여 5월 13일에 초등에 성공했다. 다울라기리는 잦은 악천후에 따른 급격한 기후 변화로 위험한 산으로 악명이 높은데, 특히 남벽은 1977년 라인홀트 메스너의실패 이후 아직도 미답봉으로 남아있는 극도로 위험한 벽으로 등반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합동대에 의해 가을 등정에 성공 하였다.



김미곤 2009, 5, 1, 서영대학교



김홍빈 2009. 5. 1. 송원대학교



8. 마나슬루(Manaslu, 8,163m)

마나슬루(8,163m)는 북쪽에서 부터 마나슬루, 피크 29(7,835m), 히말출리(7,864m)를 합하여 마나슬루 3산(三山)이라고 한다. 마나슬루란 산스크리트로 '영혼의 땅'을 뜻한다. 첫 등정에 성공한 것은 1956년 봄 마키[槇]가 인솔한 일본 등반대였다. 1971년과 1972년에 한국 등반대가 조난, 6명이 희생되었으나, 1980년 4월 동국대학 산악반이 등정에 성공했다.



이용철 1992, 9, 25, 조선대학교



김미곤 2011, 5, 9, 서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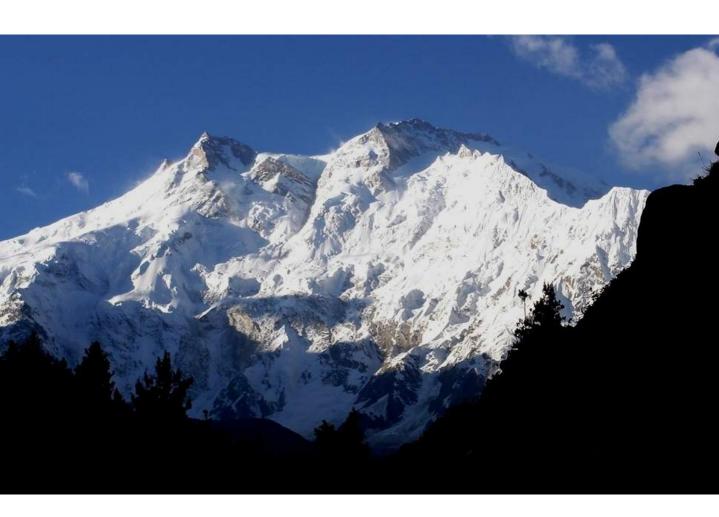


김홍빈 2014, 9, 25, 송원대학교



나관주 2014.9.25. 서영대학교

9. 낭가 파르밧(Nanga Parbat, 8,125m)



당가파르밧(8,125m)은 우르두어로 '벌거벗은 산'을 의미하며 이곳 사람들은 '디아미르(산중의 산)'이라고 부른다. 최초로 등산을 시도한 것은 머머리(1895 · 영국)였으나 빙하와 눈사태로 조 난당하였으며, 1953년 독일 · 오스트리아의 등 반대원 헤르만 불이 첫 등정에 성공하였다. 이 산의 남동쪽 루팔벽은 4,500미터의 수직으로 된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안나푸르나 남벽', '마 칼루 남서벽'과 더불어 히말라야의 3대 남벽으로 꼽힌다. 1970년 라인홀트 메스너가 루팔벽을 통하여 첫 등정 후 한국에서 2005년 이성원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에 의하여 재등에 성공하였다.



김주형 1997. 7. 9. 조선이공대학교



나관주 1998. 7. 21. 서영대학교



이현조 2005. 7. 14. (루팔벽 등반)전남대학교

10. 안나푸르나(Annapurna, 8,091m)



안나푸르나(8,091m)는 포카라 바로 북쪽 네 팔의 중앙에 있다. 안나푸르나 산괴에는 수많은 봉우리가 솟아 있는데 그 중 다섯 봉우리가 '안 나푸르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최고봉인 안 나푸르나 제1봉과 제2봉은 산괴의 서쪽과 동쪽 끝에 마치 북엔드처럼 서 있다. 1950년에 모리 스 에르조그의 원정대가 안나푸르나 제1봉을 북 사면을 통해 올랐다.



나관주 2010, 4, 27, 서영대학교



11. 가셔브럼 I (Gasherbrum I , 8,068m)



이정현 1999. 7. 18. 순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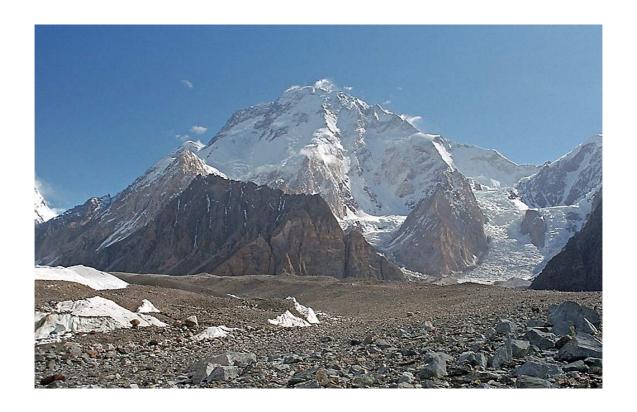
주우평 1999, 7, 18, 순천대학교

가셔브럼 I (8,068m)는 아부르찌 빙하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산들에 의해 숨겨져 있어 일찍이 1892년 이 산군 정찰에 나섰던 독일의 콘웨이가 '히든파크'라 불렀다. 1861년과 1887년에 고드윈 오스틴 소령과 영허즈밴드 소령에의해 처음으로 가셔브룸 1봉에 대한 정보가 알려졌으며 K5라는 측량명도 가지고 있다. 히든피크는 알파인 스타일로 등정된 최초의 8000미터 봉이며 1975년 베이스캠프까지 불과 12명의 포터만 동원한 2인조 원정대 라인홀트 메스너와 패트 하벨러는 8월 10일 가셔브룸 1봉의북벽을 경유하여 등정했는데 이 등정은 최초로무산소 등정으로 이루어진 알파인 방식이었다.



변성호 1999. 7. 18. 순천제일대학교

12. 브로드피크(Broad Peak, 8,047m)



브로드 피크(8,047m)는 1892년 콘웨이가 이끄는 영국 탐험대의 정찰 때 지금의 이름을 얻었으며 1957년 오스트리아 원정대의 슈무크의 지휘 아래 헤르만 불, 슈무크, 디엠 베르거, 빈터 슈텔러 4인조가 최초로 정상에 올랐는데 이들은 고소 포터와 산소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장비를 3개의 고소캠프에 운반하기 위해 6,950m높이를 여러 번 오르내렸다.



박현재/이정현 1995, 7, 12<u>.(</u>한국 초등) 순천대학교



이현조(좌) 2000. 7. 30. 전남대학교



나관주 2003. 7. 15. 서영대학교



김미곤 2014. 7. 24. 서영대학교

13. 가셔브럼 II (Gasherbrum II, 8,035m)



가셔브림 I (8,035m)은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와 파키스탄과의 경계에 있다. 카라코람의 측량번호는 K4다. 그레이트 카라코람, 발토로 산맥의 가셔브럼(발티어로 '빛나는 벽' 원래는 '가셔브럼(봉'의 애칭으로 붙인 이름) 봉우리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산의 무리로 최고봉인 가셔브럼 1봉(히든피크)의 북서 5.5 킬로미터에 있으며, 이 두 봉우리는 가셔브럼 새들(약 6500 미터)로 가로막혀 있다. 1956년 7월 8일 오스트리아 프리츠 모라벡(Fritz Moravec)의 지휘 아래 6명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직접 정상으로 연결되는 남서 언덕을 경로로 처음으로 등정에 성공했다. 가셔브럼 I 봉은세계의 상업등반대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최호 1999. 7. 18. 목포과학대학교



김용재(좌) 1999. 7. 18. 목포대학교



나관주 2003, 6, 26, 서영대학교



김미곤 2006, 7, 22, 서영대학교



김홍빈 2006, 7, 22, 송원대학교

14. 시샤팡마(shisha Pangma, 8,012m)



가셔브림 I (8,035m)은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와 파키스탄과의 경계에 있다. 카라코람의 측량번호는 K4다. 그레이트 카라코람, 발토로 산맥의 가셔브림(발티어로 '빛나는 벽' 원래는 '가셔브림4봉'의 애칭으로 붙인 이름) 봉우리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산의 무리로 최고봉인 가셔브림 1봉(히든피크)의 북서 5.5 킬로미터에 있으며, 이 두 봉우리는 가셔브림 새들(약 6500 미터)로 가로막혀 있다. 1956년 7월 8일 오스트리아 프리츠 모라벡(Fritz Moravec)의 지휘 아래 6명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직접 정상으로 연결되는 남서 언덕을 경로로 처음으로 등정에 성공했다. 가셔브림 I 봉은세계의 상업등반대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현조(우) 2000. 10. 5. 전남대학교



김주형 2001. 9. 21. 조선이공대학교



나관주 2001, 9, 21, 서영대학교



장정규 2006. 10. 13. 조선대학교



김홍빈 2006. 10. 13. 송원대학교



김미곤 2011. 10. 8. 서영대학교

15. +1 로체샤르(Lhotse Shar, 8,382m)

로체샤르(8,382m)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인 로체(8,516m)의 위성봉으로 세계 에서 7번째로 높은 봉우리이다. 8,000m가 넘 으면서도 흔히 8,000m 이상의 고봉을 의미 하는 14좌에는 들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독립봉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8,505m의 얄 룽캉과 함께 16좌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변성호(우) 2007. 5. 31. 순천제일대학교



제3절 국내산 개척등반

1. 월출산

월출산(천황봉, 809m)은 전남 영암군과 강진군을 경계 짓는 산으로 천황봉을 중심으로 산 전체가 수석의 전시장이라 할 만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월출산은 호남의 암벽등반의 메카라불릴 정도로 수많은 암봉이 산재해 있는데 특히 시루봉, 매봉, 사자봉, 형제봉, 연실봉, 숨은벽 등이 주 암벽등반 대상지이며 주로 천황사 지구의 바람골을 두고 좌우로 분포되어 있다. 학산의 월출산 암벽등반 개척코스는 각 암봉별로 많이 있지만 자료 수집의 시간 부족으로 하는 수 없이 파악된 일부 코스만 싣는다.

1) 시루봉

시루봉에는 오른쪽부터 기존B, 공전길, 중앙길, 기존A, 새벽길, 크랙길, 추모길, 신혼길, 고래 등길, 하범길 등 약 10여개의 등반코스가 개척되어 있으며, 전체 경사도는 낮지만 크랙과 페이스, 슬랩 등 다양한 형태의 암벽등반을 즐길 수 있어 초보자나 숙련자 모두 에게 월출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등반 대상지 이다.

■공전길

- 가) 개척년도: 1984년
- 나) 개척자: 윤섭현(조선이공대 81) 외 당시 산악회원 다수
- 다) 코스 길이: 4피치
- 라) 난이도: 5.11b
- 마) 등반장비: 시루봉은 전체적으로 확보물 보수가 잘되어 있어 퀵드로 10개와 후렌드 4-7호 1개 필요
- 바) 코스 설명
 - *1피치 중앙길과 기존B코스 사이로 출발, 크랙과 페이스를 올라간다.
 - *2피치 피톤 확보지점을 지나 기존B코스 오른편으로 따라가는 크랙을 등반하여 올라간다.
 - *3피치 나이프 하켄이 박혀있는 수직크랙(약 5m) 등반시 후렌드 필요

*4피치 - 공전길의 가장 크럭스 부분으로 수직 디에드로를 넘어 사선 오버행 크랙을 올라 정상에 선다. 자일유통이 다소 불편하며 추락시 부상의위험이 있다.

사) 접근(Aapproach) 및 하산

천황사 야영장에서 매봉 가는 길목 중 간쯤에 위치해 있으며 등산로는 바람골 로 빠지지 말고 왼편 천황사 쪽으로 곧장 올라가야 한다. 등산로를 따라 걷다 오른 편 숲 지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흙이 빗물 에 씻겨 내려가 미끄러운 경사면을 건너 뛰어야 한다.

하강은 60m 2동의 로프를 연결하여 하강(기존 1피치 피톤 지점까지) 하거나, 또는 뒷편으로 걸어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다.

정상침니 디에드로 후렌드 4~7호 size 필요 고 최수준 추모동판 (목포대학교산악회) B코스 B코스 탈출로 볼트 피톤 봉봉 앵글 크랙 - 슬랩 ① 피치

시루봉 공전길 등반루트 개념도

■ 추모길

가) 개척년도: 1987년

나) 개척자 : 정성백(조선이공대 81) 외 당시 산악회원 다수

다) 코스 길이 : 3피치

라) 난이도 : 5.10c

마) 등반장비 공전길과 동일

바) 코스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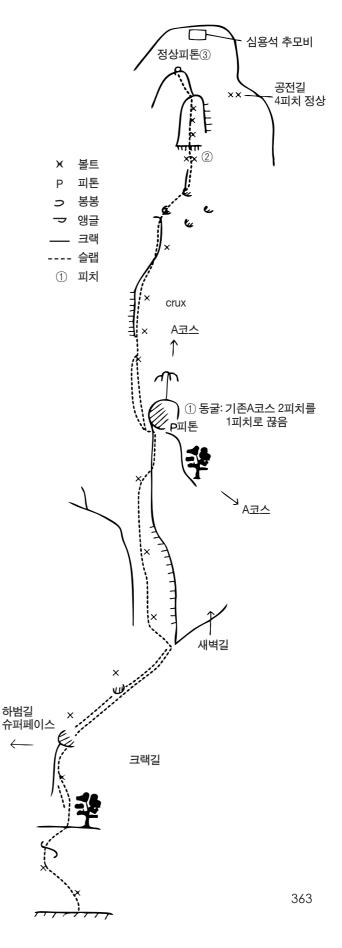
*1피치 - 볼더링 하듯 미세한 홀드를 이용하여 출발, 약 1m 넓이의 수직 쌍 크랙을 이용하여 등반한다. 등반 길이는 약 40미터로 기존A 코스 2피 치 동굴 확보지점까지 등반 한다.

*2피치 - 동굴 확보지점 에서 처음 오 버행의 크랙을 넘어서는 것이 추모길 의 가장 크럭스이며 정상으로 가는 침니 밑에서 2피치를 끝낸다.

*3피치 - 볼트 3개가 설치된 정상 바로 아랫부분 정면 수직벽을 인공등반하여 올라간다.

사) 접근(Aapproach) 및 하산 공전길과 동일

시루봉 추모길 등반루트 개념도



2) 매봉

매봉은 월출산국립공원 천황사 지구에 위치한 암장으로 약 9개의 등반코스가 개척되어 있는데 공전길은 가장 깔끔하고 등반성 있는 매봉의 대표적 코스중 하나이다. 공전길 등반의 백미는 1피치 언더 크랙과 이어지는 오프위드 크랙(offwidth crack, 반 침니)인데 고도감과 시원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공전길 왼쪽으로 우정길, 설릉길, 하나길, 바자울길, 악우길 등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추모길, 의대길, 대회길 등이 있다.

크랙과 페이스로 이루어진 총 등반길이 120m의 공전길은 기존의 5마디에서 요즘은 3마디로 길 게 끊어 등반하고 있다.

(기존의 1(30m)~2피치(15m)를 1피치(45m)로, 3피치(30m)를 2피치로, 4(20m)~5피치(25m)를 3피치(45m)로 등반 함.)

■ 공전길(공육사길 – 조대공전 6기(81학번) 4명이 개척했다는 의미)

가) 개척년도: 1982년

나) 개척자: 정성백, 원규석, 마성렬, 박선영

다) 코스길이: 3피치 120m

라) 난이도: A0, 5,11b

마) 등반장비: 확보장비: 후레드, 퀵드로

피치 종료지점마다 고정 확보물(쌍볼트) 보수는 잘 되어 있는 편이며, 루트 상에는 옛날 봉봉이나 나이프 하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등반자가 직접 확보물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렌드, 너트 설치기술이 필요하다.

바) 코스 설명

*1피치 - 처음에는 허벅지와 팔목이 다 들어가는 넓은 크랙을 5m정도 올라 페이스로 붙게 되는데 미세한 홀드를 잘 이용하여야 하며, 이 피치는 로프의 유통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언더 크랙이 끝나는 바로 윗부분에 기존 1피치를 끊었으나 요즘은 직상 벙어리 크랙까지 마저 등반하여 1피치를 종료함. 벙어리 크랙 등반시 후렌드 필요(트랑고사 7~9호)

*2피치 - 왼쪽으로 기운 크랙을 따라 등반을 하는데 부쉬가 난 크랙 중간에 확보물이 없기 때문에 캠을 가지고 등반을 해야 함.

*3피치 - 크랙이 끝나고 실크랙을 통해 직등 하면 이후 페이스 등반. 볼트 많음. 확보지점은 등반완료 후 나무 숲 지대초 입부근 쌍 볼트에서 한다.

7) 접근(Aapproach) 및 하산

천황사 야영장에서 구름다리 방향의 등산 로를 따라 걷다보면 매봉 3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구름다리 쪽으로 약 20m 정도 올 라가면 매봉 정면벽 25m 정도 상단에 수평 언더크랙이 보이며 그 위로 벙어리 크랙이 쪽 이어 올라가는 곳이 보인다. 공전길은 바 로 이곳에서 등반이 시작 된다.

하산은 등반코스를 그대로 하강하거나 매 봉에 설치된 게단 등산로로 걸어서 하산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매봉에는 동강대학산악회의 동 신길과 전남의대산악회의 의대길이 있다.

 $\times \times 1$ 볼트 봉봉 크랙 슬랩 ① 피치 (1)

매봉 공전길(공육사길) 등반루트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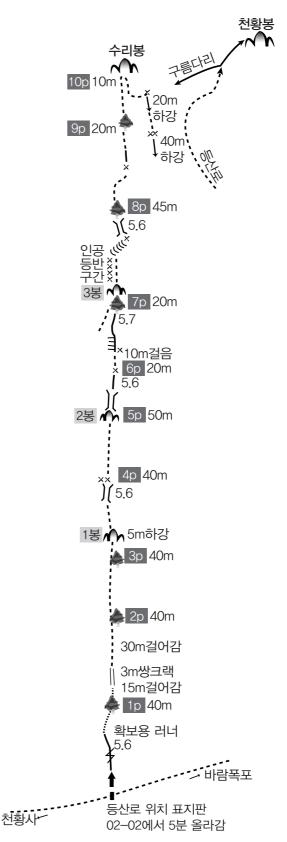
3) 사자봉 릿지

1980년 전남의대 산악회가 개척했다. 사자봉 리지는 전체적으로 수평등반 보다는 수직등반이 대부분이다. 전 구간을 9피치로 나누기도 하고 13피치로 나누기도 하지만 등반팀에 따라 피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사자봉리지에서 피치 구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리지등반이면서도 슬랩, 크랙, 침니, 페이스, 직벽 볼트등반 등 다양한 등반기술이 필요해 초보자 훈련에는 효과 만점이다. 사자봉 리지는 등반 고도를 높여 감에 따라 오른쪽으로는 정상인 천황봉과 왼쪽으로는 구름다리가 계속 시야에 잡힌다. 그리고 뒤로는 바람골을 사이에 두고 사자봉과 마주보고 있는 장군봉 리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간다.

- 가) 난이도: 5.8
- 나) 시간 3인 1조 약 5시간
- 다) 피치별 코스 소개
 - *1피치 가벼운 슬랩으로 시작하여 우측으로 돌면 홀드가 좋아 별 어려움이 없다.
 - *2피치 둘째 피치의 마지막 부분은 오른쪽 크랙과 왼쪽 직벽 페이스 2곳 모두 오를 수 있다. 직벽루트는 3분의 2지점에 볼트가 1개 박혀 있어 밑에서 보기에는 쉬워 보인다. 그러나 암벽화를 신지 않았을 경우 매우 어렵다.
 - *3피치 셋째 피치가 끝나면 1봉이다. 봉우리 같지 않은 봉우리다. 여기서 5m쯤 클라이밍 다운한 다음 5m 정도 로프 하강한다.
 - *4~5피치 침니 7m와 슬랩, 크랙, 잡목지대를 적당히 오르면 봉우리라 할 수 없는 2봉에 도착하는데 이 구간이 넷째 피치와 다섯째 피치에 해당한다. 이곳 침니는 크랙과 침니의 중 간 형태로 바위면을 잘 살피면 홀드와 스탠스가 많다.
 - *6피치 사람에 따라 처음부터 침니로 올라도 되고, 크랙으로 바닥을 살살 기다가 침니로 오를 수도 있다.
 - *7피치 처음에는 왼쪽으로 크랙을 뜯다가 오른다. 중간에 나무가 있어 이것을 이용하면 좋다. 3봉 역시 봉우리라 할 수는 없다. 3봉을 지나면 여덟째 피치가 시작되는 직벽 볼트 길이다.
 - *8피치 전체 코스 중 가장 어려운 직벽 구간이다. 볼트가 4개 있는 곳을 줄사다리를 이용해서 오른 후 마지막 볼트에서 서커스하듯 아주 작은 밴드를 따라 오른쪽으로 횡단해야 한다. 직벽 트래버스를 끝내면 침니 또는 크랙이라 할 수도 있는 어정쩡한 곳을 오른다. 몸이 자꾸

크랙 속으로 기어 들어가 자세가 쉽지 않다. 이곳에 올라서면 비로소 다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야가 훨씬 넓어진다.

*9피치 - 아홉째 피치는 30m쯤 기분 좋게 걷고서 오른쪽으로 다리를 쭉 뻗고 큰 항 아리를 안고 돌듯이 건너간다. 조금 올라 가면 마지막 크랙이 나온다. 이 크랙은 도 봉산 주봉의 K크랙처럼 생겼지만 경사가 완만하여 어렵지는 않다. 이곳에 올라서면 정상이 바로 보인다. 정상을 바라보고 우 측을 두 번 하강하면 등반은 끝이다. 왼쪽 으로 세 번에 거쳐 하강할 수도 있다.



사자봉 등반루트 개념도

2. 무등산

무등산(천왕봉, 1,187m)은 광주광역시 북구와 화순군 이서면, 담양군 남면과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서, 대부분 완만한 흙산으로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도에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정상 가까이에는 입석대, 서석대 등 원기둥 모양의 절리(節理)가 발달하여 기암괴석의 경치가 뛰어나다. 무등산 안에 있는 새인봉(璽印峯)은 임금의 옥새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인괘봉이라고도 한다. 무등산의 암벽 대상지로는 새인봉과 선비바위가 있다.

새인봉은 등산로가 정상을 지나기 때문에 등반을 위해선 하강을 하여야 한다. 잘 부스러지는 암질로서 조심하지 않으면 리딩 시홀드가 떨어져 나가 추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리딩보다는 톱로핑 등반을 권장하며, 새인봉에는 식수가 없는 관계로 아래서 미리 식수를 준비하여야 한다.

새인봉은 사진에서 보았을 때 왼쪽부터 설릉길, 파트너 구함, 한 여인을 위하여, 동트는 벽, 다이렉트1, 공전길, 의대길, 오버2, 비엔날레, 오버3, 다이렉트 2, 직벽(아트피셜) 순으로 등반코스가 형성되어 있다. 직벽 코스의 우측 벽에 초보자 교육을 위한 슬랩 등반 루트가 있으며, 새인봉뒤편 약사사 쪽으로도 여러 개의 등반코스가 개척되어 있다.

■공전길

가) 개척년도: 1980년

나) 개척자: 이성원(조선이공대 79), 이양현 외 당시 산악회원 다수

다) 코스 길이: 35m

라) 난이도: 5.9

마) 등반장비 : 고정 확보물로는 앵글과 나이프 하케. 상단부에 볼트하케이 하나 있다 – 톱 로핑 등반 권장

바) 어프로치(Aapproach)

새인봉은 무등산 증심사 지구에서 오르는 2개의 코스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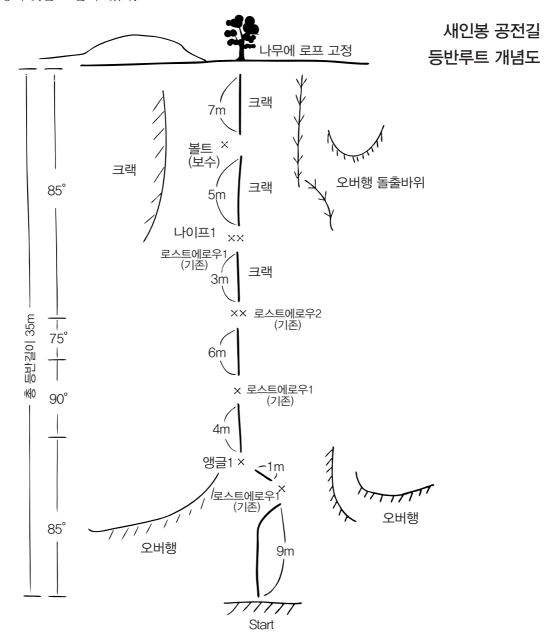
*코스1 (총 2.9 Km)

증심사 버스종점 1.2 → 증심사 0.8 → 약사사 0.4 → 새인봉 삼거리 0.5 → 새인봉

주차장에서 증심사 방향으로 오르다 의제 허백련 선생님의 기념관 앞을 지나 갈림길에서 우측 으로 5분여 오르면 약사사(藥寺) 에 이르고 여기에서 우측 등산로를 따라 5분 정도 오르면 새인 삼거리 능선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측으로 5분 정도 오르면 새인봉(璽印峯)에 이르게 된다. *코스2 (총 3.1 Km)

증심사 버스종점 \rightarrow 주차장 뒷길 $0.5 \rightarrow$ 운소봉 $2.6 \rightarrow$ 새인봉

이 코스는 주차장에서 곧 바로 등산로로 이어지며 40-50분 정도 오르면 새인봉(壓印峯)과 연결이 된다. 제 1코스는 약사사까지 포장도로를 이용하게 되지만 이곳은 곧바로 등산로로 이어져 산행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제4절 역대 임원 명단

1. 역대 회장

대별	이름	재임기간	비고	대별	이름	재임기간	비고
1대	박인천	1962~1963		1대	위계룡	1998~2001	전남
2대	최정기	1964~1966		14대	전의천	2001~2002	광주
3대	손상우	1967~1970		2대	이병철	2002~2003	전남
4대	전병곤	1971~?		15대	이정옥	2003~2004	광주
5대	오영대	1978~1979		3대	김인해	2004~2005	전남
6대	최환석	1980~1981		16대	임형칠	2005~2006	광주
7대	임승락	1982~1983		4대	김병대	2006~2007	전남
8대	김현곤	1984~1985		17대	박상수	2007~2008	광주 · 전남 통합
9대	정순택	1986~1990		18대	오성개	2009~2010	
10대	박명선	1991~1994		19대	신욱철	2011~2012	
11대	김상문	1995~1996		20대	정찬득	2013~2013	
12대	김재률	1997~1998	광주 · 전남 분리	21대	김경자	2014~현재	
13대	김하경	1999~2000	광주				

2. 역대 감사

대별	이름	재임기간	비고	대별	이름	재임기간	비고
1대		1962~1963		1대	김요철 문태철	1998~2001	전남
2대		1964~1966		14대	나상훈 방경환 임홍관	2001~2002	광주
3대		1967~1970		2대		2002~2003	전남
4대		1971~?		15대	문종 국 김미곤	2003~2004	광주
5대	김정호 최영주	1978~1979		3대		2004~2005	전남
6대		1980~1981		16대	이광복 마수광	2005~2006	광주
7대		1982~1983		4대		2006~2007	전남
8대		1984~1985		17대	양홍식 손용주	2007~2008	광주 · 전남 통합
9대		1986~1990		18대	이경주 임성근	2009~2010	
10대	김인주 서은호 박동호 박헌주	1991~1994		19대	임도균 곽효정 부기동 노경미	2011~2012	
11대	조상두 박수성 최지환	1995~1996		20대	서상진 박건영	2013~2013	
12대		1997~1998	광주 · 전남 분리	21대	박찬호 김진현	2014~현재	
13대	백두인 방경환	1999~2000	광주				

3. 역대 부회장, 이사

대별	재임기간	직책	이름
1대	1962-1963	부회장	
		이사	
2대	1964-1966	부회장	
		이사	
3대	1967-1970	부회장	손상우
		이사	
4대	1971-197*	부회장	
		이사	
5대	1978-1979	부회장	강봉규, 정순택, 지영길,
		부장	총무부장 김재순, 훈련부장 소병현, 기획부장 김성도 섭외부장 조기종, 문예부장 정상래, 자연보호 홍종협 문화재관리 노준양, 여학생부장 오현화
6대	1980–1981	부회장	강봉규, 고영훈, 정순택,
		이사	
7대	1982–1983	부회장	황재연, 박명선, 김상문
		이사	
8대	1984–1985	부회장	김상문, 박명선, 송희범, 윤장현
		이사	
9대	1986–1990	부회장	김방진, 김하경, 박장일, 박태규, 박현수, 송하열, 정태영, 윤장현, 이정옥, 이지헌,
		이사	김기용, 김상군, 김상래, 김종철, 김웅기, 김인주, 김인해, 김홍빈, 김희영, 나왕주, 류재강, 문호성, 박상수, 소병현, 양진영, 오성개, 오순탁, 윤섭현, 윤호근, 이병덕, 이병철, 임우근, 임형칠, 정찬득, 조기종, 조상두, 최경석, 현용휴, 황장권

대별	재임기간	직책	이름
10대	1991-1994	부회장	김하경, 박채규, 선종구, 이민우, 이은식, 이정옥, 이준호, 최경석
		이사	김거봉, 김동렬, 김영학, 김은철, 김인해, 김희영, 류재강, 모갑원, 민현배, 박종우, 소병현, 손정기, 신욱철, 오성개, 윤섭현, 윤호근, 이성원, 이병철, 이재홍, 정숭룡, 정찬득, 조상두, 최옥주, 한민수
11대	1995-1996	부회장	김인주, 김용철, 박채규, 윤행재, 이동열, 이은식
		이사	강동원, 고재연, 김경자, 김은철, 김인해, 김제정, 김흥규, 류남석, 류재강, 모갑원, 문남식, 문태철, 박동환, 박종우, 박형묵, 배정만, 서영배, 송하정, 신용인, 신용환, 이재홍, 이점호, 이채성, 이은수, 임양호, 임우근, 임형칠, 조태형, 정광우, 정재철, 최옥주
12대	1997-1998	부회장	김제승, 김종철, 김용철, 박채규, 이교태, 전의천
		이사	강동원, 고재연, 김경자, 김은철, 김인해, 김재명, 김홍규, 류재강, 모갑원, 문남식, 배정만, 박기환, 박동환, 박중우, 박형묵, 서영배, 송하정, 오경탁, 이병규, 이연주, 이재홍, 이점호, 이종호, 임우근, 이채성, 임양호, 임형칠, 정광우, 정숭룡, 정재철, 조태형
13대	1999–2000	부회장	박상수, 소병현, 신욱철, 임우근, 임형칠, 정찬득, 한전국, 신욱철
		이사	강동원, 강태용, 권 현, 김은철, 김종환, 박형묵, 윤기현, 이성원, 이성만, 이연주, 임종완, 이용철, 정숭룡, 조석필, 이재홍, 나이주
14대	2001-2002	부회장	임형칠, 김종환, 김두환, 조태형, 정찬득, 임우근, 정광우, 원규석, 정숭룡, 김경자, 배정만
		이사	윤섭현, 강태용, 김영배, 이용철, 김은철, 이점호, 정성훈, 박헌주 윤희영, 허 환
15대	2003-2004	부회장	김왕근, 김은철, 김제정, 김종환, 박기환, 원규석, 임형칠, 장 희, 정광우, 정숭룡, 최명숙, 추교윤
		이사	김남형, 김병규, 김 옥, 김홍빈, 안남규, 양홍식, 윤섭현, 이점호, 정성훈, 정회갑, 조양택, 허 환
16대	2005–2006	부회장	김 옥, 류재강, 배정만, 양진영, 이성원, 이연근, 정재철, 정찬득, 조태영
		이사	김용욱, 김창한, 김현성, 나상훈, 문종국, 손경춘, 신광철, 윤현식, 윤호준, 조방덕, 정성훈, 정우연, 정찬주, 정회갑, 피길연, 한민수, 허 환

대별	재임기간	직책	이름
17대	2007–2008	부회장	강태용, 김홍빈, 신욱철, 윤섭현, 이석구, 이연주, 정찬득, 조방덕, 조태영, 피길연
		이사	김강영, 김미곤, 김용진, 김주형, 김현성, 문종국, 송형근, 윤현식, 윤호준, 이영규, 정득채, 정성훈, 정우연, 정회갑, 한동철
18대	2009–2010	부회장	장 희, 이연근, 고재연, 김경자, 윤섭현, 김홍빈, 이석구, 강태용, 모갑원, 문남식, 조방덕, 김일용, 이완선
		이사	조기성, 김양수, 박헌주, 정찬주, 김영필, 문종국, 오종갑, 정우연, 김인웅, 김창한, 박찬호, 허 환, 김정국, 양홍식, 송현근
19대	2011–2012	부회장	강태용, 김양수, 김은철, 김제정, 김홍빈, 박헌주, 이완선, 최홍수, 채강국
		이사	박찬호, 신광철, 양홍식, 정제호, 정우연, 허 환
20대	2013–2013	부회장	강동원, 김덕중, 김면수, 김선기, 김양수, 김용욱, 김일용, 김재명, 김정원, 김제정, 김종환, 김현섭, 나왕주, 류남석, 류제철, 마성열, 문태철, 박종우, 박헌주, 송하정, 안두환, 윤섭현, 윤성룡, 윤희관, 이병규, 이완선, 이용철, 이은수, 이창진, 임종완, 전진호, 정득채, 조일성, 조태형, 최옥주, 현정란
		이사	곽효정, 김성덕, 김영필, 김종필, 노광기, 문종국, 박현수, 송형근, 신광철, 신화춘, 양홍식, 오철식, 유승현, 이경주, 이성만, 이정현, 임미라, 임찬수, 장병호, 장옥수, 장정규, 정재호, 정정애, 정찬주, 조민철, 평 익, 최 호, 허 환
21대	2014-현재	수석부회장	정득채
		부회장	김덕중, 김양수, 김영필, 김용욱, 김일용, 김재명, 김현섭, 김흥규, 노광기, 문종국, 박동호, 박헌주, 안두환, 양원호, 유미정, 윤섭현, 윤성룡, 윤호준, 이병규, 이병석, 이성만, 이완선, 이용철, 이창진, 장창수, 정성복, 정재호, 정찬주, 조민철, 최호, 피길연, 현정란, 홍동식
		이사	고준재, 곽정식, 곽효정, 김동원, 김민호, 김병률, 김사라, 김상근, 김종필, 류승현, 박 철, 박상석, 박원표, 박헌수, 서상진, 송형근, 신광철, 신화춘, 양홍식, 유명희, 윤일환, 이경주, 이덕수, 이봉태, 이정현, 임도균, 임천익, 장병호, 장옥수, 장정구, 정원석, 정정애, 정희순, 조인성

|전남|

대별	재임기간	직책	이름
1대	1998–1999	부회장	김인해, 김정수, 박형빈, 이병철, 임형칠, 정북진, 주동엽, 주현정,
		이사	김도곤, 김병대, 김재명, 김정원, 모갑원, 문남식, 박근구, 박상태, 박찬호, 서영배, 신승호, 이병규, 이창형, 임선주, 전순옥, 전진규, 정명식, 조민철, 조정우
	2000-2001	부회장	김정수, 이병철, 김봉규, 주현정, 김인해
		이사	김도곤, 우기정, 이병규, 이창형, 오정욱, 김인웅, 문남식, 박찬호, 서영배, 모갑원, 정희순, 이은정, 우형원, 정명식, 박병준, 조민철,
2대	2002-2003	부회장	김종철, 이영진, 김봉규, 김도형, 김흥규, 김인해, 모갑연, 강현순,
		이사	서영배, 김양수, 최정훈, 박찬호, 박헌욱, 박성삼, 박상태, 박병준, 우기정, 주우평
3대	2004–2005	부회장	김종철, 김병대, 김봉규, 이영진, 김도형, 모갑원, 김흥규, 강현순, 조성오, 이철회, 김정환
		이사	서영배, 김양수, 박찬호, 박헌욱, 박성삼, 박상태, 박병준, 우기정, 주우평, 진상건, 김인웅, 김인철, 김단오
4대	2006–2007	부회장	정북진, 김정환, 이철회, 이종승, 나민수, 김요철, 문태철, 임양호, 김정원, 모갑원, 전진호, 김일용, 이병규, 박상태, 조민철
		이사	서영배, 이종식, 이창형, 박근구, 조정우, 김도곤, 정명식, 이정현, 박찬호, 김민호, 황종필, 허진감, 문 호, 장옥수, 이정화

4. 역대 전무이사

대별	이름	재임기간	비고	대별	이름	재임기간	비고
1		1962~1963		1	김흥규 최 호	1998~2001	전남
2		1964~1966		14	문종국	2001~2002	광주
3		1967~1970		2	조민철	2002~2003	전남
4		1971~?		15	오경탁	2003~2004	광주
5	정순택	1978~1979		3	김공주	2004~2005	전남
6	박명선	1980~1981		16	김경자	2005~2006	광주
7	김용우 송희범	1982~1983		4	김양수	2006~2007	전남
8	이정옥	1984~1985		17	허 환	2007~2008	광주 · 전남 통합
9	이상선 최경석 송희태	1986~1990		18	정성현	2009~2010	
10	임형칠 오성개 조상두	1991~1994		19	이정현	2011~2012	
11	윤호근	1995~1996		20	박찬호	2013~2013	
12	신욱철	1997~1998	광주 · 전남 분리	21	정우연	2014~현재	
13	나상훈	1999~2000	광주				

5. 역대 사무국장

대별	이름	재임기간	비고	대별	이름	재임기간	비고
1대		1962~1963		1대	이정현 조정우	1998~2001	전남
2대		1964~1966		14대	김미곤	2001~2002	광주
3대		1967~1970		2대	허금옥 조창익	2002~2003	전남
4대		1971~?		15대	이광복	2003~2004	광주
5대		1978~1979		3대	강석후 문 호	2004~2005	전남
6대		1980~1981		16대	양홍식	2005~2006	광주
7대		1982~1983		4대	김인웅	2006~2007	전남
8대		1984~1985		17대	이경주	2007~2008	광주 · 전남 통합
9대		1986~1990		18대	임도균	2009~2010	
10대	임우근 김영학 김경자	1991~1994		19대	서상진	2011~2012	
11대	정득채	1995~1996		20대	윤욱현	2013~2013	
12대	백두인	1997~1998	광주 · 전남 분리	21대	윤욱현	2014~현재	
13대	문종국	1999~2000	광주				

6. 역대 대표상임위원

대별	이름	재임기간	비고	대별	이름	재임기간	비고
1대	임춘재	1962~1963		1대	진상건 이용부 김동원	1998~2001	전남
2대	남상만 정순택 김장영	1964~1966		14대	방경환 곽종인	2001~2002	광주
3대	서용욱 박향식 최창돈	1967~1970		2대	김태식 송현석	2002~2003	전남
4대	김상문	1971~?		15대	김병률 김수양 장정규	2003~2004	광주
5대	김정호 최경석	1978~1979		3대	이상현 홍근진	2004~2005	전남
6대	김상군 고광수	1980~1981		16대	마수광 손용주	2005~2006	광주
7대	오성개 신도근	1982~1983		4대	양인복 정대웅	2006~2007	전남
8대	김연옥	1984~1985		17대	임성근	2007~2008	광주 · 전남 통합
9대	조규상 김병규 윤장호 이병규 서은호	1986~1990		18대	부기동 노경미	2009~2010	
10대	박동호 박헌주 박도영 박수성	1991~1994		19대	박건영	2011~2012	
11대	최지환 송형근	1995~1996		20대	김진현	2013~2013	
12대	우기정 김 천	1997~1998	광주 · 전남분리	21대	김진원	2014~현재	
13대	방경환 임흥관	1999~2000	광주				

제5절 광주ㆍ전남 학생산악연맹 정관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맹은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wangju Jeonnam Student Alpine Federation (약칭 G.J.S.A.F)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연맹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맹은 학생산악활동 전반에 대한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산악운 동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맹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전위적 등반활동
- 2. 산악세미나 개최
- 3. 광주·전남 등산학교 운영
- 4. 청소년 야영교육 활동
- 5 자연보호운동
- 6. 학교산악회의 육성과 지원 (초. 중. 고. 대학 등)
-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단체

제5조(구성) 본 연맹의 회원단체는 가맹한 각 학교산악회와 O · B산악회로 한다.

제6조(입회) 본 연맹에 가맹코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생위원회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승인한다.

제7조(회원단체의 임무) 본 연맹 회원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한다.

- 1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 연맹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고 문
- 2 회 장
- 3. 부 회 장
- 4. 전무이사
- 5. 이 사
- 6. 학생위원장
- 7. 감 사
- 8. 사무국장

제9조(고문) 본 연맹 회장을 역임한 분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본 연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현 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회장과 부회장)

- 1. 회장은 회원단체(OB)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2.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3. 부회장은 본 연맹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로서 각 대학산악회 O·B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단,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회장 1명, 부회장은 약간 명으로 한다.

제11조(전무이사) 회장이 이사중에서 임명하다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을 지휘하다.

제12조(이사) 이사는 본 연맹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로서 각 대학산악회 O·B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감사)

- 1. 본 연맹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 2. 감사는 전임 사무국장, 학생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제14조(사무국장) 회장이 회원단체의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회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 연맹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궐석시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추대한다.
- 2. 학생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 구

제16조(기구) 본 연맹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지도위원회
- 4. (사)광주 · 전남등산학교
- 5. 학생위원회
- 6. 상임위원회
- 7. 사무국

제17조(총회)

-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2.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또는 학생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 4. 총회 소집은 개최일로부터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5. 총회는 본 연맹 임원과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6. 회원단체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회원단체(OB)의 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원단체(OB)의 장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7.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임원의 임명(또는 인준)
 - 2) 정관 개정
 - 3) 사업의 심사 및 승인
 - 4) 예산의 심사 및 승인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이사회)

- 1. 이사회는 본 연맹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본 연맹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
 - 3) 정관개정안 작성
 - 4) 총회의안 작성 및 승인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지도위원회)

- 1 본 연맹의 중요사안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 2. 지도위원은 회원단체의 지도교사와 지도교수, OB회장, 본 연맹의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

- 1. 본 연맹의 사업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상임위원장은 연맹의 임원 중 선출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사)광주·전남등산학교)

- 1. 본 연맹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사)광주·전남등산학교를 둔다.
- 2. (사)광주 · 전남등산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정관은 별도로 둔다.

제22조(학생위원회)

- 1. 학생위원회는 본 연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단위 학교 산악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 2. 학생위원회는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부서를 따로 둘 수 있다.

제24조(사무국)

- 1. 사무국은 회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여 본 연맹의 회무 전반을 집행한다.
-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2인, 간사 1인을 둔다.

제5장 재 정

제25조(재정) 본 연맹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된다.

- 1 회원단체 가입비
- 2. 회원단체 연회비
- 3. 임원 연회비
- 4. 기타 수입금

제26조(회비) 회원단체 가입비 및 회비는 이사회와 학생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세 칙

제28조(의결정족수)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9조(징계)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는 이사회와 학생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 1. 본 연맹의 목적을 이탈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2 본 연맹의 행사에 소극적인 참여와 소정의 경비를 체납하였을 때
- 3. 징계를 받으면 본 연맹의 활동을 1년 동안 할 수 없다.
- 4.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30(포상)

- 1. 본 연맹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산악운동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임원 포함)을 표창할 수 있다.
- 2. 표창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부 칙

제31조(정관개정)

- 1.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학생위원회, 총회에서 발의한다.
- 2. 전 항의 개정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3. 전 항의 찬성을 얻은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4. 본 정관은 1991. 06. 15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5. 본 정관은 1993. 05. 01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6. 본 정관은 1994. 03. 20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7. 본 정관은 1998. 06. 02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8. 본 정관은 2004. 03. 11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9. 본 정관은 2006. 02. 28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10. 본 정관은 2009. 03. 27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11. 본 정관은 2011. 02. 25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12. 본 정관은 2014. 02. 12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임원연회비 관련 운영규정〉

- 2009. 8. 21 이사회의 결정사항임.

회 장:6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 사:20만원

〈임원연회비 관련 운영규정 변경〉

- 2013. 5. 1 이사회의 결정사항임.

회 장: 2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 사:10만원

제6절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 정관

사단법인 광주 · 전남등산학교 정관

개교: 1979, 08, 07,

정관제정: 2013, 12,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칭한다)의 부설 교육기관으로서, 연맹 등산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등산교육 등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 등에게 심신수련의 장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치관과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건전하고 진취적인 사회기풍을 진작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이하 "법인"이라 칭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Gwangju Jeonnam Alpine School(약칭 'G.J.A.S')"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90(생용동)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일반시민 등산교실 및 스포츠클라이밍교실
- 2. 정규 및 지도자 등산교실(정규반, 암벽반, 동계반)
- 3. 어린이 · 청소년 캠프 및 청소년호연지기센터
- 4. 공공단체 및 직장 극기훈련

- 5. 명사(산악인 등)초청 각종 강연회
- 6. 각종 등산대회 (일반등산대회,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등)
- 7. 해외트레킹 지원센터 및 해외원정등반
- 8.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5조(본교 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있다.
-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에 참석한 설립동의자는 회원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 ② 본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 법인의 사업에 참가
- 2. 본 법인 정관의 준수와 제반 사업에 대한 성실한 참여
- 3. 일정액의 회비 납부의무
- 4. 본 법인의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단, 임원인 회원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전체 임원의 정수는 22인 이내)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이 사 20명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교장, 교감을 포함)

교 장 1명

교 감 2명

감 사 2명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위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8조(명예교장)

연맹 회장을 당연직 명예교장으로 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교장의 선출방법과 직무)

- ① 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임명한다.
- ② 교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교무를 통리한다.

제20조(교감의 선출방법과 직무)

- ① 교감 중 1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임명하고, 1인은 연맹 회장이 추천하는 연맹의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교감은 당연직 이사이며,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통리하고 교장 유고시 연장자가 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본 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교장, 교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2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3조(설치)

①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교무처

제34조(교무처)

- ① 본 법인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교무처를 둔다.
- ② 교무처에 교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교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본 연맹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교무처 규정)

교무처 직원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교무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본 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본 법인의 법인 설립 당시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④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2. 회비
- 3. 보조금
- 4. 대회 운영 수수료
- 5. 기부금 및 찬조금
- 6. 기타 수입금

제38조(재산의 관리)

- ① 제36조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본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임원의 보수)

교무처 상근자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본 법인의 설립자
- 2. 본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3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4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등기를 하고 감독관청에 즉시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46조(정관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3년 12월 09일

[발기인]

임형칠, 정득채, 박헌주, 정찬주, 김영필, 정우연, 허 환

[별지목록1]

구 분	재산명	수 량	금 액	비고
기본재산	현 금	1	50,000,000원	

제7절 회원명부

1. 광주교육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67	선 종 구	
2	1971	장 형 근	
3	1971	이 재 옥	
4	1971	김 광 삼	
5	1972	박 정 수	
6	1973	박 인 식	
7	1974	서 춘 기	
8	1974	한 송 렬	
9	1975	박 인 석	
10	1976	황 장 권	
11	1976	신 기 호	
12	1976	김 종 철	
13	1977	김 영 증	
14	1978	정 상 래	
15	1978	최 채 남	
16	1979	정 재 철	
17	1979	문 영 호	
18	1980	김 종 환	
19	1980	박 기 홍	
20	1980	조 춘 희	
21	1981	김 현 익	
22	1983	김 시 중	
23	1984	이 재 운	
24	1986	정 성 훈	
25	1986	정 월 성	
26	1991	이 성 재	
27	1991	성 창 근	
28	1994	박 군 방	
29	1995	이 상 윤	

학번	이름	비고
1995	이 영 규	
1996	송 민 정	
1997	박 철	
1997	홍 성 천	
1999	김 세 나	
2000	조 성 호	
2000	김 도 윤	
2000	이 지 영	
2001	임 현 지	
2002	강 영 구	
2002	유 동 춘	
2002	방 소 형	
2002	박 지 홍	
2003	신 재 우	
2003	유 광 준	
2004	송 이 정	
2004	이 안 나	
	1995 1996 1997 1997 1999 2000 2000 2000 2001 2002 2002 2002	1995 이영규 1996 송민정 1997 박 철 1997 홍성천 1999 김세나 2000 조성호 2000 김도윤 2000 이지영 2001 임현지 2002 강영구 2002 양소형 2002 박지홍 2003 신재우 2003 유광준 2004 송이정

2. 광주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89	정 원 석	
2	1991	양 홍 식	
3	1992	김 종 률	
4	1993	곽 정 식	
5	1993	박 성 범	
6	1993	진 귀 진	
7	1993	한 동 철	
8	1994	곽 명 옥	
9	1994	나 명 수	
10	1994	박 동 주	
11	1998	박 평 수	
12	1998	이 덕 수	
13	1998	이 윤 제	
14	1998	조 병 환	
15	1999	윤 욱 현	
16	2002	박 행 수	작고
17	2004	오미혜	

3. 광주보건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86	강 동 원	
2	1988	정 회 갑	
3	1989	정 정 애	
4	1990	서 영 희	
5	1992	김 현 수	
6	1995	김 사 라	
7	1995	배 우 심	
8	1995	김 민 희	
9	1996	최 지 영	
10	1996	최 경 화	
11	2002	김 수 양	

4. 동강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이 건 진	
2		김 영 호	
3		임 종 록	
4		조 태 형	
5		송 하 정	
6		김 영 현	
7		장 진 환	
8		이 성 만	
9		이 영 만	
10		박 진 수	
11		나 이 주	
12		백 종 진	
13		서 신 종	
14		신 원 선	
15		윤 희 영	
16		김 혜 정	
17		김 복 순	
18		박 승 현	
19		송 수 영	
20		이 심 오	
21		고 준 재	
22		김 찬 희	

5. 동신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92	우 기 정	
2	1992	김 종 석	
3	1995	김 선 화	
4	1996	이 양 규	
5	1996	박 정 배	

6. 목포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81	김 요 철	
2	1981	이 병 철	
3	1982	김흥규	
4	1982	이 철 흥	
5	1983	김 명 님	
6	1983	박 희 진	
7	1984	문 광 성	
8	1984	이 종 식	
9	1984	차 경 재	
10	1985	김 광 곤	
11	1985	김 상 준	
12	1985	김 일 용	
13	1985	김 재 명	
14	1985	박 병 철	
15	1985	이병규	
16	1986	이 은 주	
17	1986	나 해 영	
18	1986	이 창 형	
19	1987	강 영 관	
20	1987	김 현 석	
21	1987	나 철 운	
22	1987	류 현	
23	1987	박 성 언	
24	1987	윤 경 숙	
25	1988	김 태 기	
26	1988	박 성 삼	
27	1988	오 종 갑	
28	1988	이 은 영	
29	1989	박 극 민	
30	1989	장 민 오	
31	1989	추 은 정	
32	1989	허 금 옥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3	1990	신 권	
34	1990	여 희 진	
35	1992	김 성 훈	
36	1992	박 현 욱	
37	1993	김 금 숙	
38	1993	김 신 안	
39	1993	김 용 재	
40	1994	김 남 일	
41	1994	김 이 조	
42	1995	이 용 부	
43	1996	박 현 수	
44	1997	정용기	
45	1998	김 영 숙	
46	1998	임 조 숙	
47	1999	윤 일 환	
48	1999	이 경 현	
49	2000	정 소 리	
50	2001	정 선 화	
51	2002	김 소 희	
52	2003	정 광 석	
53	2003	정 대 웅	
54	2005	곽 효 정	
55	2005	김 나 영	
56	2006	김 니 다	
57	2006	박 재 철	
58	2006	박 서 영	
59	2006	부 기 동	
60	2008	김 진	
61	2009	김 민 수	
62	2009	김 진 원	
63	2009	이 제 국	
64	2013	고 항 성	

7. 목포과학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81	김 인 해	
2	1981	박 종 우	
3	1981	고 병 준	
4	1982	김 병 대	
5	1982	김 정 원	
6	1984	전 진 호	
7	1984	정 송 성	
8	1984	김 장 성	
9	1984	김 영 곤	
10	1984	김 갑 석	
11	1984	이 찬 옥	
12	1985	김 만 자	
13	1985	정 수 미	
14	1985	김 정 석	
15	1985	현 정 란	
16	1985	김 명 숙	
17	1986	위 성	
18	1986	황 재 삼	
19	1986	김 진 희	
20	1986	김 백 일	
21	1986	박 종 우	
22	1987	최 호	
23	1987	나 미 영	
24	1988	박 근 구	
25	1988	김 단 오	
26	1988	주 인 성	
27	1988	김 대 중	
28	1988	김 상 훈	
29	1988	김 인 철	
30	1989	임 찬 수	
31	1989	김 인 웅	
32	1989	김 헌 철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3	1989	김 공 주	
34	1990	오 종 락	작고
35	1991	홍 영 교	
36	1991	오 정 욱	
37	1992	박 호 선	
38	1992	김 승 민	
39	1992	이 홍 헌	
40	1992	김 은 주	
41	1993	문 호	
42	1993	최 영 신	
43	1994	김 광 필	
44	1994	김 미 자	
45	1995	임 천 익	
46	1998	박 현 희	
47	1998	김 동 주	
48	1998	이 수 경	
49	1998	이 선 희	
50	1998	서 정 현	
51	1999	오 진 숙	
52	1999	하 승 연	

8. 목포해양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81	김 정 수	
2	1982	송 윤 권	
3	1982	황 근 호	
4	1983	김 선 기	
5	1983	김 성 수	
6	1983	이 기 영	
7	1983	정 석 훈	
8	1984	김 춘 곤	
9	1984	이 경 렬	
10	1984	최 태 열	
11	1985	이 창 재	
12	1985	염 종 석	
13	1985	위 갑 현	
14	1986	임 종 택	
15	1987	김 병 수	
16	1987	김 정 환	
17	1987	신 승 호	
18	1989	박 찬 호	
19	1992	이 종 식	
20	1992	박 준 성	
21	1992	이 대 병	
22	1992	허 진 감	
23	1993	최 정 훈	
24	1993	하 영 태	
25	1994	양 지 훈	
26	1994	홍 경 수	
27	1995	김 원 종	
28	1995	김 상 근	
29	1995	윤 경 준	
30	1995	오 정 섭	
31	1996	송 광 호	
32	1996	이 병 건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3	1996	서 민 수	
34	1997	조 정 익	
35	1997	김호 곤	
36	1997	배미영	
37	1997	신 진 희	
38	1997	황 대 근	
39	1998	정 수 동	
40	1998	김 성 덕	
41	1998	최 두 진	
42	1999	이 종 재	
43	1999	문 태 식	
44	2000	박 경 두	
45	2000	강 석 후	
46	2000	정 병 희	
47	2001	주 기 범	
48	2002	박 상 연	
49	2004	윤 국 현	
50	2004	최 원 기	
51	2010	김 태 훈	
52	2010	김 찬 호	
53	2010	안 세 운	
54	2010	신 길 호	
55	2010	손 유 석	
56	2010	배 형 열	
57	2011	곽 민 용	
58	2011	손 바 름	
59	2011	원 소 연	
60	2011	임 형 섭	
61	2011	홍 정 화	
62	2012	박 윤 재	
63	2012	오 정 현	
64	2013	문 민 주	

9. 서영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65	2013	윤 승 현	
66	2013	이 진 희	
67	2013	이 재 환	
68	2013	정 득 민	
69	2013	이용기	
70	2014	김 형 우	
71	2014	민 경 화	
72	2014	안 철 현	
73	2014	구 영 재	
74	2014	박 관 용	
75	2014	허 성 호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79	류 재 강	
2	1979	조 상 두	
3	1979	고 재 복	
4	1980	김 영 학	
5	1981	고 재 연	
6	1981	류 남 석	
7	1982	박 정 호	
8	1983	이 연 주	
9	1983	이 준 봉	
10	1984	한 대 열	
11	1985	정 득 채	
12	1986	라 관 주	
13	1986	김 해 곤	
14	1986	김 애 란	
15	1988	김 강 영	
16	1989	안 태 영	
17	1990	허 환	
18	1991	유 순 옥	
19	1992	신 화 춘	
20	1994	김 미 곤	

10. 송원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79	김 양 중	
2	1979	류 영 범	
3	1979	민 향 석	
4	1979	윤 호 근	
5	1979	임 노 욱	
6	1980	류 제 철	
7	1980	윤 희 관	
8	1980	정 현 남	
9	1980	조 포 현	
10	1981	정 찬 득	
11	1981	조 일 성	
12	1982	신 복 남	
13	1982	신 영 철	
14	1982	오 필 규	
15	1983	김 육 곤	
16	1983	김 은 철	
17	1983	김홍 빈	
18	1983	위 민 환	
19	1983	정 남 옥	
20	1983	정 앵 숙	
21	1984	김 명 신	
22	1984	김 미 화	
23	1984	박 문 자	
24	1986	김 종 학	
25	1986	박 동 환	
26	1986	신 용 인	
27	1987	홍 동 식	
28	1988	윤 호 준	
29	1989	정 우 연	
30	1990	김 준 탁	
31	1990	오 형 욱	
32	1990	장 병 호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3	1990	장 희 웅	
34	1990	홍 수 미	
35	1991	문 기 갑	
36	1991	문 옥 경	
37	1991	장 현 정	
38	1991	조 경 미	
39	1992	조 평 익	
40	1994	김 정 남	
41	1996	이 봉 태	
42	1997	임 경 민	
43	1998	박 상 석	
44	1999	이 상 영	
45	2013	김 균 후	
46		김 응 록	명예회원

11. 순천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82	김 용 철	
2	1982	문 태 철	
3	1982	임양호	
4	1982	주 현 정	
5	1982	최 기 열	
6	1982	허 규 만	
7	1983	김 동 렬	
8	1983	모 갑 원	
9	1983	이 용 문	작고
10	1984	강 성 희	
11	1984	곽 정 민	
12	1984	서 영 배	
13	1985	황 정 미	
14	1985	박 양 순	
15	1985	정 원 기	작고
16	1986	김 양 수	
17	1986	박 주 봉	
18	1987	김 춘 삼	
19	1988	조 정 우	
20	1988	강 경 아	
21	1988	강동수	
22	1988	박 현 재	작고
23	1989	김 회 원	
24	1989	오 옥 현	
25	1989	오 철 식	
26	1989	이 정 현	
27	1989	정 지 숙	
28	1990	최 전 식	작고
29	1994	주 우 평	
30	1994	진 상 건	
31	1996	박 원 표	
32	1999	박 대 현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3	1999	백 송 희	
34	1999	송 현 석	
35	1999	정 미 애	
36	2000	홍 근 진	
37	2001	양 인 복	
38	2003	손 은 경	
39	2004	이 아 름	
40	2005	김 건 우	
41	2005	서 미 영	
42	2005	이 지 수	
43	2006	박 성 민	
44	2006	이 승 재	
45	2013	김 민 태	
46	2013	이 근 수	
47	2013	박 서 영	
48	2014	정 명 진	
49	2014	장 용 주	
50	2014	박 서 리	

12. 순천제일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박 상 태	
2		서 홍 원	
3		유 환 기	
4		조 민 철	
5		문 형 근	
6		김 민 호	
7		조 창 익	
8		박 삼 기	
9		배 윤 희	
10		장 옥 수	
11		안 치 호	
12		정 진 아	
13		김 여 선	
14		박 상 훈	
15		서 영 민	
16		신 용 순	
17		박 동 민	

13. 청암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89	 전 순 옥	,—
	1992	서 봉 선	
3	1992	박근숙	
4	1993	 오미정	
5	1993	 임 선 주	
6	1994	최 영 미	
7	1994	정 순 미	
8	1995	정 희 순	
9	1995	김 수	
10	1995	이 은 정	
11	1995	윤 형 섭	
12	1996	강 윤 숙	
13	1996	고 현 화	
14	1996	정 옥 선	
15	1996	김 순 영	

14.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87	정 길 룡	
2	1987	노 은 철	
3	1987	박 남 식	
4	1988	정 명 식	
5	1988	장 준 영	
6	1988	옥 경 철	
7	1989	박 병 준	
8	1990	박 기 호	
9	1990	김 영 석	
10	1991	김 기 영	
11	1991	황 종 필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2	1993	박 영 석	
13	1994	허 정 아	
14	1996	엄 경 섭	
15	1997	황 재 웅	
16	1997	이 상 법	

15. 전남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명예회원	김 용 선	
2	명예회원	김 현 곤	
3	명예회원	노 희 관	
4	명예회원	박 옥 규	
5	명예회원	송 기 숙	
6	명예회원	송 정 현	
7	명예회원	윤 재 룡	
8	명예회원	이 방 기	작고
9	명예회원	정 정 의	
10	명예회원	지 영 수	
11	명예회원	김 태 중	
12	1956	신 귀 현	작고
13	1957	김 용 석	작고
14	1957	임 춘 재	작고
15	1959	김 훈 봉	
16	1959	박 종 현	
17	1960	최 동 식	
18	1960	김 승 철	작고
19	1961	장 일 선	
20	1962	정 순 택	작고
21	1964	김 장 영	
22	1964	박 하 연	
23	1965	강 정 채	
24	1965	박 명 선	
25	1965	박 장 일	
26	1965	최 창 돈	
27	1966	김 재 률	
28	1966	박 춘 화	
29	1966	박 향 식	
30	1967	김 용 우	
31	1967	김 재 일	
32	1967	박 현 문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3	1967	정 태 영	
34	1968	김 하 경	
35	1968	송 희 범	
36	1968	신 연 식	
37	1968	신 한 봉	작고
38	1968	이 정 상	
39	1968	임 백 환	작고
40	1968	제갈호일	
41	1968	최 정 호	작고
42	1969	국 연 근	
43	1969	김 나 연	
44	1969	양 형 렬	
45	1969	유 종 태	
46	1969	이 정 옥	
47	1970	김 선 지	
48	1970	김 평 중	
49	1970	윤 기 현	
50	1970	이 준 호	
51	1970	정 부 흥	
52	1971	김 부 용	
53	1971	신 갑 웅	
54	1972	김 제 승	
55	1972	마 영 기	
56	1972	이교태	
57	1972	이도 기	
58	1972	이 용 춘	
59	1973	설 승 욱	
60	1973	송 희 태	
61	1973	이 계 윤	
62	1973	전 춘 생	
63	1973	추 봉 식	
64	1974	김 상 군	

연번	학번	이름	비고
65	1975	김 영 배	
66	1974	김 인 주	
67	1974	이 순 재	
68	1975	안 태 회	
69	1975	이 광 호	
70	1975	이 정 자	
71	1976	김 희 영	
72	1976	노 은 옥	
73	1976	박 상 규	
74	1976	오 성 개	
75	1976	오 혜 지	
76	1977	김 용 석	
77	1977	안 정 옥	
78	1977	이 점 례	
79	1977	장 희	
80	1978	김 준 엽	
81	1978	박 현	
82	1978	이 홍 재	
83	1978	조 선 행	
84	1978	추 교 윤	
85	1979	김 연 옥	
86	1979	한 석 천	
87	1980	이 연 근	
88	1980	조 규 상	
89	1981	이 명 숙	
90	1981	이 은 수	
91	1981	임우근	
92	1981	정 권 희	
93	1982	서 옥 원	
94	1982	서 정 연	
95	1982	윤 성 룡	
96	1982	이 종 호	
97	1982	정 숭 룡	

연번	학번	이름	비고
98	1983	강 미 라	
99	1983	박 진 영	
100	1983	반 민 환	
101	1983	한 민 수	
102	1984	공 화 심	
103	1984	서 은 호	
104	1984	한 옥 자	
105	1985	김 광 미	
106	1985	김 민 철	
107	1985	김 양 성	
108	1985	백 두 인	
109	1985	조 기 성	
110	1985	한 규 성	
111	1985	최 행 준	작고
112	1986	권 경 희	
113	1986	김 길 봉	
114	1986	김 수 근	
115	1986	김 용 욱	
116	1986	김 호 근	
117	1986	박 헌 주	
118	1986	이 광 복	
119	1986	조 양 택	
120	1986	차 운	
121	1988	고 일 주	
122	1988	김 영 필	
123	1988	문 귀 현	
124	1989	김 창 한	
125	1989	유 명 희	
126	1990	김 지 형	
127	1990	김 현 성	
128	1990	최 지 환	
129	1991	김 수 영	
130	1991	김 정 국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31	1991	임 준 철	
132	1992	문 준 연	
133	1992	이 현 조	작고
134	1993	박 근 영	
135	1993	원 정 일	
136	1993	정 양 숙	
137	1994	천 옥 랑	
138	1994	한 창 균	
139	1995	김 성 석	
140	1995	김 연 정	
141	1995	김 현 준	
142	1995	방 경 환	
143	1995	임 도 균	
144	1995	함 경 준	
145	1996	정 종 천	
146	1996	한 성 필	
147	1998	김 재 우	
148	1999	전 현 주	
149	2000	김 연 주	
150	2000	박 지 순	
151	2002	김 가 영	
152	2002	손 용 주	
153	2003	임 성 근	
154	2003	정 효 준	
155	2004	이 재 국	
156	2004	정 선 영	
157	2005	강 은 미	
158	2005	문 석 민	
159	2007	노 경 미	
160	2007	이 경 미	
161	2007	박 주 현	
163	2007	심 우 담	
163	2007	안 나 윤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64	2008	배 아 름	
165	2009	박 지 영	
1	2009	강 민 준	이하 Y.B.
2	2010	김 진 현	
3	2010	박 현 범	
4	2011	윤 상 화	
5	2011	이 원 재	
6	2012	김 수 룡	
7	2012	박 두 리	
8	2012	박 성 향	
9	2012	이 나 원	
10	2013	신 정 혜	
11	2013	윤 대 석	
12	2013	윤 장 한	
13	2013	장 봉 조	
14	2014	김 근 영	
15	2014	김 태 균	
16	2014	차 태 양	

16.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명예회원	윤 재 룡	
2	명예회원	박 옥 규	
3	명예회원	김 지 열	
4	명예회원	조 복 희	
5	1965	강 정 채	
6	1966	박 원 집	
7	1967	정 창 영	
8	1968	김 하 경	
9	1968	윤 영 준	
10	1969	박 강 식	
11	1969	박 재 황	
12	1969	박 제 천	
13	1969	박 의 재	
14	1970	윤 기 현	
15	1971	김 익 성	
16	1971	김 웅 기	
17	1971	강 대 석	
18	1972	김 재 휴	
19	1972	박 종 춘	
20	1972	위 계 룡	
21	1972	최 진	
22	1973	김 주 오	
23	1973	이 민 철	
24	1973	정 상 영	
25	1973	조 석 필	
26	1973	조 재 식	
27	1974	권 현	
28	1974	김 배 영	
29	1974	정 영 찬	
30	1975	김 휘 언	
31	1975	윤 석 기	
32	1975	이 문 기	
33	1975	이 종 범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4	1975	황 주 연	
35	1976	김 기 선	
36	1976	서 기 배	
37	1976	오 종 건	
38	1976	이 광 래	
39	1977	김 영 일	
40	1977	노 준 양	
41	1977	박 성 현	작고
42	1978	김 환 익	
43	1978	민 병 일	
44	1978	조 진 호	
45	1978	최 명 숙	
46	1978	최 윤 근	
47	1979	박 항 근	
48	1979	정 주 철	
49	1979	최 태 엽	
50	1980	김 석 곤	
51	1980	김 석 채	
52	1980	나 범 수	
53	1980	방 보 형	
54	1980	최 정 원	
55	1981	박 창 수	
56	1981	설 용 재	
57	1981	안 남 규	
58	1981	오 병 현	
59	1981	장 영 진	
60	1981	정 종 재	
61	1981	한 전 국	
62	1981	허 정 필	
63	1982	권 동 득	
64	1982	김 태 삼	
65	1982	백 종 철	
66	1982	임 인 수	

연번	학번	이름	비고
67	1982	 최 경 상	
68	1982	최 광 호	
69	1982	한 호 세	
70	1983	김 재 익	
71	1983	장 안 순	
72	1983	홍 운 기	
73	1984	민 완 기	
74	1984	이 정 훈	
75	1984	이 창 진	
76	1984	임 준 섭	
77	1984	정 회 정	
78	1985	김 수 현	
79	1985	심 재 진	
80	1986	박 원 규	
81	1986	손 영 남	
82	1986	송 제 헌	
83	1986	양 수 정	
84	1987	이 내 섭	
85	1987	최 낙 선	
86	1988	김 병 룡	
87	1988	김 정 민	
88	1988	심 야 성	
89	1988	정 원 호	
90	1988	박 은 주	
91	1989	이 재 준	
92	1989	장 창 룡	
93	1990	김 상 덕	
94	1990	송 상 국	
95	1990	신 미 용	
96	1991	박 상 운	
97	1991	박 숙 현	
98	1991	정 미 연	
99	1991	임 현 희	
100	1992	정 인 석	
101	1992	봉 명 례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02	1992	정 선 희	
103	1992	신 해 원	
104	1992	신 선 화	
105	1992	이 춘 화	
106	1993	서 보 라	
107	1993	강 유 화	
108	1993	송 정 희	
109	1993	김 선 옥	
110	1994	김 형 용	
111	1994	임 종 주	
112	1994	정 순 만	
113	1995	한 창 우	
114	1995	나 성 진	
115	1995	김 명 숙	
116	1996	박 지 노	
117	1996	김 정 창	
118	1996	윤 현 식	
119	1997	이 용 선	
120	1997	조 승 현	
121	1998	김 관 식	
122	1998	정 우 빈	
123	1998	진 은 주	
124	1999	박 치 호	
125	2000	정홍명	
126	2000	박 도 회	
127	2000	차 민 섭	
128	2000	정 금 지	
129	2001	권 도 형	
130	2001	박 현 화	
131	2002	이 현 화	
132	2003	안 혜 란	
133	2003	김 미 선	
134	2004	김 유 정	
135	2005	황 아 라	

17. 조선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65	김 의 섭	
2	1965	김 상 문	
3	1965	김 방 진	
4	1965	김 봉 곤	
5	1965	나 병 채	
6	1965	이 도 형	
7	1965	고 재 인	
8	1965	서 용 욱	
9	1966	이 준 식	
10	1967	박 석 남	
11	1967	조 남 호	
12	1967	이 순 자	
13	1968	박 태 규	
14	1968	김 양 수	
15	1970	송 하 열	
16	1970	김 용 철	
17	1970	박홍수	
18	1970	신 준 형	
19	1971	김 석	
20	1971	이 상 선	
21	1971	박 영 묘	
22	1971	김 갑 중	
23	1972	전 호 권	
24	1973	최 경 석	
25	1973	송 하 중	
26	1973	윤 행 재	
27	1973	이 덕 심	
28	1974	최 영 주	
29	1974	전 의 천	
30	1977	임 형 칠	
31	1977	소 병 현	
32	1977	윤 승 호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3	1977	임 승 진	
34	1977	염 행 삼	
35	1978	최 인 섭	
36	1978	오 승 용	
37	1979	오 태 근	
38	1979	김 두 환	
39	1979	김용 배	
40	1979	신 도 근	
41	1979	양 진 영	
42	1979	김 옥 임	
43	1979	신 용 환	
44	1980	김 경 자	
45	1980	김 옥	
46	1980	조 현 옥	
47	1980	손 정 기	
48	1981	채 강 국	
49	1981	신 욱 철	
50	1981	김 제 정	
51	1982	김 병 규	
52	1982	조 상 일	
53	1982	김 경 자	
54	1982	신 정	
55	1983	박 기 환	
56	1983	강 태 용	
57	1983	오 경 탁	
58	1983	윤 장 호	
59	1983	최 홍 수	
60	1984	나 상 훈	
61	1984	이 용 철	
62	1985	안 두 환	
63	1985	김 동 호	
64	1985	유 미 정	

연번	학번	이름	비고
65	1985	이 병 석	
66	1986	장 성 복	
67	1986	정 찬 주	
68	1986	박 동 호	
69	1986	김 주 미	
70	1987	위 승 찬	
71	1987	이 종 원	
72	1987	장 영 호	
73	1988	이 명 노	
74	1988	이 재 운	
75	1988	박 수 성	
76	1988	김 해 주	
77	1988	정 진 호	
78	1988	윤 종 호	
79	1989	오 제 하	
80	1989	최 종 태	
81	1989	장 란 영	
82	1990	신 광 철	
83	1991	손 경 춘	
84	1991	김 용 진	
85	1991	김 재 중	
86	1991	오 영 선	
87	1992	윤 순 주	
88	1992	이 종 아	
89	1994	고 재 춘	
90	1997	주 리	
91	1997	조 민 재	
92	1998	서 상 진	
93	1999	이 승 환	
94	1999	장 정 규	
95	2000	송 진 숙	
96	2000	황 금 자	
97	2000	김 희 정	

연번	학번	이름	비고
98	2000	장 윤 희	
99	2000	이 승 현	
100	2000	우 승 수	
101	2000	마 수 광	
102	2000	정 자 은	
103	2004	최 민 호	
104	2005	고 관 섭	
105	2006	정 용 오	
106	2007	이 영 록	
107	2007	홍 정 석	
108	2008	이유미	
109	2008	황 효 정	

18.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69	윤 장 현	
2	1969	유 근 하	
3	1969	이 지 헌	
4	1969	문 재 선	
5	1969	김 춘 곤	
6	1969	이 영 식	
7	1970	하 상 호	
8	1970	박 영 순	
9	1971	오 순 탁	
10	1971	유근오	
11	1971	배 정 엽	
12	1972	정 효 성	
13	1972	김 용 억	
14	1973	이 인 식	
15	1973	백 원 민	
16	1974	박 인 규	
17	1974	장 강 수	
18	1975	고 동 범	
19	1975	오 학 천	
20	1975	이 광 준	
21	1975	박 성 국	
22	1976	홍 종 협	
23	1976	강 원 봉	
24	1977	강 석 경	
25	1977	김 훈	
26	1977	송 준 석	
27	1978	김 종 철	
28	1978	염 인 열	
29	1978	박 근 홍	
30	1978	김 성 철	
31	1978	최 형 천	
32	1978	박 성 호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3	1979	김 걸	
34	1979	반 재 현	
35	1980	박 종 훈	
36	1980	최 영 화	
37	1980	손 호 균	
38	1980	김 종 돈	
39	1980	서 상 돈	
40	1980	신 경 화	
41	1981	박 창 현	
42	1981	강 전 오	
43	1981	박 근 용	
44	1981	오 금 숙	
45	1981	박 기 정	
46	1981	송 치 국	
47	1981	신 점 숙	
48	1981	고 준 성	
49	1981	김 재 삼	
50	1982	김 용 배	
51	1982	최 태 행	
52	1982	김 은 영	
53	1982	노 애 숙	
54	1982	류 화 라	
55	1983	김 용 석	
56	1983	고 영 환	
57	1983	김 영 숙	
58	1983	김 혜 숙	
59	1984	김 종 형	
60	1984	양 원 호	
61	1984	정 혜 경	
62	1984	박 중 채	
63	1984	김 성 중	
64	1985	김 영 완	

학번	이름	비고
1985	전 미 선	
1986	정 병 준	
1986	김 금 옥	
1987	김 현 성	
1987	김 남 형	
1987	임 희 택	
1987	김 찬 상	
1987	김 혜 민	
1988	김 미 정	
1988	이 미 선	
1988	정 혁 준	
1988	정홍 배	
1989	김 현 정	
1989	조 미 경	
1989	조 미 정	
1989	박 철	
1989	주 신	
1989	배 윤 오	
1990	송 상 현	
1991	이 행 란	
1991	주 명 자	
1991	김 도 균	
1992	이 현 정	
1993	한 정 일	
1993	정 연 화	
1995	신 은 지	
1995	한 재 필	
1995	최 효 성	
1995	김 영 순	
1996	박 거 운	
1996	이 향 란	
1997	김 경 삼	김동원
1997	김 권 곤	
	1985 1986 1987 1987 1987 1987 1988 1988 1988 1988	1985 전 미 선 1986 정 병 준 1986 김금옥 1987 김현성 1987 김당형 1987 김당형 1987 김하상 1987 김해민 1988 김미정 1988 징형준 1988 정형준 1988 정흥배 1989 조미경 1989 조미정 1989 조미정 1989 주 신 1989 주 신 1989 다 철 1989 다 정 1989 다 당한 1991 이행단 1991 구명자 1991 김도균 1991 김도균 1992 이현정 1993 전면화 1993 전면화 1993 전면화 1995 단재필 1995 지료성 1995 김영순 1996 이향단 1996 이향단

연번	학번	이름	비고
98	1998	이 재 광	
99	2002	최 태 진	

19.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76	김 왕 근	
2	1976	고 희 종	
3	1976	김 대 수	
4	1977	김 운	
5	1977	신 철 규	
6	1977	하 종 운	
7	1977	현 용 휴	
8	1977	김 구 권	
9	1978	김 기 홍	
10	1978	김 선 렬	
11	1979	김 영 재	
12	1979	김 우 진	
13	1979	정 재 욱	
14	1980	이 영 진	
15	1980	전 상 섭	
16	1980	김 현 섭	
17	1981	김 언 민	
18	1982	신 용 욱	
19	1983	고 슴 백	
20	1983	문 혜 성	
21	1983	정 경 환	
22	1983	정 용 희	
23	1983	손 한 신	
24	1984	정 선 균	
25	1984	오 주 안	
26	1984	최 낙 찬	
27	1985	강 승 우	
28	1985	최 성 욱	
29	1985	이 민 규	
30	1986	김 문 수	
31	1986	최 완 기	
32	1986	오 종 화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3 1987 박노승 34 1987 신흥식 35 1987 도기문 36 1987 조영승 37 1988 김종욱 38 1988 이병욱 39 1988 이준호 40 1988 이건관 41 1989 김 식 42 1990 김동현 43 1991 이진태 44 1991 김영빈 45 1992 한상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57 2002 임재우				1
34 1987 신흥식 35 1987 노기문 36 1987 조영승 37 1988 김종욱 38 1988 이병욱 39 1988 이준호 40 1988 이건관 41 1989 김 식 42 1990 김동현 43 1991 이진태 44 1991 김영빈 45 1992 한상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5 1987 노기문 36 1987 조영승 37 1988 김종욱 38 1988 이병욱 39 1988 이준호 40 1988 이건관 41 1989 김 식 42 1990 김동현 43 1991 이진태 44 1991 김영빈 45 1992 한상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33	1987	박 노 승	
36 1987 조영승 37 1988 김종욱 38 1988 이병욱 39 1988 이준호 40 1988 이건관 41 1989 김 식 42 1990 김동현 43 1991 이진태 44 1991 김영빈 45 1992 한상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34	1987	신 흥 식	
37 1988 김종욱 38 1988 이병욱 39 1988 이준호 40 1988 이건관 41 1989 김 식 42 1990 김동현 43 1991 이진태 44 1991 김영빈 45 1992 한상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35	1987	노 기 문	
38 1988 이 병욱 39 1988 이 준호 40 1988 이 건 관 41 1989 김 식 42 1990 김동현 43 1991 이 진 태 44 1991 김 영 빈 45 1992 한 상 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 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36	1987	조 영 승	
39 1988 이준호 40 1988 이준호 41 1989 김 식 42 1990 김동현 43 1991 이진태 44 1991 김영빈 45 1992 한상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37	1988	김 종 욱	
40 1988 이건판 41 1989 김 식 42 1990 김동현 43 1991 이진태 44 1991 김영빈 45 1992 한상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38	1988	이 병 욱	
41 1989 김 식 42 1990 김동현 43 1991 이진태 44 1991 김영빈 45 1992 한상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39	1988	이 준 호	
42 1990 김동현 43 1991 이진태 44 1991 김영빈 45 1992 한상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40	1988	이 건 관	
43 1991 이 진 태 44 1991 김 영 빈 45 1992 한 상 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 현성 51 1997 이 연 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41	1989	김 식	
44 1991 김 영 빈 45 1992 한 상 권 46 1993 성 화 중 47 1993 한 종 환 48 1994 박 덕 용 49 1995 김 남 수 50 1997 김 현 성 51 1997 이 연 석 52 1998 백 채 환 53 1998 강 동 진 54 1998 한 동 희 55 2000 오 수 석 56 2000 조 현 우	42	1990	김 동 현	
45 1992 한 상 권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 종 환 48 1994 박 덕 용 49 1995 김 남 수 50 1997 김 현 성 51 1997 이 연 석 52 1998 백 채 환 53 1998 강동 진 54 1998 한 동 희 55 2000 오 수 석 56 2000 조 현 우	43	1991	이 진 태	
46 1993 성화중 47 1993 한종환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44	1991	김 영 빈	
47 1993 한 종 환 48 1994 박 덕 용 49 1995 김 남 수 50 1997 김 현 성 51 1997 이 연 석 52 1998 백 채 환 53 1998 강 동 진 54 1998 한 동 희 55 2000 오 수 석 56 2000 조 현 우	45	1992	한 상 권	
48 1994 박덕용 49 1995 김남수 50 1997 김현성 51 1997 이연석 52 1998 백채환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46	1993	성 화 중	
49 1995 김 남 수 50 1997 김 현 성 51 1997 이 연 석 52 1998 백 채 환 53 1998 강 동 진 54 1998 한 동 희 55 2000 오 수 석 56 2000 조 현 우	47	1993	한 종 환	
50 1997 김 현 성 51 1997 이 연 석 52 1998 백 채 환 53 1998 강동 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 수 석 56 2000 조 현 우	48	1994	박 덕 용	
51 1997 이 연 석 52 1998 백 채 환 53 1998 강 동 진 54 1998 한 동 희 55 2000 오 수 석 56 2000 조 현 우	49	1995	김 남 수	
52 1998 백 채 환 53 1998 강 동 진 54 1998 한 동 희 55 2000 오 수 석 56 2000 조 현 우	50	1997	김 현 성	
53 1998 강동진 54 1998 한동희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51	1997	이 연 석	
54 1998 한 동 희 55 2000 오 수 석 56 2000 조 현 우	52	1998	백 채 환	
55 2000 오수석 56 2000 조현우	53	1998	강 동 진	
56 2000 조현우	54	1998	한 동 희	
	55	2000	오 수 석	
57 2002 임재우	56	2000	조 현 우	
	57	2002	임 재 우	

20. 조선이공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정 형 윤	명예고문
2		홍 성 국	명예고문
3		류 재 선	명예고문
4		김 성 식	지도교수
5	1976	선 승 호	
6	1977	김 병 길	
7	1977	박 상 수	
8	1978	김 성 도	
9	1978	문 호 성	
10	1979	민 현 배	
11	1979	이 성 원	
12	1979	최 경 휴	
13	1980	정 성 민	
14	1980	심용석	작고
15	1981	정 성 백	작고
16	1981	마 성 렬	
17	1981	박 선 영	
18	1981	원 규 석	
19	1982	김 창 호	
20	1982	박 종 진	
21	1982	서 재 철	
22	1982	윤 명 석	
23	1982	윤 섭 현	
24	1982	윤 태 영	
25	1982	최 완 범	
26	1983	양 준 열	
27	1983	이 채 성	
28	1984	김 배 성	
29	1984	박 정 수	
30	1984	박 형 묵	
31	1984	장 미 호	
32	1984	조 방 덕	

연번	학번	이름	비고
33	1984	최 규 환	
34	1985	김 덕 중	
35	1985	김 종 식	
36	1985	오 근 배	
37	1985	장 현 필	
38	1986	김 용 선	
39	1986	김 주 형	
40	1987	박 지 원	
41	1987	서 봉 자	
42	1987	송홍순	
43	1987	장 창 수	
44	1987	장홍수	
45	1987	정 성 현	
46	1987	정 제 호	
47	1988	노광기	
48	1988	노 형 진	
49	1988	문 종 국	
50	1988	서 종 갑	
51	1988	이 연	
52	1988	이 영 미	
53	1988	최 병 연	
54	1989	신 철 호	
55	1989	윤 중 현	
56	1990	서 경 부	
57	1992	박 상 민	
58	1992	송 형 근	
59	1993	송 천 근	
60	1993	주 수 환	
61	1994	김 대 현	
62	1994	김 수 희	
63	1994	김 종 규	
64	1994	김 혜 영	

21. 호남대학교

연번	학번	이름	비고
65	1994	박 철 준	
66	1994	조 인 성	
67	1995	김 천	
68	1995	안 성 표	
69	1995	이 경 주	
70	1995	임홍 관	
71	1997	류 승 현	
72	1997	박 경 빈	
73	1998	김 진 복	
74	1999	김 병 률	
75	2003	박 대 용	

연번	학번	이름	비고
1	1980	나 왕 주	
2	1981	김 면 수	
3	1982	김 경 선	
4	1982	황록	
5	1983	임 종 완	
6	1983	곽 재 호	
7	1984	피 길 연	
8	1984	이 점 호	
9	1984	박 상 채	
10	1986	박 성 우	
11	1986	임 미 라	
12	1987	전 동 균	
13	1988	박 미 심	
14	1988	박 재 필	
15	1988	정 차 균	
16	1990	최 기 춘	
17	1990	윤 인 숙	

93 광주 · 전남 초모랑마 원정대









광 주 · 전 남 학 생 산 악 연 맹 5 0 년 사 발 간 을 축 하 합 니 다



계절한정식전문점

OPEN 11월 중순

T. 655-767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97-5 2F (스타박스 옆) (구) 송학한정식

대표 장 영 주

010-3648-0849

sdafire0849@hanmail.net

종합법률사무소 IN SOON LAW FIRM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건설회관 10층 (135-701) Tel. 02-6203-0055 | Fax. 02-6203-0119 (직통) 02-586-9904 Mobile: 010-3993-9904 | E-mail: ksj99045@naver.com

부동산 114 BESTRO

C.P: 010-3880-2114 FAX: 041-541-8181

공인중개사 윤 중 현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509 배방자이아파트 상가2동 104호 www.rstory.kr

041)552-7114

Ge 금광에너지(주)

나 왕 주(호남대 8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39번 안길 41

T 055-547-6739

F_ 055-547-6732

M_ 010-4627-6739

E ksy6730@hanmail.net







代表金聖福



E-mail: master@echo-tech.co.kr FAX: 0303-0610-1330

광주 전지역 최대규모, 1,2,3층 운영 명품 아웃도어브랜드, 등산용품 전품목구비











ASchöffel

히말라야 무등산점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21 062-226-8611







용성 RE-ENGINEERING

Metso Automation 여수대리점 WIN CORPORATION 대리점

대표윤 성 룡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33-11

TEL: 061) 691-5555 H.P.: 016-625-4389

(주)골든트리

대표 김정인(명지대산악회 85학번)



지아이비(GIB) 전기보일러 광주전남총판

- 산업용 물이온 증폭 보일러
- 기름, 가스, 전기 보일러 대비 40∼70% 난방비 절감
- 발명특허, 조달청 등록
- 잔고장없는 반영구적 보일러
- 사우나, 찜질방, 숙박업소, 요양원, 유치원, 비닐하우스 등

T 062)454-7401 F 062)454-7402 M 010-4127-1933

태국 마사지 샵

- ※유스트아로마 385-7400
 (상무지구 피렌체 호텔 옆)
 ※골든타이스파 381-7474
 (상무지구 센트럴 호텔 옆)
 M 010-4127-1993
- 산행, 운동 후 뭉친 근육은
 마사지로 풀어도 좋습니다
- 24시간 운영
- 커플룸, 수면실 완비
- 단체 환영







(주) 통일이앤시 (주) Family&Friend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42-7

대표전화: 1588 - 0722

홈페이지: www.dongilen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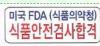
대표이사 정 제 호











Tax Free Shop

청룡다원은 유기농 청정 녹차밭, 녹차음식 체험장, 시음판매장, 민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녹차에 대한 모든 것을 즐기고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최 창 돈

since 1996,

청룡다원은 차나무 씨앗을 심을 때부터 제초제, 화학비료, 농약은 단 한방울도 쓰지 않고, 오직 정직함과 정성으로 茶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찻잎, 수준 높은 가공기술, 합리적 가격… 다수의 언론매체에 소개된 **착한 녹차** – 믿고 선택하십시오.

- * 잎녹차, 발효차, 가루녹차, 티백, 선물세트, 녹차베개, 각종다기류, 벌크 판매중
- 온라인쇼핑몰: www.bosunggreentea.co.kr (3만원 이상 무료배송)
- 전화주문 & 체험문의: T. 061-852-6625

임·승·진·치·과

조선대학교치과대학 외래교수 조선대학교 산악회 77학번

진료과목

임플란트·노인틀니·스켈링 심미보철 및 교정·치아미백

원 장 임 승 진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362-19번지

: 062) 651-2828 H.P.: 016-291-4132



기산건설주식회사 의대한건설 이엔씨

회장 심 의 섭 010-5063-3117

본 사: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개기로 1664

전 화: 061-853-8994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53번(연합의원6층)

전 화: 062-222-8826 팩 스: 062-**653-0738**

F-mail: Ses9713@hanmail net





K2 안전철물상사

대표정 득 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61번지

TEL: 062) 951-5575 H.P.: 010-9883-6007



部门至是



사과나무치과

김 성 식 H.P.010-8610-8878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치아성형 | 치아미백 | 잇몸성형 | 치주관리 | 소아치료 | 예방진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856-10 염주체육관 앞 현대아파트 파리바게트 3F TEL 062)263-2875



♥ 대한수의사회

수의료 봉사 특별위원회

단장 김 재 영

TEL_ 02-973-1953

E-mail_idkjyah@hanmail.net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겸임교수
- 서정대학교 교수
- 대한 수의사회 부회장
-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 회장
- 중랑구 수의사회 회장
- 태릉동물병원 원장

- 서울특별시 자문위원(전)
- SBS 동물농장 출연 및 자문
- SBS 세상에 이런일이 출연 및 자문
- KBS, MBC 뉴스 출연
- EBS 하나뿐인 지구 출연 및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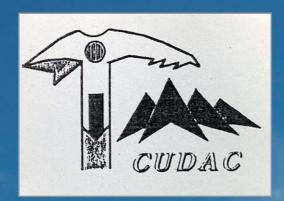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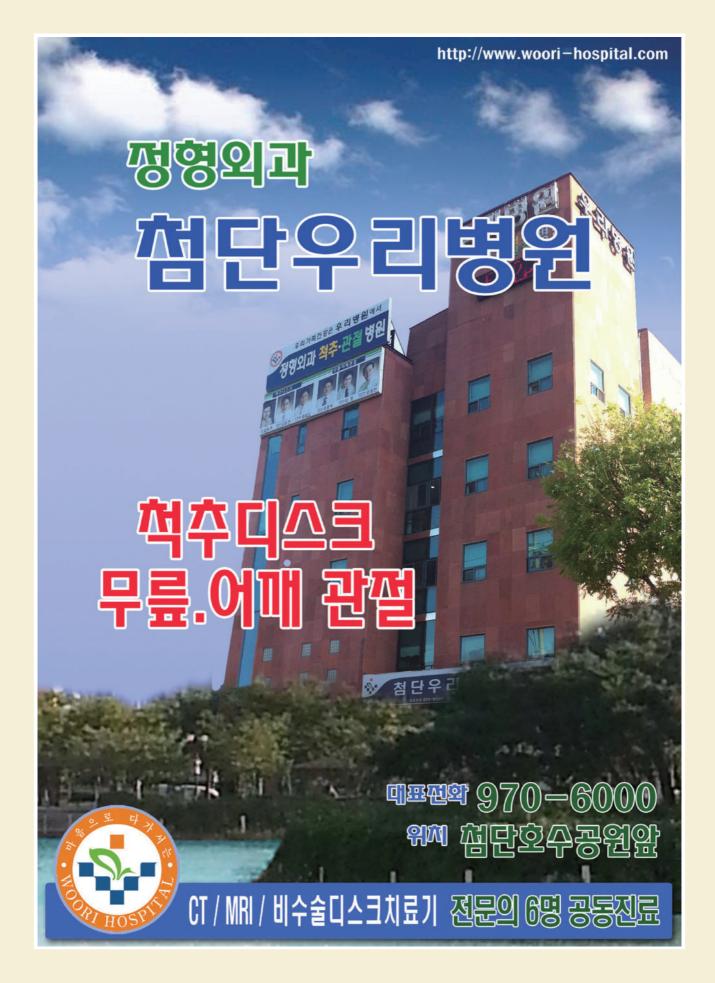


축 합니다

조 선 대 학 교 치과대학 산악회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기업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금강전력**이 되겠습니다. 전기의 역사는 곳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완벽한 시공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전남-00035 , 소방시설공사업 제98-4호, 정보통신공사업 제 610014호 기술과 창조 그리고 신뢰의 ISO 9002,14001인증기업 / 한국 장애인 5대대륙 원정 후원기업

(株)金江電力

대표이사류 재 선

본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332

TEL: 061)853-4345 / FAX: 061)853-2467

지사 : <mark>광주광역시 동구</mark> 궁동 33

TEL: 062)233-1004 / FAX: 062)226-6007



한의사 박헌주

검색

№ 한의사 박헌주



원장 박 헌 주

진료과목

통 중 디스크 관절염

부 인 과 불임 갱년기

특수클리닉 동상 화상 치질





T_ 062) 366-341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69-1번지 F_ 062) 366-3415



(특별 판매 기간: 2014년 9월 1일~11월 30일)

• 금융 상품 연계: 단말기 무상 지원가능 (우리은행, 하나SK카드)

온라인 쇼핑몰 (옥션, G마켓, 11번가, 신세계몰 등)

※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전남본부 관내 특별판매영업소 (광주,동광주,북광주,동광산,목포,순천,남순천)

국토교통부



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편집진

추진위원장

김경자, 박상수

추진위원

(2014년 임원진 - 부회장)

정득채 이성만 현정란 최 호 김흥규 김일용 이병규 김재명 김현섭 홍동식 윤호준 김양수 조민철 윤성룡 박헌주 김영필 이창진 이완선 이용철 안두환 유미정 이병석 정찬주 박동호 정성복 양원호 윤섭현 김덕중 정재호 장창수 노광기 피길연

(2014년 임원진 - 이사)

정원석 양홍식 한동철 곽정식 이덕수 고준재 임천익 곽효정 박현수 윤일환 김상근 정정애 김사라 허 환 신화춘 장병호 이봉태 박상석 이정현 주우평 박원표 김민호 장옥수 정희순 유명희 한창균 임도균 김종필 신광철 서상진 장정규 박 철 김동원 송형근 조인성 이경주 류승현 김병률

자문위원

(고문단)

김현곤 박명선 김상문 김재률 김하경 전의천 이정옥 임형칠 박상수 위계룡 이병철 김인해 김병대 오성개 신욱철 정차득(명예회장)

(지도위원)

최동식 박장일 김방진 최창돈 이도형 박향식 김용우 정태영 선종구 송희범 윤장현 박태규 이지현 김용철 송하열 이준호 신갑웅 최경석 김종철 임승진 소병현 류재강 조상두 윤호근

검토위원(광주 · 전남학생산악연맹 가맹대학산악부 OB회장단)

광주교육대학교	신기호	동신대학교	우기정
광주대학교	조병환	목포과학대학교	현정란
광주보건대학교	강동원	목포대학교	문광성
동강대학교	임종록	목포해양대학교	윤경준
서영대학교	류재강	순천대학교	김양수
송원대학교	윤희관	순천제일대학교	유환기
전남대학교	장 희	청암대학교	정희순
전남대학교의과대학	김재휴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정명식
조선대학교	김용배		
조선대학교의과대학	하상호		
조선대학교치과대학	신용욱		
조선이공대학교	윤섭현		
호남대학교	피길연		

편집위원장

김용욱

편집위원

정우연

(YB) 김진현 오정현 김진원 등 학생위원회 위원

발간기획

문종국

50년사 발간 추진 과정

날짜	내용				
2013. 3. 19.	■ 집행부 회의 - 50년사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협의				
2013. 4. 16.	■ 2013년 제1차 역대회장(고문단)간담회 - 역대회장(고문단) 전원 감수위원으로 참여 요청				
2013. 5. 1.	■ 제1차 이사회 및 학생위원회의 - 역대회장(고문단) 전원 감수위원 위촉 의결 - 50년사 편집위원장 선임: 김용욱(부회장/전남대학교산악회) - 2013년 학산인한마당 전까지 출판완료 하여 배포 목표설정				
2013. 7.	■ 50년사 수록 원고 요청 - 1960년대: 故 정순택 (기존 자료 활용) - 1970년대: 송하중 (기존 자료 활용) - 1980년대: 임형칠 - 1990년대: 박헌주 - 2000년대: 문종국 - 히말라야 원정사: 박헌주 집필 / 임형칠 감수				
2013. 9.30.	■ 1차 원고 마감				
2013. 10. 15.	■ 제1회 학산 50년사 감수위원회의 – 원고 미비부분 보충 및 일부 내용 수정 협의				
2013. 11.	■ 학산연맹 내부 문제와 원고 미비 및 제출요청 자료 미 제공으로 50년사 발간 무기한 연기				
2014. 2. 12.	■ 신임 김경자 회장 50년사 발간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지 천명				
2014. 9. 10.	 ■ 임원진 간담회에서 박상수 고문을 50년사 추진위원장에 임명 ■ 50년사 편집진 보강 – 편집위원장: 김용욱 – 편집위원: 정우연 및 학생위원회 위원 – 발간기획: 문종국 				
2014. 9. 15.	■ 학산 50년사 가 편집본 제작하여 감수위원 및 검토 위원에게 감수요청서 발송				
2014. 9. 26.	■ 제4차 이사회 및 학생위원회회의에서 50년사 목차 승인				
2014. 10. 2.	■ 최종 편집회의 – 표지 디자인 및 수록 내용 확정				
2014. 10. 22.	■ 인쇄				

편집후기

김용욱(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도 몰랐었다. 무작정 통화하고 찾아가서 원고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동안 발간된 책자와 잡지, 인터넷으로 자료를 모으고 연맹 창고에 처박혀 먼지 쌓인 지난 자료들을 들춰가며 하나하나 내용들을 수집한지 2년. 그래도 많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50년사 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혼자서 머리 싸매고 앉았냐고 잔소리 해대는 아내한테도 고맙고 궁시렁거리면서도 이런 저런 원고를 많이 써준 동기 박현주한테도 고맙고 뒤에서 이것저것 신경써주신 이정옥 선배님도 고맙고 병상에 계신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위중한 줄도 모르고 원고를 부탁했던 故 정순택 선배님 50년사 발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 뛰어다닌 전무이사 정우연 그리고 뒤늦게 합류해 이 책을 만들기 위해 고생한 문종국에게 감사한다.

문종국(발간기획)

■ 2013년 8월: 2000년대 원고 마감 후

학산 회원의 해외원정 자료를 조사하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관심 대상지를 찾아서 삼천포로 빠져 진도가 도무지 나가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등반 대상지가 궁금해 찾아보지 않고서는 베기지 못 하겠다. 이렇게 50년사를 정리하며 잠자고 있던 산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났다.

2012년으로 학산의 역사가 50주년, 내가 88학번이니까 약간 못 미치지만 거의 절반을 살아온 셈인데, 나머지 절반을 나보다 2배나 더 채워 오신 우리 선배님들의 존재와 업적에 저절로 존경을 품게 된다. 50년사를 정리하는 중요한 작업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적으나마 일조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다.

■ 2014년 10월: 편집을 마무리하며

88학번인 나의 대학 생활을 기준으로 어떤 학교는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사라졌을 정도로 길다면 기 20여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제 때 원고를 주지 않아 편집진의 수고로움으로 빈 칸을 채워 넣은 것을 수정해 달라며 발간 날짜에 임박해 자료를 늦게 올려준 옛 친구들을 보며, 귀찮음에 짜증도 나지만 그들의 그 요구에 울

컥하며 학산이라는 소속감과 동지의식을 진하게 느낀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늦게사 발견하고 바꿔달라고 연락할 정도로 이 한 명 한 명 학산 회원의 소중한 추억을 알피니즘이라는 칼날로 재단한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음은 또한 가슴 아픈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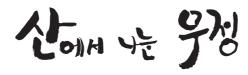
산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한 때 산을 다녔던 짧은 시간이 유한한 인간사에서 이토록 소중한 것을 보며, 산에 대한 경외감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짧은 인간사에 대한 비감!

그러나 이 삶이 짧지만 전부인 우리에게 있어 그 때 산에 다녔던 추억은 소중하기에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그 바쁘다던 친구들이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한다.

학산의 정을 나는 진정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부족한 것이 가슴 시리게 아쉽다.

히말라야 이야기를 위주로 공적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미안하다.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하얀 산의 목록이 아닌 진짜 사람 냄새나는 우리의 산에서 나눴던 소소한 정담을 기록하고싶다.

광주 · 전남 학생산악연맹 50년사



발행일| 2014.11.07.

발행인| 김경자

발행처|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월드컵경기장내

Tel_ 062-526-4950

인쇄처| 🔷 남도기업사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7

Tel_ 062-227-9918

ISBN 978-89-957398-5-3 03810

